

평택 역사 산책

글과 사진 김해규

 평택시립장당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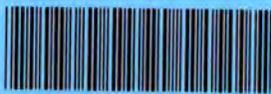
HM0015029

평
911.59
ㄱ979ㅍ
c.2

평택 역사산책

글과 사진 김해규

 평택시립장당도서관



HM0015029

책을 펴내며

대학시절 역사교사가 되면 지역사를 연구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평택이라는 지역의 역사교사가 되었다. 교사가 되고 두 해쯤 지나 학생들과 함께 향토답사와 지역조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선행연구자도, 그렇다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이 시작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 지,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알지도 못했다. 막막한 가슴을 부여잡고 '향토사' 또는 '평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은 무조건 구해서 읽었다. 방학 때만 되면 국회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돌며 사료수집에 매달렸다. 하지만 학문은 열정만 가지고 좌충우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공주대학교 이혜준선생님과 몇몇 선행연구자들을 만났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는 지수걸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역사연구로도 세상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지역사연구는 문화제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 역사적 시각으로 지역을 분석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안성지역 사회운동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쓰게 된 것은 깨달음의 작은 결과였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향토지 편찬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택지역신문에 '향토사연구재'를 시작한 것도 그 때쯤이다. 신문연재는 필자에게 게으름에서 탈피하여 꾸준히 연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런데 2, 3년 신문연재를 하다 보니 밑천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사료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쯤 근·현대사 사료는 도서관의 서가와 수장고보다는 민중들의 기억 속에 더 많이 남아 있을 거라는 깨달음이 왔다. 평택지역 마을조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을조사 성과를 정리하여 몇 권의 책을 출판하고, 각종 향토지 편찬에 참여하면서 평택지역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생겼다.

2001년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실시한 향토사강좌를 계기로 연구성과들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느꼈다.

이듬 해 '평택향토문화동호회'를 조직하고 '향토문화학교'를 열었다. 일인 다역을 감당하며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하여 강좌를 개최하고 향토답사를 실시하였다. 시민들과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평택시청의 도움을 받아 '평택문화유산알림이' 양성교육도 시작하였다. 여름방학 때는 어린이들과 '향토문화체험학교'도 개최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평택시와 경기문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문화유산 안내서와 연구성과를 책으로 엮어냈다. 모든 것이 미숙했고 힘은 들었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펄펄 넘쳤던 시기였다.

이 책의 내용은 2009년부터 지역신문과 잡지, 몇몇 매체에 기고했던 글이다. 연재했던 글이다 보니 중복된 내용도 많고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쓰여진 것도 많다. 미숙한 능력 때문에 다시 고쳐 써야할 부분도 많았다. 모든 글이 최고의 연구성과를 담보한 것은 아니지만 평택지역 역사연구에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상에 내놓는다. 저간의 사정으로 각주와 참고문헌도 달지 못했다. 책의 이름이 '평택사연구'가 아닌 '평택 역사산책'이 된 것도 그와 같은 한계 때문이다.

책을 펴내며 몇몇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먼저 평택시민신문, 평택자치신문, 경인일보, 굿모닝병원 등 필자의 줄고를 실어주고 널리 알려준 매체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책을 출판하면서 경기문화재단의 강진갑선생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빛을 졌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필자의 원고는 아직까지 컴퓨터 안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 이은아, 그리고 은채와 진현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가족은 필자의 든든한 활동기반이며 살아 있는 이유다. 연구자의 올바른 자세와 지역사연구의 방향을 깨닫게 하셨던 고(故) 정승모선생님과, 평택시민신문에 함께 연재하였던 장현환, 김성경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선명한 역사 의식과 바른 연구자세로 더 나은 성과들을 만들어 독자들과 함께 나눌 것을 약속드린다.

2013년 2월

동작동에서 들풀 김해규

01 역사산책

- 010 왜 평택인가?
- 015 평택은 언제부터 경기도에 속했나?
- 019 평택은 선사문화의 보고(寶庫)
- 022 왜구의 침입, 서평택이 불타오르다
- 026 포승읍에는 국염목장이 있었다
- 030 이인좌의 난, 평택지역 사족(士族)을 재판하다
- 037 전란(戰亂)과 평택지역의 무인(武人)들
- 042 정유재란과 소사벌대첩
- 046 평택현감을 지낸 정제두와 이승훈
- 050 청일전쟁, 한반도 식민지화의 서곡
- 054 평택역, 평택의 근대를 열다
- 058 철도가 만들어 놓은 근대도시 평택
- 062 평택지역 최대의 민중운동이었던 3.1운동
- 065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청년운동
- 069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교육운동
- 073 수진농조, 일제강점기 진보적 사회운동
- 076 평택, 학교의 탄생
- 080 일제강점기 평택 최고의 부자는?
- 084 원폭피해자들은 평택에도 있다
- 088 한국전쟁, 평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 092 기지촌, 소통의 사각지대에 갇히다
- 096 도두리들은 농투성이들의 목숨이다
- 100 한국전쟁과 평택지역 피난민들
- 104 칠원동은 새마을운동의 메카
- 106 송탄(松炭)을 이해하는 키워드
- 111 서평택(西平澤)의 탄생

지리산책 02

역사가 있는 마을을 만들자	116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들	119
지명에 담긴 평택사람들의 삶과 역사(1)	123
지명에 담긴 평택사람들의 삶과 역사(2)	126
평택시 인구 어떻게 변했을까?	130
소사벌은 평택시의 대표 사적(史蹟)	134
춘향이길로 불렸던 삼남대로	136
이몽룡 삼남대로(三南大路)에서 길을 잃고 헤메다	140
임금도 쉬어갔던 주막거리 갈원(葛院)	143
화천역, 역말 것들 역말 놈들	147
평택지역의 나무와 포구	151
평택지역과 조운(漕運)	158
대진(大津), 대당교역항이 평택항으로	161
하양창은 고려시대의 국제청	164
고덕면 해창리의 해창(海倉) 터	166
양성현의 해창 옹포(甕浦)	168
평택항과 함께 사는 포구마을 만호리	172
평택지역사연구의 키워드 간척(干拓)	175
소금, 백색의 황금	179
김장, 배추와 젓갈의 환상궁합	183

- 188 수도사는 원효의 견성오도 성지(聖地)
- 191 천년고찰 망한사
- 193 대동법시행기념비
- 198 조선시대 교육과 평택지역의 향교
- 203 평택지역의 관아유적
- 206 평택유일의 포의서원 터
- 209 평택지역 성곽유적보존 시급하다
- 212 용성리는 산성(山城) 마을
- 214 평택에는 망해산 봉수(烽臺)도 있다
- 216 평택에도 미륵(彌勒)이 산다
- 218 충효(忠孝)의 가치를 상징하는 양세충효정문
- 221 개항기 영의정을 지낸 심순택 옛집
- 224 명창 이동백의 집터는 사적(史蹟)
- 226 옛 시(詩)로 읽는 평택의 풍경(1)
- 230 옛 시(詩)로 읽는 평택의 풍경(2)
- 234 평택사람들의 새해맞이
- 236 평택의 정월(正月)
- 240 정월대보름의 축제 오룡동 줄다리기
- 243 산신제(山神祭)는 보존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
- 245 사라져가는 원평동의 근대문화유산
- 248 서탄면 사리 이동협동조합유적
- 252 세교동 은실마을 당계
- 256 양교5리 여술마을 문장자고개 전설

인물산책 04

평택에서는 인물이 날 수 있을까?	262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누구인가?	266
원균, 지나치게 폄하(貶下)된 영웅	269
정치인의 모범 잠곡 김육	273
최경, 조선전기 인물화의 대가	275
죽음으로 불의에 항거한 우남양	277
평택지역 사림파의 뿌리 최수성	280
백성들이 먼저 추앙했던 충의공 한온	284
정해왜변(1587)의 영웅 이대원	288
덕원군 이서, 조선시대 왕족의 삶	293
홍익한, 조선후기 충신의 모범답안	298
적과의 동침, 이괄 이성부 유적	302
도끼날 정승 이광좌의 묘	304
난세는 영웅을 원한다	307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 경주 이씨	310
밤울미와 겸당의 영일 정씨	314
전통의 명가(名家) 도일동 진주 소씨	318
이용익 선정비	322
진위향교 앞 능성 구씨 송덕비	325
평택지역의 예인(藝人)들	327
국악현대화의 선각자 저영희	331
우리시대의 가객 정태춘	335
그녀 황필순	338
삼팔따라지의 삶과 회한	343

평택역사산책

수진농조 · 일제강점기 진보적 사회운동

평택 · 학교의 탄생

일제강점기 평택 최고의 부자는?

원폭피해자들은 평택에도 있다

한국전쟁 · 평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기지촌 · 소통의 사각지대에 갇히다

도두리들은 농투성이들의 묵숨이다

한국전쟁과 평택지역 피난민들

칠원동은 새마을운동의 에카

송탄을 이해하는 키워드

서평택의 탄생



역사산책

01

왜 평택인가?

평택은 언제부터 경기도에 속했나?

평택은 선사문화의 보고(寶庫)

왜구의 침입·서평택이 불타오르다

포승읍에는 국영목장이 있었다

이인좌의 난·평택지역 사족을 개편하다

건란(戰亂)과 평택지역의 무인(武人)들

정유재란과 소사벌대첩

평택현감을 지낸 정계두와 이승훈

침일전쟁·한반도 식민지화의 서곡

평택역·평택의 근대를 열다

철도가 만들어 놓은 근대도시 평택

평택지역 최대의 민중운동이었던 3.1운동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청년운동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교육운동

왜 평택(平澤)인가

1. 평택에서 에베레스트를 꿈꾸는 사람은 바보다

평택지역은 동고서저의 우리나라 지형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하여 구릉이 발달하고 평야가 넓다. 평야 사이로는 크고 작은 하천이 흐른다. 평택(平澤)이라는 지명에는 이 같은 자연 조건이 녹아있다. 조선전기의 대분호 서거정은 평택을 지나며 이런 시를 남겼다.

언덕하나만이 겨우 높고 사면은 편편한데	(一壘差高西面平)
돌아오는데 해는 저물어 외로운 정자에 오르누니	(歸來日暮上孤亭)
이 고장이 바다와 인접하여 물고기가 많이 나고	(地曾根海魚蟹)
들판에 가을이 깊으니 벼기리 뿐이로다.	(野已深秋足稱稊)
구름은 창공 다했는데 기리기 그림자를 머금었고	(雲書長空極雁影)
밀물이 옛 나루에 밀려오니 물비린내 띠었구나	(潮回古渡帶龍腥)
우리 집 두어 이랑 거친 논밭을	(我家數畝荒田石)
어느 날 돌아와서 백구와 함께 놀지는 언약을 지킬는지	(何日來壽白鷗盟)

서거정, 평택현 관가정에서

평야가 넓은 고장에 높은 산이 있을 리 만무하다. 평택지역의 산들은 최고 200미터에서 최저 10미터까지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산으로는 무봉산, 백운산, 팔용산, 태봉산, 부락산, 덕암산, 오성산, 고등산, 마안산, 자미산, 비파산, 무성산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무봉산(208.6m)은 평택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무봉산 앞의 부산(123m)은 조선시대 진위현의 진산(晉山)이었다. 조선시대 무봉산과 부산에는 진위현의 성황사, 사직단, 여단이 있었고, 지금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과 만기사가 있다.

덕암산(해발 164.5m), 팔용산(122.2m), 태봉산(158.2m), 백운산(192m)도 중요한 산이다. 부락산과 덕암산 자락은 조선시대 평택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수백 년 연륜이 깊은 동족마을과 유력 가문의 묘역, 다양한 문화유산이 숨겨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봉 청도전 유적, 원균장군 유적도 덕암산 기슭에 있다. 팔용산은 안성시 원곡면과 평택시 도일동의 경계이고, 진위면 마산리의 태봉산은 예로부터 삼남대로 작은 흰치고개가 넘었던 험로였다. 마산리 주민들은 정월 대보름 태봉산 염봉제에 올라 망월을

하였다. 장날에는 염봉재를 넘어 서정리장과 평택장을 보러 다녔다. 임진왜란 때에는 원군의 아우 원연이 의병을 이끌고 태봉산에서 왜군과 싸웠다.

백운산은 안성시와 평택시의 경계를 이룬다. 월곡동과 죽백동, 청룡동이 평택시에 편입되기 전(1983년)에는 백운산도 안성시에 속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정월대보름 월곡동 주민들이 망월을 하였으며, 지금도 새해 첫날에는 월곡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맞이 축제를 연다. 백운산 아래에는 도예가 임남재씨의 행천도예가 있다. 행천도예에서는 매년 5월 혼불제를 개최한다. 백운산이 비보하는 월곡동에는 옛 관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월곡2동 관동이라는 마을이름도 관아의 흔적을 엿보게 한다.

2. 송탄의 주봉(主峰)은 부락산

부락산(負樂山, 148m)은 송탄지역의 주봉이다. 부락산은 조선시대에 부락산(負樂山), 조락산(鳥落山), 불악산(佛樂山), 요악산(佻樂山) 등 다양하게 불렸다. 1970년대까지는 불악산이라는 지명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부락산으로 부른다. 부락산 아래 동령마을은 고려시대 이래 송장부곡의 중심이었다. 이층동 반지산 일대에는 조광조와 오달제의 유허가 남아 있어 '이충(二忠)'이라는 지명이 유래되었다. 부락산 북쪽 우곡(소골)마을에는 영조4년(1728) 무신 난(이인좌의 난)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진주 소씨 가문의 전설과 묘역이 남아있으며, 부락산과 덕암산 사이로는 삼남대로의 험로 흰치고개가 넘어갔다.

오봉산(112m)은 오성면 양교리에서 청북면 토진리에 걸쳐 형성된 산이다. 본래 5개의 봉우리가 짝지어 '오봉(五峰)'이라고 하였다. 이 산은 오성면, 청북면 일대에서 가장 높고 큰 산이다. 그래서 오래된 반촌(班村)들인 양교리의 양다리, 고령, 대검당, 여술, 새터, 토진리의 국길, 톳나루와 같은 마을들과 애기장수 설화, 문장자고개 전설이 전해온다.

고등산(해발 140m)과 마안산은 현덕면 덕목리에서 신왕리, 대안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 남쪽은 안성천의 하류로 신왕나루, 구진나루가 있었고, 동쪽에는 심복사가 있다. 북쪽 덕목3, 4리와 대안리 작은밭골은 고려시대 광덕현의 중심마을이다. '현덕'이라는 지명도 현암(玄岩)과 광덕(光德)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고등산의 본래 이름은 광덕산이다. 군사기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산 정상에는 광덕일대에서 섬기는 성황목이 있었고, 산기슭에도 절터와 서낭당이 있었다. 심복사에는 신라 하대에 조성된 보물 565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있다. 마안산에도 대안리 주민들의 마을제당과 망월(望月)의 흔적이 남아 있다. 마안산의 옛 지명인 '망운대' 또는 '망월대'도 망월(望月)과 관련이 있다. 마안산에서는 매년 현덕면주민자치위원회와 평택호 마안산문화예술축제추진위원회의 주도로 산신제와 풍어제, 음악회, 시화전이 열리고 새해에는 신년 해돋이 행사를 거행한다.

그밖에도 포승읍의 괴태산에는 괴태길곶봉수가, 팽성읍 망해산에는 망해산봉수가 있었다. 두 개의 봉수는 조선시대 전남 여수 방담진에서 한양 목멱산과 연결되었던 제5봉수로 의 직봉이었다. 팽성읍 객사리의 부용산은 천재개벽 때 떠나려 왔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해발 30m내외의 낮은 산이지만 조선시대 평택현의 주산으로 정상에 관가정이라는 누정이 있었고, 산기슭에는 성황사, 여단, 사직단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부용산은 팽성읍 동쪽지역의 지명(부용면)으로도 사용되었다. 부용초등학교라는 교명은 부용면 시절에 건립되어 유래되었다. 팽성읍의 주산이었던 부용산은 일제강점기 아산 신향리의 해평 윤씨 집안에 귀속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윤보선의 큰 할아버지였던 윤운렬과 그의 후손들의 묘가 그곳에 있다. 서탄면 금암리 입구의 '금암'은 외적이 쳐들어올 때면 쇠북이 되어 동동동 북소리를 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안중읍 덕우리의 자미산, 비파산에는 삼국시대 이래 여러 개의 관방산성(關防山城)이 남아있다.

3. 들이 넓어 평택(平澤)이다

평택지역은 예로부터 들이 넓고 하천이 발달하였다. 큰 하천으로는 안성천과 진위천이 있고, 오산천, 황구지천, 도대천, 통복천, 소사천 등 34개의 하천이 지류(支流)를 형성한다. 조선시대 안성천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였고, 진위현과 직산현의 경계이기도 하였다. 이 하천은 구간에 따라 홍경천, 한천, 남천, 대천(大川)으로 불렸다. 총 길이는 66.4km이고, 유역면적은 1,699.60km²로 만경강이나 동진강 보다 크다. 안성천에는 한천, 청룡천, 유천, 천안시의 입장천, 성환천, 평택시의 통복천, 도일천, 교포천, 대반천, 둔포천 등 19개의 지류가 흐른다.

진위천은 조선시대에 장호천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진위천으로 바꾸었다. 지류(支流)로는 오산천, 황구지천을 비롯하여 지산천, 산하천, 관리천, 서정천, 구천 등 14개가 있다. 오산천은 조선시대 토현천이라고 불렸으며, 황구지천은 내천이었다.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하천으로는 바닷물이 유입되었다. 바닷물은 사리 때 밀물이 밀려들면 안성천은 안성시 공도읍까지 유입되었고, 진위천은 진위면 은산리와 갈곶리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서탄면 회화리 부근까지 들어갔다.

근대 이전의 하천은 조운(漕運)과 상업(商業), 어업(漁業) 그리고 교통로(交通路)로 활용되었다. 평택지역 하천의 주요 나루, 포구로는 평택시 군문동의 군물포(군문포), 팽성읍 석봉리의 원봉나루, 대추리의 곤지진, 노양리의 경양포(계양), 진위천의 이포진, 다라고비진, 동청포, 향곶포, 현덕면의 신흥포, 구진, 계두진, 아산만의 대진, 청북면의 웅포, 토진,



[진위천 오성면 신리부근 (2008)]

호구포, 자오포가 꼽힌다. 군문포는 경기도 진위현에서 충청도 평택현으로 건너하는 나루였다. 또 이포와 다라고비진은 고덕면에서 서평택 방향으로 건너하는 나루였으며, 동청포는 고덕면 종덕(宗德)에서 청북면으로, 향곶포는 서탄면 금각리, 황구지리에서 화성시 양감면으로 건너가는 나루였다. 아산만의 대진은 삼국시대에는 대중국 교역항으로,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내포지역과 소통했던 포구였다. 계두진은 아산과 소통되었으며, 신왕리의 신흥포는 팽성읍 노양리의 경양포, 백석포와 연결되었다. 구진은 아산만 하류 어업활동의 중심나루였고, 청북면의 용포는 양성현의 해창으로 조운과 상업이 발달하였다. 팽성읍 노양리의 경양포는 고려시대 전국12조창이었던 하양창이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직산현과 평택현의 해창이었다. 포승읍 흥원리의 자오포, 호구포는 흥원곶목장에서 기른 말이 실려 나갔던 나루였다.

4. 간척(干拓)으로 경제력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

평택지역의 역사는 '간척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1974년 아산만 방조제가 준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유입되었던 곳이 평택이었다. 간척지와 황무지의 간척은 고려 말, 조선 초에도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조선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며 완성되었다. 조선후기 간척의 주체는 궁실(宮室)과 왕족(王族), 국가기관(國家機關), 권세가(權勢家)들이었다. 궁실에서 간척한 땅들은 '궁방전'이라고 하고 관청에서 간척한 땅을 둔전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안성천과 진위천 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궁리, 안궁리, 신궁리, 평궁리 등 궁(宮)자가 들어간 지명들은 '궁방전'의 존재를 말해주는 흔적이다. 엄청

난 규모의 공방전은 일제강점기 대부분 총독부에 귀속되어 동양척식(주)나 일본인 또는 친 일파들에게 불하되었다. 이것이 해방 후 적산농지로 분류되어 농민들에게 불하되면서 오늘날에는 일반 농민들의 소유지로 바뀌었다.

간척은 산미증식계획과 일제 말 전시체제기를 거치며 대규모로 이뤄졌다. 평택 최대의 들판인 오성들, 안화들이 간척된 것도 이 시기다.

한국전쟁 뒤에는 전쟁피난민들을 동원하여 도두리들, 중심리들, 개척단들이 간척되었다. 1960, 70년대에는 대청댐 수몰민과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빈농들도 간척에 동참하였다. 바닷가로 몰려든 빈민들 중에는 소규모 간척사업을 통하여 농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안성천 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보리원, 홍원, 안두원, 길마원 등 '원'이 들어간 마을지명이 그 시기의 흔적이다. 간척사업은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고 경지정리 사업이 실시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간척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해도 평택지역의 인구밀도는 매우 낮았다. 고려시대 이전 '향·소·부곡'이 많았던 것도 낮은 인구밀도와 생산성 낮은 토지 때문이었다. 평택지역의 인구증가는 간척사업이 본격화되는 조선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세종실록지리지에서 4,000명도 계수되지 않던 인구는 호구총수가 작성되었던 18세기 말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으며, 근대 이후 철도가 놓이면서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와 같은 인구는 한국전쟁 뒤 미군기지촌의 형성과 공업화의 산물이다. 앞으로도 평택시는 농업보다는 공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 것으로 판단되어 인구의 가파른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11)

평택(平澤)은 언제부터 경기도(京畿道)에 속했나?

1. 경기도의 변방, 복잡한 행정구역

평택시는 안성천과 진위천을 경계로 남부, 서부, 북부지역으로 구분된다. 세 지역은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각기 다른 행정구역이었다. 안성천은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였다. 안성천 북쪽은 경기도였지만 남부는 충청도, 서부는 경기도와 충청도 여러 고을의 월경지(越境地) 또는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였다.

삼한시대 평택지역은 마한(馬韓)의 영역이었다. 그러다가 기원후 3세기 경 백제의 지배를 받았고, 5세기 후반에는 안성천 이북지역만 고구려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 백제시기 안성천 이북은 송촌활달 또는 연달부곡이었다. 남쪽은 아술현(阿山)의 영역이었다가 나중에 하팔현으로 편제되었다. 고대 행정구역의 큰 변화는 5세기와 8세기에 이뤄졌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고구려가 안성천 이북을 지배하면서 연달부곡은 부산현으로 개편되었고, 서평택지역안중읍 용성리 일대에는 거흥현이 설치되었다. 통일 후 신라 경덕왕 16년(757)에는 대대적인 행정구역개편이 단행되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안성천 이북에는 진위현과 영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 안성천(2008)]

신현이 설치되었고, 남쪽 하팔현은 평택현으로 개편되었다. 서평택지역에는 기존의 거흥현 또는 수릿골이 차(次)성현으로 바뀌었으며, 현덕면 일대에는 광덕현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지배가 강화되면서 행정구역이 더욱 복잡해졌다. 기존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였던 지역까지 고을이 설치되었으며, 서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종덕장, 신영장, 오타장과 같은 장이나 처, 포내미부곡, 육내미부곡, 송장부곡, 천장부곡, 백량부곡, 감미부곡과 같은 여러 개의 부곡(部曲)이 설치되었다. 또 기존의 진위현, 영신현, 평택현, 용성현, 광덕현 외에도 팽성읍 서쪽 노양리, 본정리 일대에는 경양현이 설치되었다. 경양현의 설치에 팽성읍 노양리 경양포에 하양창이 설치된 것과 관련이 있다. 하양창은 전국 13 조창(漕倉)의 하나로, 경양현의 수령은 조운(漕運)과 염(鹽)장관을 겸하였다.

2. 조선시대에는 세 지역으로 분할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교통망이 확보되고 중앙집권이 강화되자 복잡했던 행정구역은 점차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태종 15년(1413)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군현(郡縣)을 정비하였으며, 세종 14년(1432)에는 330여 군현(郡縣)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점차 속현과 향, 소, 부곡이 사라지고 장(莊)이나 처(處), 역(驛), 진(津) 등이 일반 군현에 통합되었다.

조선 초에는 평택지역 대부분이 충청도에 속하였다. 그러다가 태조 7년(1398) 진위현을 비롯한 안성천 북부지역의 고을들을 경기도로 옮겼다. 경기 좌·우도가 경기도로 개편되면서 영신현(永新縣), 송장부곡(松莊部曲), 천장부곡(川莊部曲), 청호역이 진위현으로 통합되어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또 양성현에 속했던 종덕장과 신영장을 수원부에 이속(移屬)시켰으며, 세종 때에는 진위현의 호(戶)가 너무 적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용인현과 의신현의 일부를 떼어주었다.

진위천 서쪽은 수원도호부와 양성현, 충청도 직산현의 월경지 또는 건아상입지였다. 대체로 수원도호부는 지금의 청북면 일부와 오성면, 포승읍, 현덕면 일부를 영역으로 삼았으며, 양성현은 도일동, 장당동, 고덕면 율포리를 거쳐 청북면 현곡리와 삼계리에 이르는 건아상입지와 포승읍 내기리, 도곡리, 원정리 일대의 월경지를 영역으로 하였다. 직산현은 지금의 팽성읍 노양리, 본정리의 옛 경양현 지역과 안증읍 일대 포승읍 신영리 일부, 오성면 일부를 월경지로 갖고 있었다.

안성천 남쪽은 조선시대 내내 충청도 지역이었다. 현재의 팽성읍에는 충청도 평택현이 설치되었고, 평택현 서쪽에 있었던 경양현은 직산현 경양면으로 편입되었다. 평택현은 고을이 작으려다 충청도와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하여 행정구역의 변화가 심했다. 세조 5년

(1459)에는 아산현의 아전이 횡포를 부리는데다 읍치(邑治)가 풍수지리적으로 물에 잠길 형국이라는 이유로 아산현의 일부를 나누어 관할하였다. 또 연산군 11년(1505)에는 직산현, 진천현, 아산현과 함께 잠시 경기도로 이속되었으며, 중종 1년(1506)에 다시 충청도로 환원시키는 조처를 당하였다. 임진왜란은 평택현에 큰 피해를 주었다. 왜군이 주둔하는 바람에 고을은 대부분 불에 타버렸으며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전쟁의 피해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자 조정에서는 평택현을 폐(廢)하고 직산현에 편입시키는 조처를 하였다.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나고 평택현 백성들이 고을이 복구되기를 요구하자 광해군 3년(1610)에 다시 복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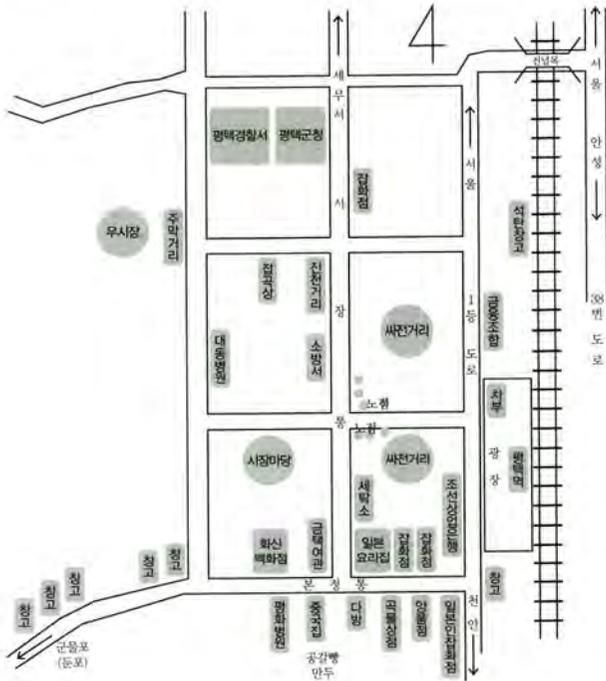
3. 일제강점기에 경기도가 되다

조선시대 행정조직은 고종32년(1895) 전국을 23부제로 개편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23부제 실시로 평택지역은 월경지가 사라지고 안성천 북쪽에 진위군, 진위천 서쪽에 수원군, 안성천 남쪽에 평택군이 설치되었다. 고종 33년(1896)에는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진위군과 수원군은 경기도, 평택군은 충청도에 속하게 되었고 직산군의 지배를 받았던 옛 경양현 지역이 평택군으로 옮겨왔다.

오늘날과 같은 행정구역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뤄졌다.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크고 작은 고을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지방행정체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은 경기도의 진위군과 수원군, 충청도의 평택현이 통합되어 경기도 진위군이 되었다. 통합 진위군의 중심은 진위면 봉남리였다. 하지만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 진위군 병남면 통북리 일대에 '평택역'이 설치되자 양상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철도역 주변에는 '평택'이라는 식민지형 근대도시가 발달하였고, 평택은 유리한 교통망과 상업발달에 힘입어 봉남리를 제치고 점차 진위군의 중심이 되어갔다. 1910년대부터는 시장과 금융기관 뿐 아니라 헌병분견대, 우편소, 세무서와 같은 주요 관공서가 평택역 주변에 설치되었다. 그러자 1926년경에는 봉남리의 진위군청까지 옮겨왔으며, 1931년에는 진위군 병남면이 '평택면'으로 바뀌었고, 1938년에는 평택면이 읍(邑)으로 승격되면서 군(郡)의 명칭이 '평택군'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평택역 주변의 구 시가지가 유엔군의 폭격으로 재기불능의 피해를 입었다. 도시가 파괴되면서 군청, 경찰서, 철도역을 피해를 적게 입은 철길 동쪽으로 옮겼으며, 평택시장도 함께 이동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송탄면과 팽성읍에 미군기지가 주둔하였다. 미군기지는 전쟁의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던 빈민들과 월남한 피난민들에게 일자리와 높은 수입을 보장하였다. 기회를 찾아 많은 사람들이 미군기지 주변으로 몰려들면서 평

택시 신장동 K-55 오산기지 주변과 팽성읍 안정리 K-6 캠프 험프리즈 일대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기지촌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1년 송탄읍이 평택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송탄시로 승격되었고, 1979년에는 팽성면이 팽성읍으로 승격되었다. 평택읍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신도시 건설에 성공하여 1986년 평택시로 승격되었다. 평택군, 평택시, 송탄시로 분리되었던 평택지역은 1995년 정부의 시·군통합정책에 따라 현재와 같은 도농복합도시 평택시로 통합되었다.(2010)



일제시대 구 평택(원평동) 시가지
 < 2004년 제작 >

평택지역은 선사문화의 보고(寶庫)

1.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평택지역

인류의 역사는 문자의 발명을 기준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한다. 선사시대는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구석기, 신석기시대를 말한다. 그래서 선사시대 생활모습은 대부분 발굴에 의존하여 유추한다. 발굴을 통하여 출토된 각종 도구들과 집자리 유적은 선사시대 생활모습을 알려주는 타임머신과 같다.

평택지역은 선사문화의 보고다. 평택의 지형은 서쪽으로 바다와 인접하였고, 동쪽으로 차령산맥의 지맥이 흐르며, 동남쪽으로 광주산맥의 지맥이 에워싸고 있는 삼태기 형국이다. 낮은 구릉과 하천 그리고 바다가 인접한 지형적 조건은, 사냥과 고기잡이, 나무열매나 뿌리식물을 채집하며 살았던 구석기, 신석기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생활환경이었다. 높은 지형에서 밀려 내려온 충적토는 소규모 농경을 시작했던 신석기, 청동기시대 사람들에게 좋은 경작지를 제공했다.

평택지역의 선사유적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평택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공단개발이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는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발굴조사는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이라는 한계를 지니고는 있었지만 다양한 층위에 숨겨진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해내는 계기가 되었다.

2. 신석기, 청동기 유적은 수두룩하다

포승읍 희곡리는 평택항과 가까이 있다. 선사시대인들의 주거지는 바다나 강가에 위치한 구릉지대에 많다. 바닷가나 강가는 해산물과 어족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소규모 원시농경에도 적합하였기 때문이다. 희곡리에서는 구석기유물이 출토되었다. 1995년 충북대학교 선사문화연구소의 발굴조사결과에 따르면 희곡리유적은 7개의 층위로 구성되었는데 네 번째 층위의 토탄층 아래에서 찹쌀, 밀개, 굽개 등 다양한 편석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포승읍 원정리 명거니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광범위한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었다. 1995~1996년까지 아주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공동발굴조사에 따르면 멍거니유적에서는 1,000여 평에 이르는 패총(조개더미)과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토기편, 석기류, 조선시대 집자리 등이 발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경남 김해나 부산 동삼동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대 패총유적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존되지 못한 것이다. 그밖에도 안중읍 현화리 유적에서는 여러 편석기 유물, 포승읍 석정리 유적에서는 몸돌과 여러면석기, 안중읍 대반리 유적에서는 돌망치와 여러면석기, 안중읍 송담리, 용성리 비파산성유적에서는 금개, 오성면 양교리 유적에서는 격지 등이 발굴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평택지역이 연천 전곡리나 공주 석장리처럼 세계적인지는 않지만 다양한 구석기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는 중요한 선사유적임을 알게 하였다.

이밖에도 평택지역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유적, 유물은 많다. 포승읍 원정리 유적에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빗살무늬토기와 돌칼, 돌자귀 그리고 불을 피우고 토기를 구웠던 야외 노지(爐址)가 발견되었다. 또 안중읍 현화리와 포승읍 원정리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집자리와 무늬 없는 토기, 돌화살촉, 공염문토기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고, 안중읍 대반리, 청북면 백봉리, 후사리, 토진리, 오성면 안화리, 평택시 칠괴동 등에서도 무늬 없는 토기 조각과 여러 종류의 간석기, 공염문토기 그리고 여러 모양의 집자리 유적이 발견되었다.

3. 소사동에는 청동기유적공원이 조성되어

평택시 지제동유적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까지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된 중요한 유적이다. 1977년에서 1999년 사이에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와 집자리 유적을 비롯하여, 청동기시대 농기구인 반달돌칼, 돌화살촉, 돌도끼, 돌창, 갈돌 홈자귀 등 다채로운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중읍 현화지구와 송담리 유적, 팽성읍 추팔리 유적에서는 매우 다양한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었고, 이밖에도 근래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던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세교지구, 고덕국제신도시지구에서도 놀랄만한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위에 열거한 유적 가운데 보존이 제대로 이뤄진 유적은 거의 없다. 굳이 말한다면 포승읍 원정리 멍거니유적과 소사동 청동기시대 집자리 유적만이 지역사회의 관심에 힘입어 보존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그것마저도 원정리 유적은 중요한 발굴성가로 꼽히는 패총(조개무덤)과 구석기, 신석기유물들은 개발논리에 밀려 묻혀버리고 조선시대 집자리 유적만 이전 복원하여 평택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소사동 청동기유적공원은 소사SK-뷰 아파트 건너편 언덕에 있다. 2006년과 2008년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발행한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청동기시대 집자리 유적을 비롯하여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 공원 안에는 안내판과 함께 청동기시대 집자리였음을 알려주는 흔적들이 잔디에 덮인 채 곳곳에 전시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주거지와 마을의 모양,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알게 하는 장치는 어디에도 없어 진한 아쉬움을 준다.

4. 평택에도 선사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해방 후 한반도에서는 대단히 많은 선사유적이 발견되었다. 선사유적 발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공주 석장리 유적을 비롯하여 단양 수양개, 서울 암사동, 대전 노은동, 강원도 양양, 인천 검단유적이 그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받았던 유적은 공주 석장리와 연천 전곡리 유적이다. 전곡리유적은 1978년 미군병사로 근무하던 보웬이 처음 발견한 뒤 십 수 차례의 발굴로 20만 년 전의 후기 구석기유적임이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처음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무려 4천여 점의 선사유물이 수습되었을 뿐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을만한 다양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역 별로 박물관 건립이 활발하다. 박물관 건립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콘텐츠로 개발하여 시민들과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선사유적은 고장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입증하고 교육자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콘텐츠여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1년 4월 연천 전곡리에 개관한 전곡선사박물관과 단양의 수양개 선사유적박물관, 양양의 오산리 선사박물관, 인천의 검단선사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양구선사박물관은 이와 같은 노력의 성과물들이다.

필자와 교분을 나누는 모 대학의 고고학 교수는 평택지역의 선사유적은 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전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사유적에 대한 관심과 이것을 콘텐츠화하여 박물관을 건립한다던가, 학술축제 등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전국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미미한 실정이다. 선조들이 우리 눈앞에 차려준 밥상마저 차버리는 후손들의 이 같은 처사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고장이 경제적으로만 풍요로운 도시가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도 자긍심을 가진 건강한 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일이다. (2011)

왜구의 침입으로 서평택이 불타오르다

1. 최무선이 화약을 제조한 것은 왜구(倭寇) 때문

얼마 전 알고 지내는 후배가 '왜구(倭寇)'가 뭐냐고 물었다. 왜군(倭軍)에 대한 별칭인지 아니면 다른 개념의 군대인지 궁금하다는 거였다. 사실 우리나라 사서에 보면 왜군과 왜구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 왜군이 분명한데도 왜구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왜구 같은데도 왜군이라고 서술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한자사전에서 왜구(倭寇)는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도둑 또는 원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왜군은 일본의 정규군을 의미한다. 상반된 개념의 두 단어가 중복되어 기록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역사적 관계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대한 라이벌 관계, 또는 전통적으로 일본을 하찮게 여기는 정서와 관련 있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왜구들이 우리나라 변경을 침입하고 노략질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록에는 신라 내물왕 때 왜구의 침입이 있었다고 하며, 문무왕이 동해 바닷가에 무덤을 만들라고 유언한 것도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호국의지였다. 역대 왕조의 국왕들도 왜구의 노략질을 막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왜구의 노략질이 가장 기승을 부렸던 시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다. 고려 말 일본은 막부교체문제로 57년 동안이나 국가가 남북으로 나뉘었던 남북조시대의 혼란기였다. 국가의 권력이 남북으로 나뉘다보니 중앙의 권력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했고, 오랜 전란으로 민중들의 삶이 피폐되었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전쟁에 동원되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하급무사들과 전란과 기근으로 농토를 상실하고 유랑하던 농민들, 막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던 변방의 영주들과 백성들이 왜구(倭寇)가 되었다. 왜구들 가운데는 서부지역 출신들이 많았다. 일본의 서부 지역은 일찍이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일본원정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었다. 고려 후기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왕실이 1년에 2척씩 교역하였던 대 일본 조공무역을 중단한 것도 왜구침입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왜구의 규모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 천 명에 이를 만큼 규모가 컸다. 예컨대 1380년 왜장 아지발도가 이끌었던 왜구는 전함만도 5백 척이 넘었고, 기병 1,600명에 보

병 4~5천 명에 이를 만큼 대부대였다. 아지발도의 왜구는 진포대첩에서 나세와 최무선에 게 격퇴되자 육지로 올라와 전라도와 충청북도 일대를 휩쓸며 약탈하였고, 개경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다가 황산대첩에서 이성계에게 패하여 거의 전멸하였다. 1377년에는 개경 근처 교동도까지 침입하였으며, 삼남지방은 물론 경기도와 황해도 일부까지 약탈을 자행하였다. 왜구의 공격대상은 식량과 생필품이었다. 고려 말 전국 곳곳의 조창(漕倉)과 조운선(漕運船)이 공격당한 것은 그런 이유였다. 노예로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도 약탈 품목에 들어갔다. 그러다보니 고려는 삼남의 해안지방 뿐 아니라 내륙까지 왜구에게 약탈을 당하여 국토가 황폐해지고 민중들은 아비규환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약탈한 양도 많을 때는 미곡 4만석에 이르렀고, 강화도에서는 무려 1천 여 명의 백성들을 잡아갔다고 하니 일반 도적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잔혹했음을 알 수 있다.

공민왕 때의 개혁으로 부흥의 기미를 보였던 고려는 왜구의 침입을 막느라 비축했던 국력을 소진하였다. 특히 원나라 지배기에 실시된 두 차례의 일본원정은 보유했던 함선과 훈련된 수군, 조련된 선원과 기술자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일본원정 뒤에도 반란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함선의 건조와 수군 양성을 방해했던 것도 수군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다보니 고려 말 수군력은 형편이 없었다. 최무선이 화약과 화포제작에 심혈을 기울인 것, 최무선과 나세가 진포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은, 빈약한 수군력으로 막강한 왜구를 상대하기 위한 교육책이었다.

2. 평택지역에 침입한 왜구

왜구가 처음 침입한 것은 1223년(고종 10)이었다. 그 뒤로도 1349년(충정왕 23)에도 12차례의 침입이 있었지만 주로 삼남지방을 침입하였고 피해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고려 말에는 42년 동안 무려 506회나 침입하였고, 그 가운데 공민왕 때 74회, 우왕 때는 378회나 침입하였다. 42년 동안 506회라는 기록은 연평균으로 12회 꼴이 된다. 특히 왜구의 침입이 가장 심했던 우왕 때에는 연평균 27회나 침입하였고, 우왕 9년에는 50회나 침입하여 국가운영을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평택지역에서 왜구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곳은 주로 서평택지역과 팽성을 그리고 고덕면이었다. 팽성을 노양리에는 전국 12조창(본래는 13조창) 가운데 하나였던 하양창이 있었다. 또 아산만 하구는 하양창의 조운선이 드나들던 조운로였다. 고덕면 종덕지역(두릉리, 당현리 일대)에는 종덕창이 있었다. 안중읍 용성리, 어소리에도 설창이 있어 약탈의 표적이 되었다. 포승읍 흥원리 흥원곶장의 말(馬)들도 표적 가운데 하나였다. 왜구들은 작은 배를 타고 안성천을 거슬러 안성과 죽산까지 올라가 약탈할 때도 있었다.

왜구들은 침입하면 굶게 식량과 사람만 잡아간 것이 아니었다. 조운선이나 조창을 불사르는 것은 기본이었고, 민가를 불사르고 부녀자들을 포로로 잡아 밤새 주색을 즐겼다. 심지어 두어 살짜리 어린이의 배를 갈라 쌀을 채우고 술을 부어 하늘에 제물로 바쳐 민중들이 치를 떨게 하였다.

왜구가 평택지역을 침입했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 있다. 「고려사」에는 공민왕 7년(1358)에 면주(당진군 면천읍)를 거친 왜구가 용성현(안중읍 용성리)에 침입하자 고려가 군대를 파병하여 적선 2척을 빼앗았다고 기록하였다. 또 공민왕 9년(1360) 5월에는 양광도 평택현과 아주(아산)현 신평에 침입한 왜구가 용성현(안중읍 용성리 일대)까지 올라가 10여 현을 불태우고 약탈했다고 한다. 공민왕 21년에는 양광도 도순무사 조천보가 용성현에서 왜구와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우왕 3년(1377)에는 평택현과 경양현(팽성읍 본정리, 노양리 일대)을 노략질하였고, 그 뒤에도 종덕장, 송장부곡, 영신현 등 평택지역 여러 고을에 침입하였는데 최공철과 왕빈, 박수경 등의 활약으로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평택지역에 침입한 왜구는 정확한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규모를 알 수 없다. 다만 양광도 순무사 조천보가 맞서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기록을 참고할 때 상당한 규모였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고려는 왜구의 침입에 맞서 나름대로의 방비책을 강구하였다. 해안지역의 백성들을 내륙으로 집단 이주시킨 사례나 해안과 강가에 관방산성을 축조하여 대비케 한 것은 이 같은 방비책의 일환이었다. 평택지역에는 왜구의 침입이 빈번했던 용성리 일대에 여러 개의 산성이 축조되었다. 어쩌면 청북면 어소리의 설창이 용성리 설창마을로 옮겨진 것도 왜구의 침입과 관련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

3. 서평택지역의 다양한 설화도 왜구의 영향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왜구 퇴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태종과 세종 때 성곽과 병선을 수리하고 거북선, 화포, 신기전같은 신무기를 개발한 것도 4군 6진개척이나 왜구격퇴와 관련이 깊다. 태종 8년(1408)에는 경기도에도 수군절도사를 파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왜구의 침탈을 많이 겪었던 포승읍 만호리 대진(大津)에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로 조비형(曹備衡)을 파견하였다. 수군첨절제사는 종3품 무관직으로 수군절도사의 아래 단계의 직책이었다. 이것은 그만큼 서평택일대에 왜구의 침입이 빈번하였으며, 아산만 일대의 군사적 중요성이 컸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조선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본의 정세안정으로 왜구의 노략질은 점차 수그러들었다. 왜구의 기세가 꺾이면서 만호리 대진의 군사적 중요성도 약화되었다. 태종 17년(1417) 조운(漕運) 문제로 충청도 관찰사 서선을 파직할 때 대진(大津)에 파견된 관리의 관직명이 수군첨절제사보다 한 단계 아래인 수군만호로

기록된 것은 이 같은 상황의 변화 때문이었다. 그 뒤 만호리 대진의 수군만호는 세조3년(1457) 1월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위치하여 방어가 긴요치 않다'라는 이유로 아산만 하구의 난지도 수군만호로 통폐합되었다.

국방을 위해 수군첨사와 만호가 설치되었다면, 힘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민중들은 다양한 형태의 설화(說話)를 만들어 위안과 희망으로 삼았다. 아산만 일대의 설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영웅암 설화다. 만기요람이나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에 등장하는 영웅암은 행담도 근처의 높이 1백 척이 넘는 바위로 세신영공 또는 영웅바위로도 불려진다. 영웅암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오랜 옛날 아산만으로 왜적이 쳐들어왔다. 나라에서는 왜적의 침입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당황한 민중들은 허둥대며 도망가기에 바빴다. 군사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한 왜적들은 안심하고 아산만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영웅암이 갑자기 장군으로 변하고 주변의 크고 작은 바위들이 병졸로 바뀌면서 크게 호령을 하였다.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군대에 혼비백산한 왜적들은 꿈무늬가 빠져라 도망을 쳤고 그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로 민중들은 이 바위를 '영웅 바위'라고 불렀다.'

수군첨사가 주둔했던 만호리에는 '황장군 설화'가 전해온다. 황장군 설화는 관아 터로 추정되는 원터 마을 상주 황씨 가문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황장군은 신출귀몰한 능력이 있어 하룻밤 사이에 석정리 장성을 축성(築城)하고 왜적을 무찔렀으며, 가마솥에 밥을 안친 뒤 말을 달려 포승읍 원정리 괴태산까지 달려가서 반찬거리를 가져왔을 만큼 날쌔다고 한다. 이밖에도 서평택 일대에는 원정리 장수바위 전설, 덕목리 애기장수 설화, 자미산과 비파산의 애기장수 설화, 오봉산의 애기장수 설화 등 국난을 당해 민중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준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온다.(2012)

포승읍에는 국영목장이 있었다

1. 근대이전에는 말(馬)이 탱크였다

말은 인간과 가장 친숙한 동물 가운데 하나다. 구석기시대까지만 해도 사냥감에 불과했던 말이 인간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시대부터다. 기원전 4000~3000년경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군마(軍馬)가 등장하였다. 기원전 2000년 경에는 전차가 등장하였고 말안장이 고안되었다. 그 뒤로 말은 교통통신수단으로, 밭갈이용 가축으로, 전투에서는 군마(軍馬)로, 때로는 식용으로 인간의 삶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근대이전의 전투에서 말은 기동력과 파괴력을 겸비한 전쟁도구였다. 보병보다 한발 앞서 적진을 휘저었으며 빠른 기동력으로 적의 측면과 후미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일상화 되었던 고대에는 승마나 마술에 능하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도 마를 타고 사냥을 하거나 마장마술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려있다. 특히 고구려인들은 마상(馬上)에서 활을 쏘는 능력이 탁월하여 인접국들이 벌벌 떨며 눈치를 봤을 정도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도 국방강화와 교통, 통신, 농경의 필요성으로 말의 사육에 힘을 기울였다. 마장(馬場)은 전라도나 경상도에도 설치하였지만 대부분 경기만 일대의 도서지역이나 해안에 많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에 53개의 마장(馬場)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병자호란 뒤 북벌을 준비하면서는 약 180여 개의 목장이 증설되었다. 1678년 허목이 제작한 목장지도에는 폐목장 63개를 포함하여 200여 개의 목장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장에서는 주로 말을 사육하였지만 경기만 일대에서는 궁궐이나 상류층들의 식용에 필요한 소나 양, 돼지도 사육하였다. 조선시대 마장은 사복시 소관이었다. 사복시에서는 마장의 관리를 위해 감목관을 파견하였다. 또 운영을 위해 목장전을 지급하였으며 목장 주변 백성들에게 목부(牧夫)의 역(役)을 부과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2. 국영목장이었던 흥원곶 마장과 괴태곶 마장

평택지역에는 포승읍 흥원리 흥원곶과 원정리 괴태곶에 마장(馬場)이 설치되었다. 전해오

는 이야기로는 현덕면 장수리에도 목장이 있었다고 하고, 고덕면 해창2리 마분마을과 남산리 등에 말무덤이 있지만 마장과는 거리가 멀다. 흥원마장과 괴태마장의 설치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15세가 후반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 수원부편과 양성현편에 기록되었으므로 최소한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53개의 목장 안에는 포함되었을 것이다.

목장은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串)을 가로질러 길게 성벽을 쌓은 뒤 말이나 소를 방목하는 형태였다. 때로는 일렬로 뻗뻗하게 나무를 심기도 하였고, 성벽 위에도 촘촘히 나무를 심어 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흥원마장과 괴태마장에도 마장토성이 축성되었다. 흥원마장의 성벽은 처음에는 흥원리 외원마을과 자오마을 사이에 쌓았다가 나중에 낚은성 마을 쪽으로 옮겼으며, 마지막으로는 학현리에서 석정리 감기마을까지 8km에 달하는 장성(長城)을 쌓았다.

괴태마장에도 지금은 포승국가공단에 수용된 원정리 옛곡교마을에서 반대편에 있는 도곡리 당두마을까지 곳(串)을 가로질러 성벽을 쌓았다.

이 토성은 1990년대 중반 평택지역 시민단체의 우리고장 문화유산지킴이운동의 성과로 도곡리 포승국가공단 안에 있는 마을공원에 일부구간만 이전하여 복원하였다.

목장은 조선 초까지 만해도 대부도의 대부목장 감목관이 흥원마장과 괴태마장을 관할하였다. 그러다가 양난(兩難) 이후 흥원마장에도 감목관이 파견되어 괴태마장까지 관할하게 하였다. 목장에는 좌지전(坐地田) 182결과 원전답(元田畓) 76결 49부 6속을 목장전으로 배정하였으며, 목리(牧吏) 3명과 목부(牧夫) 75명을 배속시켰다. 흥원마장에 감목관이 파



[괴태곶목장이 있었던 포승읍 원정2리 마을(2010)]

견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경종3년(1723) 여름 사헌부 지평 심준이 '본래 홍원목장은 대부도의 대부목장 관할을 받았을 때만 해도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이 없었는데 목관(牧官)을 설치하고 별도의 아문을 세운 뒤에는 수탈양이 백배나 되니 목졸(牧)들이 견디지 못하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또 감목관이 목초지의 풀을 베고 땀나뭇 하는 일을 금한 뒤 소금구를 땀감으로 사용하여 폐단이 심하니 감목관을 폐지하고 전처럼 대부목장에 귀속시켜달라'고 상소(上疏)를 올린 것으로 봐서 대략 효종, 현종 때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목관은 사복사에서 파견하였다고 하여 파원(派員)이라고 불렀다. 파원(派員)은 갑오개혁 뒤에는 내장원이나 궁내부에서 파견하였다.

홍원리 자오마을 앞에서 만난 이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조부가 이파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파원(派員)이라는 직명(職名)이 생소하여 '감목관이 아니던가요?'라고 물었지만 자신은 '파원(派員)'이라고 들었다고 하였다. 이씨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파원은 1900년 궁내부에서 파견하였던 이동우였을 것이다. 이동우는 전임 파원 김석규가 비리로 파직당하자 대신 파견되었는데 을사조약 이후 나라가 망하자 홍원리에 정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마장(馬場)의 폐지로 사람으로 거듭난 주민들

마장에 소속된 목부(牧)들의 삶은 고달팠다. 지금도 목장일이 쉽지 않지만 조선시대 국영 마장의 규율은 매우 엄격하였다. 사육하던 말이 도망가거나 운송도중 죽기라도 하면 벌을 받거나 변상을 하는 일도 허다하였다. 그래서 마장의 백성들은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었지만 하는 일이 천하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일명 신랑역천(身良役賤)이었다는 말이다. 더구나 가림주구를 일삼는 감목관이라도 만나면 고역은 가중되었다. 감목관의 가림주구는 앞서 소개한 경종3년(1724) 심준의 상소에도 잘 나타나 있다. 심준은 홍원목장에 감목관을 설치하면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근거에도 없는 조세를 징수하기도 하고, 목장 안에 염분(鹽盆=염뚫)을 설치하고 소금을 구워 이익을 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관리들의 가림주구는 근대이후 지배체제가 약화되고 국영목장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해졌다. 근대교통과 근대무기가 발달하면서 국영목장이 폐지되자 목부들이나 주변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그동안은 대부분 얼마 안 되는 목장전을 경작하여 먹고 살았지만 소작료가 턱없이 비싸서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더구나 대한제국시기 국가기강이 문란해지면서 전직관료나 궁내부 파원들의 수탈과 횡포가 심해지자 백성들은 더욱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광무4년(1901)에는 본래 백성들의 소유였다가 목장을 조성하면서 빼앗겼던 토지를 목장이 폐지되면서 다시 돌려받았던 백성들이, 2년 뒤 궁내부와 탁지부

가 목장전은 둔토였으므로 국가소유라고 주장하며 조세를 징수하자 내장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도 있었다. 국가기강이 헤이해진 틈을 타서 전직관료와 궁내부 파원들이 손을 잡고 자행한 부당한 수탈도 백성들을 곤궁에 빠뜨렸다. 특히 궁내부 파원 김석규는 조세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절반은 상납하지 않고 착복하였으며, 목장전의 도지(賸地)를 납부하였는데도 내지 않았으며 백성들을 구금하는 등 각종 횡포를 자행하다가 백성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파직되었다.

이처럼 목장이 폐지된 뒤 국가기관과 관료들이 자행한 부당한 수탈은 백성들의 공동대응으로 대부분 해결되었다. 또 투쟁의 결과 백성들은 목장을 조성하면서 빼앗겼던 본래의 토지를 상당부분 되찾았으며,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목부(자)의 역(役)에서도 벗어나 억울함을 털게 되었다.

현재 흥원곶 마장의 흔적은 앞서 밝힌 석정리 장성과 흥원2리 마장마을, 마장항골 같은 지명으로만 남아 있다. 괴태마장도 원정리 번제마을 등에 지명으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공단 건설과 주변개발로 흔적이 모호해졌다. 마장에서 기른 말들을 실어 날랐던 자오포나 호구포, 한나루도 해방 전후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경작지로 변해버렸다. 간척사업의 확대는 흥원곶과 괴태곶의 지형도 바꿔 놓았다. 1960, 70년대에는 새로 조성된 간척지에 대청댐 수몰민과 충청도지역의 빈농들이 이주하면서 주민구성도 다양해졌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 지형이나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억하고 기억할만한 근거도 남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마음이 애잔하다.(2009)

이인좌의 난, 평택지역 사족(士族)을 재편하다

1. 평택지역에도 사족(士族)이 있었을까?

조선시대 지배층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양반'이다. '양반(兩班)'이란 문반과 무반 관직에 오른 관료들을 말한다. 사족(士族)은 문무양반과 그의 가족을 지칭하는 말로 양반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1525년(중종 20) 국가에서는 사족(士族)의 범위를 '4조 내외 가운데 한쪽이라도 과거 또는 음서로 문무반 정직 6품 이상에 진출한 가문의 후손 및 생원, 진사 그 외 인척관계에 있는 가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개념은 16세기 중반이 되면 '농장주 이상 경제력을 보유한 교생, 학생층으로 국방을 담당하는 기간정병인 정로위(定廡衛) 입속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토착성, 명행(名行), 세전성(世傳性)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위의 개념을 종합하면 사족층은 학맥(學脈)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소양을 갖췄으며, 유력 집안과의 통혼(通婚)으로 혼맥(婚脈)을 형성하였고, 농장을 소유한 지주(地主)로 향촌사회운영에 영향을 끼치며, 과거를 통하여 관료로 진출한 세력을 말한다고 하겠다. 실제로 조선시대 사족층은 향약을 실시하고 학문과 교학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향소를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정치,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은 양반의 나라였다. 좀 더 외연을 확대하면 양반사족층이 운영했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양반 사족층이 성장하려면 가장 먼저 경제기반이 형성되어야 했다. 농동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독서(讀書)를 하여 과거로 관직에 진출해야 하는 사족층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토지와 같은 경제기반이었다. 또 주변에 유력한 양반 사족층이 살고 있어 학문적 교류와 통혼(通婚)을 할 수 있는 조건도 필요했다. 조선시대 평택지역은 경기도의 변방으로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하였다. 저습지는 대부분 황무지나 간석지였고, 일부 개간된 땅도 논보다는 밭이 많았다. 기후도 불안정했고, 해일과 수해로 인한 피해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았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봐도 평택지역과 관련된 기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일과 우박'이었다. 그래서 주거지와 경작지는 대부분 무봉산이나 덕암산, 백운산, 오봉산과 같은 200m 이내의 구릉지 사면에 형성되었다.



[진주 소씨 참판공파의 근거지 송북동 소굴(2009)]

평택지역의 오래된 가문은 대부분 무봉산, 덕암산, 부락산, 오봉산, 비파산 자락에 있다. 진위현의 진산(晉山) 무봉산 자락의 안동 권씨, 경주 이씨, 덕암산 자락의 진주 소씨와 원주 원씨, 부락산과 태봉산 자락의 수성 최씨, 경주 이씨, 오봉산 자락의 전주 이씨, 영일 정씨, 백운산 자락에는 김녕 김씨, 양성 이씨, 포승읍 대덕산 자락의 함평 이씨 등이 그들이다. 하지만 큰 산 자락에 세거한 대부분의 성씨들은 과거(科擧) 급제, 그 중에서도 문과 급제자가 매우 적다. 학맥(學脈)이나 통혼(通婚) 관계도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름을 날릴만한 유력 사족가문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노론 일당독재가 장기화되는 18세기 이후가 되면 그 정도가 심해진다. 아무리 평택지역에 소론계의 사족들이 많았다고 해도 이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와 같은 의구심의 중심에 영조 4년(1728)에 있었던 무신 난(이인좌의 난)이 있다. 이번 역사산책은 이와 같은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2. 무신(戊申) 난과 평택지역의 사족들의 움직임

무신 난(1728)은 영조 4년 남인 일부세력과 소론 가운데서도 강경파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경신환국(庚申換局, 1680)으로 정권에서 축출된 남인(南人)이 장희빈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았다가, '장희빈 사사' 사건을 계기로 실각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다른 하나는, 정권을 장악한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분당(分黨)된 뒤 장희빈 소생의 세자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소론(小論)과 숙빈 최씨 소생의 연잉군을 옹립하려는 노론(老論) 사이의 쟁투 속에서 세자가 경종으로 즉위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종 즉위

후 정권을 잡은 소론은 1722년 임인사화를 일으켜 김창집을 비롯한 노론 4대신을 역모죄로 사사하였다. 그 뒤로 병약한 경종이 죽고 노론이 지지하던 연잉군(영조)이 즉위하자 소론은 위기감에 휩싸였다. 위기상황에서 소론은 온건파인 완론과 강경파인 준론으로 갈렸다. 준론은 영조가 임인옥사를 재조사하고 노론이 김일경 등을 제거하자 '경종독살설' 등을 퍼트리며 그동안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남인 일부세력을 끌어들이 무력으로라도 정권을 되찾으려고 마음먹었다. 이들의 결심은 정미환국으로 이광좌, 이태좌, 오명항 같은 소론 완론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중단하지 않고 남인계의 이인좌를 중심으로 거사를 밀어붙여 무신 난(이인좌의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무신 난(이인좌의 난)의 참여세력은 광범위하였다. 이인좌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좌도와 경상좌도세력, 정희량 등 경상우도세력, 변산의 초적들과 태인의 박필현 세력이 그들이었다. 평택지역, 그 가운데에서도 진위현의 사족들은 대부분 소론이 많았다. 소론 가운데에서도 진위면 동천리, 마산리, 봉남리, 가곡리 일대의 경주 이씨 세력은 완론에 속하여 정권에 참여했지만, 진위면 가곡리의 안동 권씨, 덕암산 일대의 큰 세력이었던 진주 소씨, 원주 원씨, 모곡동의 전주 이씨, 그리고 칠원동의 김씨, 박씨는 준론으로 거사에 동참하였다.

3. 참여한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해

무신 난(이인좌의 난)의 참여 가문 가운데 중심가문은 뭐니 뭐니 해도 진주 소씨와 전주 이씨, 원주 원씨였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자의 짐작이 옳다면 안동 권씨 3형제 가운데 권서봉은 오성면이나 안중읍 일대의 옛 수원도호부지역 사람으로 판단된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왕이 대사성 조현명에게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참여한 가문 가운데 중심은 누구냐고 묻자, 진위현의 소(蘇)씨, 권씨, 안음(함양)의 정씨, 용인의 장씨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근거를 제공한다.

평택지역 최고의 가문이었던 진주 소씨는 대중가 격인 남강공파보다는 송북동 소골에 근거를 두었던 참판공파가 중심이 되어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다. 실록에는 거사에 참여한 인물로 소성과 소정, 소성 3형제를 거론하고 있다. 소성은 원곡의 최경우와 함께 이배가 이끌었던 6장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진주 소씨 참판공파가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은 송북동 소골마을에 전해오는 풀무골 전설로도 확인된다. 풀무골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 공민왕 때였다. 공민왕은 원나라를 물리치고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였지만 신돈을 기용하여 나라를 어지럽혔다. 하지만 대신들은 신돈이 무서워 아무도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소골에는 소(蘇) 정승이 살았다. 소정승은 학문이 높고 강직한 성품으로 존경을 받았다.

신돈의 횡포가 심해지자 소정승은 동지들을 모아 신돈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는 부락산 골짜기에 풀무간을 만들어 병장기를 만들고 군사를 모집하여 훈련하였다.

출정할 때가 가까워오자 소정승은 가족들을 모아 놓고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며느리가 나서서 말하기를 '아버님 벼 한 말을 찿어 쌀 한 말이 나올 때에 출정해야 성공할 것이나 그리 해보소서'라고 간청하였다. 평소 며느리의 충명함을 알고 있던 소정승은 '어찌 벼 한 말을 찿어 쌀 한 말이 나올 수 있겠나만은 네 마음을 받아들여 그리하겠다'고 말하고는 하인을 시켜 벼 한 말을 찿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벼 한말이 쌀 한말이 되지 않자 '보아라. 네 말대로 하였다마는 어찌 벼 한말이 쌀 한 말이 될 수 있던 말이나. 괜한 말로 군사들의 시기를 꺾지 말아라'라고 호통을 치고는 수원(주)을 향해 출정하였다. 하지만 소정승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던 관군의 기습으로 수주전투에서 크게 패하였고 소씨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다.'

풀무골 전설은 소골(우곡)마을 외에도 동막, 건지미 등 주변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이야기다. 전설에는 사건의 배경이 고려 말로 바뀌었지만, 고려 말은 진주 소씨가 경상도 진주와 하동에서 평택으로 집단 이주한 시기인데다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 가문이 파묘에 멸문지화까지 당한 시기가 무신 난(이인좌의 난) 밖에는 없는 점으로 미루어 후대에 각색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신 난(이인좌의 난)의 화(禍)는 참판공파만 당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 전화로 인터뷰한 남강공파 종친회장님도 그 때의 사건으로 집안 전체가 거덜났고, 대대로 덕암산 일대에 거주했던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했다. 그래도 근래에 들어와 후손들의 노력으로 도일동과 지문리 경계에 가문의 묘역이 다시 조성되었고, 참판공파의 근거지였던 송북동 소골의 묘역도 깨끗하게 다시 정비되고 있어 300년 전의 상처가 조금은 치유되는 느낌이다.

4. 원주 원씨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주 이씨 가문에서는 이배라는 인물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배는 정종의 7남이었던 수도군 이덕생의 후손이다. 영조 2년에는 종친의 자격으로 낙촌도정(돈녕부와 종친부의 정3품 당상관)에 올랐던 인물이다. 비록 실직은 아니지만 당상관에 오른 종친부의 관리가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가담했던 것은 남다른 학맥이나 혼맥 또는 현실정치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배는 반란의 중심인물이었던 정세운과 함께 움직였다. 이인좌가 안성과 진위에 진을 쳤을 때는 100여 명의 병졸들을 모아 합류하였으며, 청주성을 점령할 때 중군(中軍)을 맡아 선봉으로 입성하였다. 청주성에 입성한 뒤에는 이인좌의 명령으로 휘하의 6장사를 거느리고 충청도병마절도사 이봉상을 죽였다. 반란군이 청주성에서 서울로 북상할 때는 관군이 진위(振威)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하 10여 명과 함께 정탐하러 나갔다가 관군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도중에 탈출하였고, 이인좌군이 안성과 죽산에서 패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변복을 한 뒤 수원 바닷가를 거쳐 섬으로 도망가려다가 기찰

중이던 오성재에게 붙잡혀 공초를 받고 능지처참되었다. 후손들도 고향을 떠나 전라도로 숨어들었다는 전언이다. 현재 평택에 남아 있는 후손들은 이배라는 인물에 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몇몇 후손들만이 병조판서를 지낸 분이라고 기억할 뿐이다.

원주 원씨 가문에서는 원만주, 원백주 형제가 거사에 동참하였다. 원만주는 도일동 안골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도일동 원주 원씨의 입향조 원몽의 종손이었다. 원만주의 집은 추수할 때 노적가리를 쌓으면 평택에서도 보였다고 할 만큼 재산이 넉넉하였고 노복들도 많았다. 또 동사일기건(東槎日記乾) 신묘통신사좌목(辛卯通信使座目)에는 원만주가 청직(廳直=통신사 일행의 업무를 돕는 잡직)의 직책으로 조선통신사 일행과 일본에 다녀왔다고 기록되어 있어 미관말직이지만 관직에도 진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동참하게 된 것은 평택, 안성지역의 소론계와 학맥(學脈)과 혼맥(婚脈)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록에 수록된 무신 난(이인좌의 난) 관련 공초에도 '원만주가 가천역(안성시 원곡면 내 가천리)의 정세운, 최경우와 친구였으며 문장에 능하여 팔도에 보내는 각종 격문을 지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원만주의 공초에는 그가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정세운과의 교유관계와 설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원만주는 상중(喪中)이어서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계속된 설득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또 원만주의 형제들 가운데는 막내동생 원백주(元百周)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원백주는 이인좌군이 안성과 죽산에서 패할 때 좌잔현(左殘峴) 싸움에서 죽었다고 한다. 원만주는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가담하기로 마음을 먹은 뒤 도일동 정골에 풀무간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 팔야 병장기를 마련했다. 이인좌의 공초에 따르면 이인좌가 양성 가천역과 구만리에서 병력을 모아 소사벌에 진을 쳤다가 청주로 내려갔을 때 원만주도 정세운과 함께 동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거사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뒤 원만주는 정세운과 함께 전국 각 지역에 격문을 써서 돌리고, 전라도 지역을 돌며 동지를 규합하는데 앞장섰다. 김종만도 원만주가 호남지역을 담당하는 책임자였다고 공술하고 있고, 이사로와 임환의 대질심문에도 '원만주가 바야흐로 군사를 모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위의 내용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적극 가담했던 원만주는 난이 실패한 뒤 붙잡혀 두 차례의 공초를 받고 참형되었다. 무신 난(이인좌의 난)이 진압된 뒤 조정은 난에 동참한 가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집을 불태웠다. 가문이 적몰된 진주 소씨처럼 원주 원씨도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때 구원자로 나선 인물이 경종의 장인이었던 함원부원군 어유구였다. 원씨 가문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주 원씨 집안에서 어부원군이라고 부르는 어유구는 관공들이 마을을 불사르려고 하자, 원만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반란

에 가담한 적이 없으니 피해를 주지 말라고 변호하여 멸문지화를 막았다고 한다.

5. 반란의 실패로 평택지역 사족층의 재편이 이뤄져

진주 소씨, 전주 이씨, 원주 원씨 외에도 반란에 적극 가담한 인물로는 김정현(金鼎鉉)과 박영동이 있다. 김정현은 칠원1동 원칠원에 거주하였던 양반이었다. 조선시대 원칠원은 삼남대도가 지나가는 가장 큰 역원으로 '갈원(葛院)'으로 불렸다. 조선시대에 역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천한 부역을 담당했던 양인들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거나 천민들이 많았다. 실록에도 '갈원의 백성들은 김정현의 노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박영동은 김정현의 매부로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다. 김정현이 반란에 가담하게 된 것 양성 가천역에 사는 최경우(崔擎宇)의 설득이 주효했다. 김정현의 공초에 따르면, 어느 날 최경우가 김정현의 집을 방문하여 좋은 술이 있어 여러 벗들과 마시려고 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꾀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경우의 집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여럿이 술을 몇 잔 마시더니 김정현의 손을 잡고 거사에 동참하기를 설득하는 한편, 칼을 빼어들고 거절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김정현의 변명일 뿐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김정현은 최경우와 함께 모곡동의 이배를 적극 설득하여 반란에 동참하게 하였으며, 갈원에 거주하는 자신의 노비들에게 하얀색 군복을 만들게 하고 100여 명의 군졸을 모집하여 반란군에 합류하려고 시도하였고, 반란군이 양성 구만리 권서룡의 집에 모였을 때는 권씨 3형제와 함께 중심인물로 활약하였다. 하지만 김정현의 의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실록에도 '형장(刑杖)을 맞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 김정현은 역적을 따르기도 하고 망명하기도 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 반란군의 기세가 꺾이자 마음이 돌아섰던 것으로 보인다. 변심을 하였던 김정현도 반란이 진압된 뒤에는 잡혀 고신(拷問)을 받았고, 형장(刑杖)을 맞던 도중 그만 죽고 말았다.

무신 난(이인좌의 난)은 평택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의 명문가였던 진주 소씨 가문은 덕암산, 부락산 일대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으며, 원주 원씨의 원만주 계열도 뿔뿔이 흩어져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전주 이씨도 이배의 후손들은 가문을 등진 채 전라도 어느 지역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갈원의 김정현 후손, 안동 권씨 일족들도 쇠락했기는 마찬가지다. 몇몇 가문에서는 반란 동참 여부를 놓고 아직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으며, 반란군의 움직임에 간파하고 조정에 고변하였던 최규서의 후손들은 반란군에 가담했던 어느 가문과 지금도 소원하게 지낸다.

실패한 반란은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또 아쉬움은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남긴다. 도일동 빈터고개 서낭나무 전설도 그 가운데 하나다.

'지금도 도일동 안골의 빈티고개에는 서낭나무가 한 그루 있다. 진위 쪽에서 관군이 내려 올 때 반란군에서는 서낭나무 위에 정탐꾼을 배치하였다. 현대 정탐꾼은 계속된 싸움과 긴장에 지쳐버렸던지 그만 나무 위에서 졸고 말았다. 그 사이 관군은 빈티고개를 넘었고 졸고 있던 정탐꾼은 사로 잡혀 맞아 죽었다고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한다. 반란군에 동참했던 안성의 김종만의 변심과 봉조하 최규서의 고변으로 반란 사실이 조정에 알려질 때, 반란군에서도 고변 사실을 알고 뒤를 쫓았다고 한다. 뒤를 쫓던 반란군은 드디어 동작나루 근처에서 고변자를 따라 잡았지만, 고변자들이 여자가 타는 가마에 숨어 있어 난감해 하였다.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에 가마를 들쳐볼 용기가 없던 반란군들은 할 수 없이 '창밖으로 손만 내밀어보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마 속에서 나온 손은 분명 희디 흰 여인의 손이었다. 아무래도 이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고변자였다고 한다.

평택지역에는 무신 난(이인좌의 난)으로 기존의 사족가문이 적몰되거나 약해진 틈을 타서 새로운 가문이 성장하였다. 진주 소씨와의 혼인관계로 입향하여 송탄 독곡동의 오좌동마을과 송탄동 막곡에 근거를 두었던 수성 최씨, 칠괴동의 청주 한씨가 그들이다. 진주 소씨 참판공파의 터전이었던 송북동 우곡(소골)마을에 광산 김씨가 입향한 것도 무신 난(이인좌의 난) 이후였다. 난이 진압된 뒤 원주 원씨도 오랫동안 침체기를 걸었고, 전주 이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사족층이 재편된 뒤에도 오랫동안 중앙정치와 인연을 맺지 못했던 것도 기실은 무신 난(이인좌의 난)의 영향 때문이었다. 1800년에 진위 유림들이 이충동 층의 각의 '조광조, 오달제 유희비'를 건립하게 된 배경도 따지고 보면 국면 전환을 노린 고뇌의 한 수였다.(2012)

전란(戰亂)과 평택지역의 무인들

1. 평택지역에는 무인(武人)이 많다

평택지역은 고대에는 삼국의 격전지이며, 고려 말에는 몽골과 왜구의 침입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지역이다. 또한 왜란(1592~1598)의 육전(陸戰) 3대첩 가운데 하나인 소사벌대첩의 전적지이며, 한반도 식민지화의 발단이 되었던 청일전쟁이 발발했던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평택지역이 격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삼남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평택지역은 삼남지방과 연결된 대로(大路)가 지났으며 조선시대에도 삼남대로(제6대로), 충청대로(제8대로)가 지났던 교통의 요지였다. 유리한 지리적 조건은 평화시기에는 인마(人馬)와 물자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였지만 전시(戰時)에는 군대의 이동통로가 되거나 격전지가 되었다.

근대전후 간척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평택지역은 간척지와 황무지가 대부분이었고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밀려들어서 농경에 매우 불리하였다. 서평택지역에는 아산만과 안성천, 진위천 등에 나무와 포구가 발달하였지만 포구상업도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열악한 경제적 조건은 유력한 사족층(士族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조선후기에는 소론(小論) 계통의 가문이 많았던 데다 이인좌의 난(무신 난, 1728)에 진주 소씨, 안동 권씨, 전주 이씨, 원주 원씨 등 유력가문이 가담하면서 성장기반이 붕괴되었다. 정치,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조건은 문신(文臣)보다 사회적 지위는 낮았지만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무신(武臣)들의 성장을 가져왔다. 임진왜란 전후에 활약한 원균이나 이대원, 왜란에 참전하였던 수많은 무인들은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에서 성장하였다.

2. 전쟁에 참전했던 무인(武人)들

조선시대 평택지역에는 국난극복의 무장(武將)들이 많았다. 여말선초에는 평택지역의 대표가문이었던 진주 소씨에서 많은 무인들이 배출되었다. 진주 소씨는 고려 초 시조 알천의 11세손이었던 소격달이 대장군에 오른 뒤 구세구장군(九世九將軍), 다시 말해서 아홉 대에 걸쳐 대장군을 배출하면서 이름을 떨쳤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대제학과 정승, 판

서를 배출한 사족가문이면서도 제주목사 소흡 등 유력한 무인(武人)들을 배출한 가문으로 성가를 높였다.

조선 중기에는 수성 최씨, 함평 이씨, 원주 원씨 가문에서 훌륭한 무인들이 배출되었다. 독곡동과 송탄동 일대에 세거하고 있는 수성 최씨는 수성군 최유림이 무과에 급제하여 세조 때 두 차례에 걸쳐 공신(功臣)에 오르면서 이름을 날렸다. 함평 이씨 가문에는 선조 때 정해왜변(1587년)에서 전공(戰功)을 세운 충렬공 이대원이 있다. 이대원의 후손 가운데 부산첨사와 충청병사를 지낸 이석은 강직한 성품과 용맹한 정신으로 큰 족적을 남겼다. 원주 원씨는 본래부터 무인가문으로 성장하였다. 원균의 아버지 원준량은 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냈으며, 원균과 그의 형제 원전, 그리고 아들인 원사옹, 조카 원사립은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정유재란 때 황해도 연안성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정암, 이정함 형제는 송탄동 방해동마을이 고향이다. 이들은 방해동 오재공 이탕의 아들로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왜란 때에는 의병을 모아 연안성에서 왜군의 복상을 저지하여 선무2등공신에 책록되었다. 그 밖에도 왜란 때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순국한 이운룡, 이순신의 막하로 활약한 방덕룡, 정담수, 이성길, 권임길도 시대를 풍미한 무인들이다.

3. 백성들이 알아준 한온(韓蘊)의 죽음

한온(韓蘊, 1517~1555)은 서탄면 금암3리 청주 한씨의 입향조다. 금암3리는 청주 한씨의 동족마을로 조선 초 학자이며 세조 때 정난공신(靖難功臣)과 좌익공신(左翼功臣)에 오른 양절공 한확(1403~1456)의 후손이다. 한온의 부친은 증중반정의 공신이었던 서평군 한숙창이고 외조부는 박원종이다. 16세에 공신(功臣)의 자제로 충의위(忠義衛)에 들어갔으며, 재직 중에 왕이 설진(設陣)을 사열하고 격구(擊毬)를 실시할 때 2등을 하여 어린말을 상으로 받았다. 1540년(중종 35) 20세에 무과(武科)에 급제한 뒤로는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으며, 1554년(명종 9)가덕도 첨사를 거쳐 장흥부사에 제수되었다.

장흥부사에 부임한 한온은 군사를 조련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으며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제하여 칭송을 받았다. 부임 첫해에 기근이 들자 관곡을 풀어 백성들을 진휼하여 왕으로부터 표리(表裏) 한 벌을 상으로 받았다. 명종실록 10년(1555)에는 전라도 암행어사 윤희가 서계(書啓)한 단자가 수록되었는데, '장흥부사 한온은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돌보아 구제하였고'라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돌봐'라는 문장이 마음에 들어온다. 마음을 다해 백성을 돌보는 목민관을 우리는 늘 기다리기 때문이다.

1555년(명종 10) 5월 11일 을묘왜변이 발생하였다. 을묘왜변은 삼포왜란 뒤 세견선(交易

船)의 제한조치에 불만을 품은 왜인(倭人)들이 왜선 70여 척을 이끌고 강진, 장흥, 진도 일대를 침입한 사건이다. 가덕도를 거쳐 달량진에 침입한 왜인들은 중국 연안을 드나들며 도적질하던 무리들로 민간을 약탈하고 여러 고을을 공격하는 등 매우 호전적인 세력이었다. 왜적이 침입하자 전라우수사 김빈, 방어사 김경석은 지레 겁을 먹고 나아가 싸우지 않았다. 방어를 책임져야 할 이희손, 홍언성 등 남해안 일대 고을과 군진(軍陣)의 책임자들도 도망쳐 버렸다. 심지어 광주목사 이희손과 홍언성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량포에 달려갔을 때 왜군의 기세에 겁을 먹고 부하들에게 활을 쏘지도 못하도록 하였으며, 나중에 자신이 먼저 도망치려고 먼저 성문을 빠져나오려다가 쓰러진 사람을 밟아 죽이기까지 하였다. 가리포 첨사 이세린은 성(城)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왜적이 군기와 군량미를 모두 운반해가고 관사를 태워 없애게 만들었다.

왜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목민관들이 이러할 때 한온만큼은 달랐다. 한온은 전라좌수사 원적의 부름을 받자마자 영흥 군수 이덕견과 함께 즉시 달량진을 구원하러 달려갔다. 이들이 달량진에 이르자 왜적은 군사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알고 거짓으로 패하여 도망치는 척하다가 조선군이 성안으로 들어가자 성 밖을 포위하였다. 포위하고 3일이 지났지만 구원군도 오지 않았고 가져간 군량(軍糧)도 다 떨어졌다. 견딜 수 없게 된 좌수사 원적은 성벽에 올라 왜군에게 화친을 청하였다. 하지만 왜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을 함락시킨 뒤에는 끝까지 저항하는 원적과 한온 그리고 군사들을 남김없이 죽였다.

실록에는 전란이 끝난 뒤 다른 장수들의 시체는 찾았지만 한온은 찾지 못했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한온이 다른 장수들보다 격렬히 저항하여 왜군이 시체를 잔혹하게 도륙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계속 시체를 찾지 못하고 증언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자 한쪽에서는 ‘한온이 전사한 것이 아니라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혹은 해소되었고, 1555년(명종 10) 영의정 심언원의 건의로 포상되었다. 1560년(명종 15)에는 병조판서로 추증되었으며, 1863년(숙종 9)에는 장흥백성들이 스스로 충렬사를 건립하여 봉사(奉祀)하였다. 또 1875년(고종 12)에는 충의(忠毅)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충신(忠臣)으로 정려(旌闈)되었다. 충신정려는 서탄면 금암리에서 내천리로 나가는 서탄파출소 앞 삼거리에 세워져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한온의 충절을 기리고 있다.

4. 양난(兩難)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왜란과 호란은 조선왕조 5백년 역사에서 국가의 존망을 위협했던 가장 큰 전란이었다. 전란의 위기에서 평택지역 인물들의 활약도 빛났다. 임진왜란(1592년)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한 인물은 원릉군 원균(元均)이지만 평택지역에는 원균 말고도 왜란(倭亂)과 호란(胡亂)에서 활약한 인물들이 매우 많다.

원균의 동생 원연(1543~1597)은 선조 즉위년(1567)에 사마시에서 진사 3등으로 합격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진위현 태봉산과 용인에서 싸웠다. 그 공(功)으로 연기현감과 적성현감에 제수(除授)되었지만 정유재란 때 전사하였다. 1829년(순조 29)에 임진창의훈(壬辰昌義勳)에 수록되었고, 이조참의 적성공에 추증되었으며, 충절정려가 내려졌다.

원전(元典, ?~1597)은 원균의 둘째 동생이다. 왜란이 일어나자 고성현령으로 원균의 막하에서 함께 싸웠다. 원균의 신임도 두터워서 승전장계는 반드시 원전을 통하여 올렸으며, 1592년 8월에는 전공(戰功)을 인정받아 종6품 주부(主簿)에서 종5품 도사(都事)로 승진하였다. 원전에 대한 조정의 신임은 1594년 남해안에 역질(疫疾)이 창궐하여 수군들이 크게 화를 입었을 때 왕이 친히 불러 사태를 물어보고 대처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원전은 용맹한 장수였다. 그의 용맹함은 정유재란(1597)이 발발하고 조정에서 안골포의 적을 공격하려고 할 때 '원전의 무리들은 몹시 공격하고 싶어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실록 곳곳에도 '상황판단이 정확했으며 싸움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용맹한 장수'라는 표현이 있어 용맹함이 왕과 조정대신들로부터 공인된 것임을 알게 한다. 원전은 정유재란 직전 선조에 의해 공주목사의 적임자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공주목사에 기용되었다는 기록은 없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적을 앞에 두고 물러섬이 없었던 원전은 칠전량 해전에서 원균, 원사옹과 함께 전사하였다.

이밖에도 원주 원씨 가문에서는 원연의 차남 원사립(1569~1610(?)), 원균의 장남 원사옹이 전란에 참전하였다. 원사립은 1591년(선조 24)에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정유재란 때는 충청도 서천군수로 양부(養父) 원전의 전사소식을 듣고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사사로운 예(禮)를 갖추는 것보다 우선'이라며 상복을 입지 않고 전투에 임했다. 왜란 뒤 32세의 젊은 나이에 진주목사가 되었고, 그 뒤로도 김해부사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이운룡(李雲龍, 1652~1592)은 평택현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였고 활 쏘고 말 타는 솜씨가 뛰어났다. 28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1580년 선전관에 나갔으며, 왜란 때는 출전을 자원하여 도원수 신립의 막하가 되었다. 충주전투에서 선봉이 되기를 청하였고, 왜군과 접전할 때는 총소리에 군사들이 흩어지고 전마잡이가 적군의 칼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방덕룡(方德龍, 1561~1598)은 평택현 북촌(팽성을 원정리)에서 태어났다. 1588년(선조 21)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으며, 정유왜란 때 낙안군수로 있으면서 홍양에 침입한

왜군을 명나라 장수 이천총과 연합하여 토벌하였다. 이순신 휘하에 들어간 뒤로는 선봉장으로 발탁되어 1598년 노량해전에서 왜선 3백 척과 싸우다가 이순신, 가리포첨사 이영남과 함께 전사하였다. 정담수(鄭睢壽, 1555~1604)는 팽성을 근내리에서 태어났다. 1583년(선조 16) 무과에 급제되 어린만호를 지냈고,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의 좌선봉 응양장(左先鋒 鷹揚將)으로 크게 활약하였다.

이성길(李成吉)은 팽성을 두리 다락말에서 출생하였다. 1629에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병자호란(1636년) 때에 충청감사 정세규(鄭世規)가 청군(淸軍)과 싸우러 나갈 때 전봉 초관을 삼았다. 경기도 광주(廣州)에서 청나라 군사를 만나자 부하들과 함께 앞으로 돌진하며 싸워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적군과 다시 만났을 때 이성길은 또 다시 출전하여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권임길(權臨吉)도 병자호란 때 전사였다. 권임길은 병자호란 때 옥포만호로 있다가 벼슬이 바뀌어 본가로 가는 길에 전란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가던 길을 멈추고 충청감사 정세규와 합류하여 남한산성으로 향하다가 험천(險川)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처럼 평택지역에는 수많은 무인들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명을 다하지 못하고 전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들의 희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었다. 이분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민족이 살아날 수 있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모쪼록 이들의 삶이 기억되고 전승되어서 평택시민의 자긍심으로 남기를 소망한다.(2009)



[팽성읍 근내리 정담수 시우 충정사(2009)]

정유재란(1597~8)과 소사벌대첩

1. 소사벌, 전쟁으로 얼룩진 들판

근대이전 도로는 국토의 동맥과 정맥이었다. 국토라는 생명체는 길이 소통해주는 사람과 물자로 숨을 쉬고 영양을 공급받았다. 조선시대 평택지역에는 삼남대로와 충청대로가 지났다. 한양 송례문 밖에서 출발하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통영까지 내려가려면 반드시 삼남대로를 따라가야 했다. 소사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충청도와 경기도의 경계다.

남쪽으로는 안성천이 흐르고, 북쪽으로는 소사원이 있어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 들판을 지나야 하였다. 조선 효종 때 호서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김육의 공덕을 기려 '김육대동균역시혜불망비'가 소사원 옆에 세워졌던 것도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넘어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 편리한 교통망은 민중들에게는 고통이었다. 평화시기에는 왕이나 지체 높은 고관들만 지나갔지만, 전쟁이 발생하면 전쟁터로 변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고려 명종7년(1176년) 공주 명확소에서 봉기한 망이 망소이도 삼남대로를 따라 북상하다가 성환읍 대흥리의 흥경사를 점령하며 무신정권을 위협하였다. 삼남대로와 충청대로는 고려 후기 몽골의 3차 침입 때 충청도와 전라도를 침략하는 교통로였다. 이로 인하여 삼남대로 변에 위치한 마을들은 약탈당했고, 충청대로가 지났던 평택현(평성읍)은 몽골군이 주둔하면서 불바다가 되었다.

2. 정유재란(1597~8)의 발발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진행되던 강화회담이 결렬되면서 재침한 사건이다. 재침할 때 일본군의 수는 141,500명이었으며, 명나라도 병부상서 형개를 총독으로 삼고, 경리조선군무(經理朝鮮軍務)로 양호, 마귀를 총병관으로 삼아 55,000명을 파병하였다. 조선군은 3만 명으로 권율을 대구 공산에, 권응수를 경주에, 관재우를 창녕에, 이복남을 나주에, 이시언을 추풍령에 배치하며 왜군의 북상에 대비하였다.

7월초 일본군은 주력군을 재편하여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를 총사령관으로 하고 부대를

좌·우군으로 편성하여 하삼도(下三道) 일대를 공격하였다. 왜군의 우군(右軍)은 대장 모리(毛利秀元)를 중심으로 휘하에 가토와 구로다 등을 배치하였고, 좌군(左軍)은 대장 우키다를 중심으로 고니시와 시마즈로 편성되었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의 목적은 분명했다.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일본 국내정세의 불안정, 히데요시의 건강악화로 인한 후계구도의 불안정이 발생하면서 재침을 통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바꿔 강화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은 뒤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다. 1597년 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명령서에도, 전라도지역은 반드시 공략하되 충청도와 경기도는 필요에 따라 공격하며, 공격이 성공한 뒤에는 남해안 연안지역으로 철수하여 분담된 성(城)에 주둔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당시 일본의 의도가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한다.

남해안을 거쳐 구례를 점령한 일본군은 여세를 몰아 남원성을 점령한 뒤 좌·우군이 전주성에 무혈입성하였다. 전주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좌군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약탈을 하였고, 우군은 삼남대로를 따라 충청도 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충청도방면으로 진격한 가토와 구로다의 우군은 9월 초 충청도방어사 박명현 부대로부터 여산, 은진, 진산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회덕에서는 이시언 부대에게, 고령과 황석산성에서는 정기룡과 조종석 부대의 저항에 부딪쳤다.

3. 소사벌대첩으로 왜군의 복상 좌절

왜군이 복상하자 민심은 흥흥해지고 조정은 다시 한 번 파천(播遷)을 논의하였다. 평양에 주둔하면서 왜군의 소식을 접한 경리조선군무(經理朝鮮軍務) 양호는 한양으로 달려와 명나라 제독 마귀에게 왜군의 복상을 지지하지 않은 것을 꾸짖었다. 양호의 질책을 받은 마귀는 해생, 우백영(牛伯英), 양등산(楊登山), 파귀(頗貴)를 불러 기병과 보병 4,000명으로 왜군의 복상을 막도록 명령하였다.

소사벌대첩은 1597년 9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전개되었다. 소사벌대첩에 관한 기록은 선조수정실록에도 언급되었지만 이중환의 택리지, 장유의 계곡집 등 개인저작과 문집에 좀더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소사벌대첩에 참전하기 위해 직산방면으로 복상한 왜군은 가토와 구로다가 이끄는 우군에 좌군의 일부가 합세한 규모로 그 수가 약 6만 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경기도 일대 조·명 연합군은 명나라 제독 마귀가 이끄는 1만 8천 명이 전부였다.

장유(1587~1638)의 계곡집과 이중환의 택리지에 따르면 왜군은 6만 명 가운데 흑전장정(黑田長政)이 이끄는 6천 명이 출전하였다고 한다. 명군(明軍)은 흑전장정(黑田長政)이 이끄는 6천여 명의 왜군(倭軍)을 맞아 1597년 9월 5일 새벽 평택시 소사동의 소사교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5일 저녁 날이 어둑해지자 명나라 부총병 해생(解生)은 소사교 아래

에 군대를 매복시킨 뒤 갑옷을 입힌 원숭이를 말에 태워 적진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다. 전열이 무너진 왜군은 손쓸볼 기회도 없이 명나라 기병의 기습에 대패하였다. 이 날 두 나라의 군대는 모두 여섯 번 회전(會戰)하였는데 모두 명군(明軍)이 승리를 거두었고, 다음 날에도 전세를 만회하려고 달려드는 왜군을 재차 대파하여 완전히 물러나게 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선조수정실록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었다. 예컨대 '1597년 9월 일본군이 남원을 함락시키고 승승장구하며 경기지역을 핍박하였는데, 경리조선군무(經理朝鮮軍務) 양호가 이 소식을 듣고 한양으로 달려와 제독을 불러 싸우지 않는 것을 꾸짖고 기병들을 몰래 선발하여 해생, 우백영(牛伯英), 양등산(楊登山), 파귀(頗貴)로 하여금 직산으로 내려가 물리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명령을 받은 해생 등은 직산의 소사평(峯)에 매복하였다가 적병이 대오를 정렬하기 전에 돌격하였는데 적은 싸움 엄두를 내지 못하고 흩어져 도망가다가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그러자 해생은 유격장 파새(擺賽)에게 기병 2천명으로 뒤를 쫓게 하여 또 다시 큰 승리를 거뒀다. 위의 내용은 이공익의 연력실기술과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소개되었다. 택리지에는 계곡집이나 실록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전문을 소개한다.

선조 정유년에 왜적이 남원을 쳐부수고 전주를 지나 공주에 올라와서 군세가 매우 강성하였다. 그 때 명나라 장수 형개(邢階)는 총독으로 요동에 머물렀고 경리 양호가 10만 군사를 이끌고 평양에 도착하였다. 연광정에서 저녁을 먹던 중 적이 북상한다는 첩보를 듣고 한양까지 하루 낮. 이틀 밤 만에 달려왔다. 해생, 파귀 등 네 장수에게 철갑기병 4천 명과 말을 탄 원숭이 수 백 마리를 거느리게 하여 소사하 다리 밑 들뜰이 끝나는 곳에 숨어 있게 하였다. 숨어 있는 곳에서 백여 보 되는 곳에 왔을 때에 말을 탄 원숭이를 먼저 풀어 놓았다. 원숭이를 본적이 없는 왜군은 멀거니 보다가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진(陣)이 소란스러워졌다. 이 틈에 해생 등이 철갑기병으로 급히 짓밟았더니 왜군은 크게 패하여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시체가 들판을 덮었다.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이래 이러한 승리는 없었다.

그러면 소사벌대첩에서 명군과 왜군의 전사자는 얼마였을까? 어떤 문헌에도 정확한 숫자는 밝고 있지 않지만 선조실록 30년 9월 16일의 기사에 '여러 곳에서 왜군의 목을 벤 수가 9,753명이며 노획한 말이 4천 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 가운데 절반은 소사벌대첩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저간의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소사벌대첩에서 명군(明軍)은 대승을 거두었고, 삼남대로를 따라 육상으로 진격하던 왜군의 북상은 좌절되었다. 또 열흘(9월 16일) 뒤에는 명량대첩에서 이순신에게까지 패하여 해로를 이용한 북상도 어려워지면서 왜군은 경상도 남해안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4. 계곡 장유의 시(詩)에도 '소사벌대첩'이 소개되어

계곡 장유(1587~1638)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장가다. 그의 문집에는 '소사벌 전쟁터를 지나며'라는 시(詩)가 있다. 작성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왜란이 끝나고 10여 년쯤 지난 뒤로 짐작된다. 다음은 시(詩)의 전문이다.

옛날 중국 군대가 섬 오랑캐를 무찌를 때	(憶昔王師破島夷)
선봉대 돌격 장수 맹수 같은 휘하 용사	(前軍突將領熊貔)
지금도 산하에 묻어나는 피비린내	(至今戰血川原染)
그날의 함성을 초목은 기억하리	(當日威聲草木知)
일만 철기(鐵騎) 내달으며 먼저 기세 꺾어 놓자	(萬馬攢蹄先奪氣)
왜구들 머리 바치면서 시체 싸 놓고 도망쳤지	(長鯨授首早封尸)
동방 원정 싸움에서 첫째가는 승첩지	(東征第一奇功地)
서생의 비(碑) 볼 수 없어 유감이로다	(却欠書生爲勒碑)

기결 찬 이 전공 삼한 재건되었나니	(三韓再造擅奇功)
십 년 걸친 요망한 기운 단번에 쓸어냈네	(十載妖氛一掃空)
교활한 오랑캐 한 농민들 살려두라	(狡虜豈容留片甲)
총사령관의 기막힌 지략 승산을 이끌었도다	(勝算知是出元戎)
대지 짓누르는 전진(戰陣)의 구름은 맑은 날도 컴컴하고	(陣雲壓野晴猶黑)
숲 속에 출몰하는 도깨비 불 밝지 않고 썰렁하네	(鬼火依林冷不紅)
필마 타고 온 서생 옛 전쟁터 조문한 뒤	(匹馬書生吊古罷)
가을바람에 칼 짐고 서니 무지개처럼 뻗치는 기운	(秋風倚劍氣如虹)

벽력치듯 돌격하는 어양의 기병	(漁陽突騎若雷霆)
물 쏟듯 들이닥치는 그 앞을 누가 막으리오	(一鼓無前劇建瓴)
오늘도 살기 풍고 불어오는 바람결	(長有風雲含殺氣)
개돼지 같은 왜적들 두고두고 벌벌 떨리	(永令蛇豕震皇靈)
해변에 요기(妖氣) 사라져 경보 울리지 않는 나날	(氛消海徼仍無警)
강물에 흐른 피 아직껏 비린내 띠고 있네	(血入川流尚帶腥)
우리 동방 지금까지 편히 농사짓게 하는	(東土至今耕鑿穩)
길이 기결 그 공적 청사에 빛나리라	(百年勳業照丹青)

— 經素沙戰場 三首, 계곡선생집 제30권

위의 시(詩)에는 명나라 철기군이 일만이었고, 소사벌대첩은 명군(明軍)의 조선원정에서 첫째가는 승리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물론 전쟁 기간을 10년이라고 했으니 일만이라는 숫자가 정확하다고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위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왜란을 겪은 세대에게도 소사벌대첩은 전세(戰勢)를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중요했던 전투가 실록이나 왜란 이후의 기록에서 소홀하게 대접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에게 소리쳐 묻고 싶다.(2010)

평택현감을 지낸 정제두와 이승훈

1. 목민관의 가치(價値)

요즘 평택문화유산해설사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내하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일이다 보니 교육담당자로서 마음이 자못 비장하다. 어제는 서평택지역 문화유산답사 실습을 지도하였다. 답사 코스에는 이대원 장군 유적이 있었다. 필자는 이대원 장군 신도비 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은 한 번 죽는다고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서의 삶은 짧지만 죽어서의 삶,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신도비는 인간의 삶이 무한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는 양파의 껍질처럼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다. 비록 시절을 잘못 만나 뜻을 펴지는 못했지만 꾸었던 꿈과 이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다. 최근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봤던 '올지마 톤즈'라는 다큐영화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의 삶이 그러하다. 세상이 널리 알려진 마더 테레사 수녀같은 분이 아닐지라도, 어느 행려 병자 보호소에서 묵묵히 더러운 빨래를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도 같은 부류이다.

역사는 훌륭한 삶과 생각은 기억하고 전승하며,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반성하여 되풀이하지 말자는 학문이다. 손오공이 분신술로 자신의 모습을 수십 명씩 만들어 내듯이 이태석과 같은 훌륭한 인물을 수십, 아니 수 백 명씩 만들어내자는 학문이 역사다. 오늘 역사산책의 주인공은 정제두와 이승훈이다. 두 사람은 '평택현감'으로 우리고장과 인연을 맺었다. 역사에 남긴 족적이 간단치 않았던 인물들이지만 우리고장에서 두 사람의 삶과 생각에 주목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두 사람의 삶 속으로 산책을 떠나보자.

2. 실천적 정신으로 강화학파를 일군 정제두

정제두(鄭濟斗, 1649~1736)는 포은 정몽주의 후손이다. 할아버지는 우의정(右議政)을 지냈고 아버지는 진사(進士)였다. 20세에는 정치가와 학자로 크게 이름을 날렸으며 소론(小

論)의 영수였던 박세재의 문인이 되었다. 어머니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하여 몇 번 낙방한 뒤로는 학문에 진력하여 큰 성취를 보였다. 조선사회에서 가문으로나 학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커리어다. 정제두는 강화학파의 태두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양명학을 연구했던 일련의 집단을 일컫는 '강화학파'는 정제두에 이르러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였다.

성리학 중심의 조선 후기 양반사회에서 양명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분명 이질적인 행동이었다. 정제두도 양명학을 연구한다는 이유로 많은 성리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그의 스승 박세재마저 '왕양명 학변(王陽明學辨)'이라는 책을 지어 만류하였지만 정제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제두로부터 비롯된 강화학파는 원교 이광사, '동사'라는 역사책을 지은 이종휘, '연리실기술'을 저술한 이공익, 개항기의 저명한 사상가이며 독립운동가였던 이견창, 이권승,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며 역사가였던 박은식, 김택영, 정인보 등 민족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들을 배출하는 토대가 되었다. 정제두가 평택현감을 지낸 것은 그의 나이 40세였던 1689년(숙종 15)이었다. 32세에 영의정 김수항의 천거로 처음 벼슬길에 나온 뒤 처음 경험한 지방수령이었다. 하지만 치적(治績)은 기록에 남아 있지 않고 재임기간도 몇 달에 불과하여 아쉬움을 남긴다.

3. 문묘배례를 거부한 현감(縣監) 이승훈

이승훈(1756~1801)은 조선인으로서로는 처음으로 영세를 받았던 천주교인이다. 남인 계통의 학자였으며 어머니가 이가환의 누이였고, 장성해서는 정재원의 딸과 혼인하여 정약용의 형제들과 처남 매부 사이가 되었다. 1780년(정조 4) 25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지만 천주학(天主學)을 접한 뒤에는 벼슬길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1783년(정조 7)에는 이벽의 권유로 서장관으로 베이징에 가는 아버지 이동욱을 따라가서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그라몽 신부로부터 우리나라 천주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영세를 받아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1784년 각종 교리서적과 십자가 교상, 목주 등 성물을 가지고 귀국한 뒤에는 이벽, 이가환, 정약중 등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뒤 수표교 이벽의 집과 현재 명동성당 터인 진고개 김범우의 집에서 신앙집회를 가졌다가 1785년 을사추조적발 사건으로 검거되자 한 차례 배교(背敎)를 하고 풀려났다. 하지만 곧바로 회개하였으며 가성직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에서 신부를 초빙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승훈이 평택현감을 지낸 것은 1789년(정조 13) 6월에서 1791년 11월까지 2년 5개월 동안이다. 나이로는 34세부터 36세까지이므로 천거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한 인물로는 비교적 빠른 시기에 지방수령에 임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택현감 이승훈의 행적은 퇴임 후 불거진 '성묘불배사건'으로 유명해졌다. 예컨대 1791년 윤지충 형제가 천주교를 받아들

인 뒤 교황청의 방침에 따라 위패(位牌)를 불태우고 제사를 거부한 사건(진산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감 재임 시 이승훈의 '문묘배례거부' 문제와 1787년에 있었던 반회사건이 논란이 된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자못 심각하였지만 정조와 남인들의 옹호로 이승훈은 관직을 추탈당한 뒤 방면되었다.

4. 문묘배례거부 사건은 왜 발생했을까

그러면 이 때 불거진 '문묘배례거부' 사건 다시 말해서 '성묘불배사건'이란 무엇인가? 조선시대 지방수령은 부임하면 3일 이내에 문묘(文廟, 향교의 대성전)에 배향을 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이승훈은 부임한 뒤 몇 달이 지나도록 문묘배향을 하지 않았으며, 향교를 수리하고도 각기병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었다. 이승훈의 태도는 평택현의 유림들을 자극하였다. 평택유생들은 이승훈이 퇴임한 이듬 해 진산사건이 발생하며 남인 천주교인들이 궁지에 몰리자 조상본, 권위, 정언택을 소두(疏頭)로 '이승훈이 문묘에 배례하지 않은 것은 천주교인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통문을 돌리고 이것을 성균관에 보내 문제 삼고 나섰다. 유생들이 통문을 돌리고 상소를 올려 처벌을 요구하자 조정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안핵사 김희채는 이승훈과 인척관계여서 오히려 이승훈이 성묘배례를 한 것처럼 보고하고 문제를 제기한 조상본 등에게 무고죄를 씌워 처벌을 하였다. 이것이 성묘불배사건의 전말이다.

그러면 성묘불배사건은 왜 발생했을까? 문제의 중심에는 이승훈이 천주교인이라는 데 있다. 천주교도였던 이승훈은 성묘배례가 우상숭배라고 여겨 배례를 거부했을 것으로 판단



[성묘불배사건의 원인이 된 평택향교 대성전(2010)]

된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조선 후기 평택현(평성읍) 지역에 노론계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홍익한의 학맥(이정귀의 문인)이나 우남양을 배향하기 위해 노력했던 포저 조익이 서인계였고 그의 후손들이 이후 노론으로 방향을 잡았던 사실에서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노론계통의 선비들은 정치적 경쟁관계였던 남인계의 수령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했을 것이고, 마침 진산사건으로 남인들이 궁지에 몰리자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정치적 갈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평택현감에서 물러난 이승훈은 진산사건 때 '성묘불배사건'이 불거지면서 관직이 추탈되었다. 비교적 관대한 처리는 당시 남인계가 정권의 한 축을 담당했고, 비교적 천주교에 관대했던 정조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795년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주문모신부 체포가 실패한 뒤 그가 관여했던 성직자 영입운동이 밝혀지면서 예산으로 유배당했다. 1801년 신유박해 때에는 이가환, 정약종 등 남인계열의 천주교인들이 체포되면서 이승훈도 불잡혀 참수되었다. 성리학적 질서가 처음과 끝이었던 조선 후기에 천주학이라는 이질적 종교를 믿은 대가였다. 평택지역 천주교회에서는 이승훈이 현감 재임 시에 평성읍 대추리에서 전교활동을 하였고, 그 신앙의 뿌리가 자라나 오늘날 평택지역 천주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평택지역 천주교의 전래과정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이승훈의 처벌을 주장하다 형벌을 받았던 조상본 등은 세도정치 하에서 '삼정사(三正士)'로 불리며 지역 유림들에게 크게 추앙받았다. 삼정사(三正士)란 '옳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세 분의 선비'라는 뜻으로 조선의 성리학자로서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다. 또 평성읍 함정1리에는 향현사가 건립되어 제향을 받았으며, 우남양을 제향했던 운곡사와 함사(含祀)된 뒤에도 계속 제향을 받다가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훼손되었다.(2011)

청일전쟁, 한반도 식민지화의 서막

1. 제국주의는 약소국을 잡아먹는 맹수

안산에서 향토사연구를 하는 후배가 있다. 조금 늦게 연구활동에 뛰어들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친구다. 한 주 전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의 후원으로 평택지역 청일전쟁관련 유적을 답사하고 싶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도 청일전쟁의 서막이 아산만과 평택일대에서 전개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잘 알지 못해서 한동안 망설였다. 요청에 응낙하고 난 뒤에는 촉박한 기일이 목구멍의 가시처럼 괴롭혔다. 서둘러 인터넷과 참고자료를 뒤졌지만 입맛에 맞는 자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전전긍긍하며 며칠을 고심하다가 답사 하루 전에야 대충 이야기의 일개를 엮을 수 있었다.

청일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이다. 미국 페리제독의 강압으로 개항하였던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근대국가로 발돋움하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본에도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 일환으로 타이완을 무력으로 병합하였으며, 1876년에는 청나라를 배제하고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 1878년에는 독립왕국이었던 류큐를 병합하여 오키나와현을 설치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자 청나라는 조선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이나 서구 열강에게도 개항할 것을 권유하였다. 1880년대 초 중국외교관 황준센이 쓴 '조선책략'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청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조선이 서구열강과 외교관계를 맺고, 청나라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통하여 조선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급변하였다. 청은 상민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여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주도권을 빼앗긴 일본은 조선이라는 상품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2. 조선의 식민지화를 목적으로 출병한 일본

1894년에 발생한 동학농민전쟁은 한반도에서 열세에 놓여 있던 일본에게 반전의 기회 제공하였다. 농민군 진압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속방화정책을 재확인하려는 청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야심을 갖고 출병하였다. 청일양군의 동상 이몽은 청나라가 총 2,000명의 파병계획을 갖고 1,500명의 선발대를 인천항으로 입국시켜 섭사성(攝士成)의 지휘 하에 910명의 선발대만을 아산만에 상륙시킨 뒤 나중에서야 기마대, 지리병 등 모두 2,400명을 아산에 주둔시켰던 데 비하여, 일본은 총 7천 명의 대부대를 파병할 계획을 갖고 주한일본공사가 직접 육전대 420명과 대포 4문을 선발대로 삼아 한성을 점령한 뒤 조선정부에 내정개혁을 강요하였으며, 이후에도 혼성여단의 선발대와 수송대가 인천항으로 상륙하여 서울과 인천 사이에 7,600여 명이 주둔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태도에 당황한 조선과 청나라는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농민봉기가 다시 일어나 또 다시 청일양군이 출병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 된다고 맞섰다. 일본은 결국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공격하여 교정청을 폐지하고 친일내각을 중심으로 강압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청일전쟁은 1894년 7월 25일 아산만 입구의 풍도 앞바다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한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경기남부지역의 전략상 유리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삼남대로를 따라 아산방면으로 진격하였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에 청나라에서도 강경대응론이 대두하였다. 실권자 리홍장은 아산만을 통해 1,200명을 증파하면서 광을, 제원 두 군함의 호위를 받게 하였다. 일본은 청나라의 파병을 저지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전함 15척을 비롯하여 수뢰정 6척, 순양함 3척을 풍도 인근에 숨겨두고 기회를 노렸다. 일본은 파병된 군대를 상륙시키고 돌아가다가 풍도에 정박하고 있던 제원호와 광을호를 공격하였다. 이때의 공격으로 광을호는 좌초되고 제원호는 큰 피해를 입은 채 중국으로 도망쳤다. 풍도해전이 전개될 때 영국 국적의 상선 고승호(高陞號)가 1,220명의 군함과 12문의 대포를 싣고 북양함대 소속의 군함 조강호(操江號)의 호위를 받으며 풍도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다. 일본군은 고승호의 유령 선원들을 옮겨 타게 한 뒤 1,220명의 병사들과 함께 격침시켜버렸다. 이것이 청일전쟁의 서막인 풍도해전이다. 풍도해전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대승을 거뒀고 서해안의 제해권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3. 소사별 대회전으로 청일전쟁이 시작

풍도해전이 전개되던 시기 용산에 주둔하였던 오오시마가 이끄는 일본 보병 제11연대는 과천과 수원을 거쳐 평택시 소사동 방면으로 남하하였다. 또 보병 21연대도 용인, 안성을 거쳐 소사동에서 11연대와 합류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기병, 포병, 공병으로 구성되었고, 총 인원은 4,000명이었다. 일본군이 남하할 때 청군은 충청도 직산현의 성환역 인근에 진을 치고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 청군은 비록 평양에 1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아산과 직산, 평택에는 기존의 2,400명에 증파된 1,200명이 전부였고 무기에서도 일본군에 뒤졌다. 청군은 성환 동북부 월봉산 고지를 주진지로 삼고, 일개 부대는 공주를 점령하여 수비하며 평택시 유천동 부근에 망루를 설치하여 적의 동태를 살폈다. 일본군은 소사1동 뒷산(당산)에 망루를 설치하고 소사장터에 군대를 주둔시킨 뒤 군물포와 현덕면 권관리의 계두진에 독립부대를 주둔시켰다.(주한일본공사관 기록 참조) 또 29일에는 군물포의 독립부대를 안성천 건너 추팔리 방면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전투는 1994년 7월 28일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청·일 양군은 짙은 어둠을 틈타 안성천을 사이에 두고 격돌하였다. 일본군 선발대가 먼저 공격을 감행하자 사전에 눈치를 챈 청군이 안성천 다리에 매복하였다가 기습공격을 하였다. 당시 유천동 인근에는 농업용수와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쌓았던 군두보가 있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제방을 건너던 일본군 선발대는 청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큰 혼란에 빠져 전멸하고 말았다. 그래서 유래된 지명이 '왜몰보'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본군이 전멸할 때 열 대 여섯 살쯤 되는 북치기 소년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일제 말 전시체제가 일제는 소년의 감투정신을 이용하기 위해 소년이 빠져 죽은 웅덩이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찾아내지 못했고 유천동 군두보와 1번국도 변 흥경마을 입구에 큰 유적비를 세웠다고 한다.

싸움은 밤을 세워 29일까지 계속되었다. 청군에게 패배한 일본군은 작전을 바꿔 소사별에 소수의 병력만으로 진을 치고 허약함을 보인 뒤 새벽어둠을 틈타 성환 일대 청군의 진지를 포위 공격하였다. 예기치 않았던 일본군의 공격으로 청군은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크게 패하였으며 일본군은 고작 68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때 청군이 패한 들판(소사별)을 후대사람들은 '청망평'이라고 불렀다.

소사별과 성환 대회전이 끝난 뒤 청·일 양국은 양력 8월 1일을 기해 선전포고를 하였다. 선전포고 뒤 재격돌한 평양전투(9월 15일)에서 청군은 13,000에서 15,000명의 대군으로 대항하였지만 또 다시 일본군의 기습작전에 말려 2,000여 명의 전사자와 4,000여 명의 부상자를 내고는 대패하였다. 청군은 비슷한 시기에 전개된 황해해전에서조차 우세한 전력

과 화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두 차례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일본군은 양력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는 요동일대를 점령하였고, 이듬해 2월과 3월 경에는 청나라 북양군의 거점이었던 웨이하이까지 점령하였으며, 청의 굴복을 받아내고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였다.

4.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를 바꿔 놓아

청일전쟁은 청군과 일본군만 죽고 사는 전쟁이 아니었다. 전쟁터가 한반도 그것도 평택과 아산, 성환이다 보니 이유 없이 죽고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군문동과 유천동, 소사동 일대의 마을은 포탄에 맞아 초토화 되었으며, 한참 벼가 자라고 있었던 소사벌과 홍경평은 쓸밭이 되었다. 군수물자 운반과 보급을 위해 동원된 민중들, 참호를 파고 진지구축을 위해 동원된 백성들의 고통도 이에 못지않았다.

풍문에 따르면 규율이 잘 잡혀 있던 일본군보다, 규율도 엉망이고 조선을 얹잡아 보았던 청군의 횡포가 훨씬 심했다고 한다. 가슴에서는 열불이 나고 답답한 가슴만 쥐어뜯었지만 민중들은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 더구나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국가도 스스로의 임무를 저버린 지 오래였다. 어찌할 수 없었던 민중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뱉었던 한탄이 '아산이 무너지나, 평택이 깨지나' 였다.

청일전쟁은 한반도 식민지화의 서곡이며 중국 중심의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를 바꿔 놓은 매우 의미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주도권은 일본에게로 넘어갔다. 1905년에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마저 제압하면서 조선이라는 식민지를 얻었다. 1931년에는 만주를 침략하였고, 1937년에는 중국을 침략했으며,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제국주의적 야욕을 극대화시키려다가 패망하였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관계 정착이 요구되는 이때에,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평화정착의 목적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반면교사라고 하겠다.(2011)

평택역(平澤驛), 평택의 근대를 열다

1. 철도는 제국주의 침략의 첩경

증기기관차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은 영국의 R. 트레비식과 G.스티븐슨이었다. 1825년 처음으로 스톡턴-달링턴 간 철도가 개통되고 나서는 산업혁명에 성공한 유럽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너도나도 철도건설에 열을 올렸다. 철도는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대량의 상품을 실어 나르기를 희망했던 산업자본가들의 요구에 맞았다. 이렇게 건설되기 시작한 철도는 19세기 후반 제국주의국가들의 식민지를 침략의 첩경이 되어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고,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에도 건설되었다.

한반도에 철도가 건설된 것은 1899년이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열강의 이권침탈이 심화되었던 시기 미국인 모스가 경인선 철도부설권을 따냈다. 모스가 따낸 이권은 얼마 뒤 일본에게 넘어갔고, 1899년 노량진-인천 간 경인선철도가 개통되었다. 1903년에는 경부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었다. 러일전쟁을 목전에 두었던 일제는 전쟁물자의 수송과 대륙침략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반도, 만주대륙을 잇는 철도교통이 필요하였다. 일제는 철도건설을 위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대한제국의 행정력을 이용하여 인력을 충당하였다.

평택지역은 제2착공구간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회사는 이완용이 사장으로 있었던 대한운수회사를 비롯한 5개의 조선인회사와 한일공업조와 같은 일본인 회사였다. 평택지역은 야마구찌라는 일본인 회사가 공사를 맡았다. 이들은 조선인 90% 이상 고용이라는 규정에 따라 100여 명의 평택지역 인부들을 고용하고, 19만 3천 평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였다. 일본은 처음 토지보상비로 평당19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8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인력동원도 진위군 이방의 협잡으로 백성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 원평동에 평택역이 세워지다

경부선 평택역은 진위군 병남면 통북리에 설치되었다. 당시만 해도 통북리는 군문포에 인접해 있었을 뿐 수해가 빈번한 황무지였다. 일제가 인가도 없는 황무지에 철도를 건설한

것은 저들만의 속셈이 있었다. 급속한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값싼 곡물이 그것이었다. 당시 안성천변의 통한들, 동안들, 검은들, 번개들에는 궁방전(宮房田), 둔전(屯田)과 같은 국공유지가 널려 있었다. 일제는 을사조약 이전부터 국공유지와 황무지 개간에 눈독을 들였다. 토지의 확보는 일본의 경제성장에 필요했던 식량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통북리는 국공유지에서 수탈한 곡물과 아산만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어물을 들여올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컸다. 허허벌판 황무지여서 일본인 이민자들의 정착하는데 방해가 되는 토착세력도 없었다.

평택역은 일제의 식민지침략을 목적으로 건설된 식민지형 근대도시였다. 철도가 건설된 후 일제는 대전처럼 철도역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의 도로(신작로)를 가설했다. 서울-목포 간 1등도로(1번국도)가 가설된 것도 이 때다. 시가지의 중심에는 혼마찌라는 일본인 거리가 형성되고, 그 아래에 평택장이라는 조선인 시장이 만들어졌다. 혼마찌 주변에는 금융기관과 여관, 식당, 일본인 주택이 있었으며, 시장에는 싸전거리, 진전거리, 우시장이 자리 잡았다. 시가지가 형성되면서 평택리라는 마을도 생겼다. 평택리는 도시의 발달과 함께 평택면, 평택읍으로 성장하였다.

혼마찌는 일본인 특별자치구와 같았다. 친일파들을 제외하고 조선인들은 혼마찌 거리를 함부로 배회하지 못했다. 원평동 토박이 김동섭(76)씨는 혼마찌와 시장의 경계는 평화병원이었다고 말했다. 혼마찌에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도 시장거리에만 오면 살아났다. 1920, 30년대 대부분의 사회운동단체들과 교육기관이 싸전이나 우시장 주변에 자리를 잡았던 것도 시장일대가 조선인들의 무대였기 때문이다. 철도역 광장은 근대 도시 평택의 중심이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넓다란 광장은 조선인에게 경이로움으로 다가왔다. 평택역 광장은 1919년 3.1운동의 중심무대였다. 3월 11일 이도상 등 싸전거리 상인들이 주도했던 만세운동도 평택역 광장에서 전개되었고, 4월 1일 평택지역 최대의 핏볼 시위도 역광장이 중심이었다. 1920, 30년대 청년·사회단체의 집회, 평택지역 초등학교 연합운동회, 해방 후 좌·우익의 집회도 역광장에서 열렸다.

3.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구시가지

원평동 구 역사(驛舍) 시대는 45년 만에 막을 내렸다. 1946년(병술년) 물난리로 한차례 홍역을 치르더니 1950년 7월 한국전쟁 중에는 유엔군의 폭격으로 잿터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1946년 6월 저녁부터 내리던 비는 흡사 구멍 난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듯 평택 전역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당시의 신문에도 수해로 인하여 평택지역 시가지 전체와 안성천변 마을들이 수몰되었고, 8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1,816에이커의 경작지가 유실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수해가 지나간 자리에는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평택의 피해상황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구호품과 의약품이 답지하였으며, 미군 정청과 경기도 등 행정기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물난리의 피해는 컸지만 도시전체를 옮길 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1950년 7월의 유엔군 폭격은 복구의 의지마저 꺾어버릴 만큼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당시 평택장로교회 목사였던 송두규씨는 유엔군 비행기가 나타나자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더니 폭탄을 내리부었다고 하였다. 원평동 평화병원 부근에 거주하였던 이갑순씨도 인민군들이 들어오기 전 유엔군의 폭격연습이 있다고 하여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차역에 정착하였던 화물열차를 폭격하더니 시가지까지 폭격하였다고 말했다. 화약과 포탄을 실은 화물열차의 폭격은 구시까지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전방투입을 기다리던 103명의 군인들이 몰살되었을 뿐 아니라, 군청과 경찰서, 역광장 주변에 있었던 금융조합과 상업은행 건물까지도 푸석한 먼지만 남겼다. 민간인들의 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유엔군의 평택 폭격은 아직까지도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혹자는 38선 부근을 폭격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조종사들이 좌표를 잘못 읽어 37도선을 공격하는 바람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인민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와 철도를 폭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어쨌든 유엔군의 폭격으로 역사(驛舍)를 잃어버린 평택역과 군청, 경찰서 등 공공기관은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 김동섭씨가 거주하는 공주여관도 9.28 서울수복 뒤 임시 평택군청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원평동 구 시가지의 재건을 포기하고 철도역 건너편에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구도심 복구보다는 그 쪽이 훨씬 나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쩌면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당시의 신문기록에는 평택역의 이전기사가 나와 있지 않다. 대신 1953년 12월 26일에 평택경찰서가 이전하였고, 이듬 해 2월 9일에는 평택군청이 낙성식을 거행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주민들도 군청이나 경찰서보다 평택역이 먼저 이전하였다고 하여 조금 앞선 시기에 평택역이 이전했으리라 짐작된다.

4. 새 역사(驛舍)는 새 시대를 열수 있을까?

철도역과 관공서가 이전하면서 역(驛)과 함께 구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였던 시장도 옮겼다. 시택이 해방 직후 평택장에서 해산물도매점을 하였다는 이갑순(82세)씨는 평택장도 폭격으로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하였다. 시장이 파괴되면서 터전을 잃어버린 상인들은 철도 건널목 너머 시장 로터리 부근에서 소규모 노점을 시작하였다. 이곳은 대부분 과수원이

었지만, 통복교 부근에 진청학교(현 중앙초등학교)도 있었고 38번 국도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여서 장사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군청에서 과수원 자리를 정비하고 구획을 정하여 상인들에게 분양하였다. 지금의 통복시장의 탄생이었다.

일명 '쌈니'라고 통칭되는 평택3리 사창가는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다. 사창가는 한국전쟁 전에도 구 평택역 아래 차부 옆에도 한두 집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도심이 옮겨가면서 함께 이전하여 철도역 옆에 자리 잡은 것이 오늘날의 '쌈니'의 모태다. 시장과 사창가, 그리고 쇼핑과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명동거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갖춰지면서 신도시는 면모를 갖추었다. 면모를 갖추가던 신시가지는 1992년 평택시청의 비전2동 이전과 통합 평택시의 출범, 철도역 외곽의 아파트 밀집지역 발달, 고덕국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구도심의 침체와 슬럼화라는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다. 문제해결을 위해 부채살 모양의 중심가로를 정비하고, 민자역사를 유치하였지만 쉽사리 답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2011)



[평택역 밤풍경(2010)]

철도가 만들어낸 근대도시 평택(平澤)

1. 황무지에 도시가 건설되다

평택은 일제침략이 빚어낸 근대도시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했다. 식민지 수탈을 위해서는 철도, 항만, 도로와 같은 근대시설이 필요하였다. 1899년 경인선철도를 가설한 일제는 곧이어 경부선철도 건설에 나서 1905년 1월 1일 경부선철도를 개통하였다.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는 철도역이 설치되었다.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설치된 철도역은 텃세가 심한 구도시를 빗겨 설치되었다. 경기남부의 큰 장시였던 안성이나 과거 충청감영이 있었던 공주가 제외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평택역은 평택군 읍내면 군문리와 진위군 병남면 통북리 사이의 황무지에 설치되었다. 통북리는 구도심과 거리가 멀어 일본인 이민자들의 정착에 유리하였고, 안성천 수로와 군문포를 통하여 평택평야의 미곡을 수집하고 아산만으로부터 어물과 해산물을 받아들이기 용이하였다. 철도역의 명칭은 '평택역'으로 정해졌다. 진위군 병남면에 설치된 역(驛)이 왜 '평택역'으로 명명되었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일제가 평택군 영역이었던 읍내면 군문리가 철도역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평택(현 팽성읍)' 지역으로 혼동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철도역 설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역(驛)의 위치문제였다.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었다. 철도역 동쪽을 주장했던 일본인들은 서쪽은 안성천과 인접하여 수해의 위험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서쪽을 주장한 사람들은 서쪽지역에 국유지와 일본인 소유 토지가 많아서 안성천 수로를 이용한 미곡운송이 편리하고 군문포를 이용하여 소금과 해산물을 받아들이기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결국 철도역은 서쪽(현 원평동)에 설치되었다. 이것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가 식민지 지배와 수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철도역이 설치되면서 역(驛)을 중심으로 부챗살 모양의 신작로가 가설되었다. 당시에는 1등 도로라고 불렀던 서울-목포 사이의 국도 1호선도 철도역 앞을 지났다. 평택에서 온양 방향으로 연결된 국도 45호선, 안성에서 평택을 거쳐 안중으로 연결된 국도 38호선도 가설되었다. 철도역 주변에는 일본 이민자들이 몰려들었다. 일본인들은 철도역에서 남서쪽



[평택역에서 내려다 본 평택시가지 중심가(2011)]

으로 곧게 뻗은 큰길 좌우에 정착하였다. 사람들은 일본인 거리를 혼마찌 다시 말해서 본정통이라고 불렀다. 본정통에는 일본인 여관, 식당, 잡화점 등이 자리를 잡았다. 1등도로와 간선도로 변에는 헌병분견대(경찰서), 우체국, 은행과 같은 근대시설도 자리 잡았다. 본정통 남쪽에는 조선인 시장도 개설되었다. '평택장'이 그것이다. 도시와 시장이 발달하면서 통북리는 인구가 급증하였다.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하자 새로운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가 그것이다. 이로서 시가지는 중심에 평택리, 그리고 역 좌·우에 통북리와 군문리가 자리 잡게 되었다. 1920년대로 들어오면서 평택리는 인구가 급증하였다. 이제 철도역은 단순히 하나의 교통시설이 아니라 평택지역의 교통, 금융, 상업, 교육, 치안의 중심이 되어갔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화로 1926년 경에는 진위군청이 옮겨왔고, 1931년에는 병남면을 제치고 평택면이 되었다. 1938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진위군을 대신하여 평택군이 되었으며, 평택면은 읍(邑)으로 승격하였다. 바야흐로 평택군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2. 근대도시 평택의 중심은 평택장(平澤場)

일제가 인가도 많지 않은 허허벌판에 철도역을 건설한 것은 경제적 목적에서였다. 1910년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곡물이었다. 안성천 주변의 미개간지와 궁방전, 역둔토는 일제에게 매력적인 대상이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곡물과 소금, 어물이 매집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평택장이 그것이다.

시장(市場)은 평택평야와 안성천, 진위천 수로를 통하여 유입되는 상품들의 도매 기지 또는 소매시장 역할을 하였다. 시장은 본정통 평화병원 남쪽부터 시작되었다. 본정통의 일본인 상점에서는 주로 잡화와 같은 근대적이면서도 신기한 물건을 팔았지만, 조선인 시장의 주요 상품은 쌀과 어염(魚鹽)이었다. 나중에는 농사에 사용하는 농우(農牛)들도 주요 상품이 되었다. 시장은 철도와 신작로라는 근대교통시설을 매개로 날로 번창하였다. 1920년대, 3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근대교통에서 소외된 안성장을 넘보기 시작하였고, 충청대로의 가장 큰 시장 가운데 하나였던 둔포장을 제쳤다. 일제강점기 식민지통치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에도 일제강점 이후 가장 유명한 시장으로 평택장을 거론할 정도였다.

시장이 번창하면서 주변에는 세무서,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주막과 각종 종교, 사회운동단체가 모여들었다. 각종 집회도 평택역 광장과 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시장은 정보교류의 장소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1운동 당시 평택장의 미곡장수들이 가장 먼저 만세시위를 전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택장의 시장은 주변상권의 변화를 가져왔다. 삼남대로의 요로에 위치하여 번성했던 소사장의 몰락은 하나의 예이다. 소사장이 폐장(廢場)된 것은 1920년대 초라고 한다.

나날이 성장하던 평택장은 해방 이듬 해 폐장(閉場) 위기를 겪었다. 1946년(병술년) 수해(水害) 때문이다. 근대도시로 건설된 '평택(平澤)'은 구조적으로 수해에 취약한 지형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일제도 이점을 염려하여 도시 외곽에 장방형의 제방을 쌓는 등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였지만 엄청난게 쏟아 부은 병술년 물난리에는 당할 수가 없었다.

물난리를 겪고난 뒤 도시와 시장은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시장의 곡물이나 어물, 잡화들도 못쓰게 되었지만 허술하게 지은 다다미식 건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만 해도 '보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여서 마땅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 몇 년 뒤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인민군이 남하하면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던 유엔군과 국군은 인민군의 남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철도와 시가지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였고 구 시가지는 재건이 어려운 마비상태가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후퇴한 뒤에도 도시의 기능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다. 건물이 파괴된 군청과 경찰서도 평화병원이나 공주여관 등을 전전하였다. 그러다가 1953년을 전후하여 평택역을 필두로 군청과 경찰서가 현 평택동에 새 청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다. 평택장도 터전을 잃고 통북동 땡땡거리(시장로터리에서 원평동으로 건너가는 지하도) 부근에서 노점을 하다가 평택군청의 도움으로 통북동 인근의 사과과수원을 밀어내고 시장을 조성하였다. 새로 조성된 시장은 통북동에 있다고 하여 '통북시장'이라고 불렀다. 시장은 1980년대 전후 평택동 구 터미널 근처(현 삼성빌딩 근처)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었

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부시설들만 조성하고는 중단되고 말았다. '폐계담 골목', '먹자골목'이라고도 부르는 평택동 '새시장 골목'이 그곳이다.

3. 평택동 그리고 원평동

철도역이 설치되기 전 평택시까지는 한가한 농촌마을이었다. 안성천변에는 군문포, 간포, 신덕포, 삼교포와 같은 포구마을이 모여 살았고, 통북동에는 통북개, 세교동에는 은실, 잔다리, 비전동에는 어인남리, 합정동에는 조개터, 배미, 창말같은 크고 작은 마을들뿐이었다. 그러다가 평택역이 설치되면서 '평택리'가 만들어졌다. 근대교통이 철도와 신작로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평택리는 점점 확대되었다. 1920년대 중반에는 진위군 일대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마을로 발전하였고, 1930년을 전후해서는 군청, 읍사무소, 경찰서, 은행, 여관, 시장이 밀집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평택리의 전성기는 한국전쟁으로 막을 내렸다. 폭격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면서 철도 동편에 신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신도시의 도시설계도 구도시와 흡사하였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부채살 모양의 도로망을 구축하고 중앙도로 끝 지점에 평택군청과 평택경찰서를 배치하였다. 철도역 서쪽 변화가는 '명동골목'으로 불려졌다. 터미널은 철도역과 경찰서 사이에 위치하였고, 나중이지만 군청 건너편에는 시민회관도 만들어졌다. 주요관공서와 도시기반시설이 이전하면서 구도시의 주민들도 옮겨왔다. 철도 서북쪽에는 사창가도 자리 잡았다.

철도 동쪽에 새로 조성된 시가지의 지명도 '평택리'였다. 평택읍은 확대된 평택리에게 1리, 2리, 3리, 4리, 5리, 6리... 와 같은 지명을 부여했다. 지금도 본정통 골목에서 볼 수 있는 '이리정육점', 원평동 옛 1등 도로 변의 '육리반점', 평택지역 사창가의 대명사 '짜리(평택 3리)'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옛 시가지의 폐허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살아온 토착민들과 전쟁 피난민, 중심에서 밀려난 도시빈민들이 정착하였다. 오랫동안 평택지역에서 '철독너머', '뚝너머'라는 명칭이 빈민가의 대명사처럼 불려졌던 것은 이 같은 내력 때문이다. 낙후된 몰골로 몇 십 년을 살아온 '철독너머' 동네는 1986년 평택시가 승격되면서 '서부동'으로 편제되었다. 평택중심의 서쪽에 있으니 '서부동'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토착 주민들은 평택시의 처사에 반발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시한 새 이름이 '원평동', '평택시의 근원이며 원조'라는 뜻이다.(2010)

평택지역 최대의 민중운동이었던 3.1운동

1. 향토박물관 건립은 시급한 사안

8년 전쯤 당시 평택시의회 의장의 요청을 받아 평택시향토박물관 건립을 위한 제안서를 만들어준 일이 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평택시박물관건립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서울의 모 건축회사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조사까지 마쳤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박물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치인들에 의해 사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이듬해 바뀐 신임시장은 논의를 무기한 연기시켰다.

지난 주 평택남부문예회관 전시실에서는 '제1회 평택향토사료전시회'가 열렸다. 평택문화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전시회는 입이 썩 벌어질 정도로 많은 사료가 수집, 발굴되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입버릇처럼 '없다'라고만 주장했던 학자, 공무원, 시민들에게 '평택지역에도 다양하고 풍부한 유물과 유적이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시회를 주관한 평택문화원 박성복 사무국장은 이번 전시된 유물은 병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수집된 유물 중에서도 전시된 것은 30%가 안 되며, 미 발굴 유물까지 고려하면 1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랫동안 지역조사를 수행하였던 필자는 사무국장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필자도 지역과 마을을 조사하던 중에 수많은 마을문서, 민장문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사료는 거의 없다. 대부분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수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향토박물관은 필자와 같은 지역사연구자들의 아쉬움을 해결해줄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다. 또한 박물관 건립은 전시가 끝난 유물들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는 문화원 사무국장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안이기도 하다. 필자는 조속히 박물관건립위원회가 재개되어 평택시향토박물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한다. 아니면 문화원에 사료관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하여 수집된 사료들만이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하려면 좋겠다. 경제만이 평택시의 백년대계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백년을 내다 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 전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된 3.1운동

유물(遺物)에서 아쉬움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유적(遺蹟)으로 넘어가자. 1919년 고종황제의 장례일에 태화관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일제의 무단통치에 신음하던 민중들은 민족독립의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자 들불처럼 일어났다. 민족독립의 열정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서울과 철도교통으로 연결되었고 천도교인들이 많았던 평택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일찍, 더욱 뜨겁게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병헌의 3.1운동비사'에 따르면 평택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9일 현덕면 기산리 옥너봉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전한다. 옥너봉 시위는 천도교인이었던 현덕면 권관리의 이민도, 이승엽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다음 날 신왕리 고등산과 권관리 계두봉 시위까지 주도하여 평택지역에 만세운동이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3월 10일에는 오성면 속성리 뒷산, 양교리 오봉산, 청북면 현곡리 신평장터에서도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평택지역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던 평택역 시위는 3월 11일에 발생하였다. 이날의 시위는 평택장의 미곡상인 이도상, 목준상 등이 주도하였고 참여인원만도 1천 명에 가까웠다고 한다. 3월 21일에는 천도교인들이 거주하였던 진위면 야막리와 봉남리 주민 500여 명이 박창훈을 중심으로 격렬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박창훈은 야막리의 천도교인으로 시위 군중들을 봉남리 진위군청 방면으로 이끌어 만세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 3.1운동은 4월 1일(음력 3월 1일)을 전후하여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였다. 평택지역에서도 3월 말로 접어들면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만세운동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3월 31일에는 진위면 봉남리의 박성백, 최구홍이 주도하여 만세시위를 하였다. 평택지역 3.1만세운동의 하이라이트는 4월 1일 밤에 발생하였다. 4월 1일 밤 평택역 광장에서 3천여 명이 시위를 전개하자, 사전에 밀약한 팽성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일대의 주민들이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봉화(燄燭)를 울리며 연대시위를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이날 시위의 특이한 점은 명확한 중심세력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상호 연대하였다는 점이다. 중심세력이 드러나지 않고도 3천여 명을 조직하고 상호 연대하여 만세를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치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2일 서탄면 사리의 만세운동은 매우 특이하다. 만세를 주도한 인물은 조선말기 관료를 지냈으며 당시 서탄면장이었던 윤기선이었다. 윤기선은 면사무소 행정조직망을 활용하여 각 마을의 구장(이장)들에게 주민들을 대동하고 면사무소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하였

다. 그런 다음 주민 400여 명과 함께 사리교를 건너 봉남리로 진격하며 만세를 불렀다. 또 4월 9일에는 서평택지역의 고덕면, 진위면, 오성면, 현덕면 주민들이 연대하여 평택역으로 진출하면서 만세를 불렀으며, 이튿날에는 서탄면 수월암리, 사리 주민들이 연대시위를 전개하였다.

3. 보존되고 계승되어야 할 3.1운동 유적

1957년 기록에 따르면 당시의 만세운동으로 평택지역에서 구속된 사람은 200여 명이 넘으며 사망자도 60여 명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기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200명 구속에 60명 사망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인원이다. 이것은 그만큼 평택지역의 3.1만세운동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전개되었다는 반증일 것이다.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가 주민들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 마을도 많다. 예컨대 천도교 인들이 많았던 현덕면 권관리나 진위면 야막리 주민들은 무차별 연행당하여 손가락을 절단당하고 극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한다. 또 정경순 등 마을 주민 몇몇이 만세를 주도하였던 진위면 은산리도 일본경찰이 참여자들을 잡아간다면 마을을 뒤지고 무차별로 폭력을 가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은산리나 권관리에만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안중읍 학현리의 경우 김용성 등 마을 주민 몇몇이서 만세를 불렀으면서도 주민들 전체가 고초를 겪었고, 아들이 만세를 불렀다며 부모를 비롯하여 가족 전체를 잡아가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규모나 범위, 내용 면에서 격렬한 시위로 널리 알려진 원곡·양성이나 화성시 우정면, 향남면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평택지역에서는 3.1운동에 관한 지표조사와 유적지정, 기념관 건립은 물론이고,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콘텐츠화하여 시민들과 공유하여 자긍심으로 남길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있다. 역사·문화유산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랑할 때만 존재한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평택 지역 3.1운동에 관심을 갖고, 유적에 표석이라도 세우며, 참여인물들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지역의 자긍심, 아이들의 표상이 되게 하였으면 좋겠다.(2011)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청년운동

1. 3.1운동을 계기로 사회운동 활성화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사회운동은 3.1만세운동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1운동은 만주나 연해주, 상하이같은 해외독립운동에도 힘을 불어 넣었지만 국내의 부문별 사회운동에도 활력을 제공하였다. 1920년대 전반 지역사회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하였다. 민족주의 계열은 청년단체, 소년단체, 언론단체, 형평사 평택지부 등 부문별 사회운동단체를 조직하여 민중계몽, 야학, 강습소 운동 등 다양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전반에 활동한 청년단체로는 1921년에 창립된 평택청년체육구락부와 1922년에 창립된 진위청년회가 있었다. 소년단체로 처음 설립된 것은 1923년에 조직된 평택소년야구단이다. 평택소년야구단은 김수혁, 김귀갑에 의해 평택소년회로 바뀌었으며, 문예, 야구, 정구, 축구와 같은 활동과 잡지 '소년광'을 발행하였다. 평택소년회는 1930년대 초 평택소년동맹으로 혁신되었다. 이밖에도 서정리소년동맹, 1927년 4월에 조직된 경성애우소년학회 진위지부가 창립되었다.

1920년대 평택지역의 언론단체로는 동아일보 평택지국, 서정리분국, 고덕분국, 조선일보 평택지국, 조선중앙일보 서정리지국 등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지국이나 분국은 반독립적인 언론사와 같아서 자체 기사를 두고 취재활동을 하였고 때문에 평택지역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형평사운동은 과거 백정신분을 가졌던 인사들이 전개한 사회적 차별철폐운동이다. 평택 형평사지부는 1928년 경에 창립되었고 위원장은 이일성이었으며 회원은 30여 명이었다.

사회주의운동은 러시아혁명의 영향과 1920년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희의를 느낀 청년, 학생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은 중앙의 사회주의운동단체나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으며 부문별운동을 혁신하고 진보적 노동운동, 농민운동, 조선공산당계전운동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평택지역은 사회주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파견된 직업적 운동가들과 지역의 자생적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이 전개되었다.

2. 청년들이 깨어나다

일제강점기 청년운동은 평택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이었다. 청년운동은 청년층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족독립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운동의 주체로 키우고 싶어 했다. 초기 청년운동을 주도한 것은 청년지식층과 지역 유지층이었다. 그러다가 중앙 청년단체의 사상적 변화에 따라 점차 사회주의적 이념과 운동방식을 받아들여 혁신(革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평택지역의 청년운동은 1917년(대정 6년)에 시작되었지만 흐지부지 되었고, 3.1운동 이후 청년층의 각성과 문화운동의 영향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1920년대 청년단체로 가장 먼저 조직된 것은 1921년 5월 15일에 결성된 평택청년체육구락부다. 평택청년체육구락부는 체육, 충육, 지육발전을 표방하였으며, 주요 간부는 부장 유창근, 부부장 신찬우, 그리고 장윤식, 김정환, 이병갑, 박노수였다. 이들은 신찬우처럼 보성전문에서 근대교육을 받았거나 류창근이나 장윤식처럼 동아일보 평택분국을 운영하며 기자로 활동하는 등 사회적인 명망과 경제력을 갖춘 유지층(有志層)이었다. 평택청년체육구락부는 1922년 진위청년회로 개편되었다. 진위청년회는 창립 강령에서 '현대문화운동'을 표방하였다. 현대문화운동은 실력양성론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초대 회장은 신찬우였고, 부회장은 신영수, 학예부장 박노수, 체육부장 신정만, 사교부장 성주환, 풍화부장 김병철이었다. 이들은 민립대학설립기성회 설치, 진위군 춘계육상운동회 개최, 이연식과 이외술을 초청하여 '우리의 교육'을 주제로 강연회 개최, 척사대회 개최와 같은 민중계몽과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쳤다. 또 1928년에는 야학부를 설치하여 무산아동의 교육도 실시하였다.

진위청년회는 야학부를 설치하면서 '귀인교육'에 목적을 두었는데, 귀인이란 다음 아년



일제강점기 송탄지역 청년운동의 메카 서정역 일대(2009)

‘근대적 지식인 육성’을 말하는 것이었다.

진위청년회도 1924년을 전후하여 변화를 겪었다. 1923년 3월에는 전조선청년당대회 참가를 결의하였다. 전조선청년당대회는 사회주의단체인 서울청년회가 주도한 대회로 장덕수 등이 주도한 우파 민족주의계열의 조선청년연합회를 무력화하고 청년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대회였다. 진위청년회가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기존의 민족주의적 활동에서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선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평택지역 유치층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임원진들은 청년회에서 벗어나 식민지 통치 조직에 참여하는 등 우파적 경향을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3. 청년들이 사회변혁에 관심을 갖다

진위청년회는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침체를 겪었다. 침체의 원인은 청년회 내부의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다. 1927년 4월 23일 동아일보에 소개된 순회방담에서도 ‘세상이 변해가면서 우면상태에 빠져 유아무야 지내오다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우면상태의 진위청년회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은 1926년 9월경이다. 진위청년회는 혁신총회를 개최하고 이민두와 정인창, 김영주를 중심으로 4인위원회를 구성한 뒤 회관신축, 노동자와 농민, 도시민민의 계급적 각성과 이익 증대와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적극적 활동을 선언했다. 1927년 3월 5일 평택면 평택리 김영주의 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무리한 소작권 이동에 대하여 박영환, 김영주를 조사위원으로 파견’ 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이와 같은 선언의 실천이었다. 이밖에도 당시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던 ‘재만동포 박해에 대한 선전문 배포 및 시위운동 전개’ 결의, 무신아동교육과 문맹퇴치를 목적으로 진청학원을 설립하여 무상교육을 실현하려고 한 것도 핵심 사업이었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들은 진청학원의 무보수, 무상교육 실시와 학교건물 신축을 위해 소인극 공연, 식빵 행상을 하였다. 또 오랜 가뭄 끝에 7월경에 비가 내리자 회원들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모내기 일손 돕기를 지원하였다.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로 넘어가면서 평택지역의 사회운동은 큰 변화를 겪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운동의 성격이 좀 더 좌편향적으로 변하였고, 중앙에서 활동하던 남상환, 홍선유, 김학룡 등 직업적 운동가들이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1930년 10월 진위청년회는 남상환, 홍선유 등을 중심으로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의 임시의장은 리홍중이었으며, 5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안충수가 선출되었다. 안충수는 3.1운동 당시 이도상, 목준상과 함께 3월 11일 평택역전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옥고를 치른 인물로 당시에는 과수농업전문가, 동아일보 평택지국장

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 명칭도 진위청년총동맹으로 혁신하였으며, 경부선 서정리 역전에는 남상환에 의해 서정리청년동맹이 새롭게 조직되었다.

남상환은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직업적 활동가로 평택에 내려와서는 경부선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정리청년동맹과 1930년 7월경에 창립한 서정리노동청년회는 남상환의 맘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평택지역에는 홍선유, 김학룡에 의해 평택노동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직업적 활동가들이 노동청년회를 결성한 것은 장기적으로 평택청년동맹과 서정리청년동맹을 해체하고 노동자와 농민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홍선유와 김학룡은 평택노동청년회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노조활동 전개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였다.

평택지역의 진보적 사회단체를 결집하려는 노력도 1930년대 초 사회운동의 특징이었다. '진위사회단체회'의 결성은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평택지역 사회운동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그것은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일제가 사회주의 사회단체에 대하여 강력한 탄압을 하였고, 남상환이 수진농민조합 사건으로 미결수 상태로 구금되었다가 사망하였으며, 평택노동청년회를 이끌었던 김학룡이 1936년 함경도 명천에서 '명천공산당사건'으로 구속된 것이 원인이었다.(2009)



[일제강점기 청년운동의 요람 평택청년회 본점통 앞(대2002)]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교육운동

1. 교육(教育)으로 독립을 쟁취하리라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은 지배체제에 순응하고, 노동력 수탈에 적합한 기술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11년에 발표된 조선교육령 제1장 강령에도 '충량한 국민을 기르기 위해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주고(2조), 국민된 성격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5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 교육연한을 4년으로 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억제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교육기관은 공립학교와 야학, 강습소, 개량서당 등 사립교육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근대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다. 근대국가에서 교육은 신분의 틀을 벗어나 계층상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초의 교육시설은 급격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1922년 공·사립 보통학교의 경우 지원자 13만 4,437명(전국기준) 가운데 입학 가능 인원은 74,891명에 불과하였다. 조선인의 근대교육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일제는 1920년대 초 1면(面) 1교(校) 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이 되도록 1면(面) 1교(校)는 실현되지 못했다. 교육운동에는 일제강점기 신문화운동론자들도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근대교육의 보급이 실력양성의 적절한 수단이며 신문화건설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각종학교로 분류된 기존의 교육시설을 기금을 모아 사립보통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제가 1면(面) 1교(校)정책을 발표하자 사립보통학교보다는 공립학교 유치운동으로 선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야학·강습소와 같은 사립교육기관은 향촌의 지식층이나 사회운동단체, 종교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1920년대 전반만 해도 공립보통학교는 3면(面) 1교(校) 수준이어서 폭발적인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더구나 생활조건 악화로 수업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부를 그만두는 빈농층, 빈민층의 자제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했다. 야학은 빈농층의 자제들이나 학업연령을 초과한 사람,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야간에 강습이 이뤄졌다. 반면 강습소는 시설이 낙후되었을 뿐 공립학교처럼 주간에 일반학

교 교과목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2. 주민들이 앞장서서 공립학교 유치

1895년 7월 소학교령(小學校令)에 의해 평택최초로 설립된 학교는 진위공립소학교다. 본래 진위소학교는 1898년 11월 사립학교로 설립되었다가 군수와 지역유지들이 정부에 교원과 서책을 내려줄 것을 청원하여 이듬해 공립소학교로 개교하였다. 하지만 초기 진위공립소학교는 학교건물이 없어 관아와 객사, 향교의 대성전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과 잦은 교사의 교체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1913년에 설립 인가된 평택공립보통학교는 1904년 평성읍 남산리의 강난수씨 사랑방에서 개량 서당으로 시작되었다가 공립학교로 전환되었다. 1922년 5월에는 안중공립보통학교가, 6월(또는 10월)에는 서정리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1926년 9월에는 청북면장 신찬우의 노력으로 청북공립보통학교가, 평택시 통복동에는 일본인 자제들을 위한 평택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다. 평택심상소학교는 보통과 외에도 고등과를 개설하여 교수하였다.

1927년 1월 경기도에서는 입학난을 완화하기 위해 진위·양주·포천·강화·광주 등 7곳에 보통학교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진위군 부용면과 서면(현 평성읍)의 유지(有志)들은 공립보통학교유치를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유치운동에 나섰다. 기성회 임원들은 각 마을을 순회하며 모금을 하여 1927년 10월 13일 4년제 부용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1929년에 설립된 내기공립보통학교, 1930년 12월 설립된 서탄공립보통학교, 1930년 8월에 설립된 고덕공립보통학교도 지역주민들의 모금과 노력으로 개교하였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학교를 증축하여 입학난을 해소한 경우도 있었다. 서정리공립보통학교와 평택공립보통학교가 그것이다. 서정리공립보통학교는 학교가 비좁아 입학희망자를 수용하지 못하자 학생들과 유지들이 성금 1만 5,000원을 모금하여 6학급을 증축하였다. 동아일보 1936년 3월 5일자에도 '진위군은 소학 9년에 1면 1개교가 달성되었지만 절반가량이 4년제이고, 아직도 취학대상아동이 2300여 명인데 반하여 취학가능인원은 560여 명에 불과하여 학교증축과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서정리공보교는 유지들의 성금 15,000원으로 6학급 증축을 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1940년대 전시체제기에는 황국신민화교육과 전쟁수행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보통학교를 '국민학교(國民學校)'로 개편하고, 조선어교육과 조선역사교육이 금지되었다. 1943년부터는 국민학교에 배석 장교를 배치하고 상급생에 대한 학교교련과 청년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941년 10월에 개교한 오성초등학교와 1943년 4월에 개교한 평성초등학교, 1944년 4월에 개교한 죽백초등학교는 이 같은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야학·강습소는 실력양성운동의 일환

일제강점기의 야학·강습소는 근대교육과 문맹퇴치로 실력을 양성하려는 민족주의자들이 전개하였다. 야학·강습소는 대부분 지역 유지(有志)들과 사회운동단체, 청년, 학생들이 개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는 일본어 보급을 위해 일제가 지원하여 설립된 것도 있었다. 이곳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선어와 한문·산술·일반상식도 함께 교육하였다. 더구나 입학시험이 없었고 학비도 저렴하여 가난한 빈농들에게는 근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평택지역의 근대적 사립학교는 을사조약 뒤에 세워졌다. 초기의 사립학교로는 고덕면의 이범철 형제가 세운 진흥의숙, 1907년 청북면 백봉리에 서상천이 세운 수성학교, 1906년 성공회 객사리교회에서 김인순 전도사가 설립한 신명강습소, 1907년 합정동 조개터에 세워진 동명의숙, 그리고 1912년 능성 구씨가 진위면 봉남리에 세운 구씨학원(금릉학원)이 있다. 당시의 사립학교들은 실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일부 학교는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현실로 인정하고 변화된 세상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경우도 있었다.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많은 수의 야학·강습소가 설립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20년 배재고보 출신의 최기환이 서탄면 회화리에 세운 회화강습소, 1922년 평택장로교회에서 세운 은평강습소, 1923년 현덕면 신왕리에 유인(柳寅)이 세운 신왕리강습소, 1923년 청북면 율북리에 양재근이 세운 일신강습소, 1924년 서탄면장 이필성의 발기로 세운 서탄면 회화리 진서강습소가 있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야학·강습소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주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무산계급 아동들의 계급적 각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가 나타났으며, 강습소의 시설이나 규모도 공립학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1928년 5월 진위청년회에서 세운 진청학원, 1927년 8월 현덕면 운정리 진흥구락부에서 세운 운정강습소, 1931년 황로식이 오성면 양교리에 세운 신흥학원(양교리강습소), 1935년 서병창이 오성면 숙성리에 세운 서일학원, 포승면장을 지낸 이홍서씨의 아들 이민영이 포승읍 방림리에 세운 대덕학원, 1932년 양해동, 김덕래, 전규영이 포승읍 원정리에 세운 중성학원, 1935년 양창석과 박필훈이 청북면 율북리에 세운 율북강습소, 1935년 최남순이 송탄면 가재리에 세운 가재리강습소, 1930년 정운봉 등이 팽성읍 도두리에 세운 도청강습소(도두리강습소)가 있다. 이 시기 강습소운동을 전개한 인물들은 상당 수 사회주의적 성향이었으며, 많은 인사들이 해방 후 또는 한국전쟁 시기에 좌익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4. 해방 후 개교한 공립학교는 강습소(講習所)가 뿌리

1930년대 전후에 설립된 강습소들은 해방 후 공립학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다. 진위청년회에서 세운 진청학원은 박상만과 양정고보생 김준석, 경성제대생 김귀갑이 주도하며 무산아동들 뿐 아니라 여성과 부인들까지 교육하다가 1933년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것을 진위청년동맹 위원장을 지낸 이민환이 인수하여 1935년 진청학원으로 개교하였다. 진청학원은 이민환이 사재를 들여 통북리(동)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였고, 학제도 2년제에서 4년제, 6년제로 발전시켜 사립학교의 면모를 갖췄다. 해방 직후에는 통북동 시장로터리 부근의 일본인 심상소학교 건물로 학교를 옮긴 뒤 공립진청국민학교로 개교하였으며, 한국전쟁 직전 세교동으로 옮겨 학교를 신축하면서 중앙초등학교가 되었다.

서일학원은 오성면 숙성리가 고향인 서병창이 세운 학교였다. 서병창은 보성고보에 유학했던 인텔리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교사는 서병창 부부를 비롯하여 3, 4명이 있었고 교과목은 일반학교와 같았다. 서일학원은 신흥학원(양교리강습소)과 함께 1941년 오성초등학교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통합되었다. 이밖에도 율북리강습소는 어연초등학교의 뿌리가 되었으며, 가재리강습소는 송탄초등학교, 도두리강습소(도청학원)는 계성초등학교, 중성학원은 원정초등학교로 전환되었다.

1935년부터는 여러 지역에 간이학교와 국어(일본어)강습소가 설치되었다. 간이학교는 전 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교육기관이 부족하여 황국신민화교육이 어렵게 되면서 일제가 세운 학교였다. 교육연한은 2년인 경우가 많았고, 교육기간이 끝나면 4년제나 6년제 학교로 편입하였다. 국어강습소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일본어를 교육하기 위해 일제강점 초기부터 설치하였다. 주도층도 친일관료나 친일적 성향의 지역유지들이 많았다.(2009)



평택 최초의 공립소학교 진위초등학교(2013)

수진농조운동, 일제강점기 진보적 사회운동

1. 따스한 봄날, 한가한 서정리역

따스한 봄날 오후의 서정리역은 한산했다. 몇몇 노인들만이 역 광장 벤치에 앉아 한가롭게 한담을 나누고 몇몇 젊은이들만이 바쁘게 그 옆을 지나갔다. 서정리역에 정차하는 기차는 많지 않다. 출퇴근 시간에만 몇 대가 정차했는데 그것마저 전철이 개통하며 쓸모가 없어진 탓이다. 서정리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되며 문을 열었다. 역이 설치되기 전 서정리역 일대에는 서두물, 갈평, 지장골 같은 크고 작은 마을들만 있었다. 그러다가 역이 들어서면서 서울, 부산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역을 찾았고, 기차역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식당과 술집, 여관이 들어섰다. 1932년에는 역사(驛舍)가 새로 지어졌다. 새 역사(驛舍)는 2004년 현대식건물로 거듭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기차역 주변에는 시장도 들어섰다. 서정장은 평택장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주변상권의 중심이 되기에 넉넉하였다. 개시일은 2일, 7일이었다. 장날이면 송탄 사람들 뿐 아니라 고덕, 청북, 진위, 서탄 지역 농민들이 농산물을 이고 지고 시장 골목으로 모여들었다. 서정역 앞 골목에는 역사를 자랑하는 식당과 여관들이 많다. 서정역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은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정리보신탕이고, 시장순대집도 다른 곳에서 식당을 열었다가 시장 안에 자리를 잡은 지 30여 년이 되었다. 오래된 집으로는 시장 안 선술집들도 둘째가라면 서럽다. 선술집은 5일 또는 10일 만에 만나는 장꾼들의 만남의 광장이고 카페였다. 필자가 답사를 했던 지난 수요일, 시장 귀퉁이 선술집에서는 초로의 노인 세 분이 주거나 받거나 하며 막걸리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빠른 손놀림으로 부침개를 부쳐내는 주인 아주머니도 볼거리였다. 어쩌면 일제강점기 시장 귀퉁이 선술집 풍경도 지금과 같았을 게다.

2. 청년들, 진보적 사회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다

일제강점기 서정리역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은 장사꾼이나 농민들만이 아니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교육기관, 사회단체들도 자리 잡았다.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근대교육시설은 서정리초등학교다. 서정리초등학교는 1922년 4년제 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하였다. 평택

지역에서는 1899년에 개교한 진위공립보통학교, 1913년에 개교한 성동초등학교, 같은 해 5월에 개교한 안중초등학교에 이은 네 번째 공립학교였다.

서정리는 학교가 들어서면서 교통의 중심에서 교육과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일제강점기 초등학교에는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의 학생들도 많았다. 20세 전후는 민족의 해방과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나이였다. 서정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모인 젊은이들은 서정리역 주변에 청년단체를 만들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지국을 열어 역량을 키워갔다. 서정리 역전에 모인 젊은이들의 초기 사회운동은 실력양성운동이었다. 하지만 3.1운동을 겪으며 직업적 운동가들이 유입되고 사회주의가 유행하면서 진보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나타났다. 사회주의는 수 천 년 동안 민중들을 억압해 왔던 계급과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고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상으로 인식되었다. 서정리역전의 사회운동을 주도하였던 인물은 남상환이었다. 남상환은 초기에는 진위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서정리 역전으로 활동공간을 옮긴 뒤에는 서정리청년동맹, 서정리노동청년회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3. 수진농민조합으로 피어난 진보적 사회운동

남상환(1908~33)은 경기도 양주 출신이었다. 그가 서정리 역전으로 온 시기는 대략 1920년대 후반으로 생각된다. 직함은 조선일보 평택지국장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일보는 진보적 신문이었고, 신문사 지국장은 지방 주재 기자였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로웠고 사회적 지명도도 높았다. 남상환은 기자활동을 하며 고덕면의 김영상과 박병철, 최오무, 노치선, 신은철과 같은 지역인물들을 만났다. 정황으로 볼 때 당시 김영상은 서정리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인물들은 김영상과 관련 있는 사람들로 생각된다. 동지들을 끌어 모은 남상환은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청년운동, 언론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농민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갔다. 1930년 8월에는 일제강점기 진보적 농민운동단체였던 조선농민총동맹의 중앙위원 겸 서기로 선출되었다. 1931년에는 서정리노동청년회를 서정리노동조합으로 개편하여 집행위원장을 맡고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평택역 앞의 평택청년동맹 중앙위원의 직함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일보 고덕분국을 유지하고 김영상을 분국장으로 활동하게 한 것도 그의 역할이었다. 짧은 기간 눈부셨던 활동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았다. 1930년을 전후하여 대공황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는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타도하고 민족해방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자와 농민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침략을 막아내고 친일지주, 자본가

를 타도하는 것도 시급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폭넓게 동지들을 규합하고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다. 남상환이 수진농민조합을 결성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었다. 수진농민조합은 처음에는 진위농민조합으로 출발하였다. 창립식도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 고덕면 울포리 뒷산에서 비밀리에 치렀다. 초기조직원들은 진위면 야마리의 박규희, 고덕면의 김영상 등 진위지역 인물들이었다. 그러다가 이원섭, 장주문, 박승극 등 서탄면과 경계를 이룬 양감면 용소리와 수원지역 인물들이 합류하면서 명칭도 수진농민조합으로 바꿨다. 수진농민조합은 고덕면과 양감면에 지부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소작문제 등 농민문제에 적극 적으로 개입하였다. 일제가 설립한 조선농회와도 대립하였고, 서탄면 금각리와 황구지리에서는 일본인 대지주의 무리한 소작료 인상에 대항하여 소작쟁의를 일으켰으며, 진안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빈농층의 자립을 도왔다. 수진농민조합의 활발한 활동은 일제에게는 위협이었다. 수 차례의 갈등과 연행을 거듭하던 일제는 결국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남상환을 비롯한 핵심인물 8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하였다. 일제가 수진농민조합의 운동가들을 구속한 목적은 수진농조의 와해였다. 일제는 남상환 등을 서대문형무소에 1년 반 동안이나 미결수 상태로 수감한 상태로 호된 고문과 악형을 가하며 재판을 하지 않은 채 질질 끌었다. 수진농조 핵심간부의 구속은 전국 사회운동단체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지만, 일제의 압박과 핵심지도부 5명이 수감으로 수진농조는 와해되고 말았다. 수진농조가 와해되자 미결수 상태에 있었던 5명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남상환은 고문과 수형생활에서 얻은 폐결핵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었고,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그의 장례식은 6백여 동지들의 호곡(號哭) 속에 서정리에서 치러졌다.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스물 일곱의 젊은 나이였다.

4.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일제강점기에 펼쳐진 독립운동은 민족주의(또는 자유주의) 방식과 사회주의 방식이라는 두 개의 날개로 전개되었다. 물론 조선왕조의 부활을 꿈꾸는 근왕주의자들도 있었다. 이렇듯 독립운동의 갈래가 나뉘진 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방식과 꿈꾸는 세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이 꿈꿨던 세상은 신분적 차별과 억압이 없는 사회, 빈부의 격차가 없는 평등한 세상이었다. 최소한 해방된 조국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남상환과 그의 동지들은 자신들이 꿈꾸었던 소박한 생각을 실천에 옮긴 실천적 운동가들이었다. 서정역전 담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정역 뒤쪽으로 노을이 진다. 민족해방과 모두가 평등하게 잘사는 세상을 꿈꾸며 젊음을 불살랐던 남상환과 그의 동지들의 얼굴이 붉은 노을과 함께 겹쳐진다.(2009)

평택(平澤), 학교의 탄생

1.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다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가진 자들의 특권이였다. 날 때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지배하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믿었던 지배층은, 교육을 통하여 국가지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배이념을 재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실 봉건사회의 지배층은 피지배층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똑똑한 백성은 통치하기에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세종 때 한글창제를 반대했던 지배층의 논리도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봉건적 지배논리는 강화도조약(1876년)이 체결되면서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 조선이 받아들인 '근대'는 계급사회와 성리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현실과 동 떨어진 사상과 체제를 걷어버리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조선정부가 준비한 근대적 개혁 모델은 청의 양무운동이었다. 조선은 일본과 청나라에 수신사, 영선사를 파견하여 근대문물을 견학하고 배워오게 하였다. 개화파 김옥균은 서재필을 비롯한 61명의 청년들을 일본으로 유학 보내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피상적인 노력만으로는 조선의 근대를 이끌고 나갈 인재를 길러낼 수 없었다. 이제 체계적인 근대교육이 필요해진 것이다.

개항 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영어와 일본어 교육이었다. 1883년 외교고문 뮐렌도르프가 설립한 동문학은 영어와 일본어를 교육하던 외국어학교였다. 1886년에 설립된 육영공원도 정치, 역사, 수학, 자연과학을 가르쳤지만 외국인 교사가 영어로만 수업하였다. 세상의 변화는 백성들에게도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였다. 1883년 함경도 덕원에 설립된 원산학사는 지역유지들과 관료들이 합심하여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였다. 1885년에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들도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감리교의 아펜젤러 목사가 설립한 배재학당, 스كر랜틴의 이화학당 그리고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등은 대표적인 미션스쿨이었다.

개항 후 떠오르기 시작한 근대교육 열기는 1895년 정부가 신분제를 폐지하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교육입국조서는 국가의 인재를 근대교육을 통하여 양성

하겠다는 선언이었으며, 근대교육만이 국가발전의 수단임을 선포한 일대 사건이었다. 반상의 구별 없이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를 선발을 하겠다는 선언도 획기적이었다. 교육입국 조서에 따라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성균관, 소학교 법제가 마련되었고,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와 같은 교육체계가 만들어졌다.

2. 성금으로 학교가 설립되다

새로운 세상은 신분제의 틀 안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민중들에게는 계층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마디로 팔자 고칠 세상을 맞이했다는 말이다. 개화운동과 독립협회운동을 이끌었던 근대적 지식층도 민중들의 교육 열기를 자극하였다. 하지만 근대교육 초기만 해도 일반 민중들에게 서양학문은 낯선 것이었다. 관립학교나 조선인 학교들은 조금 나왔지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배타적 분위기 때문에 학생을 구할 수 없어 애를 태웠다. 이 같은 현상은 평택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민중들의 눈치 보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세상이 변했음을 체감한 민중들은 점점 근대교육에서 희망을 찾기 시작하였다.

평택지역 최초의 근대학교는 진위공립소학교였다. 진위공립소학교는 1898년 11월 진위 군수와 지역유지들이 사립학교를 설립한 뒤 학부(學府)에 교원과 서책을 내려줄 것을 청원하였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899년 3년제 공립소학교로 개교하였다. 1913년에는 평택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평택공립보통학교(성동초등학교)는 팽성읍 남산리 강난수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사립학교였지만 일제강점 뒤 공립(公立)으로 승격되면서 객사리를 거쳐 평택세무서 앞으로 이전하였다. 하지만 세무서 앞의 교사(校舍)는 건물이 비좁고 남아



[경부선 평택역 일대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성동초등학교(2013)]

서 취학 희망자의 30%밖에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자 1938년 10월 성주환, 민광식 등 지역유지들이 3만원이 넘는 거액을 기부하고 정부가 보조하여 비전동에 새 교사(校舍)를 건축하였다.

1920년대는 일제의 일면일교(一面一校) 정책과 민중들의 근대교육 요구에 따라 더 많은 공립학교가 설립되었다. 1922년 5월에는 안중공립보통학교, 6월에는 서정리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1926년에는 진위청년회장과 청북면장을 지낸 신찬우가 청북공립보통학교를 세웠고, 1927년 10월에는 팽성읍 유지들이 기성회를 조직하고 기부금 3천원을 모금하여 부용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29년에는 포승읍에 내기공립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일제강점기 공립보통학교는 입학시험을 치렀다. 학생들은 월사금이라고 불렀던 수업료를 납부하였으며, 수업연한도 4년제와 6년제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입학시험에 떨어졌거나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교육을 받기가 어려웠다. 1936년 동아일보에 '진위군의 공립보통학교는 절반이 4년제고, 취학 대상 2,300명 가운데 560명만이 공부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3. 근대교육으로 팔자 고치는 세상이 왔다

근대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민중들을 구원한 것은 사립학교였다. 일제강점 전후의 사립교육기관으로는 서당, 야학·강습소가 있었다. 일제강점 전후 선각자들에게 근대교육은 구국(救國)의 방략이었다. 근대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면 빼앗긴 나라도 되찾고 민족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평택지역 사립학교의 효시는 1898년 진위소학교라고 할 수 있지만, 을사조약(1905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설립된 학교로는 1906년 성공회 객사리교회 부설 신명강습소와 고덕면에 설립된 진흥의숙이 가장 앞선다. 진흥의숙은 승지를 지낸 이범창과 참봉을 지낸 이범철 형제가 설립하였다. 이들은 민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해민회사를 세워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흥화회를 조직하여 학교를 세우고 산업발달과 지방자치를 연구하였다.

1907년 2월에는 청북면 백봉리에 수성학교, 합정동 조개터에 동명의숙이 설립되었다. 동명의숙은 서울에서 낙향한 진사 김춘희가 지역유지들의 성금을 모아 설립하였다. 설립 후 전·현직 진위군수들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다가 설립자 김춘희가 사망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그러자 근대교육에 목말랐던 민중들이 기부금을 모금하였고, 학교의 숙장(교장) 신석과 숙감(교감) 박준국은 오히려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에서 교사를 초빙하였으

며, 학교 안에 노동야학을 병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학교를 더욱 발전시켰다. 1920~30년대는 3.1운동의 영향과 민중들의 근대교육 요구, 실력양성운동의 영향으로 더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명망가 중심에서 벗어나 가난한 민중들이나 소년들까지 학교설립에 동참하였다. 대표적인 사립교육기관으로는 진위청년회가 설립한 진청학원(1928년)을 비롯하여, 청북면 울북리의 일신강습소, 오성면 숙성리의 서일학원, 포승읍 원정리의 중성학원, 송탄동 막곡마을의 가재리강습소, 팽성읍 도두리의 도두리강습소가 있었다. 이들 사립학교는 청년시민단체, 농촌지식인,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계층이 설립하였고, 지역유자들이 후원하였으며, 학비가 싸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요람이었다. 하지만 값싼 학비마저 가난한 민중들에게는 큰 부담이어서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수 백 명씩 증가하였다. 그러자 고덕면 신기리(문곡리)의 김영기는 자비를 털어 45개의 야학을 설립하고 5명의 교사를 초빙하여 한글을 가르쳤으며, 현덕면 덕목리의 박성훈도 무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함정동 조개터에 거주하는 양석철은 배우지 못한 것을 한탄하다가 머슴살이하여 모은 70원(쌀 10가마)으로 노동야학을 설립하고 학생 80명과 함께 공부하는 열정을 보였다.

열화와 같았던 근대교육운동은 민중들에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민중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상놈이 배워서 똥하냐'며 스스로 절망했던 몇 십 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자식들에게만은 대물림된 계급적 차별과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 그 뜨거운 열망으로 민중들은 봉건사회를 해체하고 근대(近代)를 개척할 수 있었다.(2012)

일제강점기 평택 최고의 부자는?

‘김씨는 늦은 아침 소란스런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숙취에 머리는 지끈거리고 몸에서는 엷저녁 술사중을 들었던 인일옥 기생의 지분냄새가 났다. 소세를 하고 아침을 먹은 뒤 댓골과 새말에 사는 마름을 불러들였다. 달려온 마름들은 올해는 일기가 나빠 수확량에 차질이 있을 거라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는다. 마름들이 물러간 뒤 서둘러 외출준비를 하였다. 점심식사는 면협의원들과 하기로 약속되었다. 이 자리에는 헌덕면 정(鄭) 면장과 안중금용조합장도 참석한다. 앞으로 도평의원이나 군협의회 의원이라도 출마하려면 두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였다. 세모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집을 나서는데 일하던 소작인들이 허리 굽혀 인사 한다.’

1. 지주에도 등급(等級)이 있어

일제강점기 안중읍에 살았던 어느 지주의 일상이다. 농경사회에서 부자는 토지보유량으로 결정되었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짓고 마름과 소작농을 부러가며 권세도 부렸다. 흉년은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기아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쌀 한말, 보리 두 말에도 전답을 팔아치웠다. 보릿고개에는 장리쌀도 놓았다. 장리쌀은 장기적인 대출인데다 이율이 높아 '장리'라고 불렸다. 소작농들은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소작료 바치고 빌려 먹은 장리쌀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소작료를 안 낸다거나 장리쌀을 떼먹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항거를 하면 소작권을 빼앗겼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땅을 빼앗기는 것만큼 절망적인 일은 없다. 그래서 설설 기었다. 소작료를 바치면서도 씨앗밭에 술을 대접하였으며, 명절에는 소고기라도 두어 근 끊어서 새배도 다녔다.

'지주명부'라는 사료(史料)가 있다. 일제강점기 지주들의 명부다. 지주명부에 따르면 대지주의 기준은 30정보였다. 1정보가 3천 평이므로 30정보라면 9만평이나 된다. 조선후기에는 소작료 8백석 이상을 수확하면 대지주에 포함시켰다. 대지주들은 제왕적 지위를 누렸다. 소작농들은 지주집의 댓돌 아래에 설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면 해방 전후 평택지역을 호령했던 최고 부자는 누구였을까? 평택지역에는 동양척식(주)와 일본인 거대지주의 땅들이 널려 있었고, 조선인으로는 이강세, 민광식, 최관식, 이갑수, 부재지주로는 최윤행, 김찬영 등이 꼽혔다. 이강세는 서평택 최고의 부자였다. 일설에는 도곡리 최참봉



이강세가 살았던 덕우1리(2007)

이 만석지기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지주명부에는 이강세의 토지가 훨씬 많다. 이강세는 넉넉한 경제기반으로 서울로 유학하여 보성전문을 졸업하였고 서울과 안중을 덕우리에 고래 등같은 기와집을 지어놓고 살았다. 일제 말에는 포승읍 흥원리에서 청북면 옥길리를 잇는 강세독을 축조하여 대규모 간척사업을 벌였지만 실패하였고 해방 며칠 전 자살하였다.

세교동에 거주하였던 민광식은 평택일대의 대지주였다. 비전동 어인남리의 안중철이나 이성열도 큰 지주였지만 민광식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일설에 평택일대를 돌아다니려면 민광식의 땅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민씨 집안의 재산은 농지개혁 때 큰 타격을 입었지만 후손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지금도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완용의 조카 한상룡이나 윤치호, 윤보선을 배출한 아산시 음봉의 해평 윤씨도 대지주였다. 한상용은 고덕면 해창들에 토지가 있었고, 해평 윤씨는 부정한 권력을 이용하여 평택현 관아 터라든가 미개간지, 하천부지를 장악하여 단숨에 대지주 반열에 올랐다. 이밖에 서탄면 해정들에는 조선왕실과 수원 용주사의 땅이 많았고, 가수 최희준 집안의 토지도 있었다. 오성들은 간척지와 황무지였다가 일제 말 일본인들이 간척하였다. 간척 뒤 약 2천 만평으로 추산되었던 드넓은 토지는 일본인 가동, 평원, 길본이 나뉘어졌다.

면단위에서 큰소리쳤던 부자는 20정보 수준을 소유하였다. 20정보라고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이었고 부리는 소작농들만도 1백 명이 넘었다. 마을 안에서나 큰소리쳤던 부자들은 소작료 300석 정도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300석도 술 마시고 도박으로 탕진만 않는다면 요족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이었다.

2. 부재지주가 내려오면 가두환영까지

소작농들은 조선인 지주보다 일본인 지주를 선호하였다. 조선인지주들은 토지경영이 봉건적이었고 소작료 외의 착취도 심했다. 마음은 소작료 징수, 소작권 이동같은 토지경영의 전권을 위임받았던 지주의 하수인이었다.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밋다고 소작농들은 지주보다 마음을 더 미워하였다. 대추리 일대를 관리한 서울부재지주의 마음방OO씨는 소작농들에게 지주처럼 인식되었을 정도로 위세가 있었다. 타작을 할 때에도 술수를 부려서 '김불은 지주에게 주고 알곡은 방씨가 먹는다'는 말이 나돌았다. 권세 있는 마음에게는 소작농들도 꼼짝 못했다. 방씨의 소작농이었던 도두리 송씨는 명절날 소작권을 부탁하려고 소고기 두 근을 사가지고 찾아갔더니 창고에 고기와 갈비들이 썩고 있어서 얼른 나왔다고 말했다.

일본귀족원 의원이었고 이완용의 조카였던 한상용은 각종 친일파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유명했던 친일파다. 한상용은 근대 이후 고덕면 해창포 일대가 개간될 때 권력을 이용하여 19만평이나 되는 대토지를 소유하였다. 마을 구장(이장)을 마음으로 세워 토지를 경영하였고, 농장을 둘러보러 내려올 때는 소작농들을 길 양쪽에 세워 놓고 가두환영식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조선인 지주들이 각종 술수를 부려 봉건적 착취를 하였는데 비해서 일본인들의 토지경영은 보다 합리적이었다. 상당수의 일본인들은 농장회사를 설립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토지경영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안정리의 '덕전농장' 소작인이었던 팽성을 송화리 김OO씨는, 농장에 과수농사를 지으면서 나무 아래에 수박이나 참외를 재배하여 큰돈을 버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었다고 하였다. 일본인 지주들은 정해진 소작료 외에 불필요한 착취도 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착취는 소작쟁의를 불러일으켜 일본인에 대한 불신과 저항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구제사업에 큰돈을 내놓았던 지주도 있어

지주라고 다 같은 지주가 아니었다. 가혹한 착취로 소작농의 원성을 사는 지주도 있었지만, 사회활동이나 구제사업에 큰돈을 내놓아서 칭송을 들었던 지주들도 많았다. 안중일대의 대지주 이강세는 마을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근대교육을 받지 못하자 진명강습소 설립에 앞장섰다. 팽성을 도두리의 지주 정운봉은 도두리아학과 승업조합(가마니조합)을 설립하여 빈농들의 자립과 교육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계성초등학교의 전신인 도두리강습소의 설립과 운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비전동 어인남리의 지주 이성렬은 평택합동은

수회사를 설립하여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기업가로 사회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어인남리에 계인조합을 설립하였고, 진위군 학교평의원, 평택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장, 진척학원 회장으로 사회운동에 앞장섰다.

장안동의 지주였던 이용손은 1939년(소화 14) 대가뭍으로 빈농들이 고통을 받자 사재를 털어 장안동에서 서두물로 연결된 소로 확장사업을 전개하여 공공사업과 빈민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지금은 옮겨졌지만 장안동에서 송탄고등학교로 올라오는 길가에 세워졌던 '이용손 시혜불망비'는 가난한 이웃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배고픔을 덜어주려 하였던 어느 지주의 미담을 전해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신문자료에는 가난 때문에 납세를 하지 못하는 빈농들을 위해 대납(代納)하는 선행을 베풀었던 부자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각 지역의 근대학교 설립에도 지주들의 보이지 않는 선행이 빛을 발했다. 학교 부지를 희사하여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준 지주들도 허다하다.

해방 전후 평택지역의 지주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들의 몰락은 제1공화국에서 실시한 농지개혁이 원인이었지만,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데다 농촌의 지가(地價)가 하락하면서 토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진 것도 큰 원인이 되었다. 현재 평택의 부자는 농지를 보유한 지주보다는 도심에 위치한 부동산이나 산업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다. 부자의 경제기반도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한 것이다. 필자는 평택지역에서 부동산이나 산업자본가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학술분야에서도 부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나 노동자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몇 사람의 부자보다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사회이기 때문이다.(2010)



[덕우리 이강세의 99간집 인체(2011)]

원폭피해자들은 평택에도 있다

1. 1945년 8월 6일

핵무기 개발을 처음 시작한 것은 독일이었다. 독일의 과학자들이 중성자에서 우라늄 원자 분열에 성공한 것이다. 독일의 과학적 성공은 핵무기의 파괴력에 주목한 경쟁국 영국과 프랑스를 긴장시켰다. 핵무기 기술 및 원료확보를 위한 치열한 첩보전도 전개되었다. 나중에는 미국과 일본도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강대국들은 핵무기 한방이면 세계를 휘어잡고 전쟁을 단번에 끝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핵무기개발에 성공한 것은 미국이었다. 1944년 독일에서도 핵무기가 개발되었다는 풍문이 돌았지만 그것은 '로켓포'였음이 밝혀졌다. 미국은 핵무기의 폭발력에 주목하여 1941년 12월 6일 '맨하튼 계획'을 세웠다. 맨하튼 계획에는 2백억 달러의 자금과 오펜하이머, 유리, 로렌스, 질라드, 노이만, 텔러 등 노벨상에 빛나는 4,500명에 달하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핵무기가 '죽음의 무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였다.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1945년 5월이었다. 1945년 5월은 유럽전선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만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은 오키나와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본은 본토 사수를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전쟁이 끝난 유럽은 소련에 의해 급속히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급해진 미국은 소련이 극동전쟁에 참전할 것을 중용하였다. 고심하던 소련은 1945년 7월 극동전 참전(參戰)을 결정하였다.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만주 관동군을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향해 남하하였다. 소련의 선전(善戰)은 전쟁 종식에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사회주의체제의 확대를 경계하는 미국에게는 커다란 위협이었다.

미국에게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만 할 이유가 생겼다. 전쟁을 단번에 끝내기 위해서는 '죽음의 무기'로 명명된 핵폭탄을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1945년 5월 오펜하이머 등 핵폭탄 개발에 참여한 핵심과학자 4명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던 이들은 일본의 방위산업지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인구 밀집지역에 핵폭탄 투하를

결정하였다.

핵폭탄 투하 이전(1945년 7월 16일) 미국은 뉴멕시코주에서 핵실험을 하며 일본이 스스로 항복하기를 바랐지만 일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미군 B-29폭격기가 나타났다. 폭격기는 홀쭉이라고 불렸던 4.5t짜리 핵폭탄을 민간인 밀집지역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8월 9일에는 5t짜리 핵폭탄을 이웃도시인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다. 핵폭탄은 엄청난 굉음과 광선, 열을 뿜으며 버섯구름을 만들어냈고 반경 3km이내를 초토화시켰다. 핵폭탄의 엄청난 위력에 놀란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이다.

2.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규모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1945년 8월 당시 히로시마 인구는 42만, 나가사키에는 27만 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일본 방사선영향연구소(REFR)에 따르면 피폭 당시 즉사한 사람은 약 8만 명, 4개월 사이에 사망한 피해자는 히로시마 9만~16만 명, 나가사키 6만~8만 명 정도라고 한다. 두 번의 원자폭탄 투하로 전체 인구의 30~40% 이상이 죽거나 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폭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선인이었다. 이들은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 생계를 위해 이주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노동력 수탈과 통제를 위해 한 곳에 집단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가사키의 경우에는 피폭지역에서 불과 600m 떨어진 오하시마치에 미쓰비시 제강 조선인 징용자 숙소가 있었고, 1.5~2.5km 거리에 있던 미쓰비시 병기 오오하시공장, 스미요시 터널 공장 부근에는 6개소의 집단숙소가 있었다. 이밖에도 피폭지와 5km 떨어진 미쓰비시 나가사키조선소에도 징용 노무자 2천 50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1975년 히로시마·나가사키시 원폭재해지 편집위원회가 펴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재해'에는 1944년 말 히로시마현(縣)에 8만 1천 863명, 나가사키현에 5만 9천 573명의 조선인이 거주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내와 주변지역에 거주하였던 조선인 4~5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피폭되었고, 5,000~8,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피폭자는 약 3만 명에 달했다고 말한다. 이 가운데 해방 후 3만 명 중에서 2만 3천 명은 귀국(북한에는 2천여 명)하였고, 7천 명은 일본에 남았다.

3. 평택사람들의 원폭피해

해방 후 귀국한 2만 3천 명 가운데 2012년 현재까지 살아 있는 사람은 약 2,700여 명이라

고 한다. 하지만 피폭자의 수는 사망자와 생존자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원폭 피해자는 암 발병을 비롯하여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며, 2세와 3세들에게도 유전되기 때문이다. 피폭자 중에는 경남 합천 사람들이 가장 많았지만 평택 출신 중에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원폭피해동지회'를 조직하여 피폭자의 치료 및 보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평택시에는 한국원폭피해 기호지부(회장 이근득) 미쓰비시동지회가 결성되어 활동한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동지회는 1972년에 결성되었다. 이 단체는 미쓰비시 기계공작소와 미쓰비시조선소에 끌려갔다가 생존한 징용자 276명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다. 초기 단체결성에 참여한 276명 가운데 2010년 현재 생존자는 46명이다. 뉴시스에 보도된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한국원폭피해 기호지부장 이근득(2010년, 88세)씨에 따르면 1944년(소호 19년) 9월 평택지역에서는 20~23세 기량의 청년 200여 명이 1, 2차로 나눠 강제 징용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제는 면사무소에 '징용담당 부서'를 설치해놓고 수시로 청년들을 끌고 갔다. 일제는 월급의 절반은 고향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는 히로시마에서 3km 떨어진 미쓰비시조선 기계공작소로 데려갔다. 이근득씨는 공작소에서 요카이바(용광로) 일을 하였다.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날 9시경 공장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비상령이 내려왔다. 오후 4시쯤 방공호에서 나와 보니 히로시마 도시는 온데간데없고 강한 열에 사람들 시체는 녹아내리고 있었다. 미쓰비시 공장도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쇠기둥만 남아 있었다. 그는 원폭으로 오염된 거리를 헤매다가 피폭당하였다.

진위면에 거주하였던 김수천(2010년, 90세)씨는 들에서 일하다가 북면사무소(현 진위면) 노무 담당 면서기가 와서는 징용가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과 부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히로시마로 가서 미쓰비시공장에 도착했다. 김수천씨도 용광로에서 일했다.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전날 비가 왔다. 출근해서 일하는데 아침 8시 쯤 시내 쪽 하늘에서 갑자기 파란 불이 섬뚱하면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바람이 날아와 공장건물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는 천지를 뒤튼드는 굉음과 함께 번개가 치더니만 짙은 회색 냄새와 함께 회색빛 태풍이 공장을 덮쳐 쇠덩이로 건물이고 죄다 날려버렸다. 김수천씨는 목숨은 건졌지만 피폭만은 피할 수 없었다. 황중호(2010년, 89세)씨는 1944년 9월 21일 평택군 현덕면 대인리에서 징용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조선공작소 선박 엔진커버(덮개) 생산부에서 일했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가족사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굉하는 굉음과 함께 회색빛 폭풍이 덮쳤다. 천지가 안개처럼 자욱했고 회색 냄새가 진동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한참 후 깨고 보니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들리지 않았다.

4. 피폭자들의 삶 그에 대한 대책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들은 사건 후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김수천씨는 오른쪽 발가락 신경이 마비돼 불구가 됐다. 오른손 중지도 휘었다. 또 충격으로 인해 배꼽 위쪽에 사과만한 딱딱한 혹이 돌출돼 있다. 둘째 딸은 결혼 후 자녀 둘을 낳고 원인모를 병명으로

사망했다. 이병욱(90세)씨도 폭풍에 날아온 철판이 손목에 박힌 채 귀국해 50여년을 고생하다가 7년 전 일본에 건너가 제거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황중호씨는 피폭되면서 고막과 시신경이 손상되어 지금도 눈이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린다.

피폭문제에 대한 한국인 피해보상문제는 먼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68년 10월 '핵금광도현민회의'와 '민단광도본부' 등 18개 단체가 재한피폭자를 초청 실태조사를 할 목적으로 '한국피폭자구호일한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협의회는 1969년 한국원폭피해자수호협회에 100만엔을 기부하였고, 1971년 9월부터 의료진을 한국으로 파견하여 진료하였으며, 1973년 민간차원에서 경남 합천에 원폭치료센터를 건립하였다. 1984년 8월에는 재일교포 김신원 목사와 가와무라병원 원장 가와무라 토라타로우씨가 주축이 되어 경남 합천의 김필례씨를 초청하여 치료한 뒤 1996년까지 240여명을 치료하였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보상과 치료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1993년 일본정부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게 보상비로 4억 엔(약 40억 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하였지만, 이것은 1인 당 10만엔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미쓰비시공장 기호지부 회원 46명은 1995년 5월 일본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한 사람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1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같은 해 12월 항소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299명은 2010년 5월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110만엔(소송비용 포함)의 위자료를 받아냈다. 이 재판 이후 일본 지방법원들이 줄줄이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2011년 8월 6일에는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원폭 행위 당사자인 미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일본 정부만을 상대로 피해소송을 제기하였던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원폭피해에 대한 보상청구소송의 가장 큰 벽은 1965년의 한일협정이다. 제3공화국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며 피폭자에 대한 피해보상조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관한 모든 문제를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핵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영화나 문학작품으로 고발되기도 한다. 지금도 강대국들은 핵보유를 통하여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핵발전소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사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들의 문제도 '해방'이라는 단어 속에 묻혀 있다. 하지만 핵은 어떤 경우라도 인류에 재앙을 가져올 무서운 존재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그리고 평택지역의 피폭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2011)

한국전쟁, 평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 영화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배세영 작가 외할머니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이다. 적과의 동침이 평택시민들에게 관심을 받은 것은 작품의 무대가 '평택', 그것도 포승읍 석정리 주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 속에는 풀무골, 서두물, 감기, 새터같은 친근하고 낯 익은 지명들이 등장한다. 어떤 이는 자신의 할머니도 나왔다며 신기해하였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가장 비인간적인 삶의 모습이다. 인간의 이성은 마비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으며, 숭고하게 죽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야만의 정글이다. 하지만 전쟁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실 이념이라는 것은 투철한 사상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나 절실한 개념일 뿐이다. 민중들은 누가 굶기지 않을 것인가, 또 누가 겁박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인가, 누가 소박한 꿈이나마 마음대로 꿀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매달린다.

한국전쟁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상황과는 많이 달랐다. '태극기 휘날리며'에서처럼 형제가 총칼을 들이대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덕면에서처럼 인민군 문화선동대가 예쁜 여대생들을 데려와 공연을 하자 흠뻑 반해서 의용군에 자원입대한 경우도 있었다. 죽지 않으려고 밥 한 끼 해줬다가 빨갱이로 몰린 사람도 있었고, 이름도 모르는 친척이 경찰이라는 사실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람도 있었다. '적과의 동침'에서처럼 한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난 연인들이 적이 되어 조우했으며, 고분고분하던 동네머슴이 완장을 차고 '악질반동'을 색출한다면 휘젓고 다니는 꼴을 보기도 했다. 이렇게 전쟁의 속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또 전쟁 상황이라는 스펙트럼은 좌와 우라는 이념의 잣대로만 재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2. 사회주의는 갈등을 잉태했다

우리나라에서 좌익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1920년대부터다. 1920년대의 사상적 트렌드는 사회주의였다. 미국에 실망하고 러시아혁명에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만이 미래

며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서울과 지방, 만주와 일본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회주의 사상단체들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들을 사상적으로 각성시켜 사회주의 혁명에 앞세우려 하였고, 지주와 자본가를 타도하고 계급 없는 평등세상을 꿈꿨다.

사회주의가 크게 유행하면서 일본과 서울로 유학 갔던 지주와 마름의 아들들, 공장의 노동자, 땅 한 뼨기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빈농들에게까지 계급과 처지를 떠나 다양한 계층이 열광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꿈꿨던 억압과 차별이 없고 계급도 없는 유토피아는 새로운 갈등을 잉태하였다. 가진 자의 자본을 빼앗아서 노동자,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겠다는 이상론은 무산자들에게는 복음이었지만 지주와 자본가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기 때문이다.

이념과 계급 간의 갈등은 해방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해방은 꿈으로만 존재했던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일제에 의해 눌리고 쌓였던 각종 욕구들도 분출되었다.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난립하였고 농민들은 토지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에 열광했다. 시가지에서는 연일 정치집회가 열렸다. 거리 곳곳에서는 우익과 좌익 간의 갈등으로 피가 튀었다. 마을과 마을이 나뉘지고, 어제의 친구들이 사상과 이념에 따라 반목하였다. 모든 꿈이 가능했지만 또한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던 시절이었다.

3. 형제와 친구가 좌와 우로 나뉘고

해방공간은 기대와 갈등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일제의 수탈과 지주들의 억압에 신음하던 평택지역 민중들은 지주와 자본가들이 주축이 된 우익보다는 토지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좌익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울과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귀국한 사람들, 해외에서 사회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고향으로 내려와 조직적으로 선동했다. 평택역전 본정통에는 건국준비위원회, 한국독립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대동청년단, 대한청년단, 조선공산당, 남로당, 전국노동조합평의회같은 정치·사회단체가 결성되었다. 해방 초기에는 좌익들이 주도권을 잡는 듯이 보였지만 시간은 미군정의 비호를 받는 우익들에게 유리하도록 흘러갔다. 궁지에 몰린 좌익들은 1946년 여름 '신전술'을 내세우며 각 지역에서 총파업과 폭동을 일으켰다.

평택지역에서는 1946년 9월 송탄동에서 폭동이 발생하였다. 일명 가재리 농민폭동이였다. 이 폭동은 전국노동조합평의회 지시에 따라 좌익계였던 평택경찰서 주임 최문진이 지원하고 서울농전을 중퇴했던 인텔리 김씨 형제가 주동하였다. 그 뒤로 합정동 뱃박산, 팽성읍 망해산, 서탄면 수월암리에서도 연이어 농민폭동이 발생했다. 1947년 3월에는 진



[해방청국에서 가재리 농민폭동이 일어났던 송탄동 가재리(2009)]

위면의 무봉산에서 농민폭동이 발생하였다. 무봉산 농민폭동은 유씨, 이씨 등의 활약으로 사회주의자가 많았던 진위면 가곡리, 동천리,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일대를 우익청년들과 경찰들이 공격하자 농민들 수 백 명이 무봉산으로 쫓겨 올라가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해 10월 서탄면에서 발생한 농민폭동은 미군정의 공출독려에 반대하여 1천여 명이 넘는 좌익계 농민들이 일으켰던 대규모 폭동이었다.

4.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았다

좌익들의 붕기는 정부가 수립되고 치안이 확보되면서 점차 수그러들었다. 1948년 1월에는 평택지역 좌익정당과 단체 간부들이 집단으로 탈당하였다. 1949년 10월 이승만 정권은 탈당한 좌익들을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에 가담시켰다. 한마디로 보도연맹은 전향은 하였지만 사상이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조직이었다.

1950년 6월에는 말 많고 탈 많던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지주들은 갖은 수단으로 토지를 지키려고 하였고 농민들은 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부풀었다. 비록 분단은 되었고 친일잔재 청산은 미흡했지만 새로운 희망이 사회전반에 돌아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발생한 한국전쟁은 민중들의 소박한 꿈마저 앗아가 버렸다. 전쟁이 발발하자 평소 독립운동의 적자이며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던 이승만 정권은 국민들을 버리고 대전과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도망가 버렸다. 이승만정권은 후퇴를 하면서 단지 인민군이 내려오면 협력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원들을 예비 검속하여 무차별 즉결처분하였다. 평택지역에서도 수 십 명의 보도연맹원들이 검속되어 안정리 일본군 비행장(현

캠프 험프리즈 미군기지)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학살되었다.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은 좌익들의 분노와 원한을 샀으며 인민군이 들어온 뒤 지방좌익들의 보복학살의 원인이 되었다. 또 인민군 치하에서의 보복학살은 국군이 올라온 뒤 우익에 의한 또 다른 보복의 원인이 되었고 우리민족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5. 아물지 않는 전쟁의 상처

한국전쟁은 평택지역에 수많은 역사의 흔적을 남겼다. 후퇴명령에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던 육군본부는 1950년 7월 3일 평택으로 이전하였다가 이튿날 대전으로 이동하였다. 7월 5일에는 비전동 성동초등학교에서 육군 1군단이 창설되었다. 같은 날 오산 죽미령에서는 미24사단 21연대(스미스부대)가 인민군에게 참패하였고, 미34연대도 서정리부근에서 패배하였다. 7월 6일에는 인민군이 평택을 점령하였다. 인민군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자 미군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남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교통로 차단이 중요했다. 7월 7일 오스트레일리아 소속의 B26편대가 평택 상공에 나타났다. 유엔군 비행기가 나타나자 시민들은 거리에 나가 손을 흔들며 환영했다. 그런데 상공을 몇 바퀴 돌던 비행기 편대가 갑자기 평택역 철로를 비롯하여 구 평택(원평동)시가지와 평택동, 비전동 일대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갑작스런 유엔군의 폭격으로 원평동은 잿더미로 변하였고, 평택역에서는 폭약을 가득 실은 화차가 폭발하면서 기차역에 대기 중이던 103명의 군인들이 전몰하였다. 1.4후퇴 때에는 영국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합정동 조개터 마을에 불을 질렀다. 일종의 초토화작전이었다. 만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들이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굶어가며, 죽어가며 마산과 부산까지 걸어간 것도 이 때였다.

한국전쟁이 평택지역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미군주둔과 전쟁피난민의 정착이다. 미군의 주둔은 송탄시와 팽성읍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였으며, 피난민의 정착은 인구증가와 함께 미개간지를 옥토로 변화시켰다. 좌우로 나뉘어 죽고 죽이는 가운데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원한이 쌓인 것도 전쟁의 흔적이다.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가 남북으로 갈라져 그리움으로 베개를 적시게 만든 것도 한국전쟁이 가져온 아물지 않는 상처다.(2011)

기지촌, 소통의 사각지대 안에 갇히다

1. 미군기지와 함께 형성된 마을 기지촌

우리사회에서 기지촌이라는 단어는 밝은 빛이 아니다. 기지촌이라는 이름에는 전쟁과 상처, 피냄새가 진동하는 미군들 앞에서 웃음과 몸을 팔아야 했던 우리의 누이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초기 기지촌 형성과정의 모습을 잘 그려낸 사람은 장길수 감독이다. 그는 '은마는 오지 않는다'라는 영화에서 전쟁으로 상처입고 뿌리를 뽑힌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기지촌의 일상을 슬프고도 사실감 있게 그렸다. 평택에 기지촌이 형성된 것은 1951년부터다. 물론 고려 후기 몽골의 침입 때나, 임진왜란, 1942년 전시체제기에도 외국군 주둔기지가 조성되었던 적은 있었지만 미군기지처럼 대규모의 병력이 장기적으로 주둔했던 적은 없었다. 미군기지가 왜 하필 평택지역에 주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분분하다. 분지가 형성되어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설, 한국전쟁 때 스미스부대의 격전지였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시설이 존재하였고, 교통망이 발달하였으며, 지리적 요충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다.

미군기지는 평택군 송탄면 신장리과 서탄면 적봉리 일대에 건설되었다. 일본해군시설대 비행장이 있었던 팽성을 안정리 일대에도 미군기지가 조성되었다. 기지가 형성되면서 송탄지역의 적봉리 원적봉, 가마골, 야리, 신야리와 같은 마을들은 삶의 거처를 빼앗기고 집단이주하거나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기존에 군사기지가 있던 안정리 일대에도 구 대추리 일부, 서정자같은 마을이 집단 이주당하는 설움을 겪었다. 송탄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명칭은 K-55 오산기지였고, 안정리 기지는 K-6 캠프 험프리즈였다.

초기 미군기지는 모든 것이 영성하였다. 규율도 엄망이었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여서 충돌도 잦았다. 본정2리 주민들에 따르면 1950년대 초에는 미군들이 나온다고 하면 동네 여자들은 숨어버렸고 남자들도 몸조심을 하였다고 한다. 때문 미군들이 총을 쏘아 함부로 가축을 잡아먹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신행(新行) 온 신랑을 동네청년들이 달아내자 집단폭행 하는 줄 알고 총으로 쏘서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

에 대한 비하와 문화적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2. 뿌리 없는 삶, 뿌리 뽑힌 사람들의 터전

뿌리가 뽑혀 쫓겨난 사람들의 터전에는 뿌리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달리가 밝혀주는 환한 불빛은 가난에 찌든 빈농들과 뿌리 없는 전쟁 피난민들에게는 희망의 옐도라도였다. 미군기지 정문과 후문 앞에는 부대에서 나오는 과일상자, 종이박스로 하꼬방이 지어졌다. 하꼬방도 지을 수 없었던 신장동 언덕배기에는 땅굴을 판 뒤 나뭇가지와 흙으로 지붕을 얹은 뗏막이 지어졌다. '판잣집'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하꼬방 골목은 술집, 양색시집, 사진관, 식당, 민가들로 채워졌다. 어쩌면 1950년대 술집과 양색시집, 민가는 동의어였을 수도 있다. 민가에는 양색시들과 사진사, 양아치들이 기숙을 하였고, 양색시는 밤마다 미군을 끌어들여 술과 몸을 팔았으니 말이다.

기지촌에 몰려든 사람들의 꿈은 미군기지에 취직하거나 장사를 하여 돈을 버는 것이었다. 1950~60년대의 달리는 지금보다 수 십 배의 위력이 있었다. 미군기지에 다니면 안정적인 월급과 함께 미제물건을 빼낼 수 있는 이점도 있었다. 당시에는 미군기지에서 빼내는 물건은 무엇이든 돈이 되었다. 반출된 물건은 기지촌에서 밀거래되었고, 다시 일반인에게 팔려나갔다. 밀반출된 물건들 가운데 가장 대중적인 품목은 햄과 소시지, 버터, 치즈같은 식료품이었다. 배포 큰 사람들은 석유나 휴발유 또는 카메라 같은 고가품도 빼냈다. 미군기지에서는 미처 소비하지 못한 음식쓰레기들도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미군기지의 음식쓰레기는 한식과 달라서 비교적 깨끗했고 잘만 골라내면 재활용이 가능했다. 신장1동 제역마을(지골) 비포장 골목길에는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햄과 소시지를 볶아 파는 노점들이 생겨났다. 노점들 가운데는 햄과 소시지, 치즈를 섞어 넣어 끓여낸 부대찌개라는 음식도 팔았다. 소시지 볶음이나 부대찌개의 주 고객층은 미군기지에서 일하다가 퇴근하는 한국인들이었다. 이것을 1970년대 초반 삼보극장(현 삼보테파트) 근처에 식당을 내어 가장 먼저 팔기 시작한 집이 송탄 '최네집'이다. 최네집은 사업이 번창하면서 30여 년 전 송탄 출장소 근처로 옮겼고, 지금은 1980년대 초에 개업한 '김네집'이 중앙시장의 맹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3. 희망을 잃어버린 작은 창

기지촌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미군기지에 다녔지만 대부분은 상업에 종사하였다. K-6미군기지가 주둔한 안정리에는 미군기지 구정문을 중심에 두고 좌우에 기지촌이 형성되었

다. 안정리 기지촌의 중심은 미군전용클럽이었다.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군클럽을 개업하려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 그래서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특권 의식이 무척 강했고 미국과 미군들에게 호의적이었다. 클럽은 백인클럽과 흑인 클럽으로 구분되었다. 안정리 미군클럽에서 흑인클럽은 두 개 뿐이었다. 간혹 흑백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은 주로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선술집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은 미군기지 노무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길 양쪽에는 의류, 식료품가게, 미장원, 양복점, 이발소도 있었다. 가게의 이름은 영어로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나이가가라였다. 일명 양색시 또는 양공주라고 불렀던 기지촌여성들도 주요 구성원이었다. 기지촌 여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1960년대였다. 파주, 동두천, 연천 일대의 미군기지가 감축되면서 돈벌이를 위해 안정리나 송탄으로 이주한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본래 빈농이나 도시빈민의 자녀들이었던 그들은 돈을 벌여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동생들을 공부시키며, 재수가 좋으면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이민을 가는 것이 소박한 꿈이었다. 그렇게 모여든 여성들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1,900여 명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꿈처럼 희망으로만 가득 차있지 않았다. 돈을 벌기는커녕 몸만 망치고 혼혈 아이를 낳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팽성읍 도두리 출신으로 청소년기를 기지촌 주변에서 보낸 박후기 시인은 기지촌의 풍경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캠프 험프리지의 겨울밤은 깊어가고
 맥스클럽 뒷골목
 툭, 툭, 툭 언 땅 건너치는
 클럽복소리 들린다.
 아라사 양복점 슬래브 지붕 밑
 씨방 속 같은 어두운 빈방
 하얀 발목을 문고 밤새 너를 기다린다, 앨리스”

—박후기, '목필연가' 중에서

가수 김민기의 노래 '기지촌'처럼 절망적인 창가의 풍경보다는 덜하지만, 구름이 잔뜩 끼고 스산한 비바람마저 부는 늦가을 오후 같은 서러운 풍경이 잘 드러난 시이다.

4. 소통의 사각지대로 변해가는 기지촌

신장동 K-55기지촌의 최고 호황기는 1960, 70년대였다. 미군들이 흘린 군표 몇 장, 달러 몇 장에 몸이 오가고 웃음과 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시절이었다. 미군들은 먹을 것 많고 값싸게 놀기 좋았던 신장동으로 몰려들었다.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에 주둔하였던 미군들도 무료전세기를 타고 놀러올 정도였다. 하지만 20, 30년 전부터 기지촌 상황은 점점 나빠

지기 시작하였다. 미군들이 감축되고 외출도 어려워진데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서 달러와 미제물건의 위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군들에게 제공되었던 무료항공편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 중단된 것도 사정을 어렵게 하였다. 9.11테러가 발생하고 미군들이 외출제한을 받게 되면서는 타격이 컸다. 궁지에 몰린 상인들은 10여 년 전부터 정문 앞에 쇼핑몰을 조성하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휴일에 찾은 신장동 쇼핑몰은 한가하기만 하다. 최근에는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재개발 바람까지 불고 외부자본이 밀려들어 땅값이 올랐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영세상인들은 재개발로 땅값이 오르고 가게 세도 올라 쫓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어쩌든 가시적 성과는 미미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하다.

안정리 기지촌의 전성기도 20여 년 전에 끝났다고 말한다. 미군이 감축되었을 뿐 아니라 요즘에는 미국 내에서도 빈곤층에 속하는 젊은이들이 미군에 지원하면서 좀처럼 돈이 풀리지 않는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반미의식이 강해진 것도 불편한 요소다. 달러의 위력도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미제물건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한 때 16개까지 늘어났던 미군클럽도 지금은 4개가 휴업 내지 폐업 중이다. 한 때 2천 명에 육박하였던 기지촌 여성들도 미군상대를 기피해서 요즘에는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여성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안정리 쇼핑몰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정모씨도 미래를 낙관하지 못했다. 외국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기지촌 활성화에 독이 될 거라고 말했다. 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이 전개될 때 대추리 주민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미군들 편에서서 막아주었지만 미군기지 이전의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한다. 현재도 불투명하지만 미래도 암울한 기지촌의 현주소다.(2009)

도두리들은 농투성이들의 목숨이다

1. 고향에서 유배된 사람들이 모여들다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12월의 밤은 유난히 춥다. 저녁 7시가 가까워오자 평택역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먼저 온 사람들은 종이 등을 손에 들고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린다. 조금 뒤에 문정현 신부, 김용한, 윤현수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공동대표가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잠시 뒤 미군기지 확장반대의 구호가 하늘에 메아리친다. 지나가는 시민들 몇몇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구경할 뿐 대부분의 행인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간다.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가 이끄는 평택역 앞 촛불집회는 오늘로 84일째다. 그보다 앞서 팽성읍 본정리 아리랑고개에서는 팽성대책위가 이끄는 촛불집회가 484일 동안 진행되고 있다. 본정리 농협 앞 노천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추위가 찾아들면서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집회 초기 만해도 평생 땅의 정직함만을 믿고 농투성이로 살아온 늙은 농민들은 미국과 정부라는 거대 공룡 앞에 작은 토끼처럼 여겼다. 두려움에 떠는 주먹을 머리 위로 치켜들지도 그렇다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지도 못했다. 하지만 집회가 100일, 200일, 300일을 넘기면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전사가 되어갔다. 흡사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처럼 그들은 투쟁을 통해 강하게 단련된 것이다.

2. 평택은 민중들의 땅

평택지역은 민중들의 땅이다. 이것은 단순 구호가 아니다. 지금은 수천만 평의 너른 평택평야를 기반으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했지만, 본디 이 땅은 기름진 옥토가 아니었다. 동고서저형의 한반도 지형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평택은 예로부터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유입되고 광활한 간척지가 펼쳐졌던 땅이었다. 그래서 농경지가 부족하고 물을 얻기가 어려웠으며 농사를 지어도 3년에 한 번 수확하면 다행일 정도였다.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모내기철을 놓쳐 호미모를 심거나 메밀을 심어 연명하는 경우가 흔했고, 10리·20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여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에는 조선시대에는 우박과 해일의 피해가 심했으며, 도로·수로 교통이 발달해 지배층의 탐학과 전쟁의 피해도 자주 받

생했다. 고려 후기 몽골과 왜구의 침입은 평택현과 안중 지역을 축밭으로 만들었다. 또한 임진왜란 때의 소사벌 전투와 청일전쟁의 중심도 평택평야였으며 후방이었으면서도 한국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은 곳도 평택이었다. 이처럼 근대 이전의 평택지역은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생산력이 낮았으며 권력층의 탐학과 수탈이 심한 지역이었다.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양반 사족문화가 크게 발달할 수 없었다.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토지가 척박하고 생산력이 낮으며 지배층의 간섭이 심한 평택 땅이 매력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맨손으로 황무지를 일구어

지배층이 버린 땅, 국가와 권력층의 억압과 수탈이 심한 땅에 모여든 사람들은 기층 민중들이었다. 이들은 생산기반이 없어 고향에서조차 유배된 사람들이었다. 때론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러 바닷가까지 왔다가 정착했고, 전쟁 때 피난 온 사람, 땅값이 헐하여 찾아온 사람, 빚 받으러 왔다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눌러앉은 사람도 있었다. 사연도 가지가지였던 민중들은 버려진 갯벌에 독을 쌓아 개간을 시작했다. 이것을 '원뚝'이라고 불렀다. 도구래야 가래와 삽, 들것과 지게뿐이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이들에겐 간척이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하지만 부른 꿈도 잠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농토를 국가와 권력층이 빼앗아갔다. 그들은 '무허가' 또는 '국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농민들이 일군 땅에 국방전, 역둔토, 왕족의 토지, 용주사의 토지, 영의정 아부개의 토지라는 핏말을 꼴았다. 이것이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총독부와 동양척식(주)의 토지가 되었고, 일부는 패망한 조선왕실과 운아부개, 한상용같은 친일파들에게 불하되었다.

4. 도두리벌을 간척한 것도 농민들

도두리벌은 350만여 평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다. 농경지가 형성되기 전 이 들판은 갯벌과 갯고랑뿐이었고, 대추리 곤지머리에는 나무가 발달했다. 곤지머리나무(곤지진)는 삼국시대 이후 평택현에서 현덕면의 신흥포와 계두진으로 넘어가는 수로 교통로였다. 곤지나루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토사가 쌓여 포구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포구의 기능을 상실한 도두리벌이 광활한 들판으로 탈바꿈한 것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다. 도두리벌의 간척은 송곳 하나 꽃을 땅 한 뼨기 없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시작하였다. 이들은 맨손으로 산을 허물어 도두리 마을 앞 작은 갯벌부터 매워나갔다. 그래서 만들어진 소규모 간척지가 '보미사논', '구원들', '다섯가래논'이다. 보미사논은 봄에 개간한 논을 말하고, 구원들은 아홉 개의 원뚝을 쌓아 개간한 들판이며, 다섯 가래논은 다섯 명이 함께 일하는 가래로 개간한 논을 말한다. 바다를 매워 자기 땅을 가졌다는 소

문을 들고 다른 마을 빈농들도 모여들었다. 이들은 해일에 독이 무너지면 다시 독을 쌓고, 소금기가 많아 식수가 없으면 백반을 갈아 넣어 마시며 버텼다. 먹는 것이 부실하고 식수가 좋지 않은 빈농들에게 전염병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었다. 도두리 주민 송아무개씨는 보릿고개에 호열자라도 돌면 수십 명씩 죽어나갈 때도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내 땅'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

5. 한국전쟁 뒤에는 피난민들이 간척에 뛰어들어

한국전쟁 때는 황해도 피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승만 정권은 북쪽에서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간척이 가능한 황무지에 몰아 넣고 집단수용소를 만들었다. 평성읍에는 남산리, 석봉리, 신대리, 노화리, 안정리 일대에 수용소가 지어졌다. 수용소는 출신 지역 이름을 따서 '장단수용소', '연백수용소', '영창마을'로 불렸다. 정부는 이들에게 공유수면이었던 도두리들 일부를 개간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땅이 대략 100여 만 평. 더 이상 피난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던 피난민들은 개간사업에 목숨을 걸었다. 간척은 거센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예정된 100만평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피난민들은 뿌듯했다. 하지만 그 땅마저도 농민들은 주인이 되지 못했다. 해방 전 공유수면에 깃발을 꽂아 자기 땅으로 등기한 분이 김선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선달(가명)은 주민들과의 갈등 끝에 이 토지를 세종대학교 재단인 대양학원에 기증했고 법원은 세종대학교의 편을 들어주었다. 그 뒤로 주민들은 정부의 비호를 받는 대양학원과 40년에 걸친 소유권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추리는 유배의 땅이다. 한국전쟁 전만 해도 마을은 미군기지 안에 있었다. 옛 마을은 크고 포설해서 주변 마을의 부러움을 샀다. 이 마을을 빼앗아간 것은 K-6 미군기지였다. 평성읍 미군기지의 역사는 일제 말 일본해군시설대의 비행장 건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시체제가 일제는 중국 본토 공격의 후방 보급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안정리 일대에 일본해군시설대 비행장건설을 시작했다. 당시 비행장 건설은 안정리와 송화리 일대 30, 40여 만평의 토지에 약 2만여 명에 이르는 징용 노동력을 동원하여 시행했다. 하지만 비행장 건설은 매우 지지부진했고 안전관리도 허술해 죽는 사람도 많았다. 전시체제기라 보급 사정이 좋지 않아서 사료를 먹지 못한 소와 노새들이 굶어죽어 앙상한 뼈만 남긴 채 길에 버려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일제 말에 완공된 비행장은 해방 뒤 미군이 접수했다. 비행장을 접수한 미군은 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몇 년을 보내다 정부 수립 뒤 철수했다.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휴전협정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2년 10월 경 미군이 비행장을 다시 접수하면서부터다. 미군은 냉전체제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중요성이 대두하자 안정리와 송탄을 비롯한 한반도 전지역을 군사기지화했다. 새로운 전술개념에서 조성된 미군기지는 전쟁 전

보다 규모와 인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미군기지가 확대되면서 대추리, 안정리 서정자마을 등 새로운 공여지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들은 강제 축출됐다. 정부와 미군은 짧은 이주기간을 정해주고 자진 철거를 종용했으며 불응할 때는 당시만 해도 보기 힘든 중장비를 동원해 부숴버렸다. 대추리 주민들은 근처 곤지나루로 쫓겨났다. 감사(?)하게도 두 지계 분량의 목재와 하얀 천막 한 동에 두 집씩 입주하도록 한 뒤 보리쌀 한 가마씩 배급하는 이주대책도 제공받았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은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 우리민족의 은인 미국이 하는 일에 무지렁이들이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6. 쫓겨난 빈농들의 몸부림

이주 뒤의 생활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대추리는 대부분의 생산기반이 미군기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살 집과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다. 이들은 대추리와 함정리 사이의 황새울들과 아직도 갯벌 상태로 남아 있던 흑무개울에 눈을 돌렸다. 황새울들은 이주 전부터 간척이 됐지만 질퍽한 수렁이어서 농사가 힘들었고, 흑무개울은 개간만 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개간사업은 농사 일 째 째 여건에 맞게 진행되었다. 그러다보니 가을 추수 후에 일부, 농한기에 일부, 농지가 필요하다고 일부씩 간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유래된 지명이 '가을원', '남원', '당집원', '갈대원', '홍농계원', '섬마을원'이다. 하지만 이 땅에도 복병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땅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루한 재판에 돌입하였지만 법원은 가진 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주민들은 굴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지만 땅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심은 모를 뽑아내고 모내기 막기도 했다. 주민들은 써레질한 무논에 들어가 몸부림을 쳤지만 권력을 등에 업은 그들을 이겨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1974년에는 아산만에 방조제가 준공되었다. 방조제 건설은 새로운 농지를 만들어줬다. 농지가 형성되자 충청도 공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빈농들이 몰려들었다. 도두2리 신흥마을은 그 시기를 전후해 형성됐다. 이들은 농지가 있는 들판에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었다. 그리고 소금이 허영계 드러나는 소금논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이들도 고통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집을 지은 대지는 말쑥 많은 대양학원 땅이었고, 농사를 짓는 땅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었다. 농민들에게 땅은 하늘이고 희망이다. 도두리별은 도두리, 대추리, 신대리 일대 주민들에게는 목숨이다. 그러므로 미군기지 확장은 주민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자기 땅에서 살다가 그곳에 묻히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소망은, 땅에 한평생을 바친 농투성이들의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두 주먹을 불끈 들어올린다. 승리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양보할 수도 물려설 수도 없는 싸움이다. (2006)

한국전쟁과 평택지역 피난민

1. 내고향은 황해도 은율

서탄면 마두2리에 살고 있는 이성구(72)씨는 월남한 피난민이다. 그의 고향은 물 맑고 인심 좋은 황해도 은율이다. 유난히도 추웠던 1.4후퇴 때 아버지는 어머니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이성구씨 형제의 손을 잡고 월남하였다.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은 잠시 몸을 피했다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고향에 남았다. 당시에는 그것이 영영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국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1.4후퇴 때 이성구씨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수십만 명의 전쟁 피난민들이 월남하였다. 그들은 유엔군이 북한을 초토화시킨다는 말에 잠시 몸을 피한 사람도 있었고, 북한에서 지주라는 이유로 또는 출신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유엔군이 북한을 수복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사람들, 잠시 몸을 피했다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늙은 노모와 아내, 어린 자식들을 고향에 놔두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전쟁은 피난민들의 바람대



[마두리 피난민들의 손길로 개간된 나뭇들 산성지(2007)]

로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까지 후퇴하였다가 다시 북진을 시작한 국군과 유엔군은 좀처럼 38선 이북을 수복하지 못했으며, 분단의 장기화를 가져와 징후가 점점 뚜렷해졌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갑갑해진 것은 황해도와 평안도 피난민들이었다. 잠시 피신했다가 돌아갈 것으로 여겼던 황해도와 평안도 피난민들은 가진 것도 없이 백령도, 강화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이나 고향과 가까운 경기도 일대로 피난하였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승만 정권은 경기도 연안에 피난민 수용소를 건설하였다. 경기도 연안의 드넓은 간석지를 개간하여 생계대책을 삼으라는 뜻이었다. 미개간된 황무지와 간석지가 많았던 평택지역에도 여러 개의 피난민 수용소가 건설되었다. 수용소는 팽성읍 노와리의 장단·파주수용소, 신대리의 장단수용소와 영창마을, 석봉리 수용소, 안정6리 수용소, 청북면 옥길리 연백사업장, 포승읍 홍원1리 외원마을, 원정6리, 서탄면 마두리 나뭇들, 고덕면 문곡4리 와 같이 바닷가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었다. 초기 피난민들은 미국에서 지원하는 식량원조를 받아먹고 살았다. 집도 없어 토굴을 파고 기어들어가 겨울을 지냈으며, 공유수면과 간석지를 간척하여 농토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2. 경주에서 철원거처 평택에 정착

신대2리 영창과 3리 장단마을은 피난민들이 개척한 마을이다. 한국전쟁 때 장단마을에는 장단수용소가 설치되었다. 두 마을은 같은 피난민들이지만 살아온 내력은 사뭇 다르다. 영창마을 주민들은 고향이 경상도 경주와 영천이었다. 이들은 소화14년(1939년) 대가뭄을 겪으며 150여 세대가 강원도 철원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였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철원은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렸던 최대의 격전지였다. 주민들은 다시 피난보따리를 싸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착한 곳이 팽성읍 신대2리 영창마을. 세 번을 돌아 자리 잡은 제3의 고향이었다. 피난민들은 난민수용소를 건설하고 안성천변에 제방을 쌓아 도두리벌을 간척하였다. 가래와 삽, 들것으로 시작한 간척사업은 눈물 없는 들을 수 없는 한 편의 다큐였다.

노와4리는 피난민촌이다. 토착민들은 천막으로 조성된 피난민수용소가 있었다고 하여 '포막' 또는 '수용소'라고 부른다. 이들은 본래 경기도 장단과 파주사람들이다. 38도선을 경계로 전쟁이 장기화되었던 시기 장단과 파주지역은 최고의 격전지였다. 그래서 처음 피난한 곳이 서울 수색동. 하지만 수색동은 피난민들이 먹고 살 수단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승만 정권은 진퇴양난에 빠진 피난민들을 팽성읍 노와리로 집단 이주시켰다. 이들은 잔솔밭이 우거진 일명 '따비쟁이'를 맨손으로 개간하였다. 당시 따비쟁이는 적산농지로 따비로 파서 옥수수나 겨우 심어 먹을 만한 척박한 토지였다. 주민들은 보리나 콩도 재

배하지 못하여서 겨우 고구마나 심어 먹던 황무지를 개간하느라 허리 휘어지게 일하였다. 남의 집 품팔이는 기본이고 고덕면 동고리벌의 개간사업장에서도 일하였다. 하지만 피난민의 곤궁한 삶은 금방 나아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지금도 1960년대 국유지가 불하되지 않고, 1970년대 초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지 않았다면 피난민촌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거라고 말한다. 그만큼 어려웠다.

3. 지금도 눈에 선한 어머니

정씨(73세)는 피난민들을 '삼팔따라지'라고 불렀다. 그는 황해도 벽성이 고향이다.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정씨의 삶은 분단과 전쟁으로 송두리째 바뀌었다. 1.4후퇴 때 그의 가족은 황해도 옹진으로 피난하였다. 잠시 피신하면 될 것으로 믿었지만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자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만삭의 어머니와 동생은 옹진에 남겨두고 정씨만 데리고 가까운 섬으로 피신하였다. 사태가 진정되고 유엔군이 북상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잠시 동안만 헤어지기로 약속했던 어머니는 평생 만나지 못했다. 피난 뒤에는 아버지와도 헤어져 고아처럼 버려지기도 하였다. 평택으로 흘러 들어와 남의 집 머슴살이부터 미군기지 하우스보이, 사진사 등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사업도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가슴은 아직도 답답하다. 어머니 가슴에 안겨 영영 우는 꿈을 꾸는 날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하루 종일 서성이기만 한다.

오씨의 고향은 평안도 선천이다. 압록강을 지척에 두고 있는 선천은 일찍부터 상업과 기독교가 융성했다. 그는 기독교를 믿는 중농(中農)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다. 해방 후 북한에서 중농수준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핍박의 대상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에게도 징집영장이 날아왔다. 어머니는 큰형님도 입대한데다 인민군은 기독교를 박해한다며 입대를 반대하였다. 어머니의 권유로 산속으로 숨어들어가 몇 달을 보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인민군에 입대하였다.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인사조차 못한 입대였다. 인민군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온 오씨는 탈출하여 국군에 자원입대하였다. 계대를 한 뒤에는 잠시 서울에 머물렀지만 전쟁의 폐허 위에 피난민 청년이 설 자리는 없었다. 결국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오씨는 재입대를 결심하였다. 군대 가면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여 호주머니를 뒤졌더니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달랑 4백 원. 당시 화폐가치로는 평택까지밖에 갈 수 없는 돈이었다. 그렇게 평택에 정착하였다. 10여 년 전 오씨는 중국을 거쳐 압록강 변 단둥까지 가서 고향 소식을 들었다. 어린 둘째를 인민군에 입대시켰던 어머니는 40여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였다. 큰 의지가

되었던 큰형님조차 몇 년 전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럼에도 오씨는 아직도 고향으로 가는 꿈을 꾸다. 교회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고향마을 산마루턱에 올라 어머니를 소리쳐 부르는 꿈. 그리고 넓디넓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꿈.

4.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통일로부터

어린 학생들에게 통일은 막연한 과제다. 심지어 '통일, 그거 뭐예요?' 라고 묻는 아이들까지 있다. 얼마 전 통일 글쓰기 대회에서 우리 반 아이는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놈들 미사일로 쏘서 모두 죽여 버려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발언까지 하였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는 남한뿐이다. 그 아이가 말한 우리도 다름 아닌 남한이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외국여행 다녀오는 것이고, 월드컵 축구예선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자는 논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다. 남북간에 서로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부모, 형제, 자매가 1천 만 명 이상 있다는 사실을 가슴 절절하게 느끼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의 몸속에도 우리와 같은 DNA가 있다는 사실마저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그것은 비단 아이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다. 평택시민들조차 우리가 사는 평택지역에 수 천 명에 달하는 분단의 사생아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먹는 밥이 피난민들이 맨손으로 일군 땅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고향', '어머니' 라는 단어 앞에 한 없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70, 80대 실향민과 함께 살면서도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방법을 고민해보지 않는 사람은 더욱 많다. 그것은 어쩌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보다, 어찌되었든 부자가 되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가치관 때문인지도 모르겠다.(2009)

철원동은 새마을운동의 메카

1. 평택은 농촌새마을운동의 메카

내 고향 마량리는 벽촌(僻村)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가 되어서야 전기가 가설되었고, 6학년에 올라갈 때쯤 버스가 드나들었다. 백여 호가 넘는 마을에서 전화는 새마을지도자 댁에만 있었다. 시계도 안방 벽에 걸려 있는 패종시계 하나뿐이어서 시간개념도 일어날 시간, 밥 먹을 시간, 학교 갈 시간, 잠 잘 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전기가 없다보니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없어 딱히 즐길만한 놀이문화도 없었다. 임을 책도 마땅치 않았고, 장난감도 없었다.

적막하고 변화가 없던 시골마을에 새마을운동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동이 트기가 무섭게 앰프에서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 보세'가 흘러나왔다. 노래가 끝나면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운동 5차 사업으로...'로 시작되는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의 말씀이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역을 나가 마을길도 넓히고 지붕개량, 담장개량 품앗이를 하였다. 우리 집 축대와 담장을 허물어서 해안도로를 쌓은 것도 그 때였다. 마을 중앙에 새마을회관과 창고가 지어졌고, 회관 앞에는 항상 시멘트 포대가 쌓여 있었다. 마을 길을 쓸고 가꾸는 일은 아이들 몫이었다. 때론 구멍 난 도로를 보수하는 일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자동차 도로변에 코스모스 심기를 하였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서 손 흔들어주기 운동을 한 것도 그 시절이었다. 퇴비증산운동에는 아이들까지도 동원되었다. 면사무소에서는 마을끼리 경쟁을 붙여 퇴비왕을 선발하거나 퇴비증산마을을 선정하였다. 자동차가 드나들 만큼 마을 안길이 넓혀지고, 양철이나 슬레이트로 지붕이 개량된 마을은 자부심과 긍지였다. 정부에서는 새마을사업이 잘 된 마을에는 시범마을 지정도 하였다.

평택지역은 농촌새마을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새마을운동은 전통적인 동쪽마을보다 가난하고 뿌리가 약한 마을에서 더욱 활발하였다. 철원동 원철원 마을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상징적 마을이다. 원철원의 새마을운동은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도 연구되었고, 국내외 많은 인사들이 전학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2.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원천원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려면 훌륭한 지도자와 주민들의 단결된 힘, 그리고 희생정신이 중요하였다. 몇 십 년 전만해도 마을의 유지급 인물들은 공공사업에 땅이나 재물을 희사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공공사업을 위해서 마을회관 터, 학교 터, 도로부지를 선뜻 기증하는 사례도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에는 유지급 인물들의 희생과 헌신, 주민들의 단결된 힘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칠원1동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었다. 새마을운동 전에는 삼남대로변에 위치한 주막거리에 불과하였다. 주막거리 주민들의 신분은 매우 낮았다. 그래서 주변마을의 괘시도 많이 받았다. 마땅히 농사지를 경작지도 부족한데다 농업용수도 부족하여 가난을 속명처럼 안고 살았다. 먹고 살 것이 없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덕암산과 팔룡산에서 나무해다 팔거나 채소농사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였다. 1960년대 초에 전개된 귀농정착사업도 농업용수부족으로 실패하였다. 마을의 형편이 나아진 것은 귀농정착사업장에 하동환자동차(현 쌍용자동차)공장이 들어서고 농촌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다.

새마을운동은 지도자 김기호씨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김기호씨는 1950년대부터 소년단운동 등을 전개하다가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희망을 보았다. 정열적인 그의 활동과 주민들의 호응으로 주택이 개량되고, 마을길을 넓혔으며, 퇴비중산으로 토질이 개선되었다. 대다수 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으로 축산업을 시작한 것도 그 때였다. 당시 축산업은 소1마리에서 논 10마지기 소출이 나온다고 할 만큼 소득이 높았다. 마을공동사업으로 이태리포플러 목목사업, 향부자 재배사업을 하여 소득증대도 이뤘다. 사업의 성공으로 새마을운동 전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가난했던 마을이, 새마을운동 평택시시범마을, 경기도 시범마을, 전국시범마을로 환골탈퇴하였다. 박정희대통령, 노태우대통령, 나카소네 일본수상 등 이 마을을 방문하여 시찰한 것도 이 무렵이다.

원천원은 우리나라 농촌새마을운동의 상징적 유산이지만 현재 마을에서 그 시절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동광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마을경관이 변했고,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였던 지도자 김기호씨도 사망하였다. 당시에는 흔했던 다양한 기록들도 대부분 흩어져서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나마 김기호씨가 자서전을 남겨 전말을 기록하였고, 옥관자정 옆에 표석을 세워 지년간 역사의 흔적을 전하고 있는 점이 다행이다.(2011)

송탄(松炭)을 이해하는 키워드

1. 송탄(松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송탄(松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송장면(松莊面)면과 탄현면(炭峴面)이 통합되면서 형성되었다. 송장은 지금의 이충동·중앙동 일대로, 삼국시대부터 송장부곡이 설치되었고, 조선 초 향·소·부곡이 소멸되면서 진위현 송장면이 되었다. 탄현(炭峴)은 지산동·신장동 일대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에 탄현면으로 불리다가 갑오개혁(1894) 때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일탄면과 이탄면으로 나뉘었고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송탄면(松炭面)으로 통합되었다.

탄현(炭峴)의 우리말 이름은 숲고개다. 숲고개는 신장육교에서 오산 방향으로 내려가는 국민은행 송탄지점 부근의 야트막한 고개이름이다. 예로부터 송탄 일대에는 참나무가 많이 자랐다. 참나무는 질 좋은 숯을 만드는 재료여서 숲장수들은 곳곳에 숯가마를 만들어 놓고 숯을 구워 팔았다. 숲고개는 송탄 일대의 숯이 유통되던 길목이었다. 지금은 숲고개가 변음되어 '쑤고개'로도 불려진다. 하지만 숲고개에서 쑤을 찾기로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송탄은 경부선 철도와 K-55미군기지가 만들어 낸 도시다. 근대 이전 중심마을은 부락산, 덕암산 등 주로 큰 산 기슭에 위치하였다. 예컨대 덕암산 남쪽의 도일동, 송탄동에 속하는 막곡, 방어울, 가재리, 칠원동 갈원, 새말, 물방아거리, 칠괴(칠구쟁이), 이충동의 동령, 서두물, 돌우물, 장안동, 송북동의 소골과 동막, 건지미, 신장동의 구장터, 목천, 지산동의 좌울, 장당동 너부내, 노루댕이, 서정동의 갈평, 모곡동이 그것이다. 그러다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서정리역에 설치되고 근대도시가 형성되면서 철도역 주변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다. 또 1951년에는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송월동, 밀월동, 사거리, 복창동과 같은 새로운 마을이 생겨났다. 1990년대 이후에는 송탄시 외곽으로 산업도로(1번 국도)가 가설되면서 지장동, 파라다이스유원지, 이충동 일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되었다. 아파트단지는 현재 이충동, 장당동, 송북동, 장안동 일대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시가지지를 형성하며 종래 기지촌의 이미지를 탈색시키고 있다.



[신정동 신장육교 부근(2010)]

송탄은 철도 및 기지촌의 발달과 1990년대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1961년에는 송탄면이 읍(邑)으로 성장하였으며, 1981년에는 평택지역 최초로 시(市)로 승격되었다. 송탄시는 초기에는 과거 읍사무소가 있었던 중앙동사무소 자리를 시(市)청사로 사용하다가 1992년 서정동에 새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시·군 통합 방침에 따라 평택시에 통합되면서 현재는 송탄출장소와 평택시의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2. 충신(忠臣)이 살아서 이충동, 소씨가 살아서 소골

송탄지역에는 수많은 자연마을이 있다. 자연마을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충동은 두(二) 명의 충신(忠)이 살았던 동네라고 해서 이충동(二忠洞)이다. 두 명의 충신은 다름 아닌 조선 중기의 대학자이며 개혁가였던 정암 조광조 선생과 병자호란 때 삼학사의 한 사람으로 청나라에 잡혀가 죽임을 당했던 오달계선생이다. 진위읍지에 따르면 조광조는 반지산 근처에 토지와 집 그리고 선영(先塋)이 있었으며, 독곡동 오좌마을 수성 최씨가 외가였던 오달제도 이충마을에 집과 토지가 있었다고 한다. 1800년에는 진위지역 유림들이 두 분 충신의 유허를 기리기 위해 동령마을로 넘어가는 성재고개 위에 유허비를 세웠다. 현재 충의각 안에 모셔진 유허비가 그것이다.

동령마을은 삼국시대 송장부곡의 중심이었다. 마을의 역사만도 대략 1천 년이 넘는다. 동령마을은 본래 진주 소씨가 대성(大姓)이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지금은 각성바지 마을이다. 정월 대보름에는 동령마을 우물고사와 줄다리기 축제가 거행되고, 장안동으로 넘어가

는 고개에는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서낭목이 마을을 지킨다. 장안동은 용인 이씨와 연안 차씨가 중심을 이룬 마을이다. 전해오기로는 옛 장터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며, 서두물은 동령마을 서쪽에 우물이 있어 유래되었다. 현재도 중앙동 세심탕 앞에는 옛 우물이 복원되어 있어 옛 지명의 유래를 밝혀준다.

미군기지가 주둔하기 전 송탄의 옛 중심가 신장동과 지산동 일대에는 마을이 많지 않았다. 옛 마을로는 지산동에 안골, 좌울(동)이 있었지만 현재는 좌동만 좌동교회 부근에 명맥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좌동고갯길과 같은 지명으로만 남았다. 신장동의 가장 오래된 마을은 신장1동 구장터와 제역동, 나무내(복천), 남산터다. 구장터는 옛 진위천 수로와 삼남대로 우회로가 만나는 지점이어서 일찍이 장시(場市)가 발달하였지만 지금은 비행기소음이 심해서 송북동 동안마을로 집단 이주하였다. 지골이라고도 부르는 제역동은 본래 조광조의 친구였으며 대학자였던 영의정 최수성의 묘가 남산 기슭에 있어 이를 관리하는 대가로 부역(賦役)을 면제받았던 마을에서 유래되었다. 현재의 위치는 송탄관광특구 중심가로와 영천관광호텔 주변이다. 나무내는 나무가 귀하던 시절 진위천의 지류였던 지산천으로 나무가 많이 떠 내려와 이를 말려서 땀감으로 사용한데서 유래되었다. 남산터는 조선중기 사림파 학자 최수성이 원정(猿亭)이라는 누정을 짓고 거주하였던 마을이다. 최수성의 원정은 진위사림 최자반, 평택선비 우남양 등과 교류했던 장소이며, 조광조, 김정 등 종종 때 개혁을 이끌었던 중심세력이 회합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밀원동, 송월동, 사거리, 황해도촌은 미군기지와 함께 형성된 기지촌이다.

서정동의 점촌은 1922년경부터 천주교인들이 가마를 짓고 옹기를 굽던 마을이다. 복창동은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으며, 갈평은 오래된 전통마을로 산신제, 용우물 등 다양한 공동체 문화와 전설이 존재하지만 외지인구의 증가로 점차 해체되고 있다. 지장동은 지장사 아래의 사하촌이었지만 택지개발로 사라졌다. 이제는 아파트 숲에 가려진 송북동의 건지미는 경주 이씨가 대성(大姓)을 이룬 마을이다. 윗건지미 앞의 동안마을은 신장1동 구장터 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마을이다. 송북동의 가장 오래된 마을로는 우곡(소골)과 동막이다. 우곡은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진주 소씨가 살아서 소골이었던 것이 현재는 한자로 '우곡'이라고 쓴다. 동막은 경주 이씨와 인동 장씨의 마을로 동쪽 막다른 곳에 위치하여 유래되었다. 중앙동의 마을들은 서두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년 전후 서정역과 함께 형성된 마을이다.

3. 철도(鐵道)와 미군기지가 근대도시를 만든다

한반도에 철도가 처음 가설된 것은 1899년이다. 1896년 미국인 모스가 경인선 철도부설

권을 따낸 것을 일본이 물려받아 1899년 노량진-인천 간 경인선철도를 개통시킨 것이다. 1903년에는 경부선 철도공사가 시작되었다. 러일전쟁을 목전에 두었던 일제는 전쟁물자의 수송과 대륙침략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반도, 만주대륙을 잇는 철도교통이 필요하였다. 일제는 철도건설을 위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대한제국의 행정력을 이용하여 인력을 충당하였다.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평택지역에는 진위군 병남면 통북리에 평택역이 설치되었고, 송장면 서정리에 서정리역이 설치되었다. 서정리역은 평택 북부지역의 교통과 식량수탈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역(驛)이 설치되자 기차역을 중심으로 1번국도(신작로)가 새로 가설되었고, 주변에는 상가와 서정리장, 서정리초등학교, 서정감리교회, 서정동성당과 같은 교육기관과 종교시설이 들어섰다. 1920, 30년대 서정리청년동맹, 서정노동청년회를 비롯한 사회운동기관들도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해방 후 서정동성당에서 설립한 효명중·고등학교도 서정리역 주변에 자리 잡았다. 이로서 서정리역 일대는 북부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역(驛) 주변은 송탄지역의 행정, 교육, 종교, 상업,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평택지역에 외국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42년부터다. 일본해군시설대가 전쟁 중에 사용할 보급시설을 짓기 위해 팽성읍 안정리, 대추리 일대에 비행기 활주로나 보급시설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군 군사시설은 해방 후 미군에게 접수되었고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다.

송탄지역에 미군기지가 주둔한 것은 1951년 3월부터라고 한다. 한국전쟁 초기 신장1동



1905년 1월 1일에 개통한 경부선 서정리역

남산일대와 서정동 일대에서 격전을 벌인 미군은, 1951년 3월 경 신장동 일대에 K-55미군기지(오산베어스)를 건설하였다. 미군기지의 주둔은 송탄일대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먼저 미군기지에 수용된 신아리, 적봉리, 장동리 주민들은 수 백 년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으며, 일부 마을은 중심지를 마을 뒤 산등성이로 옮겨야만 했다.

미군기지는 전쟁 피난민과 한국전쟁으로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 농촌의 빈농층에게는 새로운 꿈과 희망의 옐도라도를 제공하였다. 인구의 증가로 미군기지 정문 앞에는 미군들을 상대로 음식과 술, 몸을 파는 수많은 하꼬방이 밀집하였고, 기지 후문이 있는 사거리에도 상가와 민가들이 뒤엉켜 밀집하였다. 전북 군산에 집단 정착했던 황해도 전쟁피난민들도 살길을 찾아 사거리 아래 산등성이에 황해도촌(신흥마을)을 건설하였다. 서정동 관할의 복창동지역에는 미군들의 빨래와 청소를 대행했던 복창공사 사람들이 기거하였다.

현재 송탄의 중심은 신장동이 아니다. 서정동, 이충동, 장당동 일대로 도시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주요 행정기관도 서정동, 이충동 일대로 이전하거나 도시 외곽으로 옮겼다. 앞으로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장안동이나 송북동도 신시가지에 포함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장당동을 중심으로 그 주변지역도 도시화가 촉진될 것이다. 삶의 환경이 변하면 사람들의 기억도 변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로운 변화에만 열광하지 말고, 때때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어지러운 세상에서 길을 잊지 않는다.(2012)



[중원동 롯데캐슬 일대(2010)]

서평택의 탄생

1. 조선시대 월경지 또는 견아상입지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행정구역 개편은 중국식 행정제도나 지방 제도의 정비 차원에서 실시되었지만,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군현(郡縣)의 통치범위가 넓어진 것도 원인이었다. 역사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은 신라 경덕왕 16년(757)과 고려 초, 조선 초 그리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이다. 행정구역개편으로 각 군현은 통폐합되거나 지명이 바뀌었다. 특히 평택처럼 도(道) 사이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군현(郡縣)의 소속까지 자주 바뀌었다.

조선시대 서평택지역은 행정구역이 매우 복잡하였다. 포승읍, 오성면 일부, 청북면의 일부, 현덕면 일부는 수원도호부에 속하였지만 곳곳에 양성현과 직산현의 월경지(越境地)나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가 산재하였다. 근대 이전의 지도를 보면 서평택 5개 읍·면 가운데 안중읍 일대, 오성면 길음리, 당거리 일대와 현덕면 장수리 부근, 포승읍 도곡리 부근은 직산현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양성현은 읍치(邑治)인 동항리에서 1백리나 떨어진 포승읍 원정리, 도대리, 내기리와 청북면 현곡리와 삼계리, 고잔리, 율북리, 동청리 일대에 영역이 있었다. 그 밖의 나머지 땅은 대부분 수원도호부의 관할을 받고 있었다.

2. 서평택의 중심은 안중읍

안중읍은 일제 강점기 이후 서평택지역의 중심이다. 지금도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읍사무소, 단위농협, 시립도서관, 서부문예회관, 체육센터, 교육시설, 상업시설이 이곳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안중읍은 1989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오성면에 속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3월 안중면이 독립되었고, 2002년 11월에는 읍(邑)으로 승격하였다.

2006년 읍(邑)으로 승격된 포승읍은 고려시대에는 포내미부곡, 신영장, 흥원목장, 괴태곶목장이었다가 조선 초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수원부 포내면과 양성현 승량동면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1895년 23부제가 실시되고 이듬해 13도제로 개편되면서 수원군 포승면으로 통합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위군에 통합된 뒤, 1938년 진위군

이 평택군으로 개편되면서 평택군 포승면이 되었다. 현재는 평택항, 포승국가공단, LNG 기지, 평택화력, 해군제2함대사령부, 서해대교 등 산업과 교통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미래의 물류·공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3. 평택시 산업발달의 중심으로 거듭나

오성면은 서평택에서 진위천 건너 첫 번째 지역이다. 서평택지역의 주산이라 할 수 있는 오봉산과 평택평야에서 가장 넓은 오성들이 오성면에 있다. 오성들은 일제강점 이전까지만 해도 일부지역만 간척되었을 뿐 대부분 갯벌과 황무지였다. 그래서 오성들의 마을 이름도 뜰 건너(월량촌), 다릿개(교포리), 길마원이다. 조선시대 오성면은 수원부 오정면과 숙성면 그리고 진위군 고두면의 일부지역, 직산현 언북면, 양성현 승량동면의 땅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다가 1895년 23부제를 실시하며 수원군에 통합하였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때 나머지를 통합하여 오성면이 되었다. 이 가운데 숙성면에 속했던 지역은 숙성리, 양교리, 죽리, 교포리이고, 오정면 지역은 금곡리, 대반리, 삼정리, 학현리, 길음리다. 안화리, 신리, 교포리 일부는 고두면이었고, 길음리 미촌은 양성현 승량동면, 당거리, 창내리와 지금은 폐동된 길음리 흥원마을은 평택현 언북면 지역이었다. 오성면이라는 지명은 오정면의 '오'와 숙성면의 '성'에서 한 글자씩 취하여 만들어졌다. 초기 오성면의 면소재지는 양교리 대검당이였다.

청북면은 1895년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이전만 해도 수원부와 양성현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백봉리, 어소리, 어연리 원어연, 토진리, 한산리 일부, 현곡리가 수원부 지역이었고, 고잔리, 삼계리, 어소리 황곡, 어연리 설창, 한산리 원한산, 율복리, 현곡리 광승, 후사리 일부지역은 양성현 땅이었다. 면(面) 단위로 구분하면 토진면, 숙성면, 서신리면, 수북면, 율북면, 청룡면, 감미면, 목진면 등 모두 8개면으로 나뉘지는데,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청룡면의 청(靑)과 수북면의 북(北)에서 한 글자씩 취하여 진위군 청북면이라고 하여 현곡, 어소, 토진, 한산, 어연, 백봉, 용성, 덕우, 옥길, 후사, 삼계, 고잔, 율복 등 13개리를 관할하게 하였다. 그 뒤 1938년 '평택군 청북면'으로 바뀌었고, 1995년 시·군이 통합되면서 평택시 청북면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1987년에는 화성군 양감면에 속하였던 고넉리가 청북면에 편입되었다. 1986년 안중출장소가 설치되고 1989년에 안중면이 독립하면서 용성리와 덕우리가 안중면으로 옮겨갔다. 현덕면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수원부와 광덕현의 영역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양성현과 직산현, 수원부의 땅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다가 1895년 23부제 실시로 수원군으로 통합되었고,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위군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덕이

라는 지명은 현암면과 광덕면에서 각각 한 글자씩 취하여 명명되었다.

현재 서평택지역은 5개 읍(邑)·면(面)으로 형성되었다. 5개 읍면은 1990년대 이후 행정과 교육, 상업 중심지(안중읍), 항만과 물류(포승읍 일대), 국방시설과 공업시설(포승읍, 청북면), 농업지대(오성면)로 나뉘어 평택시의 핵심적인 산업지대로 발전하고 있다. 향후 서평택일대의 발전은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도시화와 산업발전은 전통의 경관과 산업을 크게 변모시킬 것이다.(2010)



[신도시로 개발된 안중읍 현화리(2007)]

평택역사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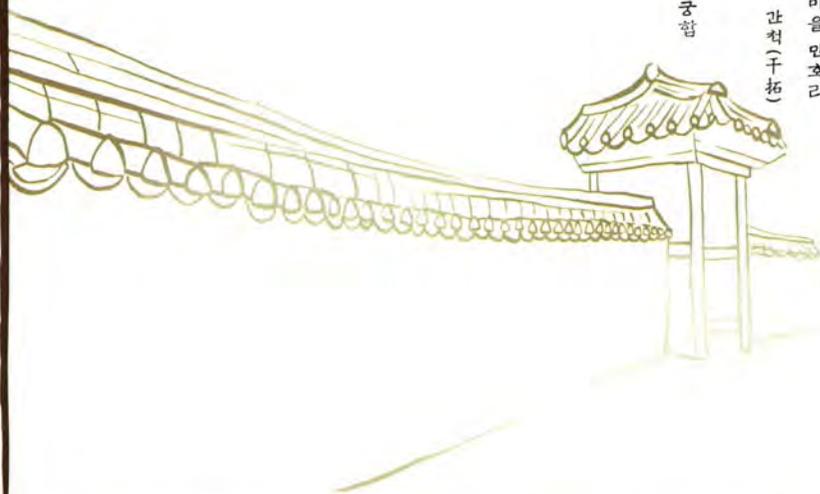
양성현의 배창 옹포(甕浦)

평택항과 함께 사는 포구마을 만호리

평택지역사연구회 키워드 간척(干拓)

소금·백색의 황금

김장·배추와 젓갈의 화상궁합





지리산책

02

역사가 있는 마을을 만나다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들

지명에 담긴 평택사람들의 삶과 역사 ①

지명에 담긴 평택사람들의 삶과 역사 ②

평택시 인구가 어떻게 변했을까?

소사별은 평택시의 대표 사적(史蹟)

춘향이길로 불리던 상남대로

이몽룡 상남대로에서 길을 잃고 헤메다

임금도 쉬어갔던 주막거리 관원(葛院)

화천역·역말 것을 역말 농들

평택지역의 나무와 포구

평택지역과 조운(漕運)

대진(大津)·대담포역항이 평택항으로

하얏차는 고려시대의 국제척

고덕면 배창리의 배창(海倉)터

역사가 있는 마을을 만들자

1.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까?

지난 9일과 10일 동료 교사들과 전남 순천을 답사하였다. 순천하면 떠오르는 것은 송광사와 선암사 그리고 낙안읍성과 순천만 갈대밭이다. 송광사는 절의 규모도 크지만 대한불교 조계종의 뿌리이며 승보사찰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태고종의 고찰 선암사는 전통사찰의 유산들을 잘 간직하여 사랑받는 절이다. 그것은 순천만 갈대밭, 낙안읍성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순천만 갈대밭을 답사하며 평택지역의 자연환경을 떠올렸다. 사실 평택지역의 습지와 순천만은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 과거 수로(水路)와 해로(海路)가 발달했고 드넓은 갯벌을 보유했던 점이 그렇다. 하지만 근대 이후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두 지역이 큰 차이를 보였다. 평택이 수도권 및 중국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저습지를 간척하고 항만과 산업공단을 유치했다면, 순천은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물굽이를 보존하고 바다와 갯벌의 수산자원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 1970, 80년대 여수,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과 제철산업이 크게 발전할 때에도 공업화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었다. 이것은 순천시 스스로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지형적 조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틀 선택되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연경관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최근 들어 순천시는 산업발전에 뒤쳐진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잘 보존된 산과 하천, 물굽이와 갯벌, 갈대숲을 활용하여 생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 곳곳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현수막은 순천시의 발전계획이면서 지향점이다. 필자는 앞으로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두 도시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까 궁금하다. 어떤 도시든 '살기 좋은'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데, 과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두 도시 가운데 어느 도시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지 궁금하다는 말이다. 배고픈 시절에는 배불리 먹기만 해도 행복하지만, 경제수준이 향상된 다음에는 정체성이나 자긍심, 문화적 만족도에도 높은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2. 농촌마을은 '역사성'이 있어야 생명력 있어

평택지역의 갯벌은 평택항 확장공사로 인해 대부분 매립되었다. 이제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요새가 날아들고 어패류가 풍부했던 광활한 아산만 갯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평택호 물줄기도 1974년 아산만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경관이 크게 변했다. 어족자원도 급감하고 물줄기도 바뀌었다. 바다와 하천변의 갯벌조차 간척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었던 옛 나루터는 흔적이 모호해졌다. 물의 도시 평택에서 물을 활용하여 만들 콘텐츠자원이 대부분 사라져버렸다고 볼 수 있다. 물을 활용한 문화적 콘텐츠화가 어려워진 지금 평택시가 활용할 수 있는 전통자원은 농촌마을과 평야밖에는 없다.

농촌마을은 하나하나가 작은 박물관이다. 삶의 강력한 활력이 존재하는 공동체이며, 개개가 독특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농촌마을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택지역 농촌마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는 계발한 콘텐츠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바탕이다. 또 특정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체험마을'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그리고 자긍심이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마을이 유지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컨대 잘 건축된 마을회관 앞에 커다란 느티나무를 한 두 그루씩 심고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평상과 긴 의자를 가져다 놓는다면, 느티나무 앞에 아담한 마을 유래비를 세워 마을의 역사를 분명히 하는 것, 웃놀이와 풍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작은 마당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뜻이 모아진다면 회관 내 회의실을 개조하여 '마을역사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고덕면 문곡4리 신흥동 마을회관]

역사관에는 마을의 지도를 그려 주민들의 집과 지명을 써 넣고 한쪽에는 마을의 연혁을 적어 놓는다거나, 주민들의 사진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벽면을 장식하는 것, 옛 사진이나 각종 사료를 모아 액자에 넣어 걸어 놓는 것, 주민들이 사용하던 옛 물건이나 농기구들을 사용하던 시기와 장소, 사용하던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전시한다면 정말 훌륭한 역사관이 될 것이다.

역사관이 정착된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써서 '시시콜콜 마을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다. 중요한 것은 관심이고 의지다. 평택의 뿌리인 농촌마을을 귀하게 여기는 평택시의 의지, 지역과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마을, 자연환경과 문화가 잘 보전된 마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가치다. 우리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농촌공동체의 가치는 회복될 수 있다. 평택의 농촌마을에 역사와 문화가 덧 입혀지고, 농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날을 꿈꿔본다.(2012)



[고덕면 문곡4리 신흥동 마을회관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들

1. 고향은 그리움이다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도시인은 나그네다. 도시인에게 고향은 지평선 너머에 있는 그리움 일 뿐이다. 고향 어귀의 산과 들, 논과 밭, 동구박 느티나무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최근 평택지역은 빠른 도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데다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항만시설을 갖추면서 급속히 도시가 확대되고 있다. 도시가 확대되면서 농민들은 고향을 잃고 유랑의 길로 나서고 있다.

평택지역의 농민들에게 고향은 특별한 의미다. 무봉산, 덕암산 자락에는 몇 백 년 내력의 동족마을이 있지만 평야지대의 마을들은 일 이 백년 또는 몇 십 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 이들은 백년, 이백년 전 본토를 떠나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빈농(貧農)들과 유민(流民)들이었다. 평택의 바다와 저습지는 이들에게 생존의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유민들은 토착민이 버린 땅에 터를 잡았다. 토착민들 집에서 품팔이를 하고, 바다에 나가 조개와 굴을 따며 목숨을 부지하였다. 황무지를 맨손으로 개간하고 바다를 막아 농지를 일구었다. 간척한 땅에 흙을 넣어 경작지를 만들었으며, 소금기 버글버글한 땅에서 염기를 빼어 모내기를 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맨손으로 안성천과 진위천에 보(洑)를 막아 농업용수를 구했으며, 가뭄으로 타죽어 가는 어린모를 살리려 밤새워 물꼬를 트고 구덩이를 팠다.

그렇게 일군 평야는 또 다른 수탈의 현장이었다. 근대 이전에는 힘 있는 왕족이나 권세가들이 절수(折收)를 구실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다. 때론 국유지라고 하여 손이 갈라지도록 간척한 땅을 궁방전이나 역둔토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동척농장이나 일본인 지주, 일제에 빌붙은 조선인 친일지주에게 억압과 수탈을 당했다. 전시체제에는 소작료를 지불하고 반토막밖에 남지 않은 쌀을 강제공출로 빼앗겼으며, 징병, 징용, 근로보국대로 징발되어 노동력과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으로 내몰린 피난민들의 간척지는 갯벌에 막대기를 꽂아 놓은 토지주인들에게 두 눈 뜨고 빼앗겼다. 그렇게 살아내며 지켜온 고향이고 지켜낸 땅이었다.

그래서 평택민중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특별하다. 그들에게 고향은 가족과 집이 있는

곳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 하지만 다양한 개발사업과 미군기지이전은 목숨과도 같은 마을과 평야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발전을 위해서는 상실의 아픔은 필연적이지만,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게 된다. 평택지방에는 사라져가는 마을이 20여 개가 넘는다. 필자는 여운이 남아 있는 몇몇 마을을 답사하며 '사라짐'의 뒤편에 숨어 있는 '기억해야 할 것'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2.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마을들

대추리는 K-6미군기지 안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형이 삼태기 같고 마을 앞에 저수지가 있어서 살기 좋기로는 팽성읍에서 으뜸이었다. 봄에는 풍부한 농업용수를 끌어들이며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기경가(起耕歌)를 불렀다. 대추리 마을에 어두운 그림자가 닦친 것은 일제 말이었다. 전쟁물자 보급을 맡은 일본해군시설대가 마을 동쪽에 비행장을 건설한 것이다. 하지만 비행장 건설은 자연경관을 해쳤지만 피해는 크지 않았다. 정작 주민들을 고향 밖으로 내몬 것은 1952년 늦가을 미군이 비행장을 접수하면서부터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보리쌀 1가마와 집을 지을 목재 한 짐이 전부였다. 집과 전답은 물론이고 생계대책도 없는 이주였다. 마을을 빼앗긴 주민들은 조상들의 묘소 근처에 있는 곤지머리에 동지를 틀었다. 혹독한 겨울을 넘긴 이듬해 봄에는 버려지다시피 했던 황새울에 모내기를 하였다. 다음 해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던 도두리들을 간척하였다. 봄에는 '봄이사원'을 간척하였고, 가을에는 원뚝을 아홉 개나 쌓고 '구원들'을 개간하였다. 그렇게 집을 짓고 농지를 마련하여 마을을 이루었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도 열심히 하였다. 질퍽거리는 논길을 걸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도 설립하였다. 옛 마을의 당목(堂木)을 대신하여 곤지나루 당(堂)도 정성껏 섬겼다. 하지만 근래의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어렵게 일군 마을도, 새마을 사업 때 만든 큰 길도, 대추초등학교도, 손톱이 닳아 없어지도록 간척한 황새울벌과 도두리벌도, 주민들의 신앙과 삶이 깊이 배어있는 천주교 공소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마을사람들도 그리고 회관 앞 솔숲에 살고 있던 솔부엉이까지도.

용이동은 현촌, 구룡동, 신흥같은 자연마을로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양성현 구룡동면이었고, 해방 전후에는 안성시 원곡면에 속했다. 양성현이 다스릴 때는 고을의 사창육고(司倉六庫)가 이곳에 있었다. 사창은 조세로 거둬들인 곡식 가운데 지방관아의 운영경비를 위해 일부를 남겨 저장하였던 창고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곳곳에는 수공업자 마을인 점촌과 시장이 발달하였다. 현촌은 연주 현씨들이 동족마을 형성하였다고 하여 유래되었다. 이 마을의 연주 현씨들은 제법 빼대가 있는 사족집단으로 누대에 걸쳐 지역사회



[소사벌지구 택지개발로 사라진 비전동 산적촌(2009)]

에 영향을 끼쳐왔다. 누대에 걸친 사족집단이 존재하는 마을에는 사당과 묘역 뿐 아니라 족보, 분재기, 계문서 등 다양한 민장문서가 존재한다. 어디 그 뿐인가 마을 공동의 마을 제나 두레나 계와 같은 공동조직도 있다.

그밖에도 평택지방에는 고덕국제신도시 예정지와 경제자유특구 예정지를 제외하고라도 조선시대 진위천의 큰 나루가 있었던 황구지리, 조선후기 진위천 유역의 상업과 탄현면에서 생산되는 물산을 연결하였던 신장1동 구장터 마을, 도두리별 간척사업의 산증인인 도두2리 신흥마을, 동삭동의 옛 마을인 서재마을, 모산골, 고려시대 영신현의 읍치였던 영신마을, 세교동 일부지역, 비전동 산적촌, 청룡동 인근의 평택배 시배지, 평택미군기지 역사의 산증거인 신장1, 2동, 청북면 옥길리 새터마을, 칠원동 수촌마을, 삼남대로 소사동에서 갈원 구간이 개발되었거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 무엇을 잃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마을이 사라지면 전통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도 함께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한번 사라진 문화유산은 다시는 복원할 수 없다. 그렇기에 자연과 마을을 개발할 때는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장안동은 용인이씨와 연안 차씨가 대성(大姓)을 이룬 마을이다. 연안 차씨는 고려 말 두문동 72인의 한사람인 성리학자 차원부의 후손이다. 이들이 처음 입향한 것은 조선 초였다. 조선후기에는 동족마을을 이루었고, 최근까지도 탄탄한 가문의 전통을 유지하였다. 그랬던 마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들리는 말로는 토지보상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중 보상

을 받고 떠나자는 쪽이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을이 사라지면서 자연경관은 물론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문화유산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물론 개발주체 측에서 몇몇 곳을 구제발굴하고 지표조사를 하겠지만 그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정도 수준의 마을이면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원에서 각종 문헌이나 사진자료를 수집한다던가 아니면 '마을지' 하나쯤은 만들어 놓고 개발해야 하였다.

내가 아는 분은 칠원2동 새말에 살고 있다. 새말도 아파트단지가 확장되면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처음에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시청에서 하는 것 따져봤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시청에 문의를 하였다. 시청에서는 마을 옆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전통마을이 슬럼화 되어서 불가피하게 개발하게 되었노라고 대답하였다. 대답을 듣고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고 슬럼화된다는 발상의 근거가 뭐냐고, 아파트와 전통마을이 조화를 이뤄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항변도 통하지 않았다. 이 마을도 수 백 년 전통을 갖고 있다. 이동백 선생의 유허는 물론이고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도 새말과 함께 하였다. 당제나, 정제, 용신제와 같은 민속문화까지 거론하지는 않겠다.

필자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자연마을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개발하더라도 우리가 추억하고 남겨야 할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뒤에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 문화유산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육백 년 도읍지 서울이 근대화시기에 전통의 문화유산을 파괴하였다가, 최근 복원사업을 하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2008)



택지개발로 사라진 용이동 현촌마을

지명(地名)에 담긴 평택사람들의 삶과 역사(1)

1. 지명은 본질적으로 역사

지명은 지리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역사다. 하찮게 여기는 산 이름, 마을이름에도 민중들의 삶과 역사가 숨 쉰다. 민중들은 그들의 삶의 경험과 생각을 지명 속에 남겨두었다. 지명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행정지명이 있는 가하면, 도로지명, 나무, 포구지명, 산, 들, 바다, 계곡, 바위, 나무, 고갯마루에도 지명이 있다. 그러므로 지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역사읽기의 다른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지명은 신라 경덕왕 16년(757) 때 실시된 행정구역 개편, 국가와 왕조 교체, 그리고 1914년 일제가 식민통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행정구역 개편 때 크게 변화였다. 신라 경덕왕 때의 행정구역 개편이 주요 행정지명을 한자화 시켰다면, 1914년의 것은 기존의 촌락을 통폐합하고 자연지명까지 한자화하여 변화가 컸다.

2. 산(山)의 지명도 시대마다 달랐다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산은 무봉산(208,6m)이다. 무봉산은 진위면 봉남리, 동천리, 가곡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세가 '봉황이 춤을 추는 형국'이라고 하여 유래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부 편에는 '만(萬)의산'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무봉산 말고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무봉산이라는 지명은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쓰였으며 1843년(도광 23), 1891년(광서 17), 1899년(광무 3) 읍지(邑誌)에도 기록되었다.

부락산(負樂山)은 송탄의 주봉이다. 현재 각종 체육 문화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부락산은 1843년에 간행된 진위현 읍지에 부락산(負樂山)이라고 쓰였으며, 1891년에 간행된 진위현 읍지에는 조락산(鳥落山), 1899년 진위군 읍지에는 다시 부락산(負樂山)이라고 기록되었다. 하지만 팔도군현도(1760)와 해동여지도(1800), 해동지도(18세기 중엽), 광여도(1767~1776), 경기도지도(18세기 중엽)와 같은 고지도에는 불악산(佛樂山), 18세기 중엽의 여지도에는 요악산(夭樂山), 1975년 지도에는 불악산(佛岳山)

이라고 기록되어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음을 알게 한다.

삼각산, 덕동산, 매봉(산)은 일명 평택 삼봉이다. 이 산들은 해발 30미터 내외의 낮은 언덕에 불과하지만 평야지대인 평택남부지역에서는 제법 높은 봉우리에 속하기 때문에 산으로 불리진다. 삼각산은 몇 년 전 지역주민들이 '자란산으로 부르기 운동'을 하여 요즘에는 자란산으로도 부르고 있다. 삼각산은 재래마을의 당산(堂山)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신사(神社)가 있었다. 덕동산은 절이 있어 '부처님굴' 또는 함지박을 업어 놓은 것 같아서 '함박산'으로 불렸다. 그러다가 한국전쟁 때 순국한 무명용사를 봉안한 현충탑이 건립되면서 '충혼산'으로 불렸고, 1986년 산 정상부에 평택시 승격을 기념하여 '덕동루'를 건립한 후에는 '덕동산'으로 불리지고 있다. 매봉(산)은 '매가 날아드는 봉우리'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조선보물고적조사보고」에는 용봉산(龍鳳山)으로 표기하였다. 매봉 아래에는 평택 여자중학교, 신한중·고등학교가 있다.

3. 하천은 용도가 다양한 교통로

평택지역은 바다가 가깝고 지대가 낮아 하천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안성천과 진위천이 있고 오산천과 황구지천, 통복천 등 약 30여개의 지류가 뒤를 잇는다. 하천에는 나루와 포구가 발달하였다. 근대이전에는 나루와 포구를 중심으로 조운(漕運), 선상(船商)들의 상업활동, 인마(人馬)의 통행이 이뤄졌다.

안성천은 안성시 삼죽면 배태리 국사봉에서 발원하여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의 아산만까지 총연장 73km, 유역면적 1,722km²의 하천이다. 삼국시대에는 웅천강이었고, 조선시대에는 구간에 따라 남천(南川), 흥경천, 대천(大川)으로 불렸다. 안성천이라는 지명은 1914년 9월 25일 일제가 하천의 명칭, 각 하천의 수해상황, 관개면적, 하천공작물을 조사하고 하천의 분류와 지류를 확정지어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진위천은 용인 무네미고개 등 여러 곳에서 발원하여 흐르다가 진위면과 서탄면 일대에서 오산천, 황구지천과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른다. 총 길이는 50km이며 유역면적은 201.5km²이고 모두 13개의 지류를 갖고 있다. 근대이전에는 장호천(長好川) 또는 일부 구간에서는 귀천(龜川)으로도 불렸다. 진위천이라는 명칭은 안성천과 마찬가지로 1914년 일제의 지명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오산천은 '토현천(兔峴川)'으로 불렸다. 별칭으로는 호미모양으로 휘어져 흐른다고 하여 서천(鋤川)이라고도 하였다. 황구지천은 구간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예컨대 수원구간에서는 광교천, 대천(大川), 서탄면 내천리에서는 '내천(奈川)'이었는데, 일제의 행정구역개편으로 황구지천으로 정리되었다.

4. 하천에는 나루와 포구가 발달

평택지역의 하천과 아산만에 접한 바닷가에는 나루와 포구가 발달하였다. 이 가운데 팽성읍 노양리의 경양포(慶陽浦)는 고려시대 전국 12조창 가운데 하나였던 '하양창'이었다. 하양창은 경기남부와 충청도 내포지역의 세곡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태조 5년에 고을을 폐하여 직산현에 붙이면서 '경양창'이라고 하였고 직산현과 평택현의 세곡만을 운송하게 하였다. 경양포는 '계양(桂陽)'이라는 별칭으로도 부른다.

계양(桂陽)이라는 이름은 18세기 중엽에 그려진 해동지도, 광여도(1767~1776), 여지도(18세기 중엽)에 '계양해구(桂陽海口)'라는 지명에서도 확인된다. 옛 대추리의 곤지진은 '곤지머리나루'로도 불렸다. 곤지진은 평택현(팽성읍)에서 오성면 당거리나 길음리, 현덕면 신흥포와 연결된 나루였다.

군문포(軍門浦)는 평택시 군문동에 있었던 포구다. 정확한 위치는 안성천 변을 가로지르는 군문교 아래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지점이다. 이 포구는 평택현 영역이면서 조선시대 전국10대로 가운데 하나인 충청수영로가 지나는 길목이어서 교통의 요지였다. 본래의 이름은 군문포였지만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청군(淸軍)이 상륙했다고 하여 군문포가 되었다. 군문포 주변에는 신태포, 삼교포, 화포가 있었다. 이들 포구에서는 경기만의 소금과 어물이 거래되었다. 만호리의 대진(大津)은 대진포, 슬개바위나루로도 불렸다. 삼국시대에는 대중국 교역창구였고, 고려시대부터는 서평택과 충청도 내포지역의 교통 및 상업창구였다. 계두진은 충청도 아산시와 경기도를 잇는 교통로였으며, 신흥포는 충청도 경양현과 평택현, 아산현을 연결하는 교통로였다.

청북면의 웅포와 고덕면 해창리의 해창포는 양성현과 진위현의 해창이었다. 포승읍의 호구포와 자오포는 흥원곶 목장의 말을 싣고 나르던 포구다. 고덕면 궁리의 다라고비진은 경기도 진위현과 서평택지역을 연결하는 포구였으며, 동청포는 양성현에 속했던 조선시대 종덕면과 청북면 토진리의 뚝나루를 연결하였고, 항곶포는 서탄면 황구지리와 화성시 양감면을 연결하였던 나루다. 이곳에는 유사시 군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석교(石橋)가 놓였다. 이밖에도 현덕면 대안리의 구진은 안성천 하류의 어항이었으며, 황산리에는 직산현 안중창의 조창이 있었다.(2009)

지명(地名)에 담긴 평택사람들의 삶과 역사(2)

1. 역사지명에는 정치적 변화가 담겨 있어

우리고장에는 역사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대체로 역사지명은 옛 고을의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사지명으로는 옛 고을의 이름, 동헌이나 절청, 향청과 같은 관아의 건물, 향교나 객사와 관련된 것이 많다. 평택지역에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만 해도 3개의 고을이 나누어 다스렸고, 고려시대에는 부곡, 장, 처, 진과 같은 크고 작은 행정구역이 15개나 되었다.

평택(平澤)이라는 지명은 평성읍의 읍호(邑號)였다. 평성읍은 조선시대 충청도에 속한 고을로 고려시대에는 경양현과 평택현으로 나뉘었다. 그러다가 조선 태조 7년(1398) 경양현이 폐현되어 직산현 경양면에 속하면서, 평택현은 객사리, 내리, 안정리, 추팔리 등 평성읍 중동부 일대만 지배하였다. 1895년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경양면이 이속되었고,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평택역 일대가 '평택리-평택면-평택읍-평택군'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의 읍호(邑號)를 상실하고 부용면(1914)과 서면(西面)이라고 했다가, 1934년 옛 경양현 지역인 서면(西面)과 통합되면서 평성면이 되었다. 평성(淸城)은 고려시대부터 평택현의 별호(別號)였으며, 조선중기에는 평택현을 평성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진위(振威)라는 지명은 본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진위면과 서탄면 일대만을 지칭하는 지명이었다. 진위는 삼국시대 초 백제지배기에는 송촌할달부곡, 연달부곡 등으로 부르다가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지배하면서 부산(釜山)으로 불렸다. 현재와 같은 지명은 신라 경덕왕 16년(757)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진위면, 서탄면, 옛 송탄시 일부를 지칭하던 진위(振威)라는 지명은 조선 세종 15년에 도일동, 송탄동, 옛 평택시, 고덕면 일부를 지배하던 영신현을 통합하면서 남쪽으로는 안성천 경계, 서쪽으로는 진위천 경계까지 부르는 지명이 되었다. 1895년 갑오개혁 뒤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1914년 기존의 진위군과 충청도 평택군, 서평택 일대의 수원군을 '진위군'이라는 지명으로 통합하면서 평택시 전체를 지칭하는 지명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평택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이었던 '진위(振威)'라는 지명은 경부선 평택역 일대가 발전하면서 1938년 '평택군'으로 바뀌었다.

2. 관아나 향교와 관련 있는 지명도 많다

조선시대 읍치(邑治)에는 동헌(東軒)을 비롯한 관아시설, 객사(客舍) 그리고 향교가 있었다. 이 가운데 동헌을 비롯한 관아건물은 일제강점기 초등학교로 사용되거나 훼손되었거나 남아 있는 것은 객사와 향교뿐이다. 충청도 평택현이었던 팽성을 객사리에는 팽성을 객사와 향교가 남아 있고, 관아시설에는 교회와 민가 그리고 팽성읍사무소가 들어섰다. '팽성읍 객사리'라는 지명도 팽성을 객사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향교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향교말'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자로 '교촌(校村)', '교궁촌(校宮村)'으로도 표기한다. 향교말은 조선시대 유학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향교 주변 마을의 역(役)을 면제하고, 일정한 경제적 부담과 향교의 수직(守直), 사환(使喚), 청소, 나무하기, 군불때기 등 잡역을 담당했던 마을이다. 평택지역에는 팽성읍 객사리와 진위면 봉남리에 향교말이 있으며, 월곡동, 안중읍 용성리, 팽성읍 내리에 '향교골', '향교터'와 같은 지명이 남아 있다.

고려시대에는 무려 15개의 크고 작은 행정구역이 있었다. 이 같은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에 2개의 행정조직과 3개의 월경지 및 견아상입지로 통폐합되었다. 통폐합된 행정구역으로는 영신현, 광덕현, 용성현, 경양현, 종덕장, 오타장, 신영장, 송장부곡, 천장부곡, 육내미부곡, 포내미부곡, 감미부곡, 백량부곡, 청호역이 있다.

영신현은 이마트 옆 동삭동 영신마을에 읍치(邑治)를 두었던 고을이다. 영역은 옛 평택시 일원과 도일동, 송탄동, 고덕면 일대가 영신현의 영역이었다. 지금도 주민들은 동삭마을 일대를 영신이라고 부른다. 광덕현은 현덕면 덕목리에 중심을 두었던 고을로, 조선건국 후 폐현되어 수원부에 속하였다. 1914년에는 기존의 현암면과 통합되면서 '현덕면'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현덕면 대안리 '광덕분교'라는 이름으로만 남았다.

용성현은 안중읍 용성리 일대에 설치되었던 고을이다. 읍치(邑治)는 용성2리 설창마을로 추정된다. 이 고을은 백제 때는 상홀 또는 차홀이라고 하다가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지성현이라고 하였으며, 용성(龍城)이라는 지명은 고려 태조 23년(940)부터 불려졌다. 조선 건국 뒤에는 수원부에 통합되면서 수원부 청룡면이 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청룡면의 청(靑)과 수북면의 북(北)을 통합하여 '청북면'으로 편제하였다.

경양현은 팽성읍 서부지역에 있었던 고려시대 고을이다. 이곳은 옛부터 포구가 발달하고 소금생산이 많아서 고려시대에는 12조창 가운데 하나였던 하양창을 두었다. 이와 같은 중요성으로 고려후기에는 경양현을 설치하였는데, 경양현의 수령은 염(鹽) 장관을 겸하였다고 한다. 그 후 조선 태조 7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폐현(廢縣)되어 직산현에 속하게 되었고, 18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택현으로 통합되었다.

3. 복잡했던 행정구역이 '평택'으로 통합되어

고려시대만 해도 평택지역에는 향, 소, 부곡이나 장(莊), 처(處)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많았다. 특수행정구역은 일반행정구역보다 격이 낮아서 고려시대에는 일반행정구역의 간접 지배를 받았고, 둔전(屯田)이나 학전(學田)을 경작하거나 성(城)을 수축하는 등 역(役)에서 차별을 받았다.

평택지역에는 종덕장, 오타장, 신영장과 포내미부곡, 육내미부곡, 감미부곡, 송장부곡, 천장부곡, 백량부곡 등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종덕장은 고덕면 두릉리, 당현리 일대에 있었다. 당시에는 궁실(宮室)의 소유지였던 것으로 보이며, 최씨 무신집권기(1217)에 일어난 진위민란 때도 영동정 이장대 등이 군량미를 얻기 위해 종덕창의 곡식을 노획했다는 기록이 있다. 종덕장은 조선시대 들어와 장(莊)이 폐지된 뒤에 수원군 종덕면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두면과 통합되면서 고덕(古德)면이 되었다. 오타장은 고덕면 궁리, 방축리 일대에 있었던 고려시대 장(莊)이다. 조선후기 면리제가 실시되면서 '오타면'이 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덕면에 편입되어 지명이 없어졌다.

이밖에도 포내미, 육내미 부곡은 포승읍에 있었고, 감미부곡은 청북면 옥길리 일대, 송장부곡은 이중동 일대, 천장부곡은 서탄면 마무리, 내천리 일대, 신영장은 방림리, 신영리에 있었다. 포내미, 육내미 부곡은 조선시대에 포내면과 송량동명으로 개편되었다가 1914년 포승면이 되었다. 신영장은 화살을 생산했던 특수행정구역이었다. 지금도 포승읍 방림리에는 전촌(箭村) 마을이 있고, 근처의 석정리에는 풀무골(治洞)이 있어 옛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포승읍 홍원리 일대의 홍원곶 마장(馬場)에는 아직도 옛 말목장의 흔적과 말을 가둬두었던 목장토성이 남아 있다. 포승읍 원정리에도 괴태곶 마장이 있었다. 마장(馬場)이란 근대 이전 군사용 또는 교통, 통신용 말을 기르던 '말목장'을 뜻한다. 홍원마장은 둘레가 75리였고 조선후기에는 감목관(監牧官)이 파견되었다. 마장의 흔적은 홍원2리 마장마을, 성해리의 '석정리 장성', 도곡리의 '말목장토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했던 서평택일대의 행정구역은 갑오개혁 때 '수원군'으로 통합되었다가, 진위군을 거쳐 1938년부터 '평택지역'의 한 부분이 되었다.

4. 역사의 흔적이 살아 있는 마을지명

마을지명은 그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준다. 평택지역에는 600개가 넘는 마을이 있다. 이 가운데는 지역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름들이 많다.

소사동은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있는 마을이다. 소사(素沙)라는 지명은 소사천 주변의 흰모

래밭에서 유래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오는 관문이어서 소사원이 설치되었고, 양성현 구룡동면과 영통현의 세곡을 운송하던 나루도 있었다. 도일동은 덕암산 자락 남쪽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행정구역으로는 송탄동 관할이다. '도일'이라는 지명은 도일1동 원도일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양성현과의 경계를 의미한다. 덕암산 아래의 마을들은 진위현 여방면 지역이어서 '여좌울'이라고 불렀다. 여좌울 건너편은 양성현의 땅이 지났다고 해서 '양성말'이다.

진위면 은산리는 조선후기 은굴이 있어서 은정(은굴)이라고 불렀던 마을과, 산 아래에 마을이 형성되어 산대(山臺)라고 불렀던 지역이 통합되면서 형성되었다. 봉화정씨의 600년 세거지로 산대(山臺)에 터를 두었다고 하여 '산대 정씨'라고도 부른다. 기동은 봉화 정씨의 입향조 정래가 처음 터를 잡은 마을이며, 방촌은 정씨세력이 확장되면서 형성된 마을로 삼봉 정도전 사당이 있다.

진위현의 읍치였던 봉남리에는 관아와 관련된 지명이 많다. '봉남'이라는 지명은 기존의 읍내리를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며 무봉산의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붙였다. 읍내리에는 주막, 만촌, 서문, 옥거리, 아곡, 신당골, 교촌과 같은 마을이 있다. 주막은 조선시대 주막거리였고, 서문은 관아의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며, 옥거리는 감옥이 있던 곳이고, 교촌은 향교가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현덕면 덕목3, 4리는 고려시대 광덕현의 중심마을이다. 그래서 마을 안에 덕목리성이 있으며, 심복사와 같은 사찰이 있다. 객사리는 본래 읍내리로 옛 평택현의 읍치(邑治)이고 팽성을 객사가 있어 유래되었다. 마을에는 객사, 상신대, 하신대, 대정, 교촌과 같은 마을이 있었고 이것을 일제강점기에 동촌과 서촌으로 구분하였다. 동촌의 자연마을로는 새터, 상신대, 하신대, 주막거리, 대정촌이 있으며, 서촌은 연못뚝과 교촌(향교말)이 있다. 주막거리는 마을 입구 삼거리의 주막이 있던 곳이며, 대정촌은 큰 우물이 있었던 마을이고, 큰 연못이 있던 곳은 '연못뚝'으로 불렀다. 또 읍성 뒤쪽은 성박이, 청담중학교 정문 앞은 옥거리였다.

이처럼 마을지명에도 곳곳에 역사의 흔적이 숨어 있다. 또 역사의 흔적 뒤편에는 민중들의 기쁨과 슬픔, 고단함이 숨겨져 있기도 하다.(2008)

평택시 인구, 어떻게 변했을까?

1. 우리는 구석기인들과 호흡하며 산다

1995년 평택시 최북단에 위치한 포승읍 원정8리 멩거니산에서는 의미 있는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발굴조사에는 아주대학교 박물관 등 유수한 대학의 발굴팀이 참여하였다. 현대 발굴이 진행될수록 예상롭지 않은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바다와 인접한 서남쪽 경사면에서는 신석기시대 유적인 거대한 조개터미와 빗살무늬 토기편이 발견되었으며, 여러 곳에서 짝개, 굽개, 여러 번 석기 등 다양한 구석기 유물이 수습되었다. 구석기 유물, 신석기 유적은 평택지역에서도 구석기,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평택시'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멩거니 유적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기간산업 유치를 위한 구제발굴이다보니 업자들도 발굴팀도 문화유산의 보존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고학자들은 평택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선사문화의 보고라고 말한다. 바다와 구름, 하천이 고루 발달한 자연환경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었다는 말이다. 실제로 평택지역에서는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시굴(試掘)하는 곳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 구석기시대는 최소한 1만 년 이전이다. 평안남도 상원의 검은모루동굴 같은 유적이 발견된다면 70만 년 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양보해서 신석기시대까지 끌어내려도 지금부터 1만 년에서 7, 8천 년 전까지 올라간다.

굿모닝병원에서 건너다보이는 소사SK 뷰 아파트 옆 구릉지대에는 청동기유적 공원이 조성되었다. 소사동 택지개발과정에서 발견된 유적이다. 한반도의 청동기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 사이부터다(3,000년 전부터라는 설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약 4,000년 전이다. 4천 년 전이라면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고, 단군이 자라서 고조선을 건국했던 시기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사시대의 유적, 그 시대 사람들의 흔적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참 무감하고 무심하다.

2. 조선 초에는 겨우 3,700명이 살았다

평택지역의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은 많지 않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호구조사를 했겠지만 현재 남아 있는 사료가 거의 없다. 15세기 전반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대강의 인구가 나타나 있다. 세종 때 진위현에는 221호 535명이 거주하였다. 진위현이라면 오늘날 진위면, 서탄면, 신장동, 지산동, 송북동 일대를 말한다. 면적이 넓지 않아서 인구가 적었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호(戶) 당 인구가 2.5명 미만인 점은 놀랍다. 세종 때는 꾸준한 개간사업과 정밀한 호구조사, 그리고 공정한 조세징수로 국가와 백성이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시기다. 그런데도 2.5명이라면,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는 한 집 건너 아이가 한 명뿐이었다는 말이다. 진위현의 인구가 이렇게 적었던 것은 고려 말, 조선 초의 잦은 왜구침입 때문이다. 또 간석지와 황무지가 많아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적합했던 환경도 한 몫 하였다. 평택 전역을 유린한 왜구의 침입으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많았지만 도저히 살 수 없어 산지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다.

진위현 남쪽에는 송장부곡과 영신현이 있었고 북쪽에는 청호역, 서탄면 서쪽에는 천장부곡이 있었다. 이들 지역은 고려 때만 해도 독립된 행정구역이었지만 조선이 건국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통폐합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424년(세종 6년) 기사에는 송장 87호, 부산과 청호역 59호, 용인현과 의신현의 일부 6호를 진위현으로 통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433년에는 옛 평택시와 송탄동, 지제동, 고덕면 동고리, 궁리 일대를 지배 하였던 영신현이 진위현에 편입되었다. 기록에는 없지만 영신현 인구는 진위현 규모쯤이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팽성읍 지역인 충청도 평택현에는 179호 704명이 거주하였다. 호(戶) 당 3.5명가량이다.

조선시대 서평택지역은 수원도호부, 양성현, 직산현 땅이 뒤엉켜 있었다. 이런 지역을 견이상입지 또는 월경지라고 하였다. 큰 고을의 일부로 남아 있었던 지역은 인구파악이 거의 불가능 하다. 하지만 전체 면적과 인구밀도를 고려한 뒤 추정한다면 모를 것도 없다. 안중읍 일부와 현덕면, 포승읍 일부, 청북면 일부, 고덕면 일부, 오성면 일부를 다스렸던 수원도호부의 총 인구는 1,842호 4,926명이었다. 이 가운데 평택지역에 속한 땅이 약 30%쯤 되었고 인구밀도는 낮았으므로 최소한 1천 명 내외는 거주했을 것이다. 여기에 양성현의 425호 1,210명 가운데 약 2, 3백 명 이상은 평택지역에 거주했을 것이고, 팽성읍 노양리, 신대리, 본정리와 안중읍 남서쪽을 다스렸던 직산현의 인구 2,111명 중 일부가 평택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한 인구를 모았더니 대략 3,700명쯤 된다. 지금부터 600년 전 평택시의 총 인구가 3,700명에 불과했다는 말이다.

3. 근대이후에는 철도와 미군기지가 결정적 영향

조선후기에는 보다 정밀한 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정확한 호구조사는 조세징수뿐 아니라 구역과 부역을 부과하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1789년(정조13)에 작성한 '호구총수'가 그것이다. 호구총수에 따르면 18세기 후반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1,708,908호에 7,214,453명이었다. 이 가운데 평택지역에는 33,093명이 살았다. 조선 초에 비해서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더구나 200년 전에는 임진왜란, 160여 년 전에는 병자호란의 참화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놀랍기만 하다. 조선 후기 평택지역의 인구증가는 간척사업이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도 하천 변에 남아 있는 궁리, 평궁리, 신궁리, 삼궁원, 궁논들, 수어청들과 같은 지명들은 국가나 왕실이 주도한 간척사업의 흔적이다.

평택지역의 인구는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건설되고 평택역, 서정리역 주변에 근대도시가 발달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미개간지의 간척사업도 인구증가를 촉진하였다. 1924년에 실시한 진위군(현 평택시) 인구조사를 보면 평택지역에는 11,577호에 63,090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호구총수를 작성했던 130여 년 전보다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면(面) 단위로 보면 평택역 주변의 도심지역인 병남면이 7,192명으로 가장 많았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평택보다 인구가 많았던 송탄면은 5,777명에 불과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이나 중국인도 많았다. 인구조사표에는 일본인이 180호 626명이었으며, 중국인은 110명이었다. 당시 평택에 거주했던 일본인들은 관료, 교사, 경찰, 지주, 마름 등 다양했고, 중국인들은 돈을 벌기위해 단신으로 건너온 사람이 많아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인구증가는 전체적으로 답보 상태였다. 상업과 간척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공업발전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평택지역 인구는 1933년이 되어서야 7만 명을 돌파하였다. 해방 뒤인 1948년이 되어서도 10만 명(92,751명)이 채 되지 않았다.

평택지역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한국전쟁이 가져왔다. 한국전쟁은 1951~1952년 사이 송탄 신장동과 팽성읍 일대에 미군기지를 주둔시켰을 뿐 아니라, 수많은 월남 피난민들을 평택 곳곳에 정착시켰다. 결과 1960년에는 156,759명으로 증가하였고, 1963년에는 172,472명, 1968년에는 193,420명으로 늘어났다. 1970년대에는 평택호방조제가 준공되고 새로운 간척지가 조성되면서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1995년 3개 시·군이 통합될 때에는 322,637명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대망의 4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11년 2월에는 420,594명이 되었고, 2012년 7월에는 43만 명을 돌파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인구증가의 아이콘은 뚝니 뚝니 해도 공업화와 평택항 건설 그리고 미군기

지이전사업이다. 1990년대 이후 부쩍 늘기 시작한 동남아 산업노동자들과 외국인 이주여성들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2016년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 진위면의 83만평에 건설 예정인 LG전자산업단지 확장, 고덕국제신도시 건설 등이 성공리에 진행된다면 평택시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평택시는 2018년에 인구 7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025년경에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규모의 성장은 우리의 생활환경을 크게 바꿔 놓을 것이다. 하지만 몸집만 커진다고 행복지수도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깊이 유념할 것이다.(2011)



평택역 앞 풍경(2010)

소사벌은 평택시의 대표 사적(史蹟)

1. 소사벌은 경기도의 관문(關門)

평택종합운동장 명칭공모 심사를 한 적이 있다. 평택시의 대표적인 종합레포츠타운이다 보니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명칭들이 응모되었다. 필자는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소사벌'이라는 이름을 지지하였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무엇보다도 소사벌은 평택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 지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소사벌은 소사동 원소사마을 앞 들판을 일컫는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조선시대 양성현 영동면 지역이었고, 1983년 이전까지는 안성시에 속하였다. 평택시와 인연을 맺은 시기와는 무관하게 소사벌이 지역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들판에 서린 역사적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근대 이전 소사벌은 한양에서 경상도 통영까지 연결된 삼남대로의 요지였다. 조선 후기에는 춘향전에도 소개되어 '춘향이길'이라는 애칭도 얻었다. 지리적으로 안성천을 사이에 두고 충청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경기도의 관문(關門) 구실도 하였다.

조선시대 소사벌에는 두 개의 다리가 있었다. 하나는 안성천을 건너는 '예교'였고, 다른 하나는 소사천을 건너는 '소사교'였다. 근대이전의 도로교통에서 다리는 하천을 최단거리로 건널 수 있는 첨단시설이었다. 특히 배로 운반하기가 불편했던 가마와 수레는 다리를 통과하는 것이 편리하였다.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조선시대 원소사 마을에는 '소사원'이라는 국영 주막이 설치되었다. 소사주막은 삼남에서 올라오는 과객(科客)과 물자(物資)들로 늘 북적거렸다.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요지에 장시(場市)가 개설되지 않을 수 없다. 조선후기 소사주막 앞에는 소사장이 개시(開市)되었다. 5일, 10일에 개시하였던 소사장에서는 삼남에서 올라오는 물산과 평택과 안성에서 생산되는 토산품들, 아산만의 어염(魚鹽)이 거래되었다.

2. 교통의 요지(要地)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

요즘과 달라서 조선시대만 해도 교통의 요지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고달팠다. 평화시기에는 삼남(三南)을 오가는 왕이나 고관대작들 집대에 등골이 빠졌고, 전란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다. 소사벌에서 일어난 전란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정유재란 중에 발생한 '소사벌대첩'과 '청일전쟁'이다. 소사벌대첩은 1597년 발생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휴전논의가 실패한 뒤 일본군은 재침을 하였다. 일본군은 난공불락의 진주성을 점령하고 남원을 침략하였으며, 간첩 요시라의 간계로 이순신을 제거한 뒤에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을 괴멸시키면서 파죽지세로 북상하였다. 한양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위급한 상황에서 해생, 우백영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는 급히 소사벌로 출동하여 기묘한 전술로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소사벌대첩의 승리로 일본군의 북상은 저지되었다. 남해안을 휘젓던 수군도 소사벌대첩이 발생한 지 열흘 뒤에 명량대첩에서 이순신에게 대패하며 전의를 상실하였다.

1894년 소사벌에서는 또 한 번의 전란이 발생하였다. 개항 후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일본과 청나라는 동학농민전쟁을 계기로 아산만과 소사벌에서 격돌하였다. 청일전쟁이라고 불렀던 싸움에서 일본군은 아산만의 풍도해전과 소사벌전투(일명 성환전투)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만주와 산둥반도까지 진격하여 청의 굴복을 얻어냈다.

소사벌을 내려다보고 있는 원소사마을에는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있다. 또 대동법시행기념비 앞에는 네 명의 안성군수 선정비가 세워져 있고, 마을 안쪽에는 미륵당도 있다. 선정비 중에는 윤보선 전 대통령의 할아버지 윤영열의 불망비도 있다. 소사동 마을미륵은 '미륵세상은 안성에만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평택도 미륵세상'임을 말해준다.

소사벌은 문화유산의 보고(寶庫)다. 보물은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소중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소사동과 소사벌을 사적(史蹟)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것은 '소사벌'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평택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세워주는 일이다.(2011)

춘향이길로 불렀던 삼남대로

1. '춘향이 길'이라는 애칭이 살갑다

길은 국토의 핏줄이다. 몸이 동맥과 정맥 그리고 가는 실핏줄로 연결되었듯이 근대이전의 길도 대로(大路)와 중로(中路), 소로(小路)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었다. 평택지역은 조선시대 제6로인 삼남대로는 지나는 요충이면서 제8로인 충청대로는 갈라지는 분기점이었다. 또 삼남대로는 평택을 지나 전라도 삼례에서 제주로(호남대로)와 갈라지고 전주와 남원을 거쳐 경상도 통영까지 이어졌다. 삼남대로는 춘향전에도 나와 있다. 예컨대 정든 남을 남겨두고 한양에 올라갔다가 장원급제한 이몽룡이 전라도 암행어사를 제수 받고 남원으로 내려가는 대목에 삼남대로의 행로(行路)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붙여진 애칭이 '춘향이 길'. 춘향전을 사랑했던 민중들의 정서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이름이다.

2. 길은 강을 건너고 사람은 산을 넘는다

한양을 출발하여 과천과 수원을 거친 삼남대로는 진위면 갈곶리 백치(白峙)를 넘어 평택지역으로 들어왔다. 갈곶리는 오산신점과 진위현 봉남리 사이의 직선거리에서 약간 비껴나 있었지만 오산천을 통한 수로교통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방원이라는 역원이 설치되었다. 갈곶리 이방원을 지나면 가곡리 성황고개를 넘어 견산리 산직촌을 거쳤다. 산직촌에는 주막이 있었다. 오산-봉남리 구간은 근대 이후 철도가 놓이고 국도1호선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소외되어 비교적 원형보존이 잘 되었다. 근대교통에서 원형보존이 잘 되었다는 것은 도로 확장작업이 안 되어 매우 불편했다는 의미다. 주민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간신히 우마차가 다녔고 송탄에서 택시를 타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서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삼남대로는 진위면 봉남리에서 진위천을 건넜다. 진위천은 조선시대에 장호천 또는 구천(龜川)이라고 불렀는데 봉남리 앞에는 목교(木橋)가 있었다. 근대이후 철교(鐵橋)나 콘크리트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만 해도 육로교통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천이었다. 그러다보니 나무다리가 되었던 징검다리가 되었던 다리 주변에는 인마(人馬)와 물자가 몰리기 마련이었다. 봉남리 관문 앞의 읍내주막과 읍내장은 지나가는 여행자의 쉼터이면서 백성들의 만남

과 상업적 거래공간이었다.

봉납교를 건너면 진위면 마산리 셋둑거리와 마산2리 숲안말을 지났다. 셋둑거리는 조선전기 간척을 하면서 뚝을 쌓아 유래된 지명이다. 조선후기에는 이곳에 주막이 생겼다. 고지도에 신재점이라고 표시된 주막이 그것이다. 주막은 지금까지도 명맥이 유지되어서 두부김치에 통막걸리도 팔고 간단한 간식도 제공한다. 숲안말과 송북동 동막마을 사이 태봉산을 넘어가는 고개는 고지도에는 작은 흰치고개로 표시되었고 주민들은 염봉 또는 장고개라고 불렀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염봉은 근대 이전 만해도 소금의 유통로였고 정부선 서정역 주변에 서정장이 발달하면서는 장을 보러 넘나들던 고개였다. 염봉 남쪽에는 백현원이 있었다. 백현원은 존재 시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몽고침입 때 처인성 전투를 이끌었던 김윤후가 백현원의 승려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고려후기부터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삼남대로의 우회로였던 오리골-장호원길이 갈라지는 지점이면서 삼남대로의 험로 큰흰치고개를 넘기 전에 쉴 수 있는 마지막 역원이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행위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여행자들은 흰치고개를 앞에 둔 탓인지 반드시 백현원에서 머물다 갔다.

3. 백현원에는 맹사성의 '공당문답' 이야기가 전하고

많은 사람이 머물다 가는 역원에 사연이 남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세종 때 황희정승과 함께 명제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고불 맹사성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잠시 이야기한 토막을 상기해 보자.

맹사성의 고향은 아산시 배방면 '맹씨행단'이다. 조선시대 아산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충청대로를 따라 건너가 평택지역에서 삼남대로로 갈아타야 했다. 어느 날 고향에 갔다가 한양으로 올라가던 맹사성은 갑자기 비를 만나 백현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최영장군의 손자사위로 검소함이 몸에 배었 던지라 초라한 행색의 그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맹사성이 백현원에 들어갔더니 하인 여럿을 거느린 젊은이 한 명이 먼저 아랫목을 차지하고는 자리를 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패סים은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뒷목에 엉덩이를 붙였는데, 행색을 훑어보던 젊은이가 반말로 '공당문답'을 하자며 수작을 걸었다. 좀 더 두고 보자는 생각에 '한양에 무슨 일로 가는 공'하고 물었더니, '벼슬하러 간당'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비가 그치자 맹사성은 젊은이와 헤어져 한양으로 올라갔다. 며칠이 지나 의정부의 녹사벼슬에 합격한 젊은이들이 삼정승께 인사하러 들어왔다. 맹사성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데 그들 중에는 백현원에서 공당문답을 나눴던 젊은이가 끼어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침 잘 되었다 생각한 맹사성은 젊은이가 자신의 앞에 오자 부채로 입을 가리고는 '그래, 과사(과거시험)는 잘 봤는공'하고 물었다. 깜짝 놀란 젊은이는 고개를 들어 죄의정 자리에 앉은 사람이 맹사성인 것을 알아보고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죽을 죄를 지었당'하고 대답하였다. 젊은이의 교만함은 미웠지만 심성까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맹사성은 죄를 용서하고는 크게 중용하였다고 한다.

백현원에는 '공당문답' 외에도 '오리골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전하고, 진위면 신리 장호원에는 '인침담 전설'도 전한다.

백현원을 지나면 큰흰치고개를 넘었다. 큰흰치고개는 한자로 대백치(大白峙) 또는 백현(白峴)이라고 하였다. 흰치고개는 삼남대로 평택구간에서 가장 험로였다. 험로를 넘어 한참을 걸어 내려가다가 첫 번째 만나는 주막이 도일동과 장안동의 경계에 있었던 감주거리 주막이었다. 기진맥진하여 다리가 풀린 여행자에게는 감주거리 주막에서 마시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보다 보약은 없었을 것이다. '감주거리' 다시 말해서 '감주처럼 달고 맛있는 술'이 있는 거리라는 지명은 그래서 유래되었다.

4. 삼남대로 평택구간의 중심 갈원(葛院)

지금은 칠원으로 지명이 바뀐 갈원은 삼남대로와 충청로가 갈라지는 분기점이며 평택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역원(驛院)이다. 그래서인지 갈원에는 남겨진 이야기도 많고 역사의 흔적도 다양하다. 가장 큰 사건으로는 종종 때 김안로가 세도를 부리자 갈원의 벽에 이를 비방하는 벽서가 붙은 일이다. 갈원벽서사건이라고 명명된 이 사건으로 갈원 백성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왕이 온양행궁으로 남행할 때 조광조와 오달제의 유허비를 세우도록 명령했다는 이야기라든가, 남행을 하던 중 목이 말랐던 왕이 옥수정의 물을 마시고 감탄하여 옥관자를 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송탄동 출신의 대표적인 사회주의자 김현욱이 가재리농민폭동을 일으켜 갈원(칠원) 일대를 장악했다는 이야기, 갈원주막에서 노름에 빠진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아 노름빚을 청산했다는 이야기는 역원촌락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수한 사연이다.

삼남대로는 갈원을 지나면 도로에서 벗어나 자동차 한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든다. 이 구간은 평택지역의 옛길이 택지개발 등으로 대부분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옛길의 원형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길은 여기에서 충청로와 갈라져 칠원동 쇠물뿌리 마을과 물방아저리 마을 사이의 들판을 지나 통복천을 건넌다. 통복천을 건너면 가내주막이다. 가내주막을 지나면 국도 45호선을 가로질러 죽백동 재빠기 마을의 긴 능선을 지난다. 재빠기 긴 능선은 일제강점기 대구모로 배를 재배하였던 곳이다. 그래서 유래된 지명이 '배나무골' 또는 '이곡'이다.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아름다운 저수지를 만난다. '배다리' 저수지다. 이곳은 '배다리'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이전 만해도 배로 건너다녔던 곳이다. 배다리를 건너 굿모닝병원 방향으로 직진해서 작은 구릉을 넘어서면 소사동이다.

소사동은 조선시대만 해도 양성현 영통면에 속했고 그 뒤로는 안성시였다가 1983년에서

야 평택시에 편입된 지역이다. 도(道)의 경계를 이루는 관문은 교통과 국방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곳에는 소사원이 설치되었고 조선 말기에는 장시도 발달하였으며, 임진왜란과 청일전쟁의 격전지이기도 했다. 1651년(효종 2) 호서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한 잠곡 김육을 기려 충청도 백성들이 세운 불망비(不忘碑)가 이곳에 있게 된 것도 충청도와 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5. 도로와 구별되었던 역로(驛路)

역로(驛路)는 평택구간에서 도로와 구별되었다. 본래 짚어 다니는 길과 말이 달리는 길이 엄격하게 구분되기는 쉽지 않지만 평택지역의 경우 도로가 최단거리를 감안하여 흰치고개와 염봉, 백치(白峙)와 같은 구릉을 넘도록 하였기 때문에 역로(驛路)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평택구간의 역로(驛路)는 성환도라고 해서 성환 찰방이 관할하였다. 성환 찰방의 관할 하에 있던 역(驛)으로는 청호역과 화천역이 있었다.

청호역은 조선시대에 진위현 청호리였다가 일부지역이 오산시로 편입되었다. 이곳에서 출발한 역로(驛路)는 현재의 387번 지방도를 따라 달리다가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에서 우회 전하여 지문리를 거쳐 가천역에 당도했다. 가천역은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원곡면 내가천리 역말이다. 가천역을 지나면 소사교와 천안시 성환읍 가룡리 야교를 넘어 성환역에 당도했다. 역로(驛路)는 상환에서 충청대로와 갈라졌다. 화천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팽성읍 추팔리 역말인데 충청대로의 첫 번째 역(驛)이었다.

조선시대의 도로교통은 일제강점기 근대교통이 발달하면서 크게 바뀌었다. 더구나 평택지역의 철도와 신작로는 과거 삼남대로나 충청대로와 관련 없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통의 도로망과 역원들은 쓸모없게 되었다. 그래도 갈원이나 소사장처럼 일정기간 명맥을 유지하기도 하였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소멸되었다.(2006)

이몽룡 삼남대로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1. 길은 소통(疏通)을 위해 존재한다

길은 국토의 동맥, 정맥이다. 국토는 길이 소통해주는 사람과 물자로 숨을 쉬고 영양을 공급받는다. 근대 이전에는 육로(陸路)와 수로(水路)밖에 없었던 길은 근대 이후 하늘길과 우주길이 열리면서 매우 다양해졌다. 비록 실패하였지만 최근 나로호의 발사는 우주길 개척의 신기원이었다. 성공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낼 일이었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는 열릴 우주길을 기대하며 평택의 옛길을 찾아가 보자.

삼남대로는 한반도의 대동맥이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양에서 삼남지방인 충청, 전라, 경상도로 내려가는 큰길이었다. 삼남대로가 개통된 것은 대략 고려시대부터다. 1021년에 건립된 봉선홍경사비갈(국보 제7호, 1021년)은 삼남대로의 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고려 명종7년(1176년)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도 삼남대로의 역사를 말해주는 사례다. 최씨무신정권의 처사에 반발하여 공주 명학소(대전시 유성구)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가 홍경사까지 올라와 중앙정부에 항의하였다는 기록은 삼남대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길이 열리면서 다양한 물산과 사람이 오갔다. 국가의 명령을 받고 지방을 여행하는 사신들로부터 삼남을 오르내리며 상품을 유통하는 장사꾼들까지 종류도 다양하였다. 길가에는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宿食)시설이 설치되었다. 말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쉬어 갔던 곳은 역(驛), 보행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던 곳은 원(院)이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역원은 사찰에 부속되었다. 소사벌에 있었던 홍경사에 광통원이 설치된 것이라든지, 송북동 동막에 있었던 백현원에 승려 김윤후가 주재하였던 사례는 이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평화로운 시기에 사람과 물자만 오갔던 길은 전쟁이 발생하면 아수라장이 되었다. 빠른 이동을 필요로 했던 전투부대는 큰길을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였다. 때론 이동 중에 적군을 만나기라도 하면 전투가 벌어졌다. 고려 후기 몽고군이 진위현을 지나 평택현에 주둔하며 분탕질을 했던 것이라든가, 임진왜란 때 소사동 앞에서 소사벌대첩이 전개되었던 것도 길이 가져온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려 말 왜구는 아산만과 안성천, 진위천의 수로(水

路)를 따라 들어와 평성읍 노양리의 하양창과 안중읍 용성리의 설창, 고덕면의 종덕창을 공격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 때에는 삼남대로와 안성천, 소사별 일대가 또 다시 전화(戰禍)에 휩싸였다.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평택역 일대를 폭격하였던 것도 교통로를 차단하여 인민군의 빠른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근대 이후 가설된 철도는 수 백 년 동안의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제 옛날의 보행길은 변화된 시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 신작로는 각 지역에 흩어진 상품을 철도역 주변으로 모았고, 철도는 상품과 사람을 대량으로 운송하였다. 이제 삼남대로가 아니라 평택역 앞에 평택평야의 쌀과 아산만의 소금과 해산물이 산더미같이 쌓였으며, 곡물이 반출된 자리에는 기차에 실려 외지에서 들어온 공산품이 자리를 차지하였다.

2. 다산(茶山) 정약용도 평택(平澤)을 지나가

길은 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문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옛 선비들은 산천을 유람하며, 때론 공무로 지방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글과 시로 남겼다. 때론 모함을 받아 떠나는 험난한 유배길에서도 결코 붓을 놓지 않았다. 아직 더위가 남아 있던 어느 초가를 평택지역을 지나갔던 다산 정약용은 다음과 같은 시(詩)를 남겼다.

금년에는 연해지방 비가 아니 내려서	(今年海壩慳雨澤)
논마다 메밀꽃이 하얗게 피었는데	(水田處處蕎花白)
먹는 곡식 같지 않고 들풀과 흡사하여	(不似嘉穀似野草)
메밀대 붉은 다리 석양에 처량하네	(淒涼落日群腓赤)

_정약용, '평택에 당도하여[次平澤縣] 中에서

지금부터 2백 년 전 가뭄에 절어 모내기철을 넘긴 농민들은 빈 들판을 묵히기 아까워 메일을 심었던가 보다. 초가를 평택들판을 지나던 다산의 눈에 하얗게 핀 메밀꽃이 들어왔다. 가을이면 가난한 농민들은 메밀을 추수하여 죽을 쑤어 먹을 것이고, 시장에 내다 팔면 몇 년째 묵힌 환곡(還穀)도 절반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시(詩) 한 수에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걱정하는 다산의 따뜻한 마음과 2백 년 전 평택평야의 풍경이 눈에 임한다. 다산과 같은 마음은 독재정권 시절 문학을 무기로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야기 시(詩)'라는 독특한 장르로 시대의 가슴을 울렸던 시인 이시영에게서도 느낄 수 있다.

병점 지나 서정리 지나 평택 들판에
우뚝 솟은 느티나무 한 그루
그 아래 방금 보습 대어 갈아붙인
찰흙 위로 쏘살같이 내리꽂히는
제비새끼들의 강철 입이어!

_이시영, '평택을 지나며' 전문

비슷한 풍경이라도 평택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은 느낌이 다를 수 있다. 한광여중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문인협회 평택지부를 이끌고 있는 시인 진춘석은 소사벌지구 택지개발로 사라져가고 있는 삼남대로를 답사한 뒤 다음과 같은 시(詩)를 남겼다.

많은 봄들이 지나는 삼남대로
배다리 방죽 너머 재빠기를 오른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좌절들이
길가 만들레꽃 속으로 노랗게 머물 때면
역사는 선비들 옷섬에서 자라고
패랭이꽃이 패랭이에 없어 피어

보부상(褻負商)의 정강이에도
조선은 회돌이 친다,
칠원 가는 길, 가내 주막엔
저녁노을이 온통 술에 절어 있고
비랑에 청춘을 담아 한양 가는 길
서해바다 소금 석인 뺨안 개흙을 밟으며

하늘하늘 나뭇거리며 지나는 과객이며
진춘석, '삼남대로(2)-칠원가는 길' 중에서

3. 이몽룡도 길을 잃고 헤메겠다

춘향전의 작가는 여행가였거나 지리학자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것처럼 세밀하게 삼남대로의 여정을 그려내지 못했을 것이다. 춘향전에서 평택에 관한 이야기는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춘향을 찾아 남원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나온다. 서울 송례문 밖에서 마패를 받은 이몽룡이 동작나루와 과천을 지나 수원에서 하룻밤을 잔 뒤 애황교, 떡전거리, 진개울, 중미고개를 넘어 진위읍에서 점심을 먹고, 갈원, 소사를 지나 애교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그것이다. 위의 노정(路程)을 현재의 지명대로 그려보면, 오산-갈곶리-견산리 산직촌-봉남리-봉남교-마산리 셋죽거리-작은현치고개(염봉재)-송북동 동막-큰현치고개-재활복지대학 아래(감주거리)-칠원1동(갈원)-청룡동 가내-죽백3동 재빠기-배다리방죽-소사1동-유천1동-안성천 흰다리-성환읍 안궁리 가롱마을이 된다. 조선시대 동네 사랑방의 이야기꾼들은 춘향전에 나오는 이 대목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었다. 그러다보니 삼남대로 평택구간에 춘향이길도 생기고 이몽룡과 춘향이가 데이트하는 장면도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자취와 사연을 간직한 삼남대로는 대부분 훼손되었다. 경제적 논리만 따지면 사람과 물자가 유통되지 않는 옛길쯤이야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고장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더 나아가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콘텐츠까지 고려한다면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 더구나 최근에는 소사벌지구 택지개발로 그나마 남아있던 배다리방죽-가내구간마저 훼손되었고, 옛길의 흔적이 완연하였던 진위면 가곡리-오산 구간도 진위지방산업단지과 택지개발로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더더욱 아쉬운 것은 10여 년 전의 삼남대로 도일동-봉남리 구간의 확포장 공사다. 현대의 편리성만을 고려하여 직선도로 위주로 확포장해버린 삼남대로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길이 되고 말았다. 다시 한 번 춘향이와 이몽룡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풍류를 즐기거나 쉬어갈 곳 하나 없는 무미건조한 길.(2011)

임금도 쉬어갔던 주막거리, 갈원(葛院)

1. 임금도 갈원에서는 쉬어갔다

조선시대 나라에 변고가 생겨 임금이 남행을 하게 되었다. 한양을 함락한 적도(賊徒)들은 임금을 잡으려고 남쪽으로 쳐내려왔다. 적도들은 빠르게 내려오는데 어가(御駕)를 호종하는 대신들의 발걸음은 느리기만 하였다. 허겁지겁 과천과 수원을 거쳐 진위고를 백현원을 지났다. 백현원을 지나면 험하기로 소문난 흰치고개다. 점심도 거른 채 흰치고개를 넘다 보니 어가에 탄 임금이나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들 모두 목이 타들어갔다. 갈원에 당도해서야 어가는 잠시 멈춰 섰다. 목이 마른 임금은 서둘러 물부터 찾았다. '어서 물을 떠오너라.' 임금의 명을 받은 내관은 갈원 옆 우물에서 길어온 물 한 그릇을 내밀었다. 임금은 체면도 잊은 채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켜, 맛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이 있더라. 말이나 물맛에 감탄한 임금은 뭔가 댓가를 지불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우물에 하사한 선물이 옥관자였다. 갈원주막 앞 옥관자정에 전해오는 이야기다.

역원제(驛院制)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역대 왕조들은 중앙집권체제를



[갈원의 식수원이었던 옥관자정(2006)]

갖추면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 통신망을 구축하고 싶었다. 교통, 통신망은 명령 전달, 세곡운송과 함께 유사시에는 군사적으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었다.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역원제(驛院制)는 보다 체계적이 되었다. 그것은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말한다. 고려시대의 원(院)들은 사찰에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가 교통, 통신시설에 설치한 사찰은 왕권강화에도 요긴했을 뿐 아니라, 불교를 통하여 백성들을 통치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사벌 중간쯤에 있는 흥경사 터에 광통원이 설치된 것이라든가, 안성시 죽산면의 태평원 터에 미륵불이 있는 것이 예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된 조선시대에는 더욱 정연한 역원제가 만들어졌다. 원(院)과 원(院) 사이의 거리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16세기 전반 전국의 원은 1,310개였다. 그 가운데 경기도에만 117개, 평택지역에는 6개가 설치되었다.

국가에서는 원(院)의 책임자를 원주(院主)라고 불렀다. 원주는 잡역(雜役)을 면제받았고 국가에서 지급된 원전(院田)을 경작하여 운영경비를 마련하였다. 원에 딸린 백성들은 신분도 낮았지만 하는 일도 매우 고달팠다. 일명 신량역천(身長役賤)이었던 셈이다. 고관들이 지나갈 때에는 접대를 위한 경비는 물론 도로를 정비하거나 청소까지 도맡아야 하였다. 그러다보니 권세가들의 침탈도 심하였다. 정보에 민감하여 역모(逆謀)에 가담하는 일도 잦았고, 걸핏하면 도망가는 일도 많았다.

2. 시골객점 하나 갈림길에 임해 있고

조선시대 칠원 1동 원칠원 마을에는 갈원(葛院)이 설치되었다. 갈원은 삼남대로(三南大路) 진위(振威)구간에서 가장 큰 원(院)이었다. 설치시키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선 초 대로(大路)가 정비되면서 가장 먼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갈원도 처음 설치될 때는 사찰에 딸린 역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칠원1동 옛 도원동 동사무소 뒤에 절터가 있는 것이 근거다. 역원의 모습은 조선후기 일반 주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큰길가에 행랑이 딸린 제법 큰 초가집 한 채와 말이나 나귀가 쉬어가는 마방이 있었을 것이고 건너편에는 수량이 넉넉한 우물이 있었다. 허름한 민가 10여 호가 딸려 있었던 것도 갈원의 풍경이었다. 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조익의 '포저집'에는 갈원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시골 객점 하나가 갈림길에 임해 있고
 집 주위에 푸른 산이 띠처럼 둘러여라
 마을 주변엔 세버들이 휘휘 늘어지고
 언덕 위엔 이름 모를 꽃들이 산뜻해라
 처처에서 타고 가던 말을 좀 쉬게 하며
 집집마다 밥 짓는 저녁연기를 보노매라

(野店臨歧路)
 (青山繞屋連)
 (村邊垂柳細)
 (原上雜花鮮)
 (處處休征馬)
 (家家起夕煙)

이 시(詩)를 현재 시점에서 풀어 쓰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삼남대로와 충청대로가 나뉘지는 갈림길에 객점 하나가 있다. 객점 주위에는 산지붕과 이산매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큰길가에는 버드나무가 긴 가지를 늘어뜨렸다. 원도일로 넘어가는 서낭당 고갯마루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산뜻하고, 납작하게 엎드린 갈원 마을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3. 해방 뒤에는 갈원을 점령하고 농민폭동을 일으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건 사고도 많다. 임금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가던 선비는 갈원에서 사직상소를 올리기도 하였고, 관직에서 놓여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비는 갈원 주막에 앉아 귀거래사를 읊조린다. 17세기 초의 문장가였던 계곡 장유는 '갈원에서의 시에 차운(次韻)하다'라는 시(詩)에서 '멀게만 느껴지는 황산길 터벅터벅, 경사진 언덕에 버려진 역원 터, 얼마나 터 가야 하나 지루한 여행길, 외로운 객점에 잠시 안장을 내려왔네'라고 노래하였다. 조선후기 노론의 거두였던 송시열은 임금이 내린 관직을 갈원주막까지 올라와서 사직하였으며, 그의 스승이었던 김장생도 갈원주막에 앉아 임금이 내린 관직이 분수에 맞지 않다며 정중한 사직상소를 올렸다. 종종 때에는 진위현감 이경(李經)이 토지 4결(結)에서 역부(役夫)를 낸 일로 죄를 입어 파직되었을 때, 갈원백성들이 사신(使臣)의 길을 막고 요역과 진상을 고르게 부과하고 아전의 횡포를 막아 백성들이 편히 살게 하였던 현감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명을 요청하였던 곳도 주막거리 앞이었다.

갈원은 교통의 요지라는 이점 때문에 국가적인 변란이 있을 때에는 반란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이괄의 난 때 갈원 사람들이 호응했음을 짐작케 하는 사례가 있다. 또 이인좌의 난(무신 난, 1728년) 때에는 갈원의 양반 김정현과 그의 매부 박영동이 이인좌에게 합류하기 위해 1백 여 명의 군사들을 모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들에게 입힐 옷을 집안의 노복들인 갈원주막 사람들에게 만들도록 하자 모두 도망쳐버렸다는 내용도 있다.

갈원은 갑오개혁으로 역원의 기능을 마쳤다.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는 철도와 신작로가 가설되면서 쓸모마저 줄었다. 하지만 해방 후까지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갈원이 교통과 정보교류의 중심지였다. 1946년 9월 송탄동 가재리에 살았던 사회주의자 김현욱이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 총파업 지시에 따라 가재리 농민폭동을 일으킨 뒤 갈원주막을 점령했던 사실은 갈원의 역할이 아직도 건재했음을 말해준다.

4. 새마을운동은 희망의 불씨였다

갈원은 근대전후 칠원리로 개편되었다. 지명이 바뀐 것은 어느 해 임금이 남행을 하다가 갈원에서 병을 얻자 마을의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원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많은 사람이 오갔던 거리는 평범한 주막거리가 되었다. 겨울이면 술과 노름을 일삼는 근처 농민들의 아지트로 변한 것도 이즈음이다. 마을의 위상도 매우 낮았다. 근동에서 행세케나 하는 마을 주민들은 공공연하게 '칠원 천것들'이라고 비하하였다. 전통적으로 주막에 기대어 살다보니 생산수단도 갖추지 못했다. 주요 산업이라야 1960년대까지만 해도 채소 농사뿐이었고, 겨울에는 산지붕과 건너편 덕암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았다. 거둬되는 심한 가뭄, 농업용수 부족에다 전기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가난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았다.

1970년대 초에 고 김기호, 이충용씨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것은 이 같은 포한이 작용하였다. 동광아파트가 입주한 것도 40여 년 전부터의 프로젝트라고 한다. 새마을운동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척박한데다 농지마저 부족한 마을에서 축산업과 이태리포플러 묘목사업, 약초재배 사업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0년대 말 쌍용자동차공장 유치와 동광아파트 건립도 인구증가와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자들의 노력이었다.(2009)



[칠원1동 갈원마을(2009)]

화천역-역말놈들, 역말 것들



[화천역 터로 추정되는 추팔리 당재너머(2009)]

1. 대장금도 화천역을 지났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대장금에는 임금이 온양행궁에 행차하는 대목이 나온다. 조선시대 나라님의 행차는 간단치가 않았다. 어가(御駕)를 메고 강과 하천을 넘어야 했고, 대신들과 상궁들을 비롯하여 수행인원만도 많게는 2천명 직계는 500명이나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38척의 큰 배를 이용하여 한강에 주교(舟橋)를 가설한 것도 정조의 수원능행을 위해서였다. 한양에서 온양 행궁까지 가려면 동작진을 건너 남태령을 넘었다. 남태령 너머는 과천이었고, 조금 더 내려오면 수원이었다. 수원을 지나면 지금은 오산시에 편입된 청호역이었으며, 진위를 거쳐 갈원을 지나면 소사원이었다. 소사원은 충청도 직산현에서 경기도 양성현으로 넘어 오는 관문이었다. 이곳에서 소사교(소사다리)를 건너 뒤 아교(애구다리)로 안성천을 건너면 성환찰방이었다. 온양행궁으로 가는 길은 성환역에서 방향이 갈렸다. 어가(御駕)는 신가리와 와룡리를 지나 평택현 동면 노와리로 들어섰다. 노와리를 지나면 팽성읍 추팔리, 조선시대 충청대로의 관문(關門) 화천역이었다.

화천역은 충청대로 첫 번째 역원이었다. 역(驛)에는 마장(馬場)과 마방(馬房)을 갖추고 숙식과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었다. 마방에는 대체로 10여 필 내외의 말을 두었지만, 말 가운데도 질말이, 허등마, 중등마, 상등마의 구분이 있었다. 역에서 말을 제공 받으려면 상서원에서 발행한 마패(馬牌)가 있어야 하였다. 마패는 10센티 정도의 둥근 구리쇠로 말 1마리부터 10마리까지 새겨져 있었다.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암행어사도 마패를 지녔다. 암행어사의 마패는 일반인의 것과 마찬가지로 어사가 인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출두를 할 때에는 역졸이 손에 들고 '어사출두'를 외치는 징표가 되기도 하였다. 화천역은 추팔리 역말에 있었다. 이웃한 노와리 주민들은 추팔리 당산(堂山)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지형구조상 분지와 초지가 잘 형성된 당산너머에 있었을 것이다. 당산너머는 노와리와 추팔리 사이에 있으며 역로(驛路)가 지나는 길목이어서 역(驛)과 마장(馬場)을 두기에 적절한 위치였다.

2. 고역(苦役)으로 도망친 사람도 많아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23개 찰방(察訪), 18개 역로(驛路), 543개 역(驛)이 있었다. 역(驛)은 보통 30리마다 두었고, 구간마다 찰방(察訪)이라는 관리가 파견되었다. 평택현에서 공주부까지 구간은 '성환도'로 화천역은 성환찰방에 소속된 역(驛)이었다. 역(驛)에는 '역말(촌)'이라는 특수촌락이 형성되었다. 역말에는 찰방 아래 지위인 역장(驛長) 또는 역승, 아전 격인 역리(驛吏), 역을 지키는 역졸(驛卒), 역전(驛田)을 경작하였던 역정(驛丁), 역에 딸린 역노(驛奴)들이 거주하였다. 고려사에는 역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진, 역,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과 혼인하여 낳은 자식은 신분을 세습한다고 기록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신분의 세습은 여전하였고, 반역자의 자손이나 범법자들을 역호(驛戶)에 편입시키는 정책까지 시행하였다.

역말 사람들은 마장(馬場)의 관리 뿐 아니라 역에 들러 쉬어가는 관리들을 접대하고 역둔토를 경작하는 일을 하였다. 때론 역리 가운데 약간의 학식을 갖추고 덕망이 있으면 역장이나 역승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임의로 마을을 떠날 수는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밀문서를 전달하는 일도 하였다. 기밀문서의 전달은 중요도에 따라 겨울에는 하루에 90리, 여름에는 150리에서 180리를 걷거나 뛰어야 하는 고된 노역이었다. 그밖에도 역의 운영을 위해 역둔토를 경작하였다. 이 같은 고역(苦役)에서 벗어나려면 공(功)을 세워 벼슬을 얻거나 효열정려를 받아 신분이 상승하는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전라도에 살았던 신철이라는 인물은 역리(驛吏)신분으로 공(功)을 세워 관직을 받아서 부러움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



[화천역의 식수원이었던 추팔리 아래우물(2009)]

이 같은 고된 노역과 차별 때문에 역말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기 일쑤였다. 실록에도 도망과 기근으로 역호(驛戶)가 줄어들어 교통통신의 운영이 어려워졌음을 토로하는 기록이 곳곳에 나와 있다.

역말 사람들의 노역이 중단된 것은 근대 이후 역원제가 해체되면서였다. 고역이 중단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되자 마을을 떠난 사람도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추팔리 화천역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추팔리 역말 주민들 가운데 누대에 걸쳐 거주한 사람이 적은 것은 그런 이유다.

3. 역말놈들 하고는 혼인도 하지 마라!

근대이후 역원제가 해체되면서 역둔토는 조선총독부를 거쳐 동양척식(주)나 일본인, 친일파의 손으로 넘어갔다. 조선 후기 화천역에도 역토가 있었다. 역토는 갑오개혁으로 역원제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에게 불하되기도 하였지만 상당량은 국공유지로 편입되었다. 일제강점기 국공유지들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거쳐 총독부에 귀속되었다. 귀속된 토지는 다시 동양척식(주)나 일본인 농업이민자들, 친일지주들에게 불하되었다. 추팔리 앞 통한들은 조선 후기 명례군이나 순화군의 소유거나 역둔토였다. 이들 토지는 일제강점 뒤 대부분 동척농장이나 일본인 지주, 임종상, 윤보선 집안(아산의 해평 윤씨), 최인석 등 조선인 친일지주의 소유로 바뀌었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는 폐지되었고 근대가 시작되었지만 추팔리 역말 주민들의 처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화천역에 매여 노예처럼 살았다면, 일제강점기에는 새로

바뀐 지주 밑에서 가난한 소작농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또 하루에 백리, 이 백리씩 보밭(步撥)을 뛰어야 하는 고역은 사라졌지만, 소작권을 잃지 않으려고 지주나 마름에게 굽실 거러야 하는 상황은 그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일제 말에는 비싼 소작료에 공출미까지 빼앗 기면서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였다. 쌀 한 톨이라도 더 얻으려고 타작감독관에 고기와 술을 먹여 골아 떨어지게 한 뒤에 곡식을 숨기는 짓도 조선시대의 삶에 견주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주민들은 소작을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어서 틈만 나면 낱뽕팔이를 해서 먹고 살았다. 때로는 보리쌀 한 말을 얻으려고 피약벌에서 열흘씩 일해 주는 일도 많았다. 천역(賤役)에서는 놓여났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예측된 존재로 해방을 맞았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사회적 차별도 여전하였다. '역말놈들'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화천역 주민들을 멸시하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반촌(班村)이나 양인촌락에서는 천한 동네라며 혼인을 꺼렸으며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다. 주민 김기현(2003년, 77세)씨에 따르면 일제말까지만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역말놈들'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다. 박기준(2003년, 68세)씨는 '역말 것들에게는 말을 줄 수 없다'는 말에 격분하여 먹살 잡고 싸운 적도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지금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집안은 역리를 했고, 누구는 역정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듯하지만 차별이 두려워 내놓고 밝히지 못하는 것 같았다.

4. 차별의 시대를 넘어

근현대사에서 사회적, 신분적 차별이 사라진 것은 한국전쟁 이후다. 전쟁은 인간성만 말살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내재된 인습까지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농촌사회의 해체와 핵가족화, 근대교육 등도 신분적, 사회적 차별을 해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의무교육제도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해방 이후 세대들은 신분이나 출신마을보다 선후배관계를 먼저 따졌다. 나중에는 학력과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우선시되었다. 해방 후 농지개혁으로 지주의 예측에서 벗어나 자영농을 하게 된 것도 사회적으로 꺾박받던 역말 사람들에게는 좋은 탈출구가 되었다. 자녀들 가운데 도회지로 나가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면 과거의 신분애 구애받지 않고도 사회적 지위를 올릴 수도 있었다. 새마을운동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한 것도 분위가 쇠신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큰 두레패를 조직하여 이웃마을과 어우러진 것도, 이장을 중심으로 중단되었던 산신제와 우물고사를 다시 재현하여 마을공동체 신앙을 살려낸 것도 되살아난 자긍심의 발로였다.(2010)

평택지역의 나루와 포구

1. 평택은 물의 고장이다

평택지역은 지형적으로 지대가 낮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 일찍부터 수운(水運)과 해운(海運)이 발달하였다. 서쪽에는 아산만과 남양만이 있다.

아산만은 충청남도 당진군과 아산시, 평택시 사이에 발달한 만(灣)이다. 아산만 물굽이의 폭은 약 2.2km이며, 상하 길이는 40km이다.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물의 흐름이 빠르고 침식작용이 심하였다. 방조제가 준공되기 전에는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밀려들어가서 염해(鹽害)를 끼쳤다. 1974년에는 아산만 방조제가 준공되었고, 방조제의 준공으로 평택호가 형성되었다.

하천은 안성천과 진위천을 중심으로 30여 개가 발달하였다. 안성천은 구간에 따라 홍경천, 한천, 남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또 진위천은 여러 읍지, 지리지에 장호천 또는 구천(龜川)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근대이전에는 아산만과 안성천, 진위천과 연결된 수로에는 나루와 포구가 발달하였다. 나루는 부족국가시기에 강가에 위치한 국가가 인근 부족의 교역을 증개하고 무력으로 상업적 질서를 유지하려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졌다. 한자로는 대규모의 나루를 항(港)이라고 하고, 조금 큰 것은 포(浦), 하천 변의 나루는 진(津)이나 도(渡)라고 한다. 특수하게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강가나 바닷목에 군대가 주둔한 것을 나타내는 진(鎭)도 있었다.

나루는 해로나 수로를 이용한 교통시설이었으므로 교통수단의 변화나 육로교통의 변화, 다리건설 등의 요인에 의해 변화하였다. 이 밖에도 간척사업이나 하천에 쌓이는 토사도 나루나 포구가 사라지는 원인이었다. 근대이전의 국가에서는 교통망의 안정적 확보와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육로에는 역원제(驛院制)가, 수로(水路)와 해로(借老)에는 조운제(漕運制)를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나루나 포구, 조운제도가 정비된 것은 고려 성종 때이다. 경국대전도 나루와 포구에 관하여 일정하게 규정하였다. 예컨대 경국대전의 규정을 보면, 나룻배의 사용 연한, 크기, 관선 수, 나루와 선박의 관리 담당, 사고 발생 시 구출문제, 사선(私船)의 수와 선세징수문제, 나루터의 크기에 따른 인원배치 규모 등을 기록하고 있다.

2. 나루와 포구의 기능과 역할

나루와 포구는 육로교통과 연결되어 발달하였다. 육로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가장 일반적인 교통제도에 속했다. 육로교통에 가장 큰 장애는 하천이나 바다였다. 특히 토목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안전한 교량건설이 힘들었던 전근대시기에 나루와 포구는 육로교통을 이어주고 교통로를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와 함께 나루와 포구는 인마(人馬)와 물자, 세곡과 공납을 운송하는 수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과 선착장, 사공이 있어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강이나 하천을 건너는 나루를 도선장(渡船場)이라고 하였고, 건너주는 배를 도선(渡船) 또는 도하선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큰 강이나 바다를 통하여 세곡과 물자를 운반하는 배는 조운선(漕運船)이라고 하였다. 나루터에는 도진(渡津) 취락이라는 특수촌락이 발달하였다. 이곳에 거주하는 사림들은 나루터의 관리와 배의 운영에 투입되었다. 근대이전의 나루는 여객과 화물이 집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교역의 장소가 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경강상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강변이나 바다와 인접한 나루와 포구 가운데는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천의 폭이 좁고 여울과 암초가 많은 곳의 나루나 포구는 군사적 방어기능을 수행하였다. 임진왜란의 전승지로 유명한 노량이나 울돌목, 마량, 견내량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공문서의 전달과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리의 통행을 돕는 것도 나루의 주요한 기능이었다. 중앙집권국가에 있어 명령을 전달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루와 포구는 물의 흐름이 느리고 계절의 변화를 받지 않는 곳에 설치되었다. 바다나 큰 강의 경우에도 작은 하천과 갈라지는 지점의 안쪽이나 만(灣)이 형성된 곳에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한강유역인 송파나루나 노량진, 동작나루에서도 볼 수 있으며 평택지역의 여러 나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대이전의 교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나루와 포구는 근대 이후 철도와 자동차도로(신차로),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등장으로 점차 기능을 상실해갔다. 이것은 내륙수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나루, 포구 취락의 역할도 상실케 하여 수로교통의 쇠락을 재촉하였다.

3. 조선시대 지리지에 나타난 나루와 포구

아산만 수로는 고대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후자는 고조선이 멸망한 후 준왕이 무리를 이끌고 아산만으로 남하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마한을 영도하였던 목지국이

직산에 있었던 것도 아산만 유역의 수로교통과 관련 있다고 말한다. 신라에 의해 삼국이 통일된 뒤에는 대당교역의 중심지 화성시 서신면의 당항성과 함께 남양만유역권에 포함되어, 경주와 당항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뿐 아니라 대당교역로로 각광을 받았다. 아산만 일대가 대당교역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포승읍 원정리 수도사가 원효의 견성오도(見性悟道)의 성지(聖地)로 알려진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으며, 1872년 간행된 조선방역지도의 기록도 근거가 된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평택지역 수로와 해로의 역할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것은 당나라 말기 혼란기에 해상교역로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되면서 해상무역이 크게 쇠퇴하였던 것과, 고려 건국 후 예성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해상교역로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할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럼에도 경기남부와 충청도 내포지역의 조운(漕運) 및 교통로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면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어떠한 나루와 포구가 소개되고 있을까?

먼저 16세기 중엽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부 편에 보면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에 대하여 '부(府) 남쪽 67리 되는 곳에 있다. 진위현(振威縣) 장호천(長好川)의 물이 여기에서 합류하여, 또 남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라는 기록이 있다. 다라고비진은 고덕면 궁1리 진위천과 서정천이 갈라지는 지점에 있었던 나루다. 이 기록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당시만 해도 안성천과 진위천의 합류지점이 다라고비진이었음을 알게 한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위현편에는 나루와 포구가 나와 있지 않다. 그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진위현에는 마땅한 포구가 없었음을 알게 한다. 반면 충청도에 속했던 평택현에는 오을미곶포(吾乙未串浦), 시포(市浦), 신태포(新德浦), 군물진(軍勿津) 등 네 개의 포구가



[고덕면 동청리 동연교와 동청포 태(2007)]

있었음을 알 게 한다. 여기서 오을미곶포(吾乙未申浦)는 오성면 창내리 부근의 포구였지만 수로의 변화로 사라졌으며, 시포는 아산시 둔포면 시포리, 신덕포(新德浦)는 통북동 신덕포마을, 군물포는 군문동을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직산현편에는 경양포(慶陽浦)가 있다. '경양포(慶陽浦)는 경양현(慶陽縣)에 있는데, 해포(海浦)이다.'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경양현은 팽성읍의 서부지역인 본정리, 노양리, 신대리 일대의 마을(계양지역)로, 이곳에는 고려시대 경기남부의 세곡을 모았던 하양창이 설치되었다. 하양창은 조선 초 경양현이 폐현되면서 폐지되었고, 대신 직산현과 평택현의 세곡만 모으는 경양창이 설치되었다. 양성현의 영역에는 용포(瓮浦)가 있었다. 용포는 청북면 삼계리의 용포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양성현의 해창이었다.

조선후기에는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나무와 포구의 수가 늘어났다. 특히 삼남(三南)의 미곡과 소금, 해산물 등의 운송과 판매를 중심으로 포구상업을 주도했던 경강상인들은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평저선(平底船)을 이용하여 내륙수로까지 접근하였기 때문에 내륙 깊숙한 곳까지 나무와 포구가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안성천과 진위천변의 나무와 포구는 지리지와 읍지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1843년에 편찬된 진위현 읍지(邑誌)에는 통북포(通北浦) 하나만이 수록되었다. 한술더 떠서 1891년에는 진위현 지역에 단 한 개의 나무와 포구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 사실여부가 의심된다. 그것은 8년 후의 기록인 1899년 진위현 읍지에 군문포, 황구포, 고잔포(신대동), 해창포(고덕면 해창리)가 버젓이 나와 있는데다, 18, 19세기의 고지도에도 다라고비진, 동청포(고덕면 동청리), 항곶포(서탄면 황구지리)와 같은 나무 포구가 기록되어 객관성에 의문을 달 수 밖에 없다.

1770년경 신치가 편찬한 사찬(私撰) '팽성지'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료들이 수록되었다. 팽성지에는 곤지나루(옛 대추리), 신덕포(통북동), 삼교포(신대동), 통북개, 시포(둔포면) 등 모두 5개의 나무와 포구가 기록되었다. 또 1808년(순조8)에 편찬된 만기요람에는 만호리의 대진(大津)을 소개하고 있다. 대진은 옛 기록에도 슬개바위나루 또는 한진으로도 불렸던 나루다.

4. 안성천 유역의 나무와 포구

근대 전후의 지리지와 지도에는 다양한 나무와 포구가 소개되고 있다. 또 안성천과 진위천변의 마을조사결과 기록된 나루 외에도 어항과 교통의 목적으로 여러 개의 나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안성천변에는 어떠한 나무와 포구가 있었을까?

고려시대 이후 안성천의 대표적인 포구는 팽성읍 노양리의 경양포다. 경양포는 고려시대

에 편섭포라고도 불렀으며 하양창(河陽倉)이 설치되었고, 조선시대로 들어와 경양포라고 하였다. 조창이 설치된 것은 10세기 초 12조창(나중에 13조창으로 확대됨)이 설치되면서다. 고려사를 보면 하양창에는 한척에 1000섬을 실을 수 있는 초마선 6척이 있었다고 쓰여 있다. 하양창은 주로 경기남부와 충청서북부 일부지역의 세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세곡을 관리하고 운송하기 위해 외관록 20석을 받는 판관(判官)을 배속하였고, 향리(鄕吏)와 조창 인근의 주민들로 뱃사공, 소공, 수수와 같은 조군(漕軍)을 삼아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조선시대 하양창이 폐지된 뒤에는 조선 태조 5년 직산현으로 이속되었다.

군문포(軍門浦)는 평택시 군문동에 있었다. 이 포구는 조선전기부터 군물포라고 불렀다. 군물포는 조선시대 전국 10대로 가운데 하나인 충청수영로가 지나는 길목이었으며, 경기도 진위현에서 충청도 평택현으로 넘어가는 교통의 요지였다. 1905년 1월 경부선 평택역이 군문포와 인접한 통북리(동)에 세워진 것도 군문포를 통하여 서해의 물산과 평택평야의 곡물이 유입되기에 편리했기 때문이다. 군문포는 본래 군물포였는데 청일전쟁(1894)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주둔하면서 지명이 변하였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19세기에 편찬된 읍지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군문포가 나무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근대 이후 다리가 놓이면서다. 다리는 평택역이 설치되고 국도 45호선이 가설되면서 건설되었지만 이 시기의 다리는 목교(나무다리)였다. 그러다가 1930년 11월 콘크리트 다리가 준공되었고, 1922년에는 38번 국도의 길목인 신대동 새터 마을 앞에 신대교가 가설되었으며, 1930년 3월에는 진위천을 건너는 공안교가 수리(修理)되어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안성천과 진위천변의 나무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

신흥포(新興浦)는 조선시대 수원부 광덕면에 있었다.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현덕면 신왕리 신왕나루다. 기록에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부 편에 당포진으로 나와 있으며, 대동지지 수원부 편에는 없고 읍지(邑誌)에만 있다. 신왕리 일대는 고려시대 광덕현의 영역이었다. 신흥포는 수원에서 광덕현을 거쳐 충청도 평택현이나 아산현으로 건너가는 대외창구였으며, 봄이 되면 서해안 여러 지역 어선들의 어항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조세(租稅) 기록인 수원부선세혁파성책에 보면 '청어 1동마다 5전, 조기 1동마다 5전, 미역 1동마다 2냥, 조 1섬마다 1전, 쌀 1섬마다 2전, 대맥 1섬마다 1전, 돈 백냥을 1년 포세로서 주인이 거뒀다. 또 청어 1동마다 3냥, 조기 1동마다 2냥, 미역 1동마다 3전, 대맥 1섬마다 2전, 염 1섬마다 2전, 목화 1척마다 3냥, 창호지 1동마다 15냥, 우피 1장마다 1냥, 담배 1척마다 1냥 5전, 돈 100냥을 포세로서 주인이 거뒀는데 고종 23년(1886)부터 순화궁에서 거뒀다'고 기록하였다. 위의 품목을 보면 조선말기의 신흥포는 단순히 어항이나 나무의

구실 뿐 아니라 각종 어물과 함께 곡식과 소금, 목화, 종이, 우피, 담배 등이 거래될 만큼 선상(船商)들에 의한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던 포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안성천에는 고덕면 동고리의 이포진과 신환포, 통북포, 신태포, 신대동의 삽교포, 옛 대추리 마을의 곤지진(昆池津), 석봉리의 원봉나루, 팽성읍 노양리의 노산포, 신성포, 아산의 둔포, 그리고 안성천 하류의 계두진이 있었다.

5. 진위천과 그 밖의 나루와 포구

진위천은 조선시대에 장호천으로 불렸다. 진위천은 한 때 진위면 은산리까지 바닷물이 역류하였고 나중에는 진위면 신리와 서탄면 회화리까지 올라갔다. 진위천 주변의 나루와 포구로는 고덕면 궁리의 다라고비진, 동청리의 동청포, 서탄면 황구지리의 향곶포 등이 있었다.

다라고비진은 고덕면 궁리 궁안교 아래에 있었던 나루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수원부 남쪽 67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또 장호천(진위천), 향곶천(황구지천), 토현천(오산천)이 합류하여 흘러온 물이 이곳에서 홍경천(안성천)과 만나 아산만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윗 소청나루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궁안교가 소청교로 바뀌 불렀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치는 궁리 궁안휴게소 아래 서정천과의 합류지점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193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막사리 때 용진군 덕적도에서 안성천을 거슬러 올라온 조기젓배, 새우젓배, 굴배들이 돛대를 쓰러드리고 황구지까지 올라갔지만 소청다리(궁안교)가 놓이면서 큰 배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되자 이곳에 배를 대었다고 한다.

동청포는 고덕면 동청리와 청북면 어연리, 한산리를 연결하는 나루였다. 본래 이 지역은 조선시대 양성현이었는데 조선 태종 17년에 수원부에 내속시켰고, 18세기에는 진위현 고두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895년 23부제 실시 때 수원부로 다시 돌아갔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진위군(평택시)에 통합된 지역이다. 나루의 위치는 동청2리 동남쪽 '벤틀'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벤틀라는 지명 외에도 '장터'라는 지명도 있어 포구상업이 발달했음을 알게 한다. 수원부선세척과성책에도 백화염 1항아리마다 1냥, 석화염 1항아리마다 1냥 5전을 고종 21년(1884) 해방명에서 거둬갔고, 배 1척마다 2냥을 제세로서 수북면의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거둬갔다는 기록이 있어 이와 같은 사실을 반증한다. 동청포는 일제강점기 간척사업의 영향으로 동연교 아래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동연교가 놓이기 전까지만 해도 다리 아래에 주막과 창고들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전쟁 직후만 해도 배를 건네주고 일 년에 얼마씩 품삯을 받는 사공도 있었다고 한다.

고덕면 해창4리에 있었던 해창포는 조선시대 진위현의 해창(海倉)이 있던 포구다. 조운선은 밀물과 갯벌에 형성된 갯골을 이용하여 포구 안쪽까지 드나들었다. 지금도 조창이 있던

곳에는 '창밭'과 '벧터'라는 지명이 남아 있고, 조운선을 묶었던 팽나무도 있다. 향꽃포는 서탄면 황구지리 진위천변에 있었다. 조선 후기 수원부읍지에는 '서쪽 20리 지점에 있는데 수원 경계로 통한다'라고 하여 19세기 말에 황구포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향꽃포는 화성시 팔탄면과 양감면 사람들이 진위방면으로 건너가는 나루였다. 나루에는 조선 후기에는 돌다리가 놓였으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양감면 용소리 아이들이 서탄면 금각초등학교 다닐 때나 서정리장을 보러 갈 때도 이용하였다. 또 해방 직후까지만 해도 김장철에는 새우젓이나 소금을 실은 작은 배들이 나루터에서 곡식과 물물교환을 하였다. 아산만의 대진(大津)은 포승면 만호리 술개바위나루의 옛 지명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한진(漢津), 만기요람에는 대진포라고 표기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부 편에는 '치소(治所)로부터 남쪽 1백리 지점 포내미에 있다'고 기록하였다. 대진은 포구의 넓이가 10여리나 된다고 하여 만호리에서 권관리까지 아산만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이었음을 알게 한다. 이곳은 바닷가에 인접하여 물의 흐름이 매우 잦다. 조선 초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화성시 화랑포 경기수군절도사영의 하위 조직인 수군첨사와 수군만호가 주둔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대진은 '만조(滿潮) 때에 배로 건너면 홍주(洪州)와 면주(沔州) 등 여러 읍으로 통하는 첩로(捷路)다'라고 하여, 충청도 내포지방의 당진, 면천(주), 서산, 태안, 홍성(주)와 교통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역할은 1980년대 이전까지도 지속되었으며, 1990년대 초 평택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중단되었다.

옹포(翁浦)는 청북면 삼계리에 있다. 고려시대에는 감미부곡이었고, 조선 초 양성현 감미동면으로 개편되어 양성현의 해창역할을 하였다. 1895년 수원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위군이 되었다. 옹포는 19세기 전반에 작성된 청구도에는 '저포'라고도 기록되었고, 자연지명으로는 '독개' 또는 양성현 지역이었다고 해서 '양성독개'라고 불렀다. 1899년 양성군지에 따르면 옹포에서 담당하였던 조세는 포면세(浦面稅)와 대동미(大同米)였다. 본래 이곳에는 창고 4개가 있었지만 갑오개혁으로 1899년 2개로 줄었다. 양성군지에는 이곳에서 취급한 세곡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1886년에 편찬된 수원부선세혁파성책에는 청어, 조기, 염민어, 소금, 목화, 좁쌀, 생대합 등 수많은 상품이 거래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일제강점기 공출미까지 운송하였던 옹포는 해방 후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메워지면서 사라졌다.

그밖에도 진위천과 아산만, 발안천 유역에는 많은 수의 나루와 포구가 있었다. 예컨대 청북면 토진리에는 '툏나루'가 있었으며, 포승읍 원정리에는 한나루, 신영리에는 신전포, 발안천변에는 청북면 현곡리의 신포, 포승읍 흥원리의 자오포와 호구포가 있었다.(2010)

평택지역과 조운(漕運)

1. 근대 이전의 조운제도와 경기(京畿)

조운(漕運)제도는 고려와 조선시대 각 지방에서 국가에 수납하는 세곡(稅穀)을 배를 이용하여 서울의 경창(京倉)까지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근대 이전에는 바다와 가까운 강변이나 해안에 조창을 설치하였다. 조창의 기능은 지방의 조세를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적(船積)하여 서울의 경창(京倉)까지 운송하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해운관관이나 수운관관을 파견하여 관리하였고, 세곡의 수납과 운송을 위해 향리, 초공, 수수, 잡인 등도 조창이 있는 진촌에 거주시켰다.

조운제도가 시작된 것은 고려 초 충주의 덕흥창을 비롯하여 전국에 12개의 조창(漕倉)을 설치하면서부터다. 조창은 문종 때 황해도 장연에 안란창이 설치되면서 13조창으로 정비되었다. 고려시대의 조운제도는 13세기말 왜구의 노략질로 부실해졌다가 1376년 모든 세곡 운송을 육운(陸運)으로 대체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은 건국 후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조운제도 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15세기 초에는 황해도에서 남해안 삼진강 하구에 이르는 해안과 수로에 조창(漕倉)이 설치되었고 한양에는 경창(京倉)이 세워졌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 초의 해운 및 수운창은 모두 9개였다. 이 가운데 서남해안에는 모두 4개의 조창이 설치되었다. 조운제도는 그 후 몇 차례의 변동을 겪으며 갑오개혁 때까지 유지되었다.

조세의 징수와 운송을 주관하는 관청은 호조, 주교사,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선혜청이었고, 실무책임은 각 조창에 파견된 해운관관이 담당하였다. 세곡의 운송 규정은 매우 엄격했다. 그 내용을 보면 30척이 하나의 선단을 유지해야 하고, 역꾼이 불어 휴박해야 할 때는 지방 수령은 관찰사와 호조에 보고한 뒤 임시감독관을 임명하여 지켜야 했다. 또 선적량을 규정하였는데, 충청도와 전라도의 조운선은 800석, 경상도는 1000석 이상을 실지 못하였고 이것을 어긴 경우에는 중벌을 받았다.

2. 관선(官船) 운송체계와 조운제도의 변화

조선시대에는 조세운송을 국가가 책임지는 관선운송체계였다. 국가는 전국의 조창에 해운 판관과 수운판관이라는 외관(外官)을 파견하고 관선(官船)을 건조하여 공급하였으며, 주변 마을의 백성들에게 역(役)을 부과하여 운송에 필요한 조군(漕軍)을 확보하였다. 조선(漕船)의 규모는 해운의 경우 500~600석, 수운의 경우 200석을 선적할 수 있었다. 조선(漕船)은 고려시대의 초마선보다 크기는 작았지만 경쾌하고 속도가 빨랐으며 유사시에는 전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조군(漕軍)은 배 1척당 14~17명이 승선하였다. 조군의 우두머리는 무상조군, 차석은 격조군이라고 하였고 선장은 사공이라고 불렸다. 이들은 조난으로 세곡이 손상되면 피해를 본 조세를 물어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조군(漕軍)을 기피하여 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곡운송에 사선(私船)이 등장한 것은 15세기 초 전라도의 조운선 66척이 난파되면서부터였다. 그러다가 15세기 중엽에는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더니 16세기 들어 부역(賦役)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증가하였고, 조선 후기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조세와 공납 운송을 사선(私船)에 의존하게 되었다. 사선(私船)은 대부분 경강상인들의 경강선(京江船)이었다. 이들은 삼남의 미곡운송 뿐 아니라 나루나 포구에서의 상업활동을 주도했던 선상(船商)들로, 영리추구를 위해 기술과 자본의 확대에 힘썼으며 뛰어난 항해술과 내륙 수로까지 접근하여 조세를 운송하는 능력 때문에 국가의 조세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3. 고려시대 평택지역의 조창

고려시대 평택지역의 조창으로는 전국 13조창 가운데 하나였던 하양창(河陽倉)과 종덕장의 세곡을 모았던 종덕창이 있었다. 하양창은 평성읍 노양리로 고려시대에는 타이포 또는 편섭포라고 불렸다. 이곳에 조창이 설치된 것은 10세기 초 전국 12조창이 설치되면서다. 고려사를 보면 이곳에는 한척에 1000섬을 실을 수 있는 초마선 6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경기남부와 충청북부 일부지역의 세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이곳의 세곡을 관리하고 운송하기 위해 외관록 20석을 받는 판관을 배속하였고, 세곡의 징수와 관리 그리고 운송책임은 고을의 향리와 조창이 있던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뱃사공, 소공, 수수와 같은 조군(漕軍)들이 맡았다.

고려는 하양창의 중요성 때문에 노양리 일대를 경양현으로 승격시키고 조세운송과 염(鹽)장관을 겸하게 하였다. 하지만 하양창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삼남의 해운이 끊기고 세곡운송이 육운(陸運)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었다.

종덕창은 고덕면 두릉리 종덕장에 있었다. 고려시대의 장(莊)은 처(處)와 함께 최고 특권 기관인 왕실이나 왕족, 사원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지역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특권층의 경제기반으로 지급된 수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종덕장도 그러했을 것이다. 종덕창은 종덕장의 세곡을 모아 개경으로 운반했던 곡창이었다. 이밖에도 안중읍 용성리에 설창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주의 세곡을 모아두었던 곳으로 생각된다.

4. 조선시대 평택지역의 조창과 조운(漕運)

조선은 수도를 한양으로 옮긴 뒤 경기지역의 세곡은 고을에서 직접 운송토록 하였다. 조창은 삼남의 해안에 해창을 두고, 한강수로에 강창(江倉)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평택지역은 여러 고을이 복합적으로 통치하고 있어 조창도 진위현, 평택현, 수원부, 양성현, 직산현이 따로 운영하였다. 진위현에는 봉남리 관아의 읍창과, 고덕면 해창리에 해창(海倉)이 있었다. 읍창은 거둬들이는 세곡 가운데 고을의 운영을 위해 남겨둔 것을 보관하는 사창을 말한다. 그 외에도 대동여지도 등에는 합정동 통미부근에 남창(南倉)이 있었고, 도일동 상리에도 사창(司倉)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존재여부는 알 수 없다.

평택현에는 초기에 시포의 남창을 이용하였지만 후기에는 직산현 관할이었던 경양포의 경양창을 이용하였다. 양성현에는 사창 6고(廩)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구룡동면 창리(현 합정동 롯데마트 일대)에 남창(南倉) 3개가 있었다. 이곳의 남창은 육면세와 대동미를 수세(收稅)하여 보관하였는데, 1872년에 대청 6칸, 창고 12칸, 신당 1칸, 대문 1칸, 헛간 2칸을 새로 지었다. 또한 청북면 삼계리 옹포에는 해창이 있었다. 옹포의 해창에서는 양성현의 세곡을 경창으로 운반하였다. 그 외에도 승량동면(포승면)과 서신리면(청북면)에도 조창이 있었다.

수원부에는 모두 칠창(七倉)이 있었는데, 이 중 하나가 안중읍 용성리 설창마을에 있었다. 설창은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나와 있어서 조선 초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직산현은 팽성읍 노양리의 경양창을 해창으로 이용하였다. 앞서 말했지만 경양창은 본래 고려의 하양창으로 조선 초 경양현이 직산현에 편입되면서 직산현의 해창(海倉)이 되었다. 그 외에도 안중읍 황산리 창말과 대반리 창말에 안중창이 있었다. 안중창은 직산현의 월경지였던 안중일대의 세곡을 모았던 조창이었다.(2007)

대진(大津), 대당교역항이 평택항으로

1. 신라 대당교역의 중심이었던 대진(大津)

굴산 이유원(1814~1888)은 이항복의 후손으로 고종 때 영의정을 지냈다.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진위면 무봉산 일대에 근거를 두어 평택과도 인연이 깊다. 이유원이 영의정으로 재임하였던 1870년대는 격동의 시기였다. 밖으로는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였고, 안으로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였다가 실각하고 민씨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외세와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였다.

영의정에 재임하였던 시기 이유원은 조선의 각 지방도를 제작하였다. 학계에서 '1872년 지방도'라고 부르는 고지도다. 조선시대 지도는 주요 지형 및 하천과 도로, 관아의 위치 등 필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그리는 것이 특징이지만, 좌우, 상하에 지역의 역사와 고적, 인물 등을 상세하게 부기하여서 지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된다. 1872년 지방도 수원부 대진에 관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大津 三國時百濟於槽郡之可里渚東置水軍倉 新羅平百濟置館積穀號稜館
唐之使价商賈皆就館羅人朝貢亦由此因名 大津

번역하면 '대진은 삼국시대 백제 땅으로 해군(槽郡) 가리저에 속하였으며 동쪽에는 수군창이 설치되었다. 신라가 백제를 평정한 뒤 객관과 곡식을 쌓아두고 숙관(稜館)이라고 불렀다. 당나라 사신과 상인들이 모두 이 관을 이용하였으며, 신라인들이 조공을 바치러 갈 때에도 이곳을 경유하였으므로 이로서 대진이라고 일컬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진(大津)은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대, 다시 말해서 평택항을 말한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평택항은 5세기 이전 백제가 지배할 때에는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읍의 옛 지명인 해군 가리저에 속하였고, 당시 동쪽 어딘가에는 백제수군의 수군창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또 6세기 말 신라 진흥왕이 한강하류지역을 점령한 뒤에는 대당교류의 중심이었던 당항성의 영역으로 객관(客館=객사)이 설치되었으며, 신라와 당나라 사신들과 두 나라의 상인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교역하였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다. 기록이 사실이라면 대

진(大津)은 삼국시대 이후 대당교역의 중심이었고,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위의 내용은 평택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실크로드사업과 혜초길, 원효길이 평택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어 학술적으로도 주목된다.

2. 조선전기에는 수군첨사가 배치되기도

대당교역항으로서 대진(大津)의 역할은 신라 하대로 끝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가 건국된 다음에는 예성강 하류의 벽란도가 새롭게 부각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중국과의 조공무역과 일본과 왜관무역 외에는 대외무역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려시대 이후 대진항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외교역항으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대진(大津)은 서평택과 충청도 내포(內浦)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와 교역로의 역할을 하였다.

내포지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였던 대진이 역사적으로 다시 부각된 것은 고려 말 왜구가 침입하면서다. 수 십 톤은 수 백 척의 선단을 이끌고 해안에서부터 내륙 깊숙이까지 노략질하였던 왜구들은 하양창이 있는 아산만 일대를 집중 공략하였다. 왜구의 공격으로 서평택지역의 용성현(안중읍), 광덕현(현덕면), 팽성읍의 경양현(팽성읍 서부지역), 평택현(팽성읍 동부지역)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보따리를 이고 피난을 떠났다. 만호리 앞바다에 우뚝 솟은 영웅암에 영웅바위 전설이 전해지게 된 것이라든가, 만호리에 황장군 전설이 전해오는 것도 왜구의 침입, 청일전쟁 같은 외적의 침입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왜구의 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강화하였다. 왜구가 퇴치되지 않는 한 국가안정을 기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세곡운송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태종과 세종 대를 거치며 수군을 증강하고 화포와 신무기개발, 함선의 건조가 활발했던 것도 왜구격퇴와 관련이 있었다. 경기만 일대에는 남양도호부에 속하였던 화성시 화랑포에 경기수군절사도영을 두고 포승읍 만호리에 종3품 무관직인 수군첨사를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세종 때 왜구의 침입이 잠잠해지자 종4품 수군 만호로 급(級)을 내렸고, 세조 때에는 만호마저 혁파하고 모든 병선을 아산만 입구의 난지도 수군만호로 옮겼다. 만호리라는 지명은 여기에서 비롯되었고, 어쩌면 포승읍 원정리에 주둔한 해군제2함대 사령부의 전신은 바로 조선 초의 수군첨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3. 근대전후 상업과 어업으로 성가를 높여

대진의 중심은 만호5리 솔개바위 마을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진(大津)' 보다는 '솔개바위나루'라는 지명을 즐겨 부른다. 하지만 옛 기록에는 대진이 남북으로 10리가 넘는다

고 말하고 있어 술개바위나루만이 대진으로 불리지 않았음을 알게 한다. 그러면 대진의 영역이었다는 반경 10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부터 어디를 말할까. 조선시대 10리는 5,8km쯤 되므로 대략 해군제2함대사령부에서 신영리 신전포 사이쯤 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10리가 넘는 대진나루에는 이른 봄이 되면 각처에서 어선들과 상선들이 몰려들었다. 가까운 곳으로는 당진, 서산, 태안지역의 배들이 들어왔고, 문산포, 강화, 웅진처럼 먼 지역의 어선들도 들어왔다. 근대이후 안중일대의 황무지가 개간되면서 논농사가 발달하자 농우(農牛)를 실은 서산, 당진, 태안지역의 배들도 들어왔다. 이들 지역에서 들어온 소들은 안중우시장에서 거래되었다. 지금도 그 때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안중장의 상인들은 내포지역의 소장수들은 넓직한 한선(평저선)에 소를 열 마리씩 싣고 들어와서는 다 팔아버리고 돈뭉치만 들고 돌아갔다고 말한다.

봄, 가을 파시(波市)에는 어선들이 몰려들었다. 아산만 어장에서는 강다리, 우어, 승어, 대하가 넘치도록 잡혔다. 술개바위나루에서 전망대횃집을 운영하는 지경엽(64세)씨는 40여년 전 어선수리공장을 하러 마을로 들어왔다가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당시 만해도 술개바위나루에는 배를 대는 어선만 50척이 넘었다고 한다. 조개잡이는 겨울철 부녀자들의 부업이었다. 아산만 갯벌에는 조개와 같은 수산물도 지천이었다. 부녀자들은 배를 타고 갯벌가운데까지 나아가서 조개를 잡았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거친 풍랑에 배가 뒤집혀서 화를 당하기도 하였다. 생선과 해산물이 지천이다보니 1980년대에는 싱싱한 생선회를 맛보려는 관광객들이 만호리로 몰려들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뱃터 근처 들물횃집에서부터 호성식당 사이에는 횃집만 30여 개가 들어섰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대진은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평택항이 개항하고 1990년대 초부터 항만시설을 확장하면서 나루터는 메워지고 어업은 중단되었다. 현재 평택항으로 변한 나루터에는 수 만 톤이 넘는 배들이 자동차와 철강제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 여객터미널에도 중국 산둥반도와 제주도로 건너가는 여객선이 취항하고 있다. 동진염전을 비롯 염전이 즐비하였던 도곡리 일대에는 포승국가공단이 들어섰으며, 원정리 범바위 일대에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주둔하였다. 횃집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던 술개바위마을은 나루터를 잃으면서 급격히 쇠퇴하였다. 횃집이나 굴밥집에서 판매하는 꽃게와 생선, 굴도 아산만에서 잡은 것이 아니다. 다만 평택항이 증설되면서 삼국시대 대중국 교역항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은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다.(2009)

하양창은 고려시대의 국세청

1. 조창(租倉)은 세무서다

농경사회에서 세금은 곡식이나 포목으로 냈다. 곡식과 포목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부피도 커서 운반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국가들은 세곡을 정확하게 징수하고,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근대이전의 세곡운송은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운(漕運)에 의존했다. 조운을 하려면 먼저 나무나 포구가 발달한 곳에 조창(租倉)을 설치해야 한다. 조창이 설치되면 마을에서 징수한 세곡을 지게나 달구지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저장된 세곡의 일부는 고을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지만 대부분은 서울의 경창(京倉)으로 운반하였다. 이 때 경창으로 운반을 담당했던 배를 조운선이라고 하였다. 조운선은 세곡이 모두 걷힌 이듬 해 봄에 조운을 시작하였는데, 수로(水路)와 서해안의 험한 해로(海路)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컸다. 조창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다. 오늘날의 세무서도 국세청 산하에 6개의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 산하에는 각 지역별 세무서가 있듯이, 근대이전의 조창에도 등급이 있었다. 가장 상위에 있는 조창은 서울 용산의 경창(京倉)이었다. 경창 산하에는 고려 시대에는 13조창(나중에 12개로 줄어들었음)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각 도에 1~2개씩 10개의 대 조창이 설치되었다. 대조창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국세청인 셈이다. 대조창 산하에는 각 고을마다 해창(海倉)이나 강창(江倉)을 설치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각 고을의 세곡을 직접 운송하였지만, 지방에서는 대 조창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경창으로 운송하였다. 세곡운송 책임은 처음에는 백성들이 부역으로 담당하였다. 하지만 상공업이 발달한 조선 후기에는 경강상인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2. 하양창 터는 중요한 사적(史蹟)

세금은 공정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한다. '국가가 부자들에게 얼마나 엄격하게 징세하느냐'는 국가수준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세종(世宗)은 규형과 인지의라는 토지측량기구를 만들어 양전사업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공정한 징세를 위해 전분6등 연분

9등법이라는 대단히 체계적이고 복잡한 징세방식을 만들었다. 이 제도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탈세를 방지하여 국가재정을 늘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부당하게 수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종 때의 공정하고 정확한 조세방식은 실제로 국가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태평성대의 밑거름이 되었다.

근대이전 조운제도의 원활한 운영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었다. 해로(海路)와 수로(水路)가 고루 발달하였던 평택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조창이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팽성읍 노양리 경양포에 설치되었던 하양창이 그것이다. 하양창은 전국 13대 조창 가운데 하나였다. 하양창이 설치되면서 양광도 일대의 세곡들이 이곳에 집적되었다. 하양창의 중요성 때문에 고려 후기에는 노양리, 신대리, 본정리 일대에 경양현이 설치되었다. 고을의 규모는 작았지만 경양현의 수령은 세곡과 소금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실익(實益)이 많았다. 노양리에 2백 호가 넘는 마을이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는 이야기는 경양현 시절의 영광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양창은 조선시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폐창(廢倉)되었다. 대신 경기도 지역에는 각 고을마다 세곡을 직접 운송할 수 있는 해창이 설치되었다. 평택지역에는 고덕면 해창리에 진위현의 해창(海倉), 청북면 삼계리 옹포에 양성현의 해창(海倉), 팽성읍 노양리 경양포에 직산현과 평택현의 해창(海倉)이 설치되었다. 각 고을의 해창에서는 여전히 세곡운송을 주 업무로 삼았지만 조선후기 경강상인들이 세곡운송을 담당하면서는 포구상업이 발달하였다. 평택지역의 해창 가운데 포구상업으로 성기를 높인 곳은 청북면 삼계리의 옹포와 현덕면의 신흥포, 포송읍의 대진이 있었다.

고려시대 하양창 터는 팽성읍 노양리 경양포다. 경양포는 조선 초 경양현이 폐현되고 하양창마저 폐지된 뒤에도 경양창이 설치되어 직산현과 평택현의 세곡을 담당하였다. 경양창의 운영과 조운을 담당한 것은 직산현감이었다. 직산현감의 역할은 노양1리 비석거리의 공덕비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0년까지 제자리에 있었던 공덕비는 하수로 공사를 하며 사라져버렸다. 주민들 말로는 잠시 한쪽에 치워두었던 것을 폐자재 처리차량이 무작정 싣고 가 버렸다고 한다.

갑오개혁 후 조운제가 폐지되면서 수로교통로와 어항으로 명맥을 유지하던 경양포는 1974년 아산만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역할이 중단되었다. 하얀 돛을 단 고깃배도 없고, 파시에는 나루터를 하얗게 덮었던 포장마차와 관광객도 사라졌지만, 경양포에는 오랫동안 베틀의 흔적과 주막집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베틀은 점점 흔적이 모호해졌고, 포구에도 다리가 놓이고 있어 옛날의 영광과 아름다운 풍광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있다.(2011)

고택면 해창리 해창(海倉) 터

1. 땅이름에는 문화가 숨ն다

결혼 후 몇 년을 기다린 끝에 큰 아이가 태어났다. 아내의 자궁 안에서 금방 나온 아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는 오직 기쁨과 감사라는 단어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기쁜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 급히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고 아이의 작명(作名)을 부탁드렸다. 촌부(村夫)답지 않게 세련된 이름을 곧잘 지으셨던 아버님은 큰아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며칠 후 아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은 고심 끝에 지었다며 아름다울 미(美)에 꽃화(花) 자가 어떠냐고 물었다. 순간 머리속에서 '띠용' 하는 신호음이 울렸다. '김미화'는 쓰리랑 부부라는 코미디로 인기를 얻은 여성 개그맨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다. '아버지 미화는 좀 그런데요 다른 이름은 없을까요?' 아버님은 곤란해 하며 미적저리는 아들의 태도에 크게 진노하시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군대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필자는 군대에 있을 때 중대군종의 신분으로 신병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어느 날 경상도 출신의 신병 두 명이 우리부대에 배치되었다. 훈련소를 갓 졸업한 신병들은 긴장된 자세로 들어왔다. 나는 신병들이 자리에 앉자 이름부터 확인하였다. 첫 번째 병사를 거쳐 두 번째 병사의 이름을 확인하데 그만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신병의 이름은 다름 아닌 '맹구', 김맹구였기 때문이다. 마른 몸매에 긴 목, 쭈글거리는 얼굴, 진한 경상도 사투리도 독특한 이름과 잘 어울렸다. 맹구라는 이름은 나중에 개그콘서트 '봉숭아학당' 코너에서 빛을 발했다. 당시 맹구를 연기한 이창훈씨의 모습도 신병 김맹구와 너무 닮아서 나는 또 한 번 자지러졌다.

사람에게도 이름이 중요하듯 자연과 사물에게도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태초부터 인간은 소통의 편리함을 위해 땅과 사물에 이름을 붙였다. 선약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이브가 처음 한 일도 옷을 지어입고 자연과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다. 근대 이전의 양반 지식인들은 그들의 사상과 정서로 이름을 지었다. 농민들은 농경활동에 빚대어, 어부는 어로활동과 관련하여, 사냥꾼은 그들의 생산활동에서 얻어진 지식으로 이름을 지었다. 평택지역에 잘 알려진 객사리, 봉납리, 향교말, 주막거리, 새티(신대), 군문동,

조개터, 배미, 소사동, 산직촌, 사창이, 낙촌, 서두물, 돌우물, 칠원과 같은 지명은 그렇게 태어났다.

2. 해창(海倉)은 조선시대 경제의 심장

해창(海倉)은 바다 해(海), 곳집(창고) 창(倉) 자를 쓰고 있다. 직역을 하면 '바닷가에 만든 창고'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지명은 조선시대 세곡을 모아 바다를 통해 조운(漕運)했던 곳에 많이 남아 있다.

해창리는 조선시대 진위현의 해창(海倉)이 설치되었던 마을이다. 다시 말해서 조세운송을 담당했던 해운창(海運倉)이 설치되었던 동네라는 말이다. 고려시대만 해도 경기남부지역은 팽성읍 노양리에 하양창을 설치하고 세곡을 운송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초 경기지역의 세곡을 각 군, 현에 맡기면서 고을마다 해창이 필요하게 되었다. 평택지역에는 세 곳에 해창(海倉)이 설치되었다. 조선시대만 해도 평택지역에는 진위현과 평택현 두 개의 고을이 있었고, 바다(海洋)를 보유하지 못한 양성현도 청북면 삼계리의 웅포에 해창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진위현의 해창은 고덕면 해창3리에 있었다. 해창3리는 진위천변에 위치하여 갯골이 형성되고 바닷물이 드나드는 포구가 발달하였다. 조창이 설치된 포구는 '해창포'라고 불렸다. 해창포의 조세운송 책임은 진위현감이 맡았다. 진위현감은 세곡 500석 이상을 선적할 수 있는 조운선을 준비하고, 인근 백성들을 조군(漕軍)으로 선발하여 한양의 용산이나 마포까지 운반하였다.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실시로 세곡의 양이 증가하면서는 경강상인(京江商人)들이 조세운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해창포는 갑오개혁으로 역할이 중단되었다. 곡식으로 납부하던 조세를 돈으로 납부하면서 더 이상 조운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역할이 사라진 포구는 일제강점기 해창들로 간척되었다. 그리고 새로 간척한 해창들은 한상용과 같은 친일파가 독차지 하였다.

고덕면 해창리는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지역이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KTX정거장이 들어선다고도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제 남아 있는 유적이라야 창말이라는 지명과 좁은 갯골 그리고 조운선을 묶었다는 땀나뭇뿐이지만, 개발로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다고 하니 마음이 씁쓸하다.(2011)

양성현의 해창(海倉) 옹포(甕浦)

1. 갈매기는 더 이상 바다를 날지 않으니

평택은 바다가 가깝다. 하천도 수 십 개나 된다. 바닷물과 민물이 자유로이 드나들던 하천에는 포구가 발달하였다. 포구도 사람이 사는 곳.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고 사람도 그만큼 들고 나갔다. 어선이 들어오면 비린내가 진동하였지만, 한양의 마포, 서강나루 경강상인들이라도 들어오면 포구는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활기찼던 포구도 세월을 견디지는 못했다. 갑자기 밀어닥친 근대의 물결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였다.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전통의 방식만을 고집하던 사람들은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렸다. 수 십 척의 선단을 이끌고 서남해안을 오르내렸던 경강상인들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상인들이 드나들지 않는 포구에는 간간히 어선들만 찾아들었다. 지분냄새 풍기며 선상(船商)들의 두둑한 전대(錢臺)를 희롱하던 기생들도 젓가락 두들기며 억센 뱃사람의 시중을 들어야 했다. 인적이 끊긴 나루와 포구는 해방 전후에 간척되었다. 나머지 포구들도 한국전쟁을 넘기지 못했다. 경기만 어업의 전진기지였던 인천의 소래포구도, 평택지역의 나루와 포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인 류외항은 점점 기억을 상실해가는 경기만 일대 포구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노래하였다.

철로는 열차를 기억하지 않고
바다는 염전을 기억하지 않고
갈매기는 바다를 날지 않으니
저들에게 훔친 마음을
송두리째 들켜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묵은 것은 돌아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류외항의 '소래포구' 중에서

2. 양성현의 해창이었던 독개나루

독개나루(甕浦)는 청북면 삼계리에 있는 포구였다. 남양만에서부터 청북면 고잔리를 거쳐 들어온 바닷물은 독개를 지나 신평과 광승까지 들어갔다. 밀물이 들어올 때면 한층 높아진 수위(水位)를 타고 배가 들어왔다. 썰물에도 갯골을 따라 작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배들은

조운선이나 상선(商船)도 있었고 어선들도 있었다. 독개나루의 가장 큰 손님은 한양의 경강상인이었다. 한강을 무대로 자본을 축적하였던 경강상인들은 조선후기에는 서남해안을 주름잡으며 세곡운송과 포구상업을 주도하였다.

바다와 100여리나 떨어져 있는데도 조운선이 드나들만한 하천을 확보하지 못했던 양성현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곡(稅穀)의 운송과 어염(魚鹽)의 확보였다. 조선왕조는 양성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진위와 수원고을의 경계 안에 땅을 나눠 주었다. 이런 땅을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 또는 월경지(越境地)라고 하였다.

근대이전 독개나루는 양성현의 해창(海倉)이었다. 그래서 양성독개로도 불렸다. 1899년에 작성된 양성군지에 따르면 양성현에는 4개의 해창이 있었는데 모두 감미동 다시 말해서 청북면 삼계리 옹포와 현곡리 신포(新浦) 일대에 있었다. 김정호의 청구도에 독개나루는 '저포(苧浦)'라고 기록되었다. 저포(苧浦)에서 저(苧)는 모시를 의미한다. 충청도 서남부의 저산팔읍(苧産八邑)과 같은 지명도 모시생산과 관련 있다. 옹포가 저포로 불렸다면 청구도가 작성된 1834년 경 청북면 일대에서는 모시가 생산되었고 이것이 독개나루를 통해서 반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포(苧浦)가 옹포(翁浦=독개나루)로 바뀐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지간의 사정으로 볼 때 대략 19세기 후반으로 판단될 뿐이다. 옹포(翁浦) 다시 말해서 독개는 항아리를 거래하던 포구다. 근대전후만 해도 항아리는 고가의 상품이였다. 상품가치가 높은 항아리배가 독개로 드나들었다면 옹포(翁浦)의 포구상업은 상당한 규모였을 것이다. 19세기 말에 작성된 수원부선세혁파성책이라는 문헌에는 독개나루의 거래품목이 청어, 조기, 갈치, 고등어, 북어, 민어와 같은 생선과, 미역, 대합, 김과 같은 해산물 그리고 쌀, 소금, 소가죽, 백목이라고 기록하였다. 쌀과 소금이 가장 큰 상품이였겠지만 남양만에서 잡히는 어물과 생선도 주요 품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어세(漁稅)나 선세(船稅)는 잡세 다시 말해서 특별세에 해당하였다. 독개나루의 어세(漁稅), 선세(船稅)는 경우궁(순조의 모친 수빈 박씨의 사당)에서 징수하였다. 경우궁은 선세(船稅) 뿐 아니라 독개(삼계리), 신포(현곡리), 뫼나루(토진리) 일대의 객주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1896년 궁내부대신 이재순이 양성군수에게 보낸 훈령(訓令)에 옹포(翁浦)의 경우궁(景祐宮) 소관 포구에서 내부 훈령을 빙자하여 객주(客主)를 설치한 신순필(申順弼)을 엄벌하고, 경우궁 주인(主人) 최진우로 하여금 착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사실 때문이었다.

3. 일제 말에는 공출미(供出米)를 실어 내가기도

조창(漕倉)은 삼덕초등학교와 원삼계 뱃터마을, 옹포에 있었다. 조창 앞으로는 갯골이 형성되었고 접안시설이 되어 있어 쉽게 배를 댈 수 있었다. 지금도 원삼계 마을 버스정류장 건너편에는 일제강점기 조창 터에 건축한 옛 창고가 남아 있다. 창고 옆에는 주막집까지 남아 있어 옛 풍경을 미루어 상상할 수 있다. 조선시대 조창에 수납한 조세는 포면세와 대동미, 환곡미, 호조와 상진청, 균역청, 영진, 고마청, 순아병의 세곡이었다. 세곡은 쌀을 비롯하여 보리, 콩, 팥, 밀 등을 거뒀는데, 늦가을에 거둬들여 저장하였다가 이듬해 해동(解冬)이 되면 조운선을 이용하여 한양의 경창까지 운송하였다.

조선시대의 조세운송은 관선(官船) 조운체계였다. 국가에서는 전국의 대 조창에 해운관관, 수운관관과 같은 관원을 파견하여 세곡의 관리와 운송을 책임지게 하였다. 옹포처럼 경기도에 속한 작은 해창은 해당 고을의 수령이 관리하였다. 특히 양성고을의 수령은 옹포를 통해 징수하는 각종 잡세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였다. 더구나 어세(漁稅)나 선세(船稅), 상세(商稅)와 같은 잡세는 궁가(宮家)의 주 수입원이었으니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본래 청북농협 앞에 있었다가 지금은 청북면사무소 마당에 세워져 있는 양성현감 이응익의 선정비는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도 나라의 명을 받아 현곡리, 삼계리 일대의 주민들을 조군(漕軍)으로 차출하여 세곡운송을 하였을 것이고, 잡세를 성실하게 징수하여 나라에 바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세곡운송은 경강상인이 담당하였다. 경강상인은 세곡운송 뿐아니라 나루나 포구에서의 포구상업을 주도하였다. 신포에 장시(場市)가 열린 것도 안중장에서 발안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했던 데다 옹포의 포구상업이 활발하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포구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옹포에는 객주와 여각이 들어섰다. 객주와 여각은 옹포 외에도 39번 국도가 지났던 신포(新浦)와 뚝나루에도 있었다.

1930년대, 일제는 옹포에서 옥길리를 가로지르는 장독을 쌓고, 옹포에서 현곡리 신포 사이를 간척하였다. 고잔리의 신권식씨에 따르면 간척책임자는 일본인 '좌판'이었다고 한다. 좌판이 간척한 땅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동척농장'이 되었다. 간척이 이뤄지면서 상선들과 어선은 장독 아래에 정박하였다.

장독 아래의 포구는 동척농장에서 거둬들인 소작미를 실어 나르는 포구가 되었다. 옹포에서 선적된 소작미는 인천항으로 운반된 뒤 다시 일본으로 실려 나갔다. 일제 말 강제공출이 실시되면서는 공출미도 반출되었다. 소작미와 공출미가 반출되면서 나루터에는 커다란 창고가 지어졌다. 창고는 삼덕초등학교 터 일부와 포구 입구 장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었다. 소작미와 공출미가 드나들면서 창고 부근에는 주막집도 번창했다. 주민들은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쌀들은 인천에서 벼 2백석을 선적할 수 있는 배들이 들어와 실어갔다고 말한다.

지금도 삼계리 노인정 근처에는 동척창고가 남아 있다. 창고 옆집은 옛 주막집이었다고 한다. 창고는 해방 후에는 농협창고가 되었고 지금까지 각종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다. 창고의 모습은 새마을운동 때 건축된 일반 창고와는 사뭇 다르다. 창호의 모양도 일본식 건축을 닮아 있다. 창고는 건축물로도 근대문화를 담고 있지만 옹포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근대화유산이다.(2009)



조선시대 조창이었고 일제말 공출미를 보관했던 삼계리 공동창고(2008)

평택항과 함께 사는 포구마을 만호리

1. 조선시대 군항(軍港)으로 출발

바다가 가깝고 하천이 발달하였던 평택지역에는 예로부터 나루와 포구가 발달하였다. 큰 나루만도 현덕면의 계두진과 구진, 포승읍의 신전포와 한나루, 안중읍의 호구포, 청북면의 용포, 팽성읍의 경양포 등 수십 개가 넘는다. 만호리에 항구가 조성된 것은 여말선조다. 지형이 자궁모양이어서 나루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에는 왜구의 노략질을 겪으면서 도만호가 설치되었다. 도만호는 나중에 수군침절 제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만호리라는 지명은 도만호에서 왔다. 도만호가 주둔했던 곳은 만호4리 원터다. 원터마을에는 아직도 옛 건물지의 흔적과 기와편이 무수하다. 만호리 이원길(77세)씨는 원터마을의 황장군 전설을 이야기하였다. 옛날 출중한 무예와 신출귀몰한 능력을 갖춘 황장군이 있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성을 쌓고 왜적을 무찔렀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황장군은 원터마을에 상주하였던 수군침사일 가능성도 있다. 만호리 앞바다의 영웅바위 전설도 왜구와 관련 있다. 바다 가운데에 우뚝 솟은 영웅바위는 조선전기만 해도 높이가 1백 척이 넘었다고 한다. 바위에 전해오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어느 해 왜적이 바다로 침입하였다. 그러자 영웅바위는 장군으로 변하였고 주변의 작은 바위는 병사들로 바뀌었다. 갑자기 나타난 군대에 혼비백산한 왜적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쳤다.'

2. 서평택지역의 상업창구로 번성

나루는 만호5리 솔개바위마을에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진(大津)이라는 좋은 이름을 두고도 솔개바위나루라고 불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대진의 넓이가 10여리를 넘었다고 기록하였다. 만호리에서 이웃마을 신전포까지가 모두 나루였다는 말이다. 대진은 조선전기 군항(軍港)으로서의 기능이 중단되면서 충청도 서북부와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해로 교통의 요충이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아산만의 어선들이 입항하는 어항이었고, 안중장과 당진, 서산을 연결하는 상업창구 역할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38번 국도가 가설되었다. 만호리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삼척까지 이어진 38번 국도는 아산만의 해산물과 서산, 당진, 태안의 물산을 안중장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서산, 당진의 소장수들이 소떼를 한선(평저선)에 싣고 아산만을 건너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목직한 현금을 허리춤에 감춘 소장수들이 오가면서 대진에는 주막이 번창했다. 주막집에는 색시들도 있었고 투전판도 열렸다. 소장수들은 색시들의 꼬드김에 꼭꼭 숨겼던 돈주머니를 열고, 투전판에 잘못 끼어들어 소 판돈을 모두 잃기도 하였다. 3, 40년 전만해도 대진에는 여객선도 들어왔다. 여객선은 당진의 한진을 거쳐 인천까지 갔다. 당시 서산, 당진은 충청남도의 오지여서 자동차보다 배를 타고 다니는 것이 편했다. 자동차로 가려면 아산과 예산을 돌아 한나절을 달려야 했지만 여객선은 30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농사지으며 고기 잡으며 한평생을 살았다

만호리에는 윗느지, 아랫느지, 대정, 원터, 솔개바위와 같은 마을이 있다. 솔개바위 주민들은 어업을 하였지만 나머지는 반농반어의 생활이었다. 경작지는 대부분 근대전후에 간척되었다. 바다가 가깝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간척지는 수확량이 매우 낮았다. 때때로 바닷가 제방이 터져 염해(鹽害)로 한 해 농사를 망칠 때도 많았다.

흉년에 주민들을 살린 것은 바다였다. 아산만에는 꽃게, 새우, 송어가 지천이었고, 썰물에 조개를 캐고 굴만 따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솔개바위 사람들은 어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하였다. 주민 지경엽(64세)씨에 따르면 어민들은 정치망으로 고기를 잡았다고 하였다. 정치망은 본래 작은 새우를 잡는 그물이어서 온갖 고기가 다 잡혔다. 잡힌 고기는 지계에 지고 동네를 돌거나 안중장에 내다 팔아 곡식과 바퀴먹었다. 조개를 캐거나 굴을 따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다. 조개는 여름에도 캐지만 굴을 따는 일은 농한기에 많이 하였다.

저울질 아산만은 거칠고 위험했다. 파도도 거칠었고 수심이 낮아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느리게 보이다가도 물이 차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높아졌다. 그래서 몇 차례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은 60년 전에 있었던 멍거니 익사사건과 50여 년 전 영암(영웅바위)근처 익사사건이다. 두 사건으로 만호리 뿐 아니라 원정리 범바위 주민 100여 명이 이승을 달리했다. 부지불식간에 십 수 명씩 죽어나가면서 동네전체가 초상집이 되었다. 노인회장 이경철(77세)씨는 익사사건으로 만호리, 원정리 남자들은 모두 흠아비가 되었노라며 웃었다.

4. 평택항 개발의 빛과 어두움

1980년대까지 만해도 대진(大津)은 접안시설과 드넓은 갯벌을 앞에 둔 항구마을이었다. 38번 국도가 시작되는 솔개바위 들물식당에서 만도아파트 방면으로 뻗은 일직선상의 길 좌우에는 수많은 횃집과 식당이 즐비하였고, 나루터가 바라보이는 산모퉁이에는 포창마차가 늘어서 있었다. 나루터에는 3, 4톤에서 10톤 내외의 어선 수십 척이 떠 있는 모습도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정치망과 삼중망으로 새우, 꽃게, 우어, 숭어 등을 가득 잡은 어선들은 바닷가에 고기를 퍼 내리기 바빴다. 겨울에는 합지박과 망태기에 굴과 조개를 가득 담은 아주머니들이 배에서 내렸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주말이면 마을 입구부터 바닷가까지 자동차가 늘어섰고, 거리에는 횃집을 드나드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지경엽(64)씨는 어선수리업을 하러 마을에 들어왔다. 당시에는 어선만 50척이 넘어서 돈벌이가 되었다. 그러다가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부인이 횃집을 열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망대횃집이다. 어선을 갖고 있던 이웃집들도 횃집을 열었다. 그러다 보니 1990년대 초에는 스물여섯 집이나 되었다.

대진(大津)의 상권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986년 평택·당진항이 개항하면서부터다. 1990년대 초 갯벌을 매립하고 본격적인 항만공사가 시작되면서는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 어업활동도 중단되었고 어항이 갖고 있던 자연경관도 변하였다. 어민들은 고깃배에서 내려 항만청에 입사하였다. 초기에는 거친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만족하였다. 하지만 평생 거친 파도와 싸웠던 사람들이 회사생활에 적응하기는 어려웠다. 어민들은 IMF가 닥치면서 회사 측에서 내민 1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회사를 나왔다. 생업이 중단되자 보상금은 금방 없어졌다. 돈도 없고 생업도 잃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다.

나루터의 경관이 변하면서 관광객도 감소하였다. 바다와 갯벌을 보며 생선회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평택항으로 가로막힌 들물식당, 전망대 횃집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았다. 들물식당을 운영하는 장영실씨도 그것을 답답해하였다.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한 때 스물여섯집이나 되었던 횃집들도 하나 둘 문을 닫고 타지로 떠났다. 그래서인지 한창 사람으로 붐벼야 할 주말 나루터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식당주인은 콩을 까느라 여념이 없었다. (2008)

평택지역사 연구의 키워드 간척(干拓)

1. 평택시는 간척으로 형성된 땅

몇 주 전 평택시 문화유산해설사 선생님들과 답사를 하였다. 답사의 목적은 관방산성을 둘러보는 것이었지만 답사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여러 개의 마을과 평야를 마주할 수 있었다. 사실 평택지역에서 평야지대를 피해서 답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평택은 널따란 평야지대를 트레이드마크로 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마주하고 살아가는 평택평야는 형성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조선전기만 해도 대부분의 평야지대는 공유수면이었거나 간척지 또는 황무지였다. 이 같은 땅들은 한양과 가깝고 대부분 국유지다보니 일찍부터 국가와 관청, 권력자들에 의해 간척되었다. 때론 가뭄과 흉년을 이기지 못해 바닷가로 몰려든 유민들이 간척에 동참하였다.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간척된 땅들은 대부분 도일동 상리, 진위면 봉남리, 은산리처럼 하천의 중, 상류지역에 분포한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간척은 더욱 활발해졌다. 왜란과 호란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와, 모내기 발달도 간척에 영향을 주었다. 간척의 주체는 궁궐이나 왕족, 관청, 군영, 역원 등 다양하였다. 이들은 안성천, 진위천을 위시해서 널따랗게 형성된 하천부지의 간척에 힘을 쏟았다. 지금도 하천 곳곳에 남아 있는 '궁(宮)' 자가 들어간 지명들은 대부분 궁방전에서 비롯되었다. 궁실이나 왕족들이 간척에 열을 올렸다는 사실은 조선 후기의 추수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추수기에는 평택평야의 소유주들이 순화군, 명례궁과 같이 궁궐이나 왕족이었고 때로는 수어청, 용주사, 화천역 같은 관청이나 역원, 사찰이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 후기에 간척된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총독부에 귀속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우리나라 토지 40% 가량을 수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궁방전, 역둔토와 같은 국공유지였다. 이밖에 마을소유의 토지, 종중소유의 토지 등 소유권자가 복수이거나 공동체인 경우에도 수탈되었다.

농기구와 비료가 발달하고 간척기술이나 경작기술이 향상된 일제강점기에는 더욱 많은 간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간척된 오성들(2006)

석지가 간척되었다. 평택평야에서 가장 넓은 오성들, 팽성읍의 빈개들이 간척된 것도 이 때다. 오성들 간척은 일본인 가동, 길본, 평원 세 사람이 주도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오성들을 간척한 뒤 약 5백만 평씩 나눠 가동농장(고덕면 궁리, 오성면 신리 일대), 평원농장(창내리, 교포리 일대), 길본농장(당거리 일대)을 만들었다. 세 개의 일본인 농장은 토지경영에서 이전의 조선인 지주들과 차별성을 보였다. 조선인 지주들이 여러 명의 마음을 고용하여 소작권 분배와 타작을 감독하게 하였다면, 일본인 지주들은 농장회사와 사원들을 두고 소작농들과 소작계약을 맺은 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작료를 징수하는 근대적 운영을 하였다.

일제가 경제침략을 위해 설립한 동양척식(주)도 간척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청북면 삼계리 일대의 동척농장들, 오성면 안화리 부근의 동척농장들, 고덕면 두릉리와 팽성읍 두리의 동척농장이 그것이다. 동척은 농감을 두고 토지경영을 하였다. 농감은 일본인들이 맡기도 하였지만 조선인 농감도 있었다. 고덕면 두릉2리 계루지 마을의 이OO씨의 조부도 농감이었다. 농감은 조선인 마음처럼 소작권분배와 소작료 징수를 담당하였다. 징수된 소작료는 옹포를 비롯하여 안성천, 진위천의 포구나 철도를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운송되었고 이것을 다시 일본으로 실어갔다.

일제강점기 동척이나 일본인 농장의 토지는 해방 후 적산농지로 분류되었다. 적산농지는 1947~8년 사이 일반인에게 불하되었다. 불하는 기준은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농이 우선 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분배방식은 이후 농지개혁에도 적용되었다.



[도두리별 간척에 맞춘 신대2리 영창마을(2009)]

2. 한국전쟁 피난민들도 간척에 뛰어들어

평택평야의 간척사업은 한국전쟁으로 정착한 황해도 일대 피난민들과 아산만, 남양만 방조제 공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제1공화국 정부는 간척지가 넓은 해안가나 황무지에 피난민정착촌을 건설하였다. 평택지역에도 팽성읍 신대리, 남산리, 노와리, 안정리, 석봉리 일대, 고덕면 문곡리 일대, 오성면, 청북면 옥길리 일대, 안중읍 일대에 피난민 수용소가 들어섰다. 북창동의 황해도촌처럼 때론 미군기지 주변에 정착한 피난민들도 있었다.

갯가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살아날 길은 바다를 메워 간척을 하거나 토착민들이 버려둔 황무지를 개간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다. 일제 말 안중읍 덕우리의 대부호 이강세가 간척에 실패했던 포승읍 흥원리에서 청북면 옥길리 사이의 강세둑을 완공한 것은 연백피난민들이었다. 고덕면 신흥마을 주민들은 개척단들을 간척했다. 서탄면 마두리 피난민들은 나빛들 아래쪽의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팽성읍 신대리, 3리 주민들은 맨손으로 공유수면에 불과했던 도두리들 일부를 간척했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본토에서 쫓겨나 곤지머리에 자리를 잡은 옛 대추리 주민들은 도두리들 동쪽의 흑무개들과 황무지에 불과했던 황새울들을 간척하였다. 한국전쟁과 1960년대에 정착한 함정2리, 도두2리(신흥, 공주촌) 주민들도 도두리별 간척에 동참하였고, 남산리와 노와리, 안정리, 석봉리 주민들은 황무지를 개간하였으며, 청북면 삼계리와 고잔리 피난민들도 발안천 배후습지를 간척하였다.

한국전쟁 전후 활발하게 진행되던 간척사업은 1974년 아산만과 남양만 방조제 준공으로 완성되었다. 아산만, 남양만 방조제는 하천변 미간척지까지 모두 경작지로 변모시켰고,

방조제공사와 함께 진행된 경지정리사업과 야산개발은 발농사시대까지 논으로 바뀌 놓는 농업혁명을 이뤄냈다. 경작지의 확대와 함께 안정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도 혁명적인 변화였다. 매 년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포락지가 없어진 것, 염해와 수해에서 벗어난 것도 큰 변화였다. 그리고 평택호와 남양호의 풍부한 물을 기반으로 평택지역에도 공단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변화였다.

이처럼 평택지역은 간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드넓은 평택평야가 본래부터 곡창지대가 아니라 민중들이 피땀 어린 간척으로 옥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평택지역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로 이뤄진 것이 없으며, 모든 사물은 항상 변화, 발전을 하기 때문이다.

3. 평택평야의 간척(干拓) 연구는 매우 미흡

평택지역사 연구에서 간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현재 연구한 학자는 많지 않다. 부분적으로는 오성들의 간척방법에 관한 범선규의 연구, 간척 후 형성된 마을의 특징에 관한 연구가 고작이다. 이처럼 평택 간척사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척사 연구의 어려움도 원인이지만, 평택지역에서 간척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간척과 관련된 기초 사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의 양안(量案)이다. 양안은 통상 20년마다 작성한 토지대장을 일컫는다. 양안의 기록을 분석하면 평택지역 토지의 증감, 증가된 지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농촌공사 사료실에 보관 중인 일제강점기 이후의 각종 기록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읍지(邑誌)나 지리지를 검토하는 것, 시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보관 중인 토지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것, 고지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업은 전문가의 능력과 오랜 시간, 그리고 열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연구가의 작은 열정에 기대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찌할 것인가? 박물관이나 연구기관이 전문한 평택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평택시가 연구비를 확보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는 방법 밖에는 대안이 없다.

필자는 평택처럼 농업을 기반으로 발전한 도농복합도시에는 반드시 '농업박물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간척사료관'이 건립되어도 좋을 것이다. 현재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박물관'은 평택지역에서 농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너무 미흡하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미리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훌륭한 박물관이 건립되기를 학수고대한다.(2012)

소금, 백색의 황금

1.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소금을 먹어

인간이 소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농경사회가 시작되고부터다. 사냥과 채집생활을 하였던 선사시대에는 고기 안의 염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농경이 시작되고 곡물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염분은 별도로 섭취를 해야 하는 물질이 되었다. 하지만 소금은 아무 곳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 바닷물을 증발시키거나 암염(岩鹽), 또는 염호(鹽湖)에서만 얻을 수 있어서 내륙으로 갈수록 귀하다귀한 상품으로 대접을 받았다. 소금이라는 우리말도 '소(牛)와 금(金)처럼 귀하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니 예로부터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 알만 하다. 그러다보니 고대 이전에도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은 교역의 중심이 되었고, 내륙에서 농경과 목축을 하거나 수렵을 하던 사람들은 농산물이나 가축과 소금을 교환하기 위하여 소금산지로 모여들었다. 독일어의 할레(Halle), 할슈타트(Hallstatt)나 영어권에 위치(wich)가 들어가는 지명,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미국의 솔트레이크시티 등은 모두 소금거래와 관련된 지역들이다.

소금 배급제가 시행된 로마시대에는 관리나 군인들에게 봉급으로 소금을 지불하였다. 봉급을 뜻하는 영어의 샬러리(salary)가 라틴어 살라리움(salarium)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귀하다보니 때론 소금이 제액을 물리치는 정결의 상징, 신성한 물질처럼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는 만들 때 시체를 소금물에 담가서 썩지 않게 하였으며, 고대 중동지방에서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소금으로 몸을 문질러서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식을 행하였다. 고대인들이 신에게 바치는 짐승의 고기를 짜게 한 것도, 중동에서 소금을 함께 먹은 사람을 친구로 여기는 풍습도 소금의 정화작용과 신성성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쁜 기운을 물리칠 때 소금을 뿌렸고, 무당의 곳에도 쌀과 소금이 올라갔으며, 오줌 싼 아이에게는 이웃에서 소금을 받아오게 하여 몸을 정화시켰다. 이처럼 귀하고 신성한 물건이다 보니 신분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소금을 먹을 수 없었으며,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음식을 짜게 먹는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로 유럽의 내

륙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짜고 단 음식이 부(富)의 상징처럼 인식되어서 귀족들의 파티에 참석해야만 짭짤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소금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되자 지배자들은 소금의 이권을 장악하여 부(富)를 축적하려고 하였다. 고대 페르시아나 이집트에서는 왕실이 소금생산을 독점하여 부를 축적하면서 '소금을 지배하는 사람이 권력자'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고대 중국에서는 하(夏)나라 때부터 소금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관중(管仲)은 소금전매제를 실시하여 국부(國富)를 증대하였으며, 한나라 때에도 소금을 전매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

2. 고구려 미천왕도 소금장수 출신

우리나라에서 소금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구려에서 해안지방의 소금을 운반하여 왔다'는 내용이다. 그밖에도 삼한시대에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고구려의 노예들이 지배층에게 소금을 바쳤다는 내용도 전한다. 삼국사기에 고구려 미천왕은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고 봉상왕에 즉위하자 숨어들면서 소금장수를 하며 연명하였다고 한다. 미천왕이라면 4세기 초 고구려를 위협하였던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을 멸망시키고, 요충지였던 서안평을 점령하여 요동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던 왕이다. 그가 어린시절 소금장수를 하였다면 당시에 백성들도 소금을 자유롭게 매매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고려시대에는 건국 초부터 소금을 전매하여 국가수입원으로 삼았다. 고려사에는 태조 왕건이 도염원(都鹽院)을 설치하고 소금을 전매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소금 굽는 곳이 612개소나 되었고, 제염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892호에 달했다. 문종 때에는 국가가 제염업 자체를 장악하여 직접 가마솥을 소유하고 소금을 구워냈다. 구워진 소금은 백성들에게 배급도 주었고 일부는 판매하여 국가수입을 늘렸다. 고려 후기 충선왕 때에는 귀족들이 가마솥을 소유하여 불법으로 소금을 제조하자 각염법을 개정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정해진 날짜에만 백성들에게 팔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수심이 낮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제염업이 발달하였다. 당시 소금을 만드는 방식은 자염(煮鹽), 다시 말해서 큰 가마솥에 소금물을 끓여 만드는 방식이었다. 가장 많이 생산되었던 지역은 전북 부안과 충남 태안 등이었는데, 국가에서는 연안지역에 염장을 설치하고 관(官) 주도로 소금을 구워 백성들이 가져온 곡물이나 포목과 교환하였다. 바닷가에 염전을 개설하고 천일염을 생산하는 방식은 1907년부터 시작되었다. 천일염 방식으로 처음 조성된 염전은 인천 주안에 만들어진 주안염전이였다. 그 뒤로 경기만 일대와 충청도, 전라도 연안에 많은 수의 염전이 조성되어 천일염을 생산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소금 전매제가 실시되었다. 그만큼 귀하고 부가가치도 높았기 때문이

다. 해방 뒤에도 전매제가 유지되다가 1961년 염(鹽)전매법이 폐지되면서 자유로워졌고, 1962년에는 국유염전을 민영화하면서 완전 민영체제로 전환되었다.

3. 아산만 일대에서도 소금생산이 많아

원시시대에는 바닷물을 증발시키거나 해조(海藻)를 태워 소금을 얻었다. 사하라사막에는 염분을 함유한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어 대상(陰商)들은 그곳에서 소금을 얻었다. 철기시대부터는 암염(巖鹽)을 채취하여 소금을 만들었고, 이스라엘의 사해(死海)에서는 소금호수에서 조염을 정제하여 소금을 얻었다. 중국에서도 B.C27년 경 재상 숙사씨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평택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었다는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직산현 조에 경양폐현에는 고려시대에 하양창이 있었고 고을의 수령은 염(鹽)장관을 겸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여기서 염장관은 소금전매제가 시행되었던 고려시대에 소금을 수집하여 백성들에게 판매하였던 관리를 말한다. 또 19세기에 제작한 청구도에도 안성천 하류와 아산만 바닷가에서 소금이 생산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1927년 4월 동아일보에는 평택지역의 수산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특산품이 소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신문에는 총 면적 7,900여 평에 달하는 6개의 민영염전과 제염업에 종사하는 민호만 40여 호가 넘는다고 하였다.

아산만 일대에서 소금을 생산했던 방식은 불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만드는 화염(자염)이었다. 화염은 1950년대까지 포승읍 만호리, 도곡리, 원정리, 청북면 고잔리 일대에서 생산



[염불으로 화염을 만들었던 원정2리 배영환(81)씨 외(2007)]

하였다. 포승읍 원정리 배용환(84세)씨는 화염 기술자였다. 농지도 부족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 화염만큼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부업이 흔치 않았다.

화염을 만들려면 먼저 마을 주민들 몇몇이서 계를 조직하고 염뿔(뿔)을 만들었다. 염뿔은 바닷물을 저장하고 증발시켜 염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던 보(甬)였다. 보는 마을 앞 갯벌에 가로세로 50미터쯤 되는 큰 구덩이를 파서 개흙을 여러 번 다졌다. 완성된 염뿔에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앙금을 가라앉힌 뒤 며칠 동안 수분을 증발시키면 염도가 올라갔다. 염도는 마른 콩을 띄워 둥둥 뜰 정도는 되어야 하였다. 염도를 높인 물은 소달구지로 길어다가 가로세로 6미터쯤 되는 큰 쇠술에 부어 생솔가지로 불을 지폈다. 생솔가지 연기에 눈물을 쥘 끄거리며 밤새워 불을 지피면 다음 날에는 7가마쯤 되는 백색의 소금이 만들어졌다.

1950년대 이전만 해도 소금 1가마는 쌀 한 가마와 교환될 정도로 비쌌지만 선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소금이 나올 때가 되면 안성이나 오산에서까지 소금장수들이 몰려들었으며, 하룻밤을 묵으며 연줄을 놓아야만 겨우 사갈 수 있었다.

아산만 일대의 화염제조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중단되었다. 대신 포승읍 도곡리에 피난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하는 당두염전이 만들어졌다. 당두염전 다음으로는 화성염전이 조성되었고, 도곡리 앞쪽이 간척되면서 동진염전을 비롯 여러 개의 염전이 만들어졌다. 대규모 근대 염전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염뿔을 통한 소금만들기는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골이 간척되어 경작지가 확대되고, 외국의 값싼 소금이 수입되기 시작한 것도 쇠퇴의 원인이었다.(2010)



통북시장에서 판매되는 소금(2010)

김장, 배추와 찢갈의 환상공합

1. 김치는 삼국시대부터 먹기 시작

우리민족이 김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로 알려졌다. 본래 김치는 3,000여 년 전 중국인들이 먹던 '제'라는 음식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생활 속에 정착한 것이다. 처음 김치는 무를 주원료로 하는 동치미, 찐지, 장아찌 등이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결구배추가 도입되고 임진왜란 때 고추가 전래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였다. 김치에 고추를 향신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말부터다. 고추가 사용되면서 김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갖은 양념에 찢갈이나 어패류를 넣어 발효시킨 김치도 이때부터 담그기 시작하였다.

프랑스는 지역마다 포도주 맛이 다르고, 독일은 마을마다 맥주 맛이 다르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김치 맛, 술맛이 달랐다. 본디 음식이라는 것이 생산물과 비례해서 우리 선조들은 계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종류, 다른 맛의 김치를 담갔다. 만물의 기운이 생동하는 이른 봄에는 돌나물김치를 해먹었고, 갓 풀린 땅에서 수확한 배추로 햇배추김치를 담갔으며, 파김치, 열갈이김치도 담가 먹었다. 더운 여름철에는 텃밭에서도 쉽게 수확 하였던 열무, 부추, 오이, 가지, 박을 원료로 시원하고 달콤한 김치를 담갔으며, 생산물이 풍성한 가을에는 통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갓김치, 고춧잎김치, 동아김치, 고들빼기 김치를 담갔다.

김장은 이른 겨울 첫눈이 흩뿌릴 때쯤 시작하였다. 너무 이르면 김치가 일찍 시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담갔던 대표적인 김장 김치는 통배추김치였다. 생활이 넉넉한 집안에서는 보쌈김치를 담갔고, 깎두기, 통무김치, 백김치, 동치미, 총각김치, 쉬박지, 호박지를 곁들여 담갔다. 이밖에도 강화도에서는 순무김치를, 개성과 서울 근교에서는 인삼물김치, 꿩김치, 연꽃 동치미, 백김치, 호박열무김치도 담갔다.

예로부터 평택지역은 물산이 풍부하지 못했다. 발농사가 많았던 구릉은 척박한데다 메밭 많으며, 저습지에 간척한 논농사지대는 수해와 염해로 수출이 적었다. 생산력이 낮고 가난한 지역에서는 음식문화가 발달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평택지역은 김치의 종류가 다양

하지 않다. 김장은 겨울철 주요 식량이었다.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식량을 아끼느라 김치 한 포기 씹씩 썰어서 쌀 한줌을 얹어 죽을 쑤어 먹었던 식재료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수한 곡식을 곳간에 저장하듯이, 초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수 백 포기씩 김장을 담가 땅 속에 묻었다.

2. 김장철에는 너 닷가지 김치를 담갔다

온양이 친정인 이감순(84세)씨는 일제 말 평택으로 시집왔다. 시댁은 평택장에서 해산물과 건어물을 취급하는 커다란 상회를 운영하였다. 시아버지는 해방 전에는 함경도 원산에서, 38선이 가로막힌 뒤로는 포항과 남해안에서 해산물을 사들였다. 시댁은 대식구였지만 오가는 손님들도 무척 많아서 김장을 많이 하였다. 보통의 경우 통배추김치를 비롯하여 갯짬지, 동치미, 총각김치, 깍두기, 쉬박지 등에다 상류층에서나 해먹었던 보쌈김치까지 담갔다. 보쌈김치는 손이 많이 가고 맛있게 담그기가 어려웠지만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치여서 자주 담그는 편이었다.

신대동 고잔마을의 최순희(83세)씨는 송탄 좌동마을이 친정이다. 스물 하나에 고잔마을로 시집을 와서 이때까지 살았다. 최순희씨 댁은 식구가 적어서 배추 100포기쯤 김장을 했다. 시집오기 전 친정에서는 그보다 더 많이 담갔다. 일반적으로 통배추김치와 총각김치, 깍두기, 동치미를 즐겨 담갔는데 다른 김치보다 동치미가 맛있었다. 동치미는 겨울철 반찬이면서 간식거리였다. 손가락이 꺾꺾 달라붙는 겨울밤에 쥔 고구마를 동치미와 곁들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평택지역 김치는 젓갈이 생명이었다. 통배추에 갖은 양념을 하여도 젓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었다. 젓갈은 새우젓, 밴댕이젓을 많이 썼고 넉넉한 사람들은 조기젓을 썼다. 요즘처럼 화학조미료는 일체 넣지 않았다. 이감순씨는 김치를 담글 때 곱삭은 조기젓과 새우젓을 넣어야 시원하고 맛있었다고 말했다. 고잔마을 최순희씨는 밴댕이젓과 새우젓을 사용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젓갈 한 가지를 넣기도 버거웠다. 군문동 이정희씨는 새우젓에 굴을 많이 넣었다고 말했다. 고잔마을 이건숙(64세), 최순자(71세)씨도 이 말에 동의하였다. 김치에 굴을 많이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났다. 잘 담근 김장은 땅에 묻은 뒤 짚가리를 해서 보관하였다. 김장독을 물을 때는 겨울철 어른들이 드실 술도 함께 묻었다. 이렇게 해야 한 겨울이 났다.

3. 젓갈은 경기만 일대에서 들어와

평택지역은 예로부터 바다가 가깝고 수로가 발달해서 해산물이 풍부했다. 덕적도를 비롯해서 용진군에 속한 여러 섬들과 아산만 연안에서 잡힌 해산물이 안성천, 진위천을 따라 내륙 깊숙이 공급되었다.

군문동의 군문포, 신대동의 고잔포는 평택일대 해산물이 들어오는 창구였다. 해방 전후만 해도 젓갈은 군문포보다 고잔포로 많이 들어왔다. 고잔포는 신대동 국제학교 앞에 있었다. 이곳으로는 새우젓배, 굴배, 강다리를 실은 생선배가 많이 들어왔다. 밀물 때에 맞춰 포구에 배가 들어오면 동네사람들이 지게에 저서 마차에 실었다. 이것을 '하륙한다'고 말했다. 마차에 실린 새우젓, 굴젓, 강다리는 해방 전에는 평택장, 해방 뒤에는 통복시장의 새우젓도가나 생선도가로 팔려갔다.

젓갈배는 김장철에 많이 들어왔고, 굴은 겨울철에 들어왔다. 시골마을에서는 동네마다 돌아다니는 젓갈 장수, 굴 장수들에게 해산물을 사먹었다. 굴장수들은 짚으로 엮은 네모지고 작은 멧꾸리에 굴을 담아 애기지게에 지고 다니며 종지에 담아 팔았다. 돈이 귀했던 마을 사람들은 돈 대신 곡식과 물물 교환하였다. 때로는 외상을 한 뒤 추수 때 갚기도 하였다. 대략 쌀 한 되에 굴 두 종지를 주고받는 것이 적정가격이었다. 곡식이 귀했던 시절 쌀 한 되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리굴젓은 귀한 반찬으로 대접받았다.

이갑순씨 시아버지가 운영하였던 해산물 도매상회에서도 젓갈이나 굴을 취급하였다. 시아버지는 아산의 백석포나 걸매리에서 젓갈을 사들였다. 해방 전후만 해도 백석포는 큰 포구였다. 포구에는 경기만 일대에서 잡은 각종 생선들과 새우젓을 가득 실은 배들이 여러 척씩 정박하였다. 때로는 신대동 고잔포에서 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큰 상회에서 취급할 물량은 아니었다.

4. 뱃길이 막혀버린 나루터에는 적막한 기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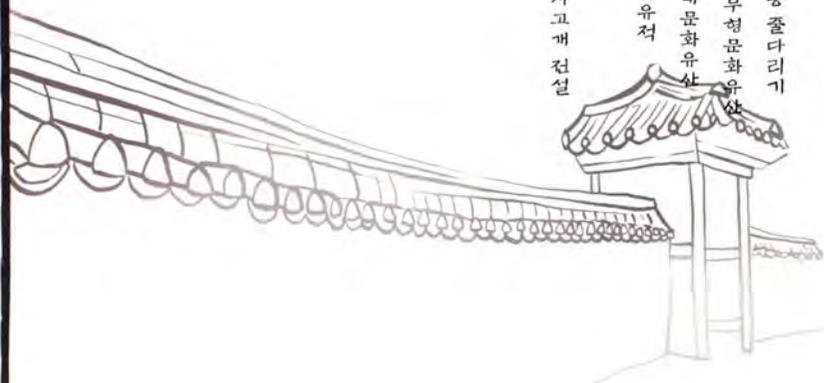
통복시장 젓갈상회는 김장철이 가장 바쁘다. 한 해 장사가 김장철에 결판난다고 한다. 젓갈장수 아주머니는 하루 종일 앉아있지도 못했다며 연신 부은 다리를 두드렸다. 요즘 젓갈은 충청도 광천이나 전라도 고평에서 들어온다. 간척사업과 항만건설로 바다가 막힌 탓이다. 1974년 아산만방조제건설은 안성천, 진위천 수로까지 막아버렸다. 입구가 막혀버린 하천은 호수와 다를 바 없다. 배가 드나들지 않는 포구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기억들까지도 박제화 시켰다. 안성천의 흐름도, 세상의 기억도 과거 속에 멈춰버린 채 그대로 서 있다. 박제된 풍경에서 옛 모습은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인가 저녁 어스름의 옛 나루터에는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2010)

평택역사산책

평택사람들의 새해맞이

평택의 정월(正月)

정월대보름의 축제 오룡동 줄다리기
산신제는 보존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
사라져가는 원평동의 근대문화유산
서탄면사리이동협동조합유적
새교동 은실마을당계
양교 5리여술마을문장자고개전설





문화유산산책

03

(수도사는 원효의 견성오도성지(聖地))

천년고찰 망한사

대동법사행기널비

조선시대 교육과 평택지역의 향교

평택지역의 판아유적

평택유일의 포의서원터

평택지역성과유적보존시급하다

용성리는 산성(山城)마을

평택에는 망해산봉수도있다

평택에도 미륵이산다

충효의 가치를 상징하는 양세충효정문

개항기영의정을 지낸 심순택 옛집

명창이동백의 집터는 사적(史蹟)

옛시(詩)로 읽는 평택의 풍경 (1)

옛시(詩)로 읽는 평택의 풍경 (2)

수도사는 원효의 '견성오도' 성지

1. 가지산문의 염거화상이 창건

포승읍 원정7리 호암마을에 수도사가 있다. 근래에는 주지 적문스님의 노력으로 전통사찰 음식체험장과 템플스테이 장소로 거듭나고 있는 사찰이다. 수도사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되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라 문성왕 14년(852) 염거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염거(廉居)는 고승 도의선사의 수제자로 가지산문의 제2대 교조다. 창건당시 수도사 일대는 대당교역의 중심이었다. 당나라로 가는 사신들과 상인, 유학생들이 포승읍 일대의 대진과 화성시의 화랑포, 당은포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를 오갔다.

대당교역의 중심에 위치하여 크게 번창하던 수도사는 나말여초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 남양만 일대에 수적(水賊)들이 활개를 치면서 승려를 납치하고 사찰을 약탈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크게 쇠퇴하였다. 그 뒤로는 명맥만 유지되다가 조선 초 산사태로 폐사되었다고 전한다. 폐사되었던 수도사가 다시 중창된 것은 조선 후기다. 중창된 곳은 본래의 절터가 아닌 괴태산(봉화재) 중턱이었다. 이것마저 조선 말기 다시 폐사되었다. 현재의 사찰은 1960년 최영식 스님이 괴태산 북동쪽 골짜기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당시 최영식 스님은 태고종 계열의 대처승이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조계종에서 인수하여 현재와 같이 성장시켰다.

2.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다

수도사에는 신라의 고승 원효(617~686)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견성오도(見成悟道)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다시 말해서 서기 661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가 당항성 근처의 오래된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밤중에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장소가 바로 수도사 근처라는 말이다.

그러면 잠시 원효(元曉)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자. 원효에 대한 기록은 최치원이 쓴 '의상전', 고려시대 일연의 '효사행장'과 '효사본전' 등에 수록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원효의 성씨는 '설(薛)' 씨고 신분적으로는 6두품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유성이 품속으로 들어

오는 태몽을 꾸고 원효를 낳았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5세 이전에 세속의 학문에 통달하였으며 흥륜사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골품제 사회에서 낮은 골품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출세에 차별을 받았다. 어쩌면 원효가 승려를 택한 것도 출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출가를 하고 보니 불교조차도 왕실이나 중앙에서는 진골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었다. 원효는 7세기 비(非)특권계층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불교대중화운동과 교학연구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의 당나라 유학을 시도하였다. 당시 분위기는 지금과 비슷해서 승려들도 당나라 유학을 다녀와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45세에 의상과 함께 시도했던 두 번째 유학길에서 원효는 해골에 고인 물을 마셨다.

원효가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얻은 깨달음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였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원효는 당나라유학이 갖는 허구성을 확연히 인식하게 되었다. 또 인간의 마음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어 누구나 부처의 마음을 찾아 실천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갖게 되었다. 이 같은 깨달음은 원효를 한국토착불교의 비조가 되게 하였고 불교대중화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게 하였다. 원효의 사상은 왕실과 귀족 중심의 신라불교를 대중 속으로 끌어 내렸다. 또 일찍이 파계하여 처사로 살았기 때문에 문도를 거느리지는 못했지만,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와 같은 수많은 글을 써서 국내 뿐 아니라 일본불교에 영향을 끼쳤다. 고려시대에는 원효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양되어, 화쟁사상은 불교통합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4개 이상의 대표적인 종파에서는 종조로 추앙하였다.

3. 한국적 불교의 원형을 찾다

그러면 원효가 견성오도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한 번 살펴보자. 시기적으로 661년은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이듬해다. 충남 예산과 한산에서는 흑치상지, 복신, 도침, 부여 풍에 의한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되었고, 사회가 어수선하여 여행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경주를 출발한 원효와 의상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를 따라 당향성으로 향했을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원효와 의상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계림령을 넘어 충추에서 한강수로를 이용하는 경로와, 충주-청주-진천-직산-서평택-당향성으로 연결되었던 경로가 있었다. 하지만 한강수로는 하류지역이 고구려와 신라의 대척점이어서 안전한 코스가 아니었다. 그래서 6세기 후반부터 신라가 지배하였던 진천의 엽둔재를 넘어 직산의 사산성을 지나 팽성읍의 경양포나 곤지진에서 배를 타고 서평택의 신흥포나 계두진에서 내려 포승방면으

로 향하는 코스가 많이 이용되었다. 원효와 의상도 이 코스를 따라 경주로부터 당항성 부근까지 다다랐을 것이다.

최치원의 '의상전'에는 세간에 알려진 '해골에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사뭇 다른 스토리를 전한다. 예컨대 '밤중에 의상과 함께 수도사 근처에 도착한 원효는 오래된 무덤을 땅막으로 여기고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일어나보니 무덤이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나가려고 하였지만 이번에는 비바람이 거세어서 할 수 없이 하루 더 유숙하게 되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원효는 귀신의 장난으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같은 상반된 경험은 '마음이 일어나면 갖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면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며, 만법은 오직 마음의 인식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와 불법을 연구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힘을 쏟았다. 요석공주와 결혼하여 환속한 뒤에도 수행과 대중교화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한국적 불교 사상의 원형을 만들었다.

수도사가 견성오도의 성지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고대 경주에서 당항성까지의 육상교통로를 고려할 때 수도사 인근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을 뿐이다. 근래에는 화성시(또는 수원 근처) 인근이라는 설과, 천안부근이라는 설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견성오도의 성지로서 수도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고대 교통로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연구와 원효의 행적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011)



[포승을 원정7리 수도사(2012)]

천년고찰 망한사(望漢寺)

1. 문화유산의 보고(寶庫) 객사리

문화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다. 객사리는 근대 이전 평택현의 중심이어서 다양한 문화의 편린(片鱗)들이 남아 있다. 지금은 기억에서 희미해졌지만 관아주변에는 선정을 베푼 원님에 대한 기억과 함께 탐관오리의 악행이 무용담처럼 전해왔을 것이고, 행차가 잦았던 충청대로 변에는 다양한 군상들의 행적과 우마(牛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온다.

객사리에서도 동쪽 마을입구는 '주막거리'라고 부른다. 근대이전 주막거리는 성환에서 화천역을 거쳐 평택읍내로 들어오는 길목이었다. 인마(人馬)가 자주 오가는 길목의 주막은 행인들로 들끓었다. 관아에 볼일을 보러 외출한 촌부로부터 객사리 동문장, 서문장에서 난장을 퍼려는 장사치들, 안성고을이나 양성고을에 소식을 전하고 바삐 달려온 통인들이 주막에서 다리섬을 하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을 것이다.

객사리 서쪽 향교 못미치는 연못둑 마을이다. 연못둑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초여름이 지나면 연못에는 순백의 연꽃이 피었다. 경주 안압지 주변처럼 천지를 뒤덮을 만한 연지는 아니었지만 볼거리, 놀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다. 조선 전기만 해도 부용산 정상에는 관가정이라는 누정이 있었다. 조선시대 선비문화에서 누정은 문학의 산실이었다. 고을을 방문한 사신들이나 전, 현직 고관들이 시심(詩心)을 달랬던 곳도 누정이었다. 관가정에 오르면 아래로는 구불구불 흐르는 안성천이 내려다보였고 좌우로는 너른 들판이 펼쳐졌다. 안성천에는 밀물 썰물을 이용하여 고깃배들이 드나들었다. 서거정, 이안눌 같은 시인, 묵객들은 관가정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풍경을 '한 언덕 약간 높게 사면이 편편한데, 날 저물면 돌아와서 외로운 정자에 올라본다. 이 지역 본래 바다와 가까워서 물고기와 게가 풍부하고, 들엔 이미 가을이 깊어 벼농사 가득 찼다'라고 읊었다.

2. 망한사는 팽성읍 일대 민중들의 안식처

근대전후의 종교는 서해안의 물길을 따라 전파되는 경우가 많았다. 평택지역에도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안성천, 진위천 변에 오래된 기독교, 천도교, 불교 유적이 많다. 성공회 객

사리교회(현 팽성교회)도 바닷물에 밀려온 종교다. 고덕면 문곡리의 천주교 공소, 현덕면 권관리와 인죽읍 일대의 천도교도 해양과 수로를 통해 유입되었다.

수많은 객사리의 유적들 가운데 망한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망한사(望漢寺)는 신라 말 창건되어 조선중기까지 존속되었고, 임진왜란 때 폐사된 뒤에는 오래토록 방치되었다가 관속(官屬)들의 주도로 다시 중건되었다. 18세기 중엽 신치가 찬술한 '팽성지'에도 '망한사는 객사 동쪽 일리쯤에 있는데, 옛날에는 아주 큰절로써 평야 가운데 있었다. 그때에는 읍내 사람들이 모두 부유하였다. 그런데 절이 퇴락한 뒤로부터 관례(官隸)나 이속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약간 남아 있는 사람들도 모두 빈한하였다. 그래서 관속(官屬)들이 화주를 구하여 조그만 암자를 짓고 약간의 위전을 갖춘 뒤 스님 서너 분을 기거하게 하면서 고을의 형편이 나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망한사에는 다음과 같은 창건설화가 전해온다.

'1600년 전 신라 내물왕 때 중국 한나라의 고승과 유력자들이 강가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느닷없이 불어온 강풍으로 큰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다. 표류하던 배는 파도에 밀려 아산만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었고,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귀국이 불가능해지자 객사리에 정착하게 되었다. 정착한 이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절을 세웠는데, 중국을 그리워 한다는 의미로 '망한사(望漢寺)'라고 하였다'

창건설화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신라는 내물왕을 지나 6세기 법흥왕 때가 되어 서야 불교가 공인되었고 한나라는 내물왕 이전에 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고대로부터 아산만과 팽성읍 일대의 수로(水路)는 다양한 문화의 유입 통로였다는 사실이다. 중국인 유민들에 의해 창건된 망한사는 팽성읍 일대 민중들의 정신적 안식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고을의 안녕과 백성들의 행운을 가져다주는 사찰이라는 인식도 형성되었다. 절이 폐사되자 고을의 관속들이 기금을 모아 중건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망한사는 현재 자비사라는 이름으로 중건되어 객사리 입구를 지키고 있다. 중건되었다고는 하지만 법당과 자그마한 요사 그리고 미술사적 가치가 적은 탑 두 기뿐이어서 옛 사찰의 위용을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고대에는 국가의 정치와 사상의 거처였고, 그 뒤로 천 몇 백 년 동안 민중들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볼품없는 현재의 모습도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다.(2009)

대동법(大同法)시행기념비

1. 부유세 논쟁의 원조는 대동법(大同法)

정치와 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혹은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겠지만, 세상의 재물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하고 공평하게 나눠져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와 같은 명제가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게 한다. 오래 전 부유세 논쟁이 있었다. 요즘에도 각종 선거에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서민들의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정치에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본적이 없다. 그만큼 부자들이 많이 내고 그 혜택을 가난한 서민들이 입은 것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정책이었다. 한마디로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자들은 적게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혁명적인 세제개혁이었다. 이 법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들의 반대가 심했다. 지식과 권력을 독점한 지배층들은 각종 논리를 내세워 반대를 하였고, 방납의 이익을 차지했던 상인들은 치열한 로비를 하였을 것이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기까지 1백년이 걸렸다는 사실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한 소신과 끊임 없는 노력으로 대동법의 전국적 확대실시에 기여한 사람이 잠곡 김육이다. 소사동에는 대동법시행기념비라는 유적이 있다. 김육이 호서지방(충청도)에 실시한 대동법에 감사하여 세운 비(碑)이다. 오늘의 역사산책은 대동법시행기념비다.

2. 대동법(大同法)이란 무엇일까?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전세, 공납, 역의 의무를 졌다. 이 가운데 대동법은 조선 후기 현물로 바치던 공납과 진상(進上)을 토지를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개혁한 조세제도다. 그러면 현물 세에 해당되었던 공납을 개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공납(貢納)은 징수과정에 많은 폐단이 있었다. 더구나 16세기가 지나면서 농민층이 몰락하자 징수상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조광조, 이이, 유성룡과 같은 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바꿀 것을 요구하였지만 국가재정에서의 비중이 컸고, 왕에 대

한 백성의 도리라는 점, 그리고 방납인(防納人)의 이권(利權)과 연계되어 개혁이 어려웠다. 공납의 개혁이 대공수미법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된 것은 왜란이 끝난 뒤이다. 왜란 후 토지가 황폐화되어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지고 국가재정이 악화되자 공납제도 개혁으로 물꼬를 트려고 했던 것이다. 대동법이 처음 시범 실시된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에 대한 시범 실시는 성과가 좋아서 1623년에는 강원도·충청도·전라도로 확대 실시되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세제개혁을 지배층과 가진 자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이들은 시행 세칙의 미비점을 파고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확산시켰다. 결국 지배층과 방납업자들의 반대로 1625년(인조 3)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대동법이 취소되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은 대동법을 왜 반대했을까? 대동법은 이전의 공납과 징수기준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공납이 호(戶)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대동법은 토지(土地)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에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토지를 많이 소유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는 논리다. 징수방법도 각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바치던 것을 쌀, 삼베, 돈으로 바꿨다. 예컨대 대동법이 처음 실시될 때는 토지 1결 당 백미 16말을 봄, 가을로 납부토록 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때는 12말로 조정하였다. 이 가운데 2말은 지방관아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선혜청에 납부하면 중앙관청에서는 공인(貢人)을 지정하여 필요품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들의 조세부담이 늘고 빈농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확충되었지만, 가진 자들은 부국과 안민(安民)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잠곡 김육(金堉)이 훌륭한 것은 그도 지배층이었고 지주였지만, 자신의 기득권보다도 국가의 안위와 백성들의 삶을 우선시한 경세가였기 때문이다.

3. 김육(金堉)은 누구인가?

김육(1580~1658)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이었던 김식의 증손자 김홍우와 조광조의 증손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남다른 혈통을 지녔지만 초년(初年)은 매우 불행하였다. 13세에 임진왜란을 만나서 피난을 갔다가 15세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그 뒤로 조모와 모친을 차례로 잃고는 서울의 고모 댁에 의지하며 지냈다. 26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갔지만 광해군 때의 실세였던 정인홍을 유적(儒籍)에서 삭제한 사건이 문제가 되어 파방되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4세에 경기도 가평의 잠곡(潛谷)으로 이주하였고, 44세까지 10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고 솟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농사를 지을 때는 벼들이 찾아와도 논둑에 앉혀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며, 조세와

지배층의 탐학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살피며 안민책을 고민했다고 한다. 김육이 관직에 나간 것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서인들이 집권하면서다. 그 뒤로는 관직생활이 순탄하여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효종 때에는 우의정에 발탁되었고 나중에 영의정까지 오르게 되었다. 김육이 관료로 진출했던 시기는 왜란과 호란의 영향으로 백성들의 곤궁한 생활이 극에 달했던 때였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배층은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국가는 재정이 부족하여 총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부국강병과 민생안정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다. 논쟁은 산당과 한당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산당의 중심에는 김상헌과 김집이 있었고, 한당의 중심에는 김육이 있었다. 산당은 부국과 민생안정은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국가와 백성이 근검절약하는 데서 출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육은 부국(富國)의 길은 안민(安民),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지방관으로 처음 나갔던 음성현감 시절부터 피력하였다. 음성현감시절 김육은 '민(民)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가 안정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명분론에 치우치기보다 정책결정에서 국가의 공의를 중시하고 현실정치를 추구하였던 한당의 입장이었고 관직 생활 내내 김육의 활동에서 중요한 명분이었다.

4.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김육은 백성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각종 부담을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대동법(大同法) 시행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것도 안민책(安民策)의 관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병자호란 뒤인 1638년 충청도관찰사로 재임했을 때 백성들의 생활고가 극에 달했음을 살피고 이를 해결할 방책으로 상소한 내용의 핵심도 대동법의 시행이었다. 그러면 인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자.

“선해청의 대동법은 실로 백성을 구하는 데 절실합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미 시행하였으니 본도(충청도)에 시행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방법은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인조실록 16년 9월 27일)

여기에서 김육은 대동법이야말로 백성을 구제하고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지름길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주장은 비변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김육이 부국(富國)과 안민(安民)의 뜻을 펴기 시작한 것은 효종이 즉위(1649년)하고 우의정에 발탁되면서다. 북벌(北伐)을 위해 부국강병(富國強兵)에 관심이 많던 효종은 김육의 '민생안정을 통한 부국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효종 즉위년 11월 5일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하면서도 '대동법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제책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동법(大同法)은 가난한 백성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제정도 튼튼해지는 방도라는 것을 역설하면서, 만약 이 법의 시행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죄를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김육의 소신 있는 주장에 산당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산당의 김집과 김상헌은 '가난한 농민은 찬성하지만 부유한 지주는 반대하니 우선 도덕을 바로 세우고 근검절약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전히 반대의견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대동법은 영의정 이경석, 좌의정 조익, 연양군 이시백이 부분적으로 동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들은 논란이 있으므로 우선 충청도에 시범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고 이 같은 의견에 비변사와 허적 등 남인계도 동조하면서 효종 2년(1651) '호서대동법'이 시행될 수 있었다.

충청도에 실시한 대동법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성과에 힘입어 1657년에는 호남지방으로의 확대실시를 준비하였고 사망하던 해(1658년)에 전라도 연해지역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았다. 김육은 자신의 죽음으로 전라도의 대동법이 증도에 폐지될까 걱정하여 대동법 실시를 잘 이해하였던 서필원을 전라도 관찰사로 천거하여 완수를 의뢰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김육의 유지가 반영되어 1662년에는 전라도 산간지역에, 1678년에는 경상도에 1708년에는 황해도에 확대 실시되었다. 김육의 소신과 의지로 호서와 호남지역에 대동법이 실시되자 백성들은 일을 하면서도 춤을 추었다고 말한다. 실로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는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린 최고의 개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5.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왜 소사동에 건립되었나?

김육(金堉)은 대동법실시 뿐 아니라 동전의 유통, 수차(水車)와 수레의 사용, 시헌력(時憲曆) 도입을 주장하였던 개혁적인 정치가였다.

김육이 사망하자 충청도 백성들은 마치 부모상을 당한 것처럼 애통해 하였다. 이들은 제문(祭文)을 지어 추도하고 부의(賻儀)를 모아 조문하였다. 하지만 상가(喪家)에서 김육의 뜻에 따라 부의를 받지 않자, 1659년 국가의 허락을 받아 충청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역원인 삼남대로 소사원 옆에 불망비를 건립하였다. 일명 소사동의 '대동법시행기념비'가 그것이다. 비문(碑文) 위쪽에는 '조선국영의정김공육대동군역만세불망비(朝鮮國領議政金公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라고 새겨 있다. 이것은 충청도 백성들이 호서지방의 대동법 시행을 기념하여 세웠다기보다는, 김육의 뜻과 노력을 잊지 못하여 건립하였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문(碑文)은 홍문관 부제학 이민구(李敏求)가 지었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吳竣)이 썼다. 높이는 300cm, 너비 85cm, 두께 24cm이다.

소사동에는 대동법시행기념비 외에도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옛 소사원 터 옆의 미

룩당과 소사교와 소사벌이 그것이다. 미
 룩당은 주민들이 할머니미룩으로 섬겨
 왔지만 근대 이전에는 삼남대로를 지나
 는 사람들의 기도처였을 것이다. 마을 앞
 소사천변에는 1920년대 초까지 소사장
 이 개시되었다. 소사교에는 김종직, 조익
 등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시가 남아 있
 고, 이몽룡과 춘향이의 로맨스도 전해온
 다. 또 소사벌은 임진왜란 당시 소사벌대
 첩의 전적지이며, 1728년에 일어난 이인
 좌의 난 때 이인좌군이 진위현과 안성군,
 양성현의 군사를 모았던 현장이며, 청일
 전쟁의 격전지다. 소사천 동쪽 서지골과
 배미마을 사이의 창말에는 양성현의 사
 창육고(司倉六庫) 가운데 세 개가 있었
 다. 실로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만하
 다.(2011)



[소사동 대동법시행기념비(2006)]

조선시대 교육과 평택지역의 향교

1. 근대 이전의 교육제도는 어떠했을까?

우리나라에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유교교육이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 율령체제가 갖춰지면서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정치이념과 체계화된 정치제도는 그것에 걸 맞는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4세기 후반 고구려가 태학을 설립하고, 백제가 오경박사, 역박사를 두어 교육을 실시한 것은 그와 같은 필요성 때문이었다. 신라는 통일 이전까지만 해도 화랑도라는 인재양성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화랑도는 전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문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는 기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평화 시기 체계화된 유교적 통치체제를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신라가 통일 뒤 신문왕 때 국학(國學)을 설치한 것은 새 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서였다.

고려시대에는 유교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를 강화하면서 992년(성종 12)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국자감에는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文廟)를 두고 돈화당을 설치하여 학문을 강론하였다. 고려 중기에는 사학(私學)이 발달하였다. 사학은 문헌공도 최충의 '9재학당'이 효시며 그 후 12공도가 설립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향교가 설치된 것도 고려시대였다.

사대부들이 건국한 조선은 유교교육을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은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재를 양성하고, 백성들을 유교적으로 교화시켜 유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양인(양반, 중인, 상민) 이상이면 교육과 과거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관료가 아니라도 향약이나 유향소에 참여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주자가례와 소학을 배워 유교윤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였다.

조선의 교육기관은 중앙 교육기관과 지방 교육기관 그리고 관학(官學)과 사학(私學)으로 나뉘었다. 관학(官學)으로는 한양에 성균관(成均館)과 4부학당(四部學堂)을 설치하였고, 지방 각 고을에는 성균관을 본뜬 향교(鄕校)를 설치하였다. 사학으로는 16세기부터 설립된 서원(書院)과 서당(書堂)이 있었다. 서당은 통감류(通鑑類), 글씨쓰기, 읽기와 같은 기초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서원은 사림학자들에 대한 봉사(奉仕)와 후진양성(後進養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 교육은 과거제도와 연결되어 있었다. 먼저 향교나 서원에서 교육은 받은 뒤에는 문과의 경우 각 도에서 실시하는 소과(향시, 사마시)를 치렀다. 여기에서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되었고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성균관에서 교육을 받는 교생들은 대과(大科)에 응시할 수 있었다. 대과는 문무과로 나뉘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렀고 28명의 인재를 선발하였다. 또 선발된 인원은 임금 앞에서 전시(殿試)를 치러 등수를 정하였는데, 여기에서 1등을 하면 장원(壯元)이라고 하였다.

평택지역에 향교가 설치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고려시대에도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평성을 내리와 월곡동, 안중을 용성리 설창마을에도 향교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있어 대략적인 추정만 할 뿐이다. 향교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것은 조선선국 후이다. 진위향교와 평택향교가 그것이다.

2. 조선시대 향교에는 누가 살았을까?

향교는 유교적 교육기관이다. 유교교육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사상을 가르친다.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선시대 향교에는 문묘(文廟) 다시 말해서 대성전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대성전 아래에 강학공간인 명륜당과 기숙공간인 동재와 서재를 두어 학생들이 강학활동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강학활동을 위해서는 훌륭한 선생과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향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시켰던 교육자를 교관(敎官)이라고 하였다. 교관은 교수(敎授), 훈



[진위향교 명륜당 (2007)]



[명태참교 대상전(2009)]

도(訓導), 교도(敎導), 학장(學長)이라고도 불렀다. 이들 가운데 교수, 훈도, 교도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되는 정식 교관이었고, 학장은 지방의 행정 책임자가 임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지방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태종 때부터 주(州)와 부(府) 같은 큰 고을에 과거에 합격한 관리를 교수관을 파견하였다. 또 교수(敎授)가 파견되지 못한 군현(郡縣)에는 각 도의 관찰사가 학장을 선발하여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 세종 때에는 과거 급제자가 훈도가 되는 것을 꺼리면서 생원(生員)과 진사(進士) 가운데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뽑아 교도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성종 때에 이르러 교도직이 없어지고 큰 고을에서는 교수(敎授), 작은 고을에서는 훈도(訓導)만 두었다. 유교교육을 위해 국가가 훌륭한 인재를 교수로 파견하려고 하였지만, 과거급제자들이 녹봉도 적고 출세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교수보다는 중앙관직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져 1785년에는 향교의 교관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교관의 파견이 중단되면서 고을에서는 '스승이 될 만한 인물'을 교임으로 뽑아 교육은 물론 향교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교임에는 서열에 따라 도유사(都有司), 장의(掌儀), 유사(有司)로 구분되었다. 향교의 교장이랄 수 있는 도유사는 지역별로 전교(典敎), 교장(校長), 재장(齋長), 훈장(訓長), 재수(齋首)로 부른다. 향교의 경제기반은 나라에서 지급한 향교전과 노비가 있었다. 향교전은 대체로 향교말의 백성들에게 역(役)을 면제하고 대신 향교의 관리와 향교전을 경작하도록 하였다. 향교에 소속된 노비로는 대성전을 지키는 전직(殿直), 동·서재를 지키는 재직(齋直), 제기고를 지키는 고직(庫直), 산을 지키는 산직(山直)이 있었다. 또 노비 가운데 우두머리를 수노(首奴)라고 하여 향교 노비관리의 책임을 맡게 하였다.

3. 향교에서는 무엇을 배웠을까?

향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규모와 정원이 정해졌다. 경국대전에는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 90명, 도호부(都護府)에 70명, 군(郡)에 50명, 현(縣)에 30명으로 규정하였다. 입학 연령은 지역에 따라 15세에서 20세로 다양했지만 보통 15세 내외에 입학하였다. 교육기한도 명확하게 정해지지지는 않았지만 소과에 급제하였거나 40세가 넘으면 학생신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향교에는 양반뿐 아니라 중인, 평민들도 입학이 가능하였다. 향교에 입학하면 국역(國役)이 면제되었으며 과거(科擧)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신분제적 관념이 강화되는 16세기경에 되면 향교 내에서도 동재와 서재를 사용하는 신분이 서로 달라졌다. 양반계급의 자제들이 중인이나 상민층과 함께 기거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재에는 양반유생을 서재에는 중인이나 평민유생을 기거하게 하였다. 이 때 동재에 기거하는 양반유생을 동재유생(東齋儒生) 또는 청금유생(靑衿儒生)이라고 불렀고, 서재에 머무르는 학생은 서재교생(西齋校生)이라 불리 구별하였다. 지금도 진위향교에 보관 중인 유생안(儒生案), 청금록(靑衿錄)은 당시 향교 교생들의 명단이다.

향교의 교육내용은 시문(詩文)을 짓는 사장학(詞章學)과 유교경전을 공부하는 경학(經學)을 중심으로 하였다. 경학은 유교경전뿐만 아니라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사서를 함께 공부하였다. 또 소과응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제술(製述)도 중시되었다. 세종도 '15일 동안은 시문(詩文)을 제술하고, 15일 동안은 경서(經書)와 제사(諸史)를 강독하게 하며, 제술(製述)과 강론(講論)에서 우등한 자는 5인씩 녹명(錄名)하여 예조에 보고하여 생원회시에 응시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경국대전에는 교생이 독서한 일과를 매월 말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순행하면서 고강(考講)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었다. 때론 관찰사가 고강을 할 때 낙강하게 되면 교생신분을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교재는 소학과 사서오경을 비롯한 제사(諸史), 근사록, 심경 등으로 성균관과 차이가 없었다. 특히 소학과 주자가례는 교생들에게 권장되었던 책이다.

4. 진위향교와 평택향교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진위향교는 1398년(태조 7)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가 병자호란(1636) 때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이 과정에서 건물들은 모두 불탔지만 대성전의 위패는 향교말에 사는 최용수가 꺼내어 화를 면했다. 전란 뒤 초가집 두어 칸을 지어 보관하다가, 1644년(인조 22) 현령 남두극이 대성전을 중수하면서 이곳에 모셨다. 1660년(현종 1)에는 현령 송박

이 대성전의 대청을 다시 지었으며, 1839년(헌종 5)에는 현령 황종림이 명륜당을 다시 지었다. 1889년(고종 26)에 전면적인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1987년 동, 서재를 다시 지었으며, 2007년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진위향교의 공간배치는 전학후묘(前學後廟)다. 다시 말해서 문묘를 뒤에 두고 강학공간인 명륜당을 앞에 둔 형태다. 대성전에는 중앙에 공자를 주향(主享)으로 오성위(五聖位)가 모셔졌으며, 동무와 서무에는 주자, 정숙자, 주돈, 정백자 등 송나라 4현과 최치원, 설총 등 우리나라 18현이 모셔졌다. 명륜당은 강학(講學)공간이다. '명륜당(明倫堂)'이라는 현관은 맹자(孟子)의 '인간사회의 윤리를 밝힌다'에서 온 말이다. 이곳은 교수관이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다. 진위향교 명륜당에서의 강학은 대체로 조선 전기까지만 실시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병자호란 때 불에 탄 뒤 오랫동안 중수되지 않았고, 무신 난(1728) 이후 진위사족들이 몰락하여 교생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학보다는 문묘배향이라던가 진위유림들이 모여 여론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음력 8월 상정(上丁)에 석전제가 거행되며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분향을 올린다.

평택향교도 조선초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불에 탔고,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 중수하였다. 건물의 공간배치는 진위향교처럼 전학후묘 형태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17세기 중엽에 중수된 대성전이며, 명륜당은 임진왜란 때 불타다가 19세기 중엽에서야 중건되었다. 명륜당의 중건이 늦어진 것은 그만큼 조선후기가 되면 유력한 사족들은 서원에서 공부하여 향교의 강학활동이 크게 필요치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현재는 향교회관에서 천자문과 소학, 서예와 같은 강학을 하고 있으며, 음력 8월에 석전제를 올린다.(2010)

평택지역의 관아유적

1. 관아유적은 평택시의 정체성

뿌리가 약한 졸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조상의 묘역을 조성하는 일이 그것이다. '조상의 묘역'이라고 하니까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다. 있는 조상조차 서로 모시지 않으려는 마당에 많은 돈을 들여 조상의 묘를 조성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돈만으로 살 수는 없다. 가난할 때는 돈만 많으면 다 될 것 같지만, 일단 돈이 많아져서 상류사회로 진출하면 지식과 교양도 필요하고 빛나는 가문의 전통도 절실해진다.

평택시민들의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은 낮은 편이다. '평택지역이 좋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편리한 교통과 뒷세가 약한 지역적 특성 그리고 돈 벌기 좋은 여건을 우선으로 꼽는다. 하지만 돈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으로 자긍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에서 장점을 발견하고 참 가치를 되살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근대이전 평택지역은 세 개의 권역으로 나뉘져 있었다. 안성천 북쪽과 진위천 서쪽은 경기도 진위현이었고, 팽성읍은 충청도 평택현이었다. 진위천의 서쪽, 일명 서평택지역은 수원도호부와 직산현, 양성현의 영역으로 나뉘져 있었다. 세 권역의 중심은 진위면 봉남리와 팽성읍 객사리였고 서평택지역은 안중읍 용성리 일대와 현덕면 덕목리 일대가 중심역할을 하였다. 팽성읍 객사리는 평택현의 중심이었다. 고을의 중심에는 동헌과 절청, 향청 등으로 구성된 관아와, 궐패를 모시며 사신접대를 하였던 객사, 교육기관인 향교가 있었다. 객사리라는 지명도 '객사(客舍)'가 있었던 마을에서 유래하였다.

2. 낡았다고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먹고 살만해지면서 버리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백화점에 가면 1~2만 원짜리 옷들이 널려 있는 마당에 현옷과 옛 물건들을 쌓아 놓기만 하여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 대물림되던 옛 물건들도 쉽게 버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얼마 전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양증맞은 오래된 뒤주와 구유가 버려져 있었다. 시골마을에서도 집을 짓거나 수리하면 옛 문서나 조상들의 기록들을 불태워버리는 경우가 많다.

낡은 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낡은 것에는 연륜 깊은 노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빛나는 지혜가 숨어 있다. 어느 교수님은 집안의 보물이라며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솥들을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을 보았다. 조부가 사용하던 호미 두 자루를 비단보자기에 싸서 간직하는 사람. 푸른 꿈을 안고 상경할 때 고향 간이역에서 끊었던 서울행 기차표를 액자에 넣어 간직하는 사람도 있다. 낡들은 하찮게 여길지라도 가문과 개인에게 소중한 의미가 되는 물건은 가보(家寶)이기 때문이다.

평택지역에도 낡은 것이 많다. 낡은 것들은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근대도시가 발달하면서 구도심은 소외되고 평택역과 서정리역 주변에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관아유적은 진위면 봉남리와 팽성읍 객사리에 있다. 지금도 봉남리 진위면사무소 앞에 가면 '진위현청 터'라는 표석이 있고, 객사리에는 팽성읍 객사가 있다.

3. 관아유적은 우리의 보물

조선시대 고을의 읍치에는 동헌을 중심으로 향리들의 집무실인 질청, 지방 유림들이 향회를 열었던 향청, 감옥과 군기고, 사창 그리고 관아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던 객사가 있었다. 그밖에도 관아의 주산(主山)에는 누정이 있었고, 사직단과 여단, 성황사도 있었다.

진위현의 읍치 진위면 봉남리에서 동헌을 비롯한 관아 터를 찾기로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다. 일제강점기 관아 터에 진위초등학교, 진위군청(현 진위면사무소) 그리고 민가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다만 18세기 중엽의 해동지도와 광여도, 경기지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사-객사-향교 순으로 그려졌고, 1871년 진위읍 지도에 일련의 건물들이 그려져 있어 공간배치를 짐작할 뿐이다.

1871년 진위읍 지도에 따르면 아사(衙舍)는 맨 뒤에 내아를 기점으로 남쪽으로 솥을대문과 회랑으로 둘러쳐진 동헌과 그 앞에 질청, 질청 서쪽에 담장으로 둘러싸인 향청이 있으며, 질청 남쪽 문밖에는 홍살문과 사창, 군기고가 있었다. 사창은 덕암산 남쪽의 도일동 상리마을에도 있었으며, 해창은 고덕면 해창4리에 있었다.

평택현의 동헌 터는 객사리 성광감리교회 자리다. 향리들의 집무처인 질청(作廳)은 동헌 앞. 다시 말해서 현재 팽성읍사무소 서쪽에 있었다. 팽성읍사무소 터는 군기고와 사창이 있었다. 팽성읍사무소 앞마당의 향나무도 옛 관아의 흔적 가운데 하나다. 평택관아에는

부군당도 있었다. 부군당은 향리들의 표상인 한나라 재상 소하를 모시는 사당이다. 18세기 후반의 평택현지도에는 평택현의 주산이었던 부용산에 관가정이 남아 있고, 사직단과 여단, 성황사가 차례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현에는 관아를 돌렸던 담장이 읍성(邑城)의 기능을 하였다. 주민들이 담장을 중심으로 '성안', '성밖'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다. 동헌(東軒)과 군기고(軍器庫)를 거쳐 객사(客舍) 뒤쪽까지 연결되었던 관아의 담장은 팽성읍사무소 동쪽에서 팽성객사까지만 남았다가 몇 년 전 읍사무소 주차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훼손되고 이제는 객사 뒤쪽만 조금 남았다. 부용산 자락의 성황사는 한국전쟁 뒤 부용초등학교를 확장하며 사라졌으며, 사직단과 여단은 어느 시기에 사라졌는지 모른다.

평택지역의 관아유적은 우리고장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소중한 보물이다. 비록 일제의 식민통치시기에 관아유적 대부분이 초등학교나 공공건물로 바뀌고 민가가 들어서버렸지만 찾아보면 아직도 발굴하고 보존해야 할 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다. 지난 해 평택시청에서 부용산 공원화작업을 한다기에 정상에 관가정을 복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다. 많은 시인 묵객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관가정을 복원하면 두리 다락말이라는 지명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고, 해평 윤씨 일가에 빼앗긴 관아 주산의 정체성도 찾을 수 있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해를 넘기고도 아직 소식이 없다.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한 여기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언제나 회복할까?(2011)



[옛 평택현 동헌자리였던 객사의 성관교회 일대 (2008)]

평택 유일의 '포의서원' 터

1.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요즘 세상은 간 큰 사람들이 대세다. 너도나도 자신의 간덩이가 크다는 사실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다. 국가 최고의 공직 후보자들이 불법과 탈세, 병역기피를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소신 없이 정당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하다가 선거법을 위반하여도 그까짓 것 어떠한 식으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만다. 정치적 신념과 도덕성은 국가의 얼굴이며 국민의 총복인 공직자들이 마땅히 견비해야 할 덕목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문제의식 없이 특별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이거나 우리사회의 별종쯤으로 치부한다.

기독교인들은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 신의 심판이 두려워 늘 죄를 회개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심판은 신(神)의 영역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누구랄 것도 없이 불법과 탈법, 부도덕에 오염된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완용처럼 아버지의 죄악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원죄(原罪)가 되어 영원히 계승된다는 사실, 결코 어떤 안 된다.

홍익한(1586~1636)은 병자호란의 때의 삼학사로 잘 알려졌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칭나라 오랑캐에게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저항했던 몇 안 되는 선비였다.

그러면 홍익한은 누구인가? 홍익한은 조선후기 유력가문이었던 남양 홍씨 출신이다. 또 공신(功臣)의 후손이었으며 당대 최고의 문장가 월사 이정귀에게 배웠던 엘리트였다. 36세에 합격한 과거시험마저도 학문과 당파로 인한 갈등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설움을 겪었지만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던 통 큰 선비였다.

2. 오랑캐에게 참수되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추앙받아

학문을 업으로 삼은 선비에게 뜻을 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무엇보다 소중한데, 하지만 남명 조식의 말대로 '나아갈 때와 물러 설 때'를 알아서 처신하는 것도 참된 선비의 자세

다. 홍익한은 인조반정 뒤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이괄의 난 때 인조가 공주로 피난하며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 실시한 공주행제시라는 시험에서였다. 공주지방의 인재를 뽑아 민심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로 실시한 과거시험에서 평택현 출신의 선비가 합격하였으니 난감하였겠지만 어찌든 홍익한은 행제시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관직으로 나아가서는 탄탄한 가문과 학문적 배경, 출중한 능력으로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섭렵하였다. 옥일승천하던 관로(官路)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여진족이 청(淸)을 건국하면서 균열이 생겼다. 세계 최강으로 성장한 청은 압잡아 보았던 어제의 오랑캐가 아니었다. 변화된 국제정세에서 조선의 선비들은 갈등했다. 광해군은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중립적 태도를 견지했다. 대외중립은 조선의 평화라는 실리를 얻었지만, 2백 년 넘게 사대의 예로 맺어진 명나라에 대한 배신을 의미했다. 서인들은 광해군과 복인정권의 행위를 명분과 의리가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광해군과 복인정권의 중립적 외교정책을 명분과 의리도 없는 비열한 행위로 비판하며 등장한 인조와 서인정권은 청을 중화(中華)의 나라로 떠받들 수 없었다. 국가야 어찌되었든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였다. 병자호란으로 인조와 조정의 대신들이 남한산성에 갇히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에도 서인 대다수가 척화(斥和)를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은 한편으로는 의리(義理)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렬한 표현이기도 하였다.

홍익한은 척화파의 중심인물이었다. 척화는 스승 이정귀를 비롯한 서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척화로 조선 선비의 자존심을 세웠지만 대가는 혹독하였다. 남한산성이 함락되고 조선이 굴욕적으로 항복한 뒤 척화를 주장했던 홍익한과 윤집, 오달제는 청나라로 잡혀갔다. 청나라에 잡혀가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던 홍익한은 가장 먼저 끌려나가 참살을 당했다.

청나라 심양으로 잡혀갈 때 인조는 홍익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아마 죽은 뒤 가족을 돌보는 것과 선양사업도 약속했던 듯하다. 하지만 죽은 뒤에도 조선은 청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홍익한의 선양을 미뤘다. 심지어 남인의 거두 허적은 '분위기에 휩쓸려 과격한 주장을 하였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물론 관점에 따라 허적의 지적이 타당한 측면도 있었지만 소신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 정적(政敵)에 대한 비판치고는 가혹한 처사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익한의 진정성은 만 천하에 드러났다. 척화의 소신이 개인 부귀와 영달이 아니라 조선이 지켜야 할 대의(大義)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준 것이다.

효종은 증직(贈職)을 내렸고, 송시열은 삼학사전을 짓고 묘표를 찬(撰)하여 충절의 상징으로 삼았다. 숙종 때에는 '충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지고 '송명반청의 대의를 지키고 군신(君臣)의 의리를 드러낸 인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팽성을 함정리에 포의사를 지어 배향하도록 하였다. 선양 분위기는 영, 정조를 거쳐 조선후기,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시절 충효(忠孝) 이념이 강조되면서 더욱 높아졌다.

홍익한의 묘와 포의사는 본래 함정1리 서원말에 있었다. 함정1리가 서원말로 불리게 된 것도 포의사 때문이다. 포의사는 처음 세워질 때는 사우(祠宇)로 건립되었다. 하지만 조선후기의 고지도에는 '포의서원'이라고도 표기하여 서원과 대동소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옛 기록에도 제향공간과 강학공간이 그려져 있어 서원과 같은 형태의 사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의사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 함께 있었던 향현사도 함께 사라졌다. 묘와 묘표는 일제 말 일본군 비행장이 건설되면서 길 한쪽에 치워놨다가 본정1리 꽃동산 기슭으로 옮겨졌다.

평택지역에서 '서원(書院)'으로 명명된 문화유산은 '포의서원'이 유일하다. 그러므로 팽성읍에 흩어져 있는 홍익한 관련 문화유산을 돌아볼 때 '포의서원 터'는 사적(史蹟)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 우리가 사상은 다르지만 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서 30년, 40년을 보낸 장기수들을 대단하다고 칭송하듯이, 홍익한의 신념과 행동도 같은 의미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소신 있는 선비가 그리운 시대다.(2011)



[팽성읍 함정1리 서원말의 포의서원터(2009)]

평택지역

성곽유적보존 시급하다

1. 평택지역에는 성곽유적이 많다

지난 주 평택시 문화유산해설사들과 함께 평택지역 성곽유적 답사에 나섰다. 평택시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성곽유적이 많지만 제대로 답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성곽유적 답사는 쉽지 않다. 산성은 산꼭대기에 있는데다 우리고장에는 도성(都城)이나 읍성(邑城)과 같은 평지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팽성읍의 평택현 읍성(邑城)에서 시작하여 안정리 농성(農城), 현덕면 덕목리성, 안중읍 용성리일대 성곽유적, 포승읍 석정리 장성과 도곡리 목장토성을 답사하기로 하였다. 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지역에 몇 개의 성곽유적이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해설사 선생님들은 대략 10개 내외라고 대답했다. 사실 평택지역에는 20개 가까운 성곽유적과 성곽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더니 대부분 깜짝 놀랐다.

성곽(城郭)이라는 용어는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성을 성(城)이라고 하고 외성을 곽(郭)이라고 하였던데서 유래되었다. 성곽에는 수도를 둘러싼 도성(都城), 고을을 둘러싼 읍성(邑城), 군사적 방어를 위해 수축한 산성(山城)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도성(都城)이나 읍성(邑城)은 평지에 쌓고 산성(山城)은 산위에 수축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성은 한 개 뿐이다. 반면 읍성은 고을마다, 또는 병영이나 수영과 같은 군사시설에 쌓았기 때문에 상당수가 남아 있다. 산성은 전국 각 지역에 매우 많다. 외침을 많이 받았던 지역에는 아주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곽(城郭)하면 산성(山城)을 떠올리는 것이다.

평택지역의 성곽에서 평지성은 수축시기가 논란 중인 안정리 농성, 진위현의 읍성으로 추측하는 견산리성, 평택현의 읍성으로 판단되는 팽성읍객사 뒤쪽의 성곽흔적, 고려시대 광덕현의 읍치(邑治)로 추정되는 덕목리성, 또 같은 시대 용성현을 비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용성리성, 포승읍 흥원리, 원정리 일대의 마장(馬場)을 보호하였던 석정리 장성과 도곡리 목장토성, 그리고 과거 평택현의 읍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팽성읍 예비군훈련장을 둘러싼 성곽을 꼽을 수 있다. 이 성곽은 18, 19세기의 평택현지도에도 그려져 있어 확

인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다.

산성유적은 안중을 덕우리 자미산성, 비파산성, 옥길리 무성산성, 지제동 태미산성 등 평지성보다 훨씬 많다. 자미산성, 비파산성, 무성산성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과 관련이 있다. 용성리의 용성리성, 강길마을성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용성리 설창마을 일대가 고려 시대 용성현의 읍치(邑治)였을 가능성과 설창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고덕면 방축리성과 지제동 태미산성, 동삭동 두리봉성은 과거 영신현 때 축성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축리성에는 임진왜란 때 사명당이 5천 명의 승군을 이끌고 주둔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아산만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게 한다. 진위면의 무봉산성과 부성, 견산리 산성은 읍성(邑城) 또는 읍성을 비호하기 위한 산성(山城)으로 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면 교통로나 지형상으로 덕암산이나 태봉산 등에도 산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다.

2. 안내판 하나 없는 성곽유적

평택지역에는 농성(農城)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정 성곽문화재만 6개가 있다. 이들 성곽들은 경기도박물관 등 유수한 문화재발굴팀의 발굴결과를 토대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안내판을 세우고, 유적과 주변 경관을 보호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 필자가 이번 답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성곽유적 가운데 안내판이 세워진 유적은 팽성읍 안정리의 농성(農城)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농성유적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었다. 체육공원으로 복원한 농성 앞에 임팔급이라는 인물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안내판에는 임팔급이라는 인물이 농성을 축성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소한 문화유산에는 객관적 연구를 토대로 안내판이 세워져야 한다. 농성은 발굴조사보고서에서도 축성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축성 주체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다. 발굴조사가 있기 전에는 인근 주민들도 임진왜란 때 오랑캐들이 쌓았다고 해서 이성(夷城) 또는 왜군들이 축성하여 왜성(倭城)으로 불렀던 만큼 임팔급이 쌓았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경기도지정문화재에 '임팔급 축성'이라는 내용을 명기하고 공원 안에 동상까지 세웠다는 것은 분명 크나큰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농성은 나은 편이다. 현덕면 덕목리성의 경우에는 아예 안내판조차 없다. 그것은 용성리, 덕우리 일대의 자미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포승읍의 석정리 장성 등도 마찬가지다. 안내판조차 없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덕목리 성의 경우 덕목4리 마을이 들어선 동성(東城)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릉과 밭으로 형성된 서성(西城)만큼은 보존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거의 방치되고 있는 석정리 장성(2012)]

서평택일대의 역사적 정체성을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은 석정리 장성과 도곡리 목장 토성이다. 도곡리 목장토성은 본래 원정1리 곡교마을에 있던 것을 옮겨 복원하였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적다고 해도, 흥원마장의 존재를 증명하는 석정리 장성은 복원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성혜2리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일부 구간만 남아있는 성곽은 현재 나무가 자라고 풀이 무성한데다 함부로 훼손되고 있어 조만간 흔적조차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의 문화유산이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 역사적 교훈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답사 도중 집안과 학벌을 자랑하는 어떤 인사를 예로 들며, 평택시민들도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데도 자꾸 다가가서 우리지역을 자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하는 것은,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역사적으로 재해석하여, 역사가 전해주는 세미한 교훈에 귀를 기울였을 때 가능하다. 평택시 당국도 새로운 인식과 분발이 요구되지만,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2012)

용성리는 산성(山城) 마을

1. '용성(龍城)'이라는 지명

최근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동삭동에 건설될 공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대화 가운데 화두(話頭)는 '평화'라는 단어였다.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세상은 모두가 꿈꾸지만 '평화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미군주둔에 의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룬다거나 또는 가진 자와 빈곤한 자가 소유에 상관없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평택지역은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전쟁이 많았던 것은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도로교통과 수로교통이 발달했던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가장 큰 전쟁은 고려 말 왜구의 침략과 임진·정유년의 소사벌대첩. 그리고 근대에 있었던 청일전쟁과 한국전쟁이다. 전쟁은 인명을 살상하고 국토를 황폐하게 하며 수 천 년 이어져 내려온 문화유산을 파괴한다. 사람들의 마음도 강박하게 하여 인심을 사납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평택지역의 '평화'는 이처럼 역사성에 기반 해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동북아의 국가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며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고려시대 평택지역에는 16개 정도의 행정구역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서평택 일대에는 용성현, 광덕현을 비롯해서 오타장, 신영장, 포내미부곡, 육내미부곡, 감미부곡 등 7~8개 정도의 행정구역이 있었다. 당시 안중읍 용성리, 학현리, 덕우리 일대에는 용성현이 있었다. 용성현은 5세기 고구려가 남하했을 때 '거홀현'이라고 부르다가, 통일신라 때에는 '거성현'으로 바뀌 불렀고, 고려시대에 용성현이 되었다. 고을의 중심은 안중읍 용성리 설창마을에 있었다. 설창마을은 서북쪽으로 무성산, 비파산, 자미산, 동쪽으로는 안산과 삼정승산이 보호해주었고, 남동쪽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천혜의 요새였다.

천혜의 요새에 현(縣)이 설치된 것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과 함께 고려 후기에 설치되었을 '설창'과 관련이 있다. 설창은 세곡을 보관하던 조창(租倉)이었다. 조창은 본래 청북면 어소리 '구설창'에 있다가 고려 말 용성리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설창의 이전은 조수(潮

水)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조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고려 말 왜구들은 해운로(海運路)를 장악하고 조운선을 약탈하거나, 삼남의 해안가에 위치한 조창(漕倉)을 공격하였다. 팽성읍 일대가 왜구의 침입을 많이 받았던 것도 하양창이라는 조창이 있었기 때문이다. 용성현에는 공민왕 7년에 처음으로 왜구가 침입하였다. 충청도 면주(당진지역)를 침입한 왜구가 용성현까지 불태웠고 공민왕 9년에도 침입하여 약탈하였다. 공민왕21년에는 양광도(경기남부, 충청도 일대를 관할하였던 행정구역) 도순무 사 조천보가 용성현에서 왜구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2. 용성리 일대의 성곽은 왜구격퇴의 흔적

왜구의 침입은 조정의 골칫거리였다. 백성의 안위도 문제였지만, 조세운송의 어려움으로 국가운영이 패닉상태에 빠져버렸다. 고려 말 용성리 일대에는 무성산성, 자미산성, 비파산성, 용성리성, 강길마을성 등 모두 5개의 성곽이 신축되거나 보수되었다. 성곽들은 용성리 설창마을을 중심으로 축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설창마을은 정복 불가능한 요새처럼 보인다.

무성산성, 자미산성, 비파산성은 용성리 서쪽을 방어하는 산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산성은 자미산성이다. 경기도박물관의 발굴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미산성은 본래 산봉우리에 쌓은 퇴폐식 토성이었다가, 나중에 석성(石城)으로 다시 쌓았다고 한다. 돌로 쌓은 석성은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어른 키 높이의 성곽이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관리가 소홀해지는 틈을 이용해 주민들이 성곽의 돌들로 구들을 놓고 축대를 쌓으면서 이제는 무너진 잡석들만 남아 있게 되었다.

용성리성은 설창마을 입구 작은 구릉에 있다. 조선후기까지만 해도 마을 입구에는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성곽은 조수(潮水)를 이용하여 침입하는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길마을성은 국도 39호선 건너편 강길마을 뒤편에 있다. 강길마을은 포승읍 만호리의 대진과 현덕면 권관리의 계두진에서 수원을 거쳐 한양으로 나가는 길목이었다. 산성은 용성현의 보호와 육로를 통하여 침입하는 왜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택지역에는 용성리 일대의 성곽유적 외에도 15개 내외의 성곽과 전쟁유적이 있다. 성곽은 미군기지나 군부대처럼 '전쟁'과 관련 있다. 우리가 전쟁관련 유적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것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서다. 평화로운 동북아, 평화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쟁관련 유적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의 해야 한다. 그것이 산성유적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다. (2011)

평택에는 망해산봉수도 있다

1. 봉수(烽燧)는 근대이전의 통신수단

봉수는 근대이전의 통신수단이다. 무전이나 전화가 없던 시절에 왜적의 침입을 중앙에 신속하게 알리는 일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였다. 봉수가 군사적 통신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삼국지에서도 형주를 지키던 관우가 곳곳에 봉수를 설치하여 오나라의 침략을 방비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봉수를 이용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려시대부터 체계적인 봉수제도가 시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 목멱산 봉수를 중심으로 5개의 봉수로를 설치하였다. 왜적의 침입이 빈번했던 북쪽에는 3개의 봉수를 설치하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남쪽에는 2개의 봉수를 두었다. 평택지역에는 전남 여수의 방답진에서 한양까지 연결된 제5봉수의 직봉(直烽)이 지났다. 제5봉수는 왜구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그래서 남서해안을 따라 봉수가 설치되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최단거리로 연결된 직봉(直烽)과, 군사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직봉과 연결시켰던 간봉(間烽)으로 구분되었다. 봉수대 위에는 불과 연기를 피울 수 있는 5개의 봉돈이 갖춰졌고, 통상 5명가량의 봉군(烽軍)이 상주하였다. 봉군은 봉수를 관측하는 일과, 불과 연기를 피울 수 있는 싸리나무와 소똥, 말똥을 준비하는 일을 하였다.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여수 방답진에서 봉수를 올리면 한양까지는 12시간이면 연락이 닿았다.

2. 평택에는 망해산 봉수도 있다

평택지역에는 포승읍 원정리 괴태산의 괴태길곶 봉수와 팽성읍 신대리 봉우재에 망해산 봉수가 있었다. 조선시대 포승읍 원정리의 괴태산은 '봉화산'이라고도 불렸다. 망해산은 팽성읍 신대리 뒷산이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망해산은 직산현 경양면이었기 때문에 경양산이라고도 하였고, 근자에는 봉우재 또는 돌산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망해산 봉수에 대한 기록은 충청도 직산읍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직산현편에만 수록되었다. 더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 경양현이 폐현(廢縣)되었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경양면

의 위치가 어디인지, 망해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괴태길곶 봉수가 평택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관심과 관리를 받는 동안 망해산 봉수는 전혀 기억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재밌는 사실은 봉수가 있었던 봉우리에는 어김없이 '봉화' 또는 '봉우재'와 같은 지명이 붙어 있고, 대부분 레이더기지와 같은 군사시설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 그것은 현대적 의미의 레이더와 근대이전의 봉수가 설치목적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망해산 봉수에도 군부대가 주둔하였고 레이더기지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다. 주민들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만 해도 산 정상부에는 봉돈으로 사용하였던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주위에는 돌로 쌓은 담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조선시대 봉수대가 장방형의 단 위에 설치하고 화재를 막기 위해 주변에 돌담장을 쌓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조선 초기 견고하게 구축되었던 봉수로는 임진왜란 이후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그것은 전란이 발생하였을 때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태는 봉돈의 정비가 불량했거나 봉수군의 나태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양난(兩難) 이후에는 봉수보다는 파발을 주로 이용하였다. 아무래도 도구를 이용한 통신보다는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다. 병자호란 뒤 250여 년 동안 전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도 봉수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현재 포승읍 원정리 괴태길곶 봉수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수용되어 정월 초하루 해돋이 행사를 할 때만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망해산 봉수는 그것보다 못해서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발간되는 향토지에도 거의 실리지 않고 있다. 우리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2011)



[현덕면에서 바라본 망해산 봉수(2004)]

평택에도 미륵이 산다

1. 미륵은 '미래에 오실 부처님'

안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안성장, 남사당, 미륵이다. 안성은 미륵의 고장이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궁예미륵, 대농리 미륵, 아양동 미륵은 안성이 미륵의 고장임을 말해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택도 미륵의 고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미륵은 미래불(未來佛)이다. 53억 6천만년 후에 재림하여서 극락왕생하지 못한 민중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미륵세상을 연다는 부처님이다. 미륵세상은 모두가 평등하고, 억압과 착취가 없으며, 배고픔과 슬픔이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민중들은 삶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을 때 미륵을 염원했다. 19세기 세도정치기에 미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후세무민할 수 있었던 것도 미륵신앙이 갖고 있는 혁명성 때문이다.

근대이전 평택은 고통 받던 민중들의 땅이었다. 민중들은 지배층이 거들떠보지 않던 갯벌에 독을 쌓고 간척을 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 때로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던 빈농들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정착하였던 곳도 평택이었다. 근대 이후 대규모 간척으로 경작지가 확장되자 농지를 얻어 정착한 사람도 있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오갈 곳 없던 피난민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삶의 터전을 잃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기 위해 찾아든 평택이었지만 결코 이곳도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악귀같은 관리들과 지배층은 여전히 민중들을 착취하였고, 조수 간만의 차가 10미터가 넘었던 바닷물은 애써 농사지은 곡식을 쓸어 가버렸다.

억울하고 막막한 삶에서 미륵은 유일한 위로자요 희망이었다. 미륵세상에 대한 염원은 잠시나마 배고픔과 고통을 잊게 하였다. 그래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미륵을 만들었다. 10리, 20리 밖에 모셔진 미륵을 찾아 정성껏 치성도 드렸다.

2. 평택은 미륵세상이다!

평택시 소사동은 삼남대로의 관문이였다. 마을 앞 소사천으로는 배가 닿았고, 마을을 가로질러 큰 길이 지났다. 인마(人馬)가 왕래하다 보니 장시도 개설되었다. 여행자들의 식당

이며 숙소 구실을 하였던 소사원도 있었으며, 조선 후기에는 호서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였던 영의정 김육의 '대동균역시혜불망비'도 세워졌다. 정유왜란, 청일전쟁도 소사동에서 전개되었다. 사람의 왕래가 잦고 전쟁이 발생하면 민중들은 고통을 받는다. 혹여 임금이 온양행궁으로 온천욕을 가느라 마을을 지날 때면 도로를 보수하고 접대비율을 마련하느라 등골이 빠졌다. 그래서인지 소사1동 옛 소사원 옆에는 미륵당이 있다. 미륵은 직사각형의 돌방에 모셔져 있는데, 1미터 50센티 정도로 작은 규모지만 소박한 미소가 정겹다. 소사동 미륵은 할아버지 당신(堂神)과 함께 오랫동안 할머니 당신(堂神)으로 모셔졌다. 그러다가 20여 년 전 당제가 중단되면서 근처의 무속인들과 신자들에 의해 신앙되고 있다.

팽성을 남산리 용화사에도 미륵님이 계시다. 용화사는 '남산리 사지'라고 명명된 유적인데, 한국전쟁 이전에는 거대한 돌미륵이 있어 주민들의 신앙처가 되었다. 그랬던 것을 현재 주지로 계시는 황병례 스님이 미륵전을 짓고 모시게 되었다. 미륵은 하반신은 땅에 묻혔고 상반신만 드러났는데도 규모가 안성의 대농리 미륵이나 아양동 미륵보다 크다. 얼굴에 두껍게 바른 금칠만 벗겨내면 소사동 미륵같은 인자한 미소까지 진건할 수 있겠다.

고덕면 방축리 서천사에도 미륵이 있다. 서천사는 해동중 계통의 사찰로 1352년 나옹화상이 창건하였다고 알려졌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사명당이 5천 명의 승병을 이끌고 주둔하였다는 전설도 전해오며, 이괄의 난 때에는 동조세력들이 불을 질러 전소되기도 하였다. 서천사가 중건된 것은 1870년이다. 절을 중창한 동파스님이 석조여래입상을 발견하여 미륵전을 짓고 모시면서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미륵전에 모셔진 부처님은 상채만 노출되었지만 경기남부에서 유행했던 거대미륵이 분명하다. 동파스님이 당호를 미륵전이라고 하였던 것도 '미륵불'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도일동 셋골 덕암선원의 부처님도 미륵이다. 덕암선원은 셋골마을 뒤편에 있는데 본래 미륵이 있던 것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원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평택지역에도 곳곳에 미륵이 있다. 어쩌면 용성리 약사사와 도일동 팔룡산 계곡의 약천사 부처님도 민중들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약사불이므로 넓은 범주로는 미륵으로 여겼을 수도 있겠다.(2011)

충효(忠孝)의 상징 양계충효정문

1. 명장(名將)을 배출한 원주 원씨 가문

도일동 덕암산 자락은 역사의 고향이다. 신석기, 청동기시대를 거치며 터를 잡은 평택지역의 조상들은 처음에는 바다나 하천과 가까운 구릉지대에 자리를 잡았다가 농경이 발달하면서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에 마을을 일구었다. 도일동 덕암산계곡은 무봉산 자락과 함께 대표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뒤로는 덕암산이 있어 계곡을 이용한 농경에 적합했고, 남쪽으로는 도일천이 흘렀다. 팔룡산과 칠원동 산지붕과 이산매산, 서쪽의 부락산은 마을을 비호해주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도일동에는 '석씨 천 년, 소씨 천년, 원씨 천년'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석씨가 터를 잡아 천 년을 살았던 곳에 소씨가 들어오고, 나중에 원씨가 입향하여 지금껏 살고 있다는 말이다.

원주 원씨 도일동 입향조는 원몽이다. 원몽은 처가가 있는 도일동으로 이주하여 셋골마을에 정착하였다. 원씨 가문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원몽의 증손자 원준량(?~1557)과 원국량 때이다. 원준량은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간 뒤 진라, 경상좌우도 수군절도사를 비롯하여 경상좌우도 병마절도사, 길주목사를 지내며 명성과 재물을 얻었다. 원준량의 아우 원국량은 학문으로 사마시에 합격하여 직장(直長) 벼슬을 지냈다.

원준량의 아들 대에서는 가문이 더욱 번창하여, 큰아들 원균은 무과에 급제한 뒤 여진족을 토벌하여 큰 공을 세웠고, 왜란이 발생하자 경상우수사, 충청병사, 삼도수군통제사 등을 지내며 공을 세워 이순신과 함께 선무1등 공신 원룡군에 올랐다. 원균의 아우 원연(1543~1597)은 학문으로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왜란 중에는 의병을 일으켜 용인과 진위 태봉산일대에서 승리를 거둬 적성현감에 제수되었다. 또 다른 아우 원전(?~1597)은 원균과 함께 종군하여 임금의 칭찬을 받았고, 원균의 아들 원사용은 종군하여 원균과 함께 칠전량 해전에서 전사하였다. 원연에게는 원사립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원사립(1569~1610)은 어려서 숙부 원전에게 입양되었는데, 선조24년(1594) 23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군기시부정을 지냈고, 정유재란 때에는 서천군수로 있으면서 왜적의 약탈을 방어하였다. 이처럼 원주 원씨 집안은 왜란을 전후하여 걸출한 무인들을 많이 배출하였고 무예와 학문으로 평택지역의 대표 가문이 되었다.

2. 충효(忠孝)로 가문을 빛낸 원연과 원사립

두 주 전 송탄기쁜어린이도서관 식구들과 도일동을 답사하였다. 대체로 도일동 답사는 원균장군 묘에서 원릉군 사당까지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도일동 마을들을 걸으며 몸으로 느끼는 답사를 기획하였다.

조선시대 진위현의 사창이 있었던 도일동 사창이 마을 뱃터에서 출발하여 진달래와 산수유, 개나리가 수줍게 꽃피운 황성말(황새울)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올라갔다. 황성말과 배낭골 중간에는 이성부의 충절정문이 있다. 이성부(1583~1624)는 정조의 9세손으로 도일동 원주 원씨 집안이 외가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고, 도총부도사, 문천군수를 거쳐 가선대부에 올랐다. 그 뒤로도 만포첨사 상로대장군에 올랐으며, 인조반정 때는 서인들과 합세하여 이괄과 함께 선봉에 섰다. 인조반정 뒤 강화부사로 나갔고 자헌대부에 올라 훈원원 도정을 지냈다. 이괄의 난이 발생하자 우방어사로 평산의 석장현에서 싸웠지만 패하여 자결하였다. 난이 평정된 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1624년(인조2) 충신정문이 세워졌고,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충절정문을 지나 댓골 배낭골로 오르다 ‘놀명쉬명’ 야트막한 고개를 넘으면 원몽이 입향하였던 셋골이다. 아직도 대 여섯 집에 불과한 셋골은 구불구불한 마을길이 아름답다. 셋골을 지나 우측 골짜기 방향으로 길을 잡으면 카페 ‘다 앤 인 하우스’가 있는 안골이다. 진주 소싸와 혼인관계로 입향한 원주 원씨가 성장하면서 분동된 마을이며, 종가(宗家)가 자리 잡았던 곳이다. 안골에 자리잡았던 원주 원씨 도일동 종가는 종손 원만주, 원백주 등이 이인좌의 난에 깊숙이 관여하는 바람에 큰 화를 입어 마을을 떠났다.



[도일동 안골마을의 영세충효정문(2012)]

안골 입구에는 양세충효정문이 있다. 양세(兩世)는 원균의 동생 원연과 아들 원사립을 일컫는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원연은 생원시에 합격한 뒤 평택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로 생존 시에는 적성현감에 제수되었고, 1679년(숙종 5)에 충절정려가 내려졌으며, 1829년에는 통정대부 이조참의로 추증되면서 거듭 충절정려가 내려졌다. 원사립은 서천군수로 있을 때 양부(養父) 원전이 칠전량 전투에서 원균과 함께 전사하였다. 하지만 전란 중인데다 나라의 명을 받고 적을 방어하는 치지라고 하여 상복을 입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였고, 왜란 뒤 진주목사의 임기를 마친 뒤에야 3년 상을 치렀다. 나중에 모친상을 당하여서도 정성껏 3년 상을 받들어 1805년(순조 5) 효자정려가 내려졌다. 양세충효정문은 본래 두 분의 정려를 모셨지만 나중에 원길상(1759~1818)의 효자정려까지 함께 모시면서 현재는 삼세충효정문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충신, 효자, 열녀 정문은 고을이나 마을에 큰 자랑거리였다. 가문의 입장에서 학문, 관직과 함께 명문가의 징표가 되어서 집안의 큰 명예로 여겼다. 원씨 가문이 지금까지도 명문가의 위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공신(功臣) 가문이라는 명예에 충효(忠孝) 가문이라는 자긍심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2011)



충신정려를 받은 원연의 묘(2012)

개항기 영의정을 지낸 심순택 옛집

1. 시류(時流)를 따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삶은 끝임 없는 선택을 요구받는다. 달콤한 보수 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험하고 거친 진보에 설 것인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 비겁하게 살 것인가? 이 같은 요구는 비단 우리만 겪는 일은 아니다. 역사를 살아온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형편과 처지에서 선택을 요구받았다.

개항기는 격동기였다. 수천 년 이어져온 역사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던 시기였다. 민감한 젊은 청년들은 급격하고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정권을 책임진 중, 장년 세대들은 변화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한 수 아래로 여기던 오랑캐들과 몸과 말을 섞고, 사상과 문화를 섞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들이 자랑하는 물질문명은 철인(哲人)의 나라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근본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격동기의 패러다임을 살아온 인물 가운데 심순택이 있다.

심순택(1824~1906)은 개항기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다. 봉당으로는 노론(老論)이었고, 본관이 청송으로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다. 지역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로열패밀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조건이었다. 관직도 순탄하여 26세에 과거급제를 한 뒤에는 주로 옥당(玉堂=홍문관)과 삼사(三司)에서 활동하였고, 개항 전후에는 판서, 관찰사, 세자시강원 좌빈객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시대가 순탄했다면 있는 권세, 없는 권세를 모두 누리며 인생의 호사를 즐겼을 것이다. 하지만 격동의 시대는 그에게도 선택을 강요하였다.

예조판서, 이조판서와 같은 핵심요직에 있을 때 강화도조약(1876)이 체결되었다. 강화도조약은 이전 정권인 흥선대원군의 통상거부정책(쇄국정책)과는 근본부터 다른 세상을 열었다. 세상은 개화와 보수 둘로 갈렸다. 그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갈등이었고,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대결이었다. 심순택은 위정척사에 설 것인가 개화파에 설 것인가 갈림길에서 서성거렸다. 평생의 가치관이었던 성리학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시

대의 갈림길에서 우물쭈물하던 심순택은 결국 권력의 우두머리로서 정권을 대변하는 행보를 걸었다.

2. 말년에 평택과 인연을 맺어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정부는 청나라 양무운동의 개혁방식을 선택하였다. '동도서기(東道西器)'라는 개화정책 방향은 양무운동의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동도서기는 청나라처럼 제도는 바꾸지 않고 서양에서 군사기술, 산업기술을 받아들여 군비증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정책이었다. 그것은 중국의 사상과 문화가 서양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의 발로였지만 서양문화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정부가 선택한 개화정책은 심순택이 정치 속에서 실천해야 할 정책이기도 하였다. 개항 이후 그에게 맡겨진 관직이 그것을 대변한다. 갑신정변(1884)의 실패 뒤 수립된 친청정권에서 심순택은 영의정에 올랐다. 영의정에 있는 동안 거문도사건, 방곡령사건, 동학교도들의 복합상소를 겪었고,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개화정책을 이끌어야 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발생하자 심순택은 정부쪽 입장에서 농민군 진압에 앞장서는 한편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 같은 행위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개혁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친청파 성향의 정부고위관료로서 자신의 소임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관파천에서 환궁한 뒤 성립된 광무정권(1897~1905)에서는 수구세력의 대표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당시 심순택의 행동은 '수구'라는 단어가 적합할 만큼 철저하게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이익에 부합된 행보를 보였다. 서재필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시도하였던 독립협회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심순택의 정치적 행보는 독립협회로부터 '탐학한 대신'으로 지탄을 받았다. 독립협회의 탄핵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고종은 그를 야인으로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만큼 심순택의 정치적 행보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친왕실적이었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창녕공' 같은 귀족의 작호를 받은 것도 이때쯤이다. 이처럼 심순택의 인생은 격동의 시대에 왕권과 정부의 입장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삶이었다. 결과 죽을 때까지 권력의 상층부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렸고, 개인의 사상이나 입장보다 정부와 왕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고종의 신임을 듬뿍 받았다. 심순택은 을사조약 이듬해 사망하였다. 소문으로는 을사조약 반대와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고 두문불출하다가 자결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3. 가문의 몰락처럼 고택(古宅)도 허물어져

진위면 봉남리 동부마을 위쪽에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다. 사랑채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안채도 기와에 풀이 나고 서까래가 내려앉았다. 민밭치에서는 폐가(廢家)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보면 사람도 살고 있고 규모도 상당한 고가(古家)임을 확인할 수 있다. 허물어져가는 기와집은 고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심순택의 옛집이다. 옛집은 심순택의 며느리가 일찍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기사 근처에 지은 것이었다고 한다. 상량(上樑)에 적어 놓은 공사감독도 만기사 승려로 추정되는 김득수여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며느리가 이곳에 머물면서 나중에는 관직에서 물러난 심순택 부부도 낙향하였고 임종도 이곳에서 했다. 사망한 심순택은 고택 서북쪽 산등성이에 안장되었다. 지금도 묘역에는 묘비와 신도비가 세워져 있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 심순택이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심씨 가문은 손자 대에 절손되면서 심순택 사후 양자를 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들이는 양자마다 변변치 않았고, 해방 뒤에는 농지개혁으로 소유 장토평마저 분배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졌다. 그래도 1940, 50년대까지는 위세를 유지하여, 제삿날이 되면 소작농과 산지기의 부인들을 동원하여 크게 음식을 장만하였다고 한다. 심순택의 부인 능성 구씨는 1912년 고택 아래쪽에 구씨학원이라는 근대학교를 세워 청소년들을 키웠다. 또 흥년에는 농장을 소작하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데도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 구씨학원은 1920년대 금릉학원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해방 후 이것이 바탕이 되어 진위중·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2011)



[봉남리 심순택 고택

명창 이동백의 집터는 사적(史跡)

1. 19, 20세기는 명창(名唱)들의 시대

계급사회에서는 음악도 지배층의 것이었다. 나라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거나 의례를 행할 때도 음악이 사용되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음률(音律)'을 아는 것은 선비들의 중요한 교양이었다. 그래서 지배층이 정해 놓지 않은 음률을 사용한 음악은 격(格)이 낮은 것으로 천시했다.

하지만 계급과 권위의 시대는 영속할 수가 없었다. 조선 후기 봉건적 지배체제가 흔들리고 민중의식이 성장하면서 민중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새로운 문학과 음악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판소리는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토양 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대중음악이었다. 소리꾼과 고수 단 둘이서 펼쳐내는 음악과 다양한 퍼포먼스는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는 대중들에게는 단비처럼 반가웠다.

우리 역사에서 판소리는 3백년 역사를 헤아린다. 전설의 명창들이 주도했던 18세기를 거쳐 19세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판소리는 화려한 문화의 꽃으로 만개하였다. 소리꾼을 후원하는 권력가나 재력가가 등장하였고, 소리를 업으로 삼는 전문 소리꾼들이 팔도를 누비며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19세기를 풍미했던 소리꾼들은 전기 8명창과 후기 8명창으로 구분된다. 판소리 역사의 토대를 닦은 전기 8명창에는 가왕(歌王) 송홍록과 평택(진위)출신의 명창 모흥갑이 있었다. 모흥갑은 어려서부터 소년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고, 평양 연광정에서는 특유의 고통상성으로 10리밖에서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성량을 보여주었다. 송홍록에게 '가왕'의 칭호를 붙여준 것도 그였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송홍록과 모흥갑을 시대가 가고 후기 8명창시대가 뒤를 이었다.

19세기 후반의 후기 8명창은 왕실과 권력가, 양반지배층의 후원을 받아 다채롭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전후 근대 5명창(또는 6명창)시대가 열렸다. 근대 5명창시대에는 서양문화의 영향으로 무대공연이 일반화되었고, 창극(唱劇)이라는 판소리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또 판소리가 지배층의 방안놀음으로 전락하면서 이들의 정서와 어울리는 춘향

가나 심청가, 흥보가 등이 인기를 얻은 반면, 민중적 정서가 짙은 변강쇠타령, 강릉매화타령, 무속이타령이 점차 사라져간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2. 이동백은 근대 5명창 가운데 으뜸

이동백은 근대 5명창의 으뜸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 송만갑이나 김창환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성량이나 소리의 즉흥성, 대중성에서는 이동백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 이동백의 고향은 충남 서천이다. 어려서 중고제의 명창 김세종에게서 배웠지만 나중에는 동편제도 공부하였으므로 딱히 중고제의 명창이랄 수 없다. 20대 초 진주와 창원에서 소리공부를 하던 이동백은 경상감사 이지용 앞에서 판소리 적벽가를 부르면서 순식간에 유명해졌다. 45세에는 서울로 올라와 송만갑, 김창환 등과 창극운동을 이끌었고, 고종황제 앞에서 소리를 하여 소리꾼으로는 유래 없이 정3품 통정대부를 받았다. 이름대신 불리지는 '이통정'이라는 칭호는 통정대부라는 벼슬에서 유래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송만갑과 협률사와 조선성악연구회를 중심으로 창극공연과 판소리 후계자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송만갑이 사망하면서 흥미와 동력을 잃어 1939년 판소리 명창으로는 처음으로 서울 부민관에서 '이동백 은퇴 기념공연'을 개최하고는 은퇴해버렸다.

이동백이 평택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39년 은퇴하면서부터다. 말년에 얻은 부인의 친척이 칠원2동 새말에 살았고, 처가가 원곡면 반제리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말에 정착한 이동백은 1950년 사망할 때까지 만 10년 동안 평택에 거주하였다. 새말 노인들에 따르면 이동백은 흰철한 키에 잘생긴 외모, 딱두꺼비같은 손을 가졌다고 한다. 때때로 흥이 나면 작은 북 하나만을 지고 마을 뒤 이산매산에 올라 소리를 하였다. 전해오기는 산을 오르며 노래를 짓고 정상에서 하루 종일 노래하다가 다시 내려왔다고 한다. 그가 죽었을 때에는 경향각지의 인사들과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서울 기생들이 운집하여 장관을 이뤘다고 한다.

이동백의 묘는 이산매산 동쪽에 있었다. 그러다가 40여 년 전 무덤 안에 물이 차고 시체도 새까맣게 변색되는 바람에 화장을 해버렸다. 혼자 남은 부인은 언덕배기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겨 마을사람들의 점도 봐주며 살다가 사망하였다. 선생이 거처하였던 옛집은 유류창고로 변해버렸다. 근래에 사진촬영을 시도했는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촬영을 못하게 막아 사진 한 장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의 소리를 배운 제자들 가운데는 강장원 명창이 뛰어났지만 일찍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는 뚜렷한 인물이 없어 소리마저 끊겼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창에 대한 후대인들의 예우치고는 너무 각박하다 아니할 수 없다. (2011)

옛 시로 읽는 평택의 풍경(1)

1. 우리는 '느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람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가을에 비유한다. 가을은 청명하고 풍요로운 계절이기 때문이다. 가을하늘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마저도 활짝 열어젖히게 한다. 사랑하는 법을 잊었던 사람에게는 사랑을 알게 한다. 시인 윤동주도 인생의 황금기를 가을에 비유하였다. 그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 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였는지 물어볼 것입니다'라고 읊었다. 그에게 사랑은 이웃과 형제일 수도 있고, 해방세상을 간절히 염원했던 조국일 수도 있다. 시인도 종환도 '가을사랑'이라는 시에서, '당신을 사랑했을 때의 내 마음은 가을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 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이제 나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노래하였다. 그에게 '가을'은 윤동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성이 풍부했던 시인 박재삼은 '울음이 타는 가을'에서, '마음도 한 자리에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려면, 어느 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라고 진한 정서로 노래하였다.

우리는 순간순간 새로운 느낌과 마주선다. 필자의 지인들 중에는 등산 마니아들도 많고, 휴일마다 가족이나 이웃들과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방학 때면 해외로 달음질치는 사람도 여럿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등산은 등산으로 끝내고, 여행은 여행으로 끝낸다.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과 풍경, 삶의 성찰을 글로 남기는 사람은 매우 적다. 자신의 '느낌'을 글이나 그림, 사진으로 남기는 습관은 선비의 자세다. 진정한 선비는 순간순간 만나는 풍경과 깨달음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 발길 닿는 곳마다 시문(詩文)을 남겼던 선비들

필자는 이런 저런 잡글을 즐겨 쓴다. 본래 타고난 글쟁이는 아니어서 써 잘 쓰지는 못하지만 성실함만은 인정받고 있다. 붓 가는 대로 써낸 글은 지인들과 나눠 읽는다. 내 생각과 감정을 지인들과 공유하고 즐기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성실한 글쓰기의 필요성은 조선시대 선비들에게서 배웠다. 선비들은 발길 닿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머문 곳마다 시와 글을 남겼다. 그래서 보잘 것 없는 고을 진위현에도, 코팍지만한 평택고을에도, 삼남대로의 역원(驛院) 갈원과 소사원에도, 안성천변의 대진과 계두진에도 훌륭한 작품들이 남아 있다. 오늘 역사기행은 옛 문화작품에 남겨진 평택의 풍경이다. 시인 묵객들의 눈에 비친 평택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목은 이색은 고려 말기의 대학자이다. 이제현에게 배웠고, 공민왕 때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정몽주, 정도전, 이숭인, 김구용, 길재, 권근, 변계량 같은 쟁쟁한 학자들을 길러냈다. 공민왕 때의 수많은 개혁정책들도 그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위화도회군 뒤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다 장단과 함창에 유배되었으며, 조선건국 후 그의 뛰어난 재주를 아까워 한 태조 이성계가 한산백에 책봉하며 불렀지만 거절하고 여강으로 가던 도중 죽었다.

이색의 고향은 충청도 한산이다. 한산으로 가려면 갈원과 평택고을을 거쳐 예산과 보령을 지나야 했다. 어느 날 고향으로 향하던 이색은 평택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일정이 바빴던지 늦은 저녁에 도착하여 이른 아침에 떠나는 바쁜 여정이었지만, 추녀 끝에 매달린 이슬처럼 아름다운 시(詩) 한 수를 남기고 떠났다.

땡거미에 물 건너 조그만 마을 들어가니
 숲 그늘은 어둑하고 시립문은 닫혀 있네
 새벽에 이부자리서 밥 먹고 길을 나서서
 돌아보니 먼 봉우리에 아침 해가 뜰누니

(渡水黃昏入小村)
 (樹林陰翳掩柴門)
 (五更蓐食登前路)
 (回首遙峯上曉暉)

—목은시고 제4권

3. 소사(素沙)를 읊은 조익의 절창(絶唱)

포저 조익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정치가다. 성리학의 대가로 예학(禮學)에 밝았으며, 사헌부 대사헌, 예조판서를 거쳐 효종 때에는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다. 잠곡 김육과 함께 대동법시행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치적을 많이 남겼다. 그의 고향은 충청도 신창이다. 신창은 군물포에서 배를 타거나, 소사교와 아교 그리고 성환과 팽성 사이의 맹간교를 건너는 것이 지름길이다. 어느 여름, 남행하던 조익은 소사원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다. 아마 소사교와 아교를 건너 천안과 아산을 지나려고 했던 듯하다. 소사원에 이르니 북쪽으로 야트막한 당산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마을 앞으로는 소사전이 고요하게 흘렀다. 맑은 하늘 초승달에 비친 어둑한 다리 위에는 청량한 미풍이 불었다. 아름다운 풍경에 시심(詩心)이 동했던 시인은 붓을 들어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시 몇 수를 써내려 갔다.

질펀히 퍼진 맑은 강물 고요하고도 잔잔한데 (浩浩澄江淨且平)
 묽은 구름 속 초승달이 거꾸로 매달려 빛나누나 (淡雲微月倒空明)
 높이 걸린 다리 위에 가없는 바람과 이슬이여 (無邊風露危橋上)
 심신이 홀연히 곱절이니 청량함을 느끼겠네 (頓覺身心一倍清)

달이 머문 물결 속은 금을 깔아 놓은 듯 (月留波裏爲金地)
 공중에 매달린 다리는 바로 목천이로세 (橋在空中是木天)
 지금 갈리는 길목에서 별천지를 만나다니 (歧路卽今成異境)
 티끌세상 속의 몸이 신선이 된 것 같구나 (塵寰偶此似登仙)

물의 표면은 고르기가 거울과 같고 (水面平如鏡)
 다리 모양은 구부러져 그림쇠 같네 (橋形曲似鉤)
 밤이 깊어 인적도 모두 끊어지고 (夜深人過盡)
 밝은 달만 강물 속에 가득하누나 (明月滿江流)

—포저집 제1권

4. 다산 정약용도 평택고을을 지나며 시(詩)를 남겨

평택지역은 사족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글 읽는 선비가 적다보니 남긴 글과 시도 많지 않다. 하지만 시통팔달 교통이 발달하여서 스쳐 지나간 명현들이 많았다. 다산 정약용이나 청장관 이덕무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다산문집에는 '평택현에 당도하여' 라는 시(詩)가 실려 있다.

금년에는 연해지방 비가 아니 내려서 (今年海壖溼雨澤)
 논마다 메밀꽃이 하얗게 피었는데 (水田處處蕎花白)
 먹는 곡식 같지 않고 들풀과 흡사하여 (不似嘉穀似野草)
 메밀대 붉은 다리 석양에 처량하네 (淒涼落日群腓赤)

늦게 심은 모포기 두세 치 가끔 푸른데 (或種晚秧青數寸)
 메밀 만약 심었다면 지쳐려 자랐으련만 (悔不種蕎如彼碩)
 메밀 익어 장에 가서 쌀과 서로 바꾼다면 (蕎成走市換稻米)
 가을 되어 고을 환자 어찌 충당 못할꼬냐 (秋來豈不充縣糶)

다산은 평택을 잠시 스쳐 지나면서도 오랜 가뭄으로 제 때 모내기를 못하여 흉작이 예상되는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걱정한다. 사람이란 본디 동일한 사물을 마주하고도 생각과 느낌이 서로 다르다. 다산을 왜 실학사상의 최고봉이라고 하는지, 그가 꿈꿨던 세상을 우리가 왜 동경하는지 이 한편의 시로도 넉넉히 느낄 수 있다.

다산이 충청대로를 따라 내려가는 길에 시를 썼다면 이덕무는 삼남대로를 따라 남행하던 중 '소사들을 지남'이라는 시 한 수를 남겼다.

고적 찾아 가니 말 물기도 더디어라
 도경을 일찍이 읽어 고을 이름 알았다오
 부유의 옛 나라 성터는 완연한데
 마귀의 목은 영은 전쟁 상황 위태하였네
 밭 가운데 흥경사를 지나며 조상하고
 주점가의 대동비를 와서 찾았네
 여장 재촉하고 성환역 뒤로 가리키니
 관의 나무 촌의 연기 경치가 다시 기이하네

(訪古行行策馬遲)
 (圖經曾讀縣州知)
 (堯臯舊國城墟宛)
 (麻貴荒營戰狀危)
 (歷弔田中弘慶寺)
 (來尋店畔大同碑)
 (催裝背指成歡驛)
 (官樹邨煙景更奇)

_청장관전서 제10권

우리에게 낯익은 실학자 이덕무도 소사들을 지나며 감상에만 젖지 않았다. 그는 행선지만을 향해 정신없이 걷지도 않았다. 목적이 있어 떠난 여행길이었지만 이곳저곳에 흩어진 고적(古蹟)을 답사하고 옛 전적지를 추억하였다. 소사에서 그가 찾은 고적은 '대동법시행기념비'였다. 소사들에서는 왜란 육전 3대첩의 하나였던 '소사벌대첩'과 '봉선 흥경사'를 답사하였다. 그리고 성환역에 당도해서는 저녁나절 초가집 위로 올라오는 밥 짓는 연기에 넋을 잃었다. 그의 빛나는 사상과 실사구시적 삶의 태도가 부럽기만 하다.(2011)



[소사교와 소사벌(2011)]

옛 시로 읽는 평택의 풍경(2)

1. 산이 낮다고 풍광(風光)이 없을쏘나

평택은 산이 적다. 산들도 대부분 낮은 구릉들뿐이다. 평택 어디에도 도교적 삶을 꿈꾸었던 선비들이 깃들만한 곳이 없다. 하지만 산이 낮다고 풍광마저 없지는 않다. 산이 낮은 대신 들이 넓었고, 들판을 굽이쳐 강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너른 들판은 시원하였고, 밑물에 황포돛대를 펼쳐 세우고 들어오는 고깃배는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수려한 산봉우리나 기벽에 누정을 세우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기록에 따르면 평택지역에도 부산정, 관가정, 돈두정, 원정, 모정과 같은 누정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풍광 수려한 곳에는 시인 묵객들의 진한 자취가 남아 있다. 오늘 역사산책은 평택의 산하에 새겨진 시인들의 문향(文香)이다.

무봉산은 진위현의 주산(主山)이다. 한 고을을 비보하는 산이니만큼 이름도 무봉(舞鳳), 다시 말해서 봉황이 춤추는 형국이다. 무봉산 남쪽은 부산(釜山)이다. 부산은 우리말로 솟뫼다. 솟뫼는 무봉의 품에 깃든 어린 아이와 같다. 솟뫼 아래로는 진위천이 흘러 절경을 이루었다. 조선전기만 해도 부산(釜山)에는 '부산정'이 있었다. 삼남대로를 따라 남행을 하다가 진위현 객관에 묵었던 선비들이 시심(詩心)을 달랬던 누정이다. 부산정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길옆의 누정이었지만 너무도 일찍 쇠락하여서 아쉬움을 준다. 무봉산의 다른 이름은 만의산이었다. 부산정에 이웃한 무봉산에는 조광조의 가장 친근한 벗으로 신장 1등 남산태에 살았던 원정 최수성의 시가 전해온다.

옛 불전에 중 몇이 있고
나뭇가지엔 저물녘 경쇠소리 맑아라.
산굽이는 천리나 아스라한데
담장은 우뚝하여 못 산들이 낮아 보네.
나무는 하 늙었으니 몇 살이나 되었누
새들의 지저귀도 곳에 따라 유달라라.
어려운 세상 죄의 그물 근심했더니
오늘이야말로 부끄럽다 나의 삶이여.

『만의산에 올라』 전문

조광조는 기묘사화 때 사사당했다. 푸른 꿈으로 뚝뚝 몽친 조광조의 벗들도 죽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재야(在野)의 최수성은 세상의 이목은 받는 산림처사였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았기에 죽임만은 면했다. 하지만 조광조를 죽인 수구세력은 재야의 구심점이 되는 최수성이 불안했다. 불의한 세상에 분노하던 최수성도 수구세력의 부도덕을 좌시하지 않았다. 결국 신사무록 때 수구세력은 최수성마저 죽였다. 하지만 죽은 뒤 오래지 않아 율곡 이이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다시 신원되었다. 또 영의정에 추증되고 후대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최수성의 묘는 송탄 남산기슭에 있었다. 묘(墓) 아래에 있는 마을에게는 역(役)을 면제해주고 묘지 관리를 맡겼다. 신장동 제역동(역을 면제받은 마을)이 그 마을이다. 하지만 현재 최수성의 묘는 남산에 없다. 미군기지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강릉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2. 들판에 가을이 깊으니 벼가리 뿐이로다

평택의 들판은 풍요롭다. 선인(先人)들은 평택평야에 소사들, 통한들, 번개들, 한판들, 오성들, 왕십리들과 같은 친근한 이름을 지어주었다. 평택평야는 작은 언덕에만 올라도 들판은 드넓게 펼쳐진다. 드넓은 들판은 간데없이 멀고, 굽이치는 물줄기는 들판이 어머니처럼 감싸 안는다. 오랜 옛날 시인들의 눈에는 물줄기 사이로 오르내리는 작은 돛단배까지 보였다. 조선 성종 때의 대문호 서거정은 삼남(三南)으로 내려가던 중 객사리 부용산의 관가정에 올랐다. 가을은 익어가고 해는 저물어 노을이 붉게 물든 아름다운 들판이 시인의 눈에 들어왔다. 그 때의 풍광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언덕하나만이 겨우 높고 사면은 편편한데	(一壘差高西面平)
돌아오는 길에 해는 저물어 외로운 정자에 오르누나	(歸來日暮上孤亭)
이 고장이 바다와 인접하여 물고기과 게가 많이 나고	(地曾根海產魚蟹)
들판에 가을이 깊어 벼가리 뿐이로다.	(野已深秋足稱稷)
구름은 넓은 하늘을 덮었는데 기러기는 그림자를 머금고	(雲書長空極鴈影)
밀몰이 옛 나루에 밀려드니 물비린내 띠었고나	(潮回古渡帶龍腥)
우리 집 두어 이랑 거친 논밭을	(我家數畝荒田石)
언제 돌아와 갈매기와외의 약속 지킬 수 있을지	(何日來壽白鷗盟)

『평택현 관가정에서』 전문

3. 동악 이안눌은 대진(大津)을 노래하고

이안눌은 17세기 초 서인계열의 인물이다. 광해군 집권 시기에 꺾박을 받다가 인조반정 후 크게 출세하였다. 시문(詩文)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당대에 이백이나 두보에 비유되었다. 1623년 그의 나이 53세에 참판과 판서를 두루 거친 이안눌은 고향에 내려가 조상의

제사를 받들 것을 왕에게 허락받았다. 그의 고향은 충남 면천이었다. 면천으로 가려면 과천과 수원을 거쳐 포승읍 만호리 대진(大津)에서 배를 타야했다. 수원에서 남행하여 청북면 한산리 너더리장터를 지난 이안눌은 안중읍 용성리와 성해리 은성주막을 거쳐 만호리 술개바위나루에서 나룻배를 탔다. 복잡한 관직생활에서 벗어난 것도 흥기분한데 고향으로 건너가는 배까지 얻어 타고 보니 주변 풍광이 시심(詩心)을 자극했다. 느긋한 손놀림으로 붓짐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 일필휘지로 시 한 수 써내려갔다.

나루 저편 고향의 소나무 삼나무를 마주보고
 비 갠 뒤 시원한 바람 범선은 나그네를 보내는 구려
 삼가 비유컨대 맛있는 미끼에 걸린 물고기 같고
 천리마 타고 달리듯 자유로운 몸애 재갈을 물리는 구나
 도성의 황금관대 세속의 흥진같고
 푸른나무 파란 절벽의 흰 웅다는 적심 걸린 풀이구나
 정오를 향해 뱃사공 축하소리 들으며 건너는데
 뱃머리는 이미 서해 영웅암을 지나는 구려

『수원 대진(大津) 배 안에서』

만호리 대진(大津)은 조선시대 수원부 땅으로 서산, 당진, 면천으로 건너가는 첩로였다. 나루는 10리에 걸쳐 펼쳐 있었고, 밑이 평평한 평저선에는 안중장을 보러 가는 장사치들과 우마(牛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산만 중간쯤에는 영웅암이 우뚝 솟았다. 100척 높이로 바다 가운데 우뚝 솟은 영웅암은 신비로웠다. 관직에서 물러난 흥기분한 마음에 아름다운 풍광까지 만난 시인의 벅찬 마음이 잘 드러난 시(詩)이다.

4. 부락산, 덕암산에는 문인(文人)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덕암산은 남북으로 도일동, 장안동과 송북동 동령마을 사이에 있는 산이다. 동서로는 진위면 온산리에서 도일동과 장안동까지 연결되었다. 예로부터 덕암산은 무봉산과 함께 산이 넓고 기름져서 진주 소씨, 원주 원씨, 봉화 정씨 등 평택지역 대표 사족(士族)들의 세거지가 되었다. 또 덕암산 서쪽 산록의 흰치고개(대백치)는 삼남대로 평택구간의 대표적인 험로였다. 하지만 산세(山勢)가 물을 얻지 못해서인지 맹사성의 '공당문답' 고시를 제외하고는 춘심(春心)을 자극할만한 시(詩)나 글이 없다.

부락산(負樂山)은 송탄의 주봉이다. 이 산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다. 1843년에 간행된 진위현읍지에는 부락산(負樂山)이라고 쓰였으며, 1891년 진위현읍지에는 조락산(鳥落山), 1899년 진위군읍지에는 다시 부락산(負樂山), 팔도군현도(1760), 해동지도 등에는 불악산(佛樂山), 18세기에 간행된 여지도에는 요악산(佻樂山), 1975년 국립지리원

지도에는 불악산(佛岳山)이라고 쓰였다. 지명에 불(佛)자와 락(樂)자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지명형성에 불교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락산 기슭에는 동령마을, 소골마을, 장안마을처럼 오랜 연륜을 간직한 마을이 많다. 근래에는 송탄지역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전거도로와 생태공원, 체육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변변한 시나 글이 없어 아쉬움을 준다. 그것은 오성면의 주봉(主峰) 오봉산이나, 현덕면의 고등산, 마안산도 마찬가지다.

아름다운 풍광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옛 선비들은 여행을 하면서 그때그때의 심정을 시와 글로 남겼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로 향하는 힘든 여정에서도 '평택을 지나며'와 같은 시를 남겼으며, 화가 이동진은 '노을'이라는 동요를 작시하여 평택의 노을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다. 우리고장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풍광이 있다. 풍광들 속에는 이 땅에서 살아온 민중들의 삶과 문화가 배어있다. 지금도 이른 봄에는 산과 들에 배꽃이 지천이고 너른 들녘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다.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너울대며, 겨울에는 순백의 들판이 우리를 맞는다. 이처럼 평택의 아름다운 풍광에 글을 남기는 것, 그것은 대지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같다.(2010)



[대진 근처 서해대교의 풍경(2011)]

평택사람들의 새해맞이

1. 길 위에 선 문인(文人)들

연말 대전에 다녀오는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대추리 출신의 시인 박후기였다.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 이후 몇 년 만의 통화여서 잠시 허둥졌다. '형님, 한국 작가회의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를 위해 입진각에서 제주도까지 도보행진을 하는데 평택구간에 참가하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죠.' 오랜만의 전화가 반갑기도 하고,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부채의식도 있어 흔쾌히 응낙하였다.

12월 31일 정오쯤 필자는 법원 사거리에서 행진대열과 합류하였다. 행진대열에는 대추리 만인보를 썼던 서수찬 시인을 비롯하여 열 명이 넘는 문인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 선두에는 '돌맹이 하나 꽃 한 송이도 건드리지 마라'라고 적힌 펼침막이 있었고, 손과 배낭에는 '달발 글발 강정마을'이 쓰인 깃발을 들고 있었다. 법원 사거리에서 성환까지는 12km에 불과했지만 달리는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음과 매연 때문에 걷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다. 성환 못미처에 있는 국보7호 봉선 홍경사 비갈에서 잠시 쉬어갈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걸어온 벌판을 소사벌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소사벌은 충청도와 경기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고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빈번했던 곳이지만,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안고 있는 들판이기도 합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격전을 벌였으며, 한국전쟁 때는 국군과 인민군이 총부리를 겨눴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제가 문인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전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의 사슬을 끊고 남과 북, 정당과 정당,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2. 태양송배는 본래 동지(冬至)의 풍습

태양송배는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로마제국을 비롯하여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발달한 민족들은 대부분 태양을 섬겼다. 우리민족도 오랜 옛날부터 태양을 숭배하였다. 진주 소씨 문중에 전해오는 한인천제 설화나, 삼국유사의 연오랑

과 세오녀 이야기에서도 태양숭배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태양숭배의 명절은 동지(冬至)였다. 선인(先人)들은 생각하기를 동지에는 점점 빛을 잃어가던 음(陰)의 기운이 강해지지만, 또 태양이 양(陽)의 기운을 회복하여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시기라고 믿었다. 그래서 동지에는 태양신께 제를 올리고 액운을 물리쳐주는 팔족을 쑤어 나눠 먹었다. 또 팔족에는 나이보다 한 알 많은 새알심을 넣어 먹었는데, 이렇게 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믿었다. 새알심은 우리민족이 염제(炎帝) 신농씨의 자손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염제는 불의 신 다시 말해서 태양신으로 남쪽을 뜻하였으며, 풍수적으로 남쪽의 상징은朱雀(朱雀)이었다. 그러므로 새알심은 우리민족이朱雀의 알에서 태어난 민족이라는 뜻인데, 고대국가의 건국신화들도 이와 같은 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인들은 동지보다 음력설을 귀하게 여긴다. 음력설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들었다. 요즘에는 연말이 되면 송년회를 개최하고 연초에는 해맞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인들은 12월 31일 밤부터 이듬 해 새벽 1시까지 송구영신예배를 드린다. 송년회와 해맞이, 송구영신예배 등은 우리 선조들이 행하였던 동지의 의례나 설날의 풍습과 같은 의미다. 양의 기운을 회복하여 다시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 기운 새 마음으로 신년을 시작하자는 의미가 담긴 행위인 것이다.

근래에는 평택지역에서도 여러 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해맞이는 역사적 유래로 따진다면 동지에 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해를 맞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양력 1월 1일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7, 8년 전부터 포승읍 원정리 괴태곶 봉수대 터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다가 올 해는 참석요청이 없어 월곡동 해맞이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월곡동은 본래 '망월(望月)'을 하였던 '달 보는 산'이 있어 유래된 마을이다. 해맞이 행사는 마을 동쪽 백운산에서 거행한다. 해맞이가 끝나면 마을 회관으로 내려와 고사를 올리며 떡국을 나누는 데 분위기가 자못 흥겹다.

새해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많은 해이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사회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어 서민들이 웃는 일이 많기를 소망한다. 강정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문화 예술인들의 바람처럼, 인간의 탐욕으로 자손만대 살아야 할 아름다운 마을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기를 소원한다. 민족적으로는 남북이 적대감을 버리고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떠오르는 정월 초하루의 아침 해를 맞이하는 큰마음처럼 말이다.(2012)

평택의 정월(正月)

1. 세배(歲拜)로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민족은 음력 1월을 정월(正月)이라고 불렀다. 새해 첫 달에 바를 정(正)자를 쓴 것은, 정월에는 새해를 설계하고 마음가짐을 바로 하라는 의미가 담겼다. 율력(律曆)에서는 정월을 천지인(天地人)이 합일하고 사람을 받들어 이루는 달이라고 말한다. 사람과 신(神),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화합하는 달이라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은 정월 초하루를 설이라고 불렀다. 설의 어원은 '낮설다' 또는 '설다'라고 한다. 혹자는 '삼가고 조심하다'라는 뜻의 '설다'에서 왔다고도 말한다. 이 날에는 한 해의 운수를 점쳐보고, 설빔과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들께 차례를 지냈으며, 집안 어른들과 친척,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올렸다. 덕담을 주고받고, 웃놀이, 널뛰기, 연날리기를 즐겼던 것도 설날 풍경이었다.

음력 1월 15일은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였다. 대보름은 오기일(烏忌日) 또는 상원(上元)이라고도 말한다. 상원은 도교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보름이며 농사일의 시작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서 농촌에서는 큰 명절로 여겼다. 중국에서도 대보름은 고대로부터 8대 축일(祝日)의 하나로 여겼을 만큼 중요한 명절이었다.

대보름에는 오곡(쌀, 수수, 팥, 조, 콩)으로 밥을 지어 먹었으며 어른들은 귀밝이술이라고 하여 청주를 한 잔씩 마셨고 밤, 호두, 잣으로 부럼을 깨물었다. 이렇게 해야 1년 동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몸에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다. 서평택지역에서 즐겨 먹었던 부꾸미도 정월 대보름 음식이다. 부꾸미는 반죽한 수수가루에 팥으로 소를 넣어 기름에 지져 먹었다. 부꾸미는 액막이 음식이었다. 나쁜 기운을 가져오는 잡귀들이 팔처럼 붉은 색을 가장 싫어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대보름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조리에 오곡밥을 얻어다가 아홉 번 먹는 풍습도 있었다. 대청마루에 쌀 한말과 촛불을 놓고 고사반 드리기를 하며 한 해 동안의 무병장수와 소원을 빌었고, 동네 두레패들이 부잣집을 돌며 지산을 밟기도 하였다.

더위팔기도 대보름의 풍습이었다. 더위팔기는 이웃들이나 친구들을 불러 대답을 하면

'내 더위' 또는 '내더위 사가라'라고 말하는 행위다. 어린 시절 필자도 더위팔기를 열심히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삼복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믿었다. 달집태우기, 망월, 쥐불놀이도 주요 행사였다. 망월은 대보름날 딸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소원을 비는 행위인데, 현덕면 마안산과 월곡동 백운산이 망월을 했던 대표적인 산이다. 달집태우기는 대보름 저녁에 집집마다 얻어온 짚단 위에 생솔가지를 얹어 놓고 불을 지른 뒤 떠오르는 보름달을 향해 소원을 비는 일종의 제의행위였다. 쥐불놀이는 논둑이나 밭둑을 태워 병충해를 방지하고 풍농을 기원하는 행위였다. 때때로 두레싸움이나 투석도 하였다. 투석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돌을 던지는 행위인데 때론 큰 사고도 났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2. 당제(堂祭)도 새해를 맞는 행위

당제(堂祭), 산신제(山神祭), 정제(井祭)와 같은 마을신앙은 농사의 풍요와 개인과 마을의 평안을 비는 공동제이다. 마을사람들은 마을신께 제사를 지내는 행위로 서로 화합하고 단결을 꾀하였으며, 마을신의 도움으로 각종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염원하였다. 평택지역에서는 음력 7월, 10월, 정월에 마을제를 올렸다. 마을에 따라서는 7월과 10월, 또는 10월과 정월에 두 번씩 올렸지만 통상 한 번씩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을제는 당제(堂祭), 산신제 외에도 정제(井祭), 풍어제, 거리제, 서낭제 등이 있었다.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도 마을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청북면 율북리는 마을제가 원형에 가깝게 전승되는 마을 가운데 하나다. 율북리의 마을제는 정월에 지내는 산신제다. 율북1, 2리 밤뒤마을과 안골마을에서는 설날이 지나면 생기복덕을 따져 날짜를 잡고 흙



[대보름 줄다리가 거행되는 아청동 동명마을(2008)]

없는 사람으로 제관과 당주를 선출한다. 날짜가 잡히고 제관이 선출되면 마을 뒤 산신당과 당샘을 청소하고 금줄을 쳐서 부정을 막았다. 제삿날이 가까워오면 제관은 당샘의 찬물로 정결하게 목욕하고, 당주는 마을사람들에게 거둬들인 돈으로 제물을 준비하였다. 율복리에서는 옛날에는 황소를 준비하여 당산 아래에서 잡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소머리와 소의 각 부위를 사다가 사용하고 있다.

산신제는 밤 10가 넘어서 시작한다. 제를 올릴 때는 정성을 기울였으며 마지막에는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맵골과 안골 두 마을에 거주하는 22개의 성씨 모두에게 올려주었다. 이렇게 해야 한 해의 운수가 트이고 재액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제물로 사용한 고기와 음식은 골고루 소쿠리에 담아서 다음 날 새벽 동트기 전까지 집집마다 나눠주었다. 나눠주고 남은 고기와 육수는 폭 고아서 술과 함께 노인들을 대접하였다.

합정동 조개터 마을에서도 정월이면 매봉산 기슭의 제당에 당제를 지냈다. 비전동 재랭이(자란)마을에서는 평택천주교회 뒤 은행나무에 동신제를 올렸다. 소사1동 원소사마을에서도 정월 14일 자시에 당제를 지냈다. 합정동 통미마을 주민들은 지금은 사라진 뱃박산 제당에서 당제를 올렸다. 평택고등학교 아래에 있는 배미마을에서도 정월에 산신제를 올렸으며, 세교동 안잔다리, 팽성읍 추팔리, 세교동 은실과 잔다리 등 다른 마을에서도 비슷한 제의가 거행되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마을신에게 제를 올리는 것은 우주만물에 대한 경외감과 겸손함의 표현이었다. 자연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행위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기원하고 염원하며 겸손하게 한 해를 시작하였다.

3. 대보름에는 줄다리기를 하였다

정월에는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인 입춘(立春)이 들어 있다. 입춘은 하늘에 봄이 왔다는 절기다. 아직도 대지에는 잔설이 쌓였고 땅은 꽁꽁 얼었지만 코끝을 스치는 공기에는 웬지 모를 훈풍이 느껴지는 시기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었다. 어린 아이에게도 24절기의 순환에 맞춰 농사일을 가르쳤고, 이것을 깨우치면 '철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농촌에서는 입춘에 '입춘대길(立春大吉)' 같은 입춘축을 써서 기둥이나 대문에 붙였다.

설날과 입춘이 지나고 마을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월 대보름이 다가온다. 평택지역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앞서 소개한 달집태우기와 망월, 지신밟기, 거북놀이도 대보름의 주요 행사였다. 평택지역의 줄다리기는 우물고사라고도 부르는 정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줄다리가 들어 넓은 평택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의라

면, 우물고사는 들은 넓었지만 내륙 깊숙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식수와 농업용수가 귀했던 지리적 특징을 반영한 제의였다.

평택지역 줄다리기를 대표하는 것은 이충동 동령마을과 진위면 마산리 오룡마을 줄다리기가다. 동령마을은 삼국시대 이래 송장부곡의 중심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먼저 정제(井祭)를 지내고 며칠 뒤 줄다리를 하였다. 정제는 음력 정월 첫 용(龍) 날에 지냈다. 주민들은 용 날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제사비용을 거출하고 제주(祭主)를 뽑았다. 줄다리는 정월 대보름에 마을회관 앞 곧게 뻗은 도로 위에서 지냈다. 마을사람들은 줄다리기를 며칠 전에 집집마다 짚을 거둬서 줄을 꼬았다. 줄은 암줄과 숫줄이 서로 달랐다. 이것을 마을 회관 앞 도로에 길게 늘어뜨린 뒤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의식을 거행하였다. 의식은 남녀가 혼인하고 첫날밤을 보내는 절차와 같아서, 혼주와 예쁘게 단장한 신랑신부가 등장하였다. 암줄과 숫줄이 빗장으로 결합되면 숫줄을 잡은 남자들과, 암줄을 잡은 여자들은 서로 어르며 줄을 당겼다. 줄다리는 오락이기보다는 풍농을 기원하는 제의였기 때문에 반드시 암줄이 이겨야만 하였다. 예로부터 여자는 다산(多産)과 풍농(豐農)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줄다리기의 원형이 잘 간직된 마을로는 진위면 마산리 오룡마을을 빼놓을 수 없다. 동령마을 줄다리가 대중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외국인도 참여하고 제의적 요소가 약화되었다면, 오룡마을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진행된다. 오룡마을의 줄다리는 동령마을과 대동소이하지만 여장(女裝)한 남자신부가 등장하는 점이 다르다. 이밖에도 진위면 은산리, 봉남리, 하북리, 팽성을 동창리, 신대1리 등 여러 마을에서도 줄다리가 거행되었다. 정월 대보름 동네마당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줄다리는 현재 대부분 중단되었다. 이른 아침 정제를 지내는 풍습도, 동네 사람들끼리 옷놀이를 하고 술추렴을 하는 모습도, 풍물을 치며 지신을 밟는 모습, 제석신, 조왕신, 측신과 같은 가신(家神)들께 정성을 바치는 모습들도 점점 잃어버린 옛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사라지는 것들은 슬프다.(2011)

정월대보름의 축제 오롱동 줄다리기

1. 대보름에는 기원하고 즐기며 농사를 준비했다

정월대보름은 전통사회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녔다. 옛사람들에게 달은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또한 달은 다산(多産)과 풍요(豐饒)를 의미하는 여성, 다시 말해서 음(陰)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동국세시기에는 대보름도 선달그믐처럼 온 집안에 등불을 켜 놓고 밤을 세운다고 하였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대보름을 8대 축일의 하나로 여겼다. 일본에서도 소정월이라고 하여 새해의 출발점으로 삼기도 하였다.

새해 첫 번째 만월(滿月)이 되는 정월대보름에는 오곡(五穀)으로 밥을 지어 아홉 번 먹고, 부럼이라고 하여 밤, 호두, 잣, 은행과 같은 견과류를 깨물었다. 각종 나물을 말렸다가 무쳐먹는 진채도 먹었다. 부럼을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이가 단단해진다고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튼튼한 치아는 건강을 상징하였다. 신라에서는 연장자 가운데 이가 튼튼한 사람을 왕으로 뽑아 '이사금'이라고 하였다. 정월대보름에는 귀밝이술을 마시고 붉은 팥이 들어가는 부꾸미를 만들어 먹었다. 귀밝이술을 마시면 귀가 맑아지고 한 해 동안 좋은 소리를 들으며, 부꾸미를 먹으면 제액을 막아준다고 믿었다. 더위팔기도 대보름에 하였다.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대답을 하면 '내 더위'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일부 마을에서는 정제(井祭)를 지내고 집집마다 지신을 밟았다. 달은 여성 또는 지신(地神)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 날 풍물을 치고 지신을 밟으며 기원을 하면 액을 막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 저녁이 되어 달이 떠오르면 달집을 태우고 망월(望月)을 하였다. 달집은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집집마다 얻어온 짚을 쌓은 뒤 생소나무 가지를 덮고 불을 붙였다. 아이들은 쥐불도 놓았다. 쥐불놀이는 농사에 해를 끼치는 쥐와 해충을 잡기 위해 논둑과 밭둑에 불을 놓아 풍농을 기원하는 놀이었다.

2. 줄다리기는 농경사회의 제의(祭儀)이며 놀이

낙농업이 발달한 북유럽에서는 마을마다 치즈 맛이 다르다고 한다. 프랑스는 포도주 맛으

로 지역을 구별한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집집마다 술맛이 달랐다. 작년 가족들과 안동을 여행했을 때 안동소주의 맛이 만든 사람, 만든 가문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같은 전라도라도 내륙지역과 바닷가는 음식 맛이 상이하다. 본디 문화란 그렇게 다양한 것이다.

정월 대보름 해가 지고 어둑해지면 줄다리기를 하였다. 줄다리기는 주로 한반도 중남부지역의 논농사지대에서 거행하였다.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6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조선후기의 동국세시기에 나올 만큼 오래되었다. 줄다리기는 남녀의 성적결합을 상징하는 행위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풍농과 재액을 기원하였다. 기원하고 즐기며 한 해 농사를 준비한 것이다.

평택지역의 줄다리기는 대체로 옛 진위현 지역(진위면, 송탄, 평택, 서탄, 고덕, 오성면 일부)에서 많이 행해졌다. 물론 옛 평택현(평성읍) 지역에서도 거행되었지만 많지는 않았고 서평택지역에서는 거의 없는 편이다. 옛 진위현 지역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오면 마을마다 짚을 견고 줄을 꼬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을에 따라서는 정제(우물고사, 샘제) 준비에 정성을 기울였다. 명절은 아이들의 날이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지불을 놓으며 맘껏 먹고 즐길 생각에 신이 나서 골목길을 뛰어 다녔다. 대보름에 정제와 줄다리기를 같이 하는 마을에서는 하루 전날 우물을 청소하고, 이른 아침 공동우물에 제사를 지냈다. 정제가 끝난 뒤에는 하루 종일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시며 웃놀이를 하고 널을 뛰었다. 그러다가 달이 떠오르면 망월을 하며 줄다리기를 시작하였다.

3. 오룡동줄다리기는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

2012년 평택지역에서는 네 개의 마을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였다고 한다. 매년 거행되었던 이충동 동령마을과 마산리 오룡동, 진위면 하북리 외에 포승읍 신영리 매상동이 더해진 것이다. 마을마다 줄다리가 복원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마을로서는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주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고, 지역으로도 문화가 풍성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동안 동령마을 줄다리에 참여하였다. 동령은 삼국시대 이래 송장부곡의 중심으로 송탄지역에서 전통문화가 가장 발달한 마을이다. 이 마을 줄다리는 박희복씨의 노력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외지인들도 공동체문화에 쉽게 녹아들 수 있었다. 그런데 십여년 전부터 이충동 일대에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아파트가 마을 코앞까지 밀려들면서 공동체문화도 위기를 맞았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참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처럼 도시화와 함께 참여계층이 다양해지면서 동령마을 줄다리는 점점 원형에서 이탈

해가고 있다. 제의(祭儀) 행위에 필수적인 진정성도 많이 약해진 느낌이다. 이대로 몇 년만 더 지난다면 줄다리기의 목적은 잃어버린 채 박제화 된 전통문화로만 남을 것이다.

올 대보름에는 진위면 마산리 오룡동 줄다리기에 참여하였다. 오룡동 줄다리기는 아직도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문화도 살아 있고 풍물패조차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다. 이 마을 대보름 행사는 하루 전날 공동우물을 청소하고 모아 놓은 짚으로 줄을 꼬는 일부터 시작한다.

줄은 마을 남자들이 모두 나와 거의 하루 종일 작업해야 마칠 수 있다. 정월 대보름 오전 9시가 되면 정제(井祭)가 거행된다. 정제가 끝난 뒤에는 제물(祭物)로 사용된 소머리와 떡, 갖가지 음식으로 밥과 술잔을 나누고 외부손님을 대접한다. 오룡동 정월대보름 줄다리기에 갖가지 이유로 마을을 떠난 출향인사들까지 모두 모인다. 비록 직장이나 생활터전의 변화로 고향을 떠났지만 줄다리기에 참여하므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는 것이다. 정제가 끝난 뒤에는 하루 종일 웃놀이를 한다. 줄다리기는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떠오를 때 풍물패의 길놀이와 함께 시작된다. 암줄과 숫줄에 올라 탈 신랑과 신부는 모두 남자다. 다시 말해서 신부까지 여장한 남자를 태운다는 말이다. 줄다리기는 암줄이 승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여성은 아이를 생산하는 사람이어서 예로부터 다산(多産)을 상징하였다.

전통문화가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은 제의나 놀이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마테헤라섬 주민들은 가난했던 시절 가파른 산꼭대기 다락밭에서 수확한 감자를 나무썰매로 실어 날랐다고 한다. 그런데 자동차가 발달하면서 나무썰매가 필요 없게 되자, 썰매를 관광 상품화하여 그 지역만의 가장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만들었다. 줄다리기는 들이 넓은 평택지역의 특성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전통 제의(祭儀)이며 놀이다. 우리 선조들은 줄다리기를 통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였고, 풍농을 기원했으며, 농사지를 힘을 비축하여 봄 농사에 대비하였다. 스페인의 마테헤라섬 사람들이 고단했던 과거 삶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가장 특징적인 문화콘텐츠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오룡동 줄다리기 같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하고 계발하여 지역의 대표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2012)

산신제는 보존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

1. 마을신앙은 안녕과 풍요를 비는 공동제의

그저 사는 것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 서로 돕고 하늘의 보우하심을 받아야 농사를 짓고, 질병을 치유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흉역에 걸려 어린 아들이 죽어가도 팔자소관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던 시절,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신앙은 생활환경이 척박했던 시절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었던 공동제의였다. 함께 기원하고 빌면서 마을에 닥칠 액운을 막고, 풍년이 들어 모두가 배불리 먹기를 기원하였다. 마을에서 함께 섬겼던 신(神)으로는 산신(山神), 해신(海神), 용신(龍神), 성황신(城隍神), 서낭신 등이 있었다. 때로는 나무나 장승, 바위도 섬겼고, 집터, 마루, 부엌, 뒷간에 도신이 있다고 믿었다.

오래 전 '똥떡'이라는 그림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똥떡은 우리나라 가정신앙 가운데 축신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축신은 '뒷간(화장실)의 신'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뒷간마저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간은 그저 자연의 모든 것을 빌려 쓰는 존재라는 세계관을 가졌다. 이것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보수적 기독교 세계관과는 판이하게 다른 생각이다.

음력 10월이나 정월은 산신제의 계절이다. 한반도 중부지방, 특히 평택지역은 10월이나 정월에 산신제를 지낸다. 산신제는 산제, 산제사, 당제라고도 부른다. 고대사회에서 명산 숭배는 시조제(始祖祭), 농신제(農神祭)와 함께 중요한 국가행사였다. 산을 숭배하는 것은 하늘숭배와 잇닿아 있었다. 마을에서 거행하는 산신제는 산간지방이나 산을 등지고 형성된 농촌마을에서 많이 행해졌다. 제당(祭堂)은 산의 중턱이나 정상에 위치하며, 당집, 산신당, 산신각 등으로 부른다. 제당의 모양은 당목(신목)이거나 당집 안에 말을 타고 있는 산신상이다. 나무를 섬기는 것은, 나무가 우주와 소통하는 존재이며 우주의 기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중들은 하늘과 자연 앞에 겸손하게 기원하며 지금껏 살아왔다.

2. 마을제당은 보존되어야 한다

안중읍 금곡4리는 숲밭이다. 마을 뒤에 아름답디 노송이 많아서 유래되었다. 농가 35호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이 마을에서는 예로부터 산신제를 지냈다. 옆 동네 금곡 3리 쇠누리 마을도 산신제를 지냈다. 산신당에 모셔진 신(神)은 말 두 마리였다. 어쩌면 예전에는 말 위에 산신이 더 있었을 것이다. 팽성읍 석봉리에서도 산신제를 지냈다. 석봉리는 안성천에 인접하였고 원봉마을과 대형산 기슭에는 나루터가 있었다. 고덕면 당현리와 서탄면 사리에서도 산신제를 지냈다. 당현리 산신제는 7월 초 하루에서 사흘 사이에 좋은 날을 잡아 지냈다. 고등산, 마안산 자락에 자리 잡은 현덕면 대안4리 구진개마을과 신왕리에서도 산신제를 지냈다. 옛날 군부대가 주둔하기 전에는 광덕지구에 속한 마을들이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고등산 정상에 신목(神木)에 모여 산신제를 지냈다. 청북면 울북리에서는 지금도 정월이면 산신제를 올린다. 마을 뒤 당산의 마을제당에는 양증맞은 산신당이 있고, 이곳에 황동으로 만든 말 두 마리를 모시고 있다.

산신제는 대부분 음력 10월에 지내지만 마을에 따라 정월이나 7월에도 지냈다. 민중들은 아직까지도 산신제를 지내야 액운을 막고 마을에 평안이 온다고 믿는다. 산신제를 중단하였더니 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다시 지낸다는 마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중단하였다. 본래 마을제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문화이다 보니, 농촌이 고령화하고 농촌사회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도 울북리 산신제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평택지역에 남아 있는 산신제가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촌고령화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울북리 산신제마저도 언제 중단될 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마을제(洞祭)는 두레와 함께 마을공동체문화의 핵심이었다. 산신제는 마을제 가운데 한 분이다. 민중들은 산신제를 통하여 액운을 막고 풍농을 기원하기도 하였지만, 음악을 함께 연주하며 축제의 장을 만들었고, 나눔과 음복행위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현대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존은 아무리 빨라도 늦다. 우리의 관심이 멀어지는 찰나에 모든 것이 중단되고 사라져버린다. 평택시와 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관들이 힘을 모아 사라져가는 산신당과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2010)

사라져가는 원평동의 근대문화유산

1. 원평동은 식민지가 낳은 근대도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다. 중화의 나라 청나라를 꺾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조선의 식민지화와 대륙침략 뿐이었다. 하지만 강호에는 고수가 많은 법. 때 아닌 북병 러시아를 만난 일본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의 간섭으로 대륙침략의 발판이 될 요동반도마저 청에게 반환하였다. 일본은 영일동맹과 미일동맹으로 돌파구를 만들었다.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남하하는 것을 지독히도 경계하였던 영국과 미국은 일본의 군비를 증강시켜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다. 세계최강 영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수순에 따라 을사조약에서는 외교권을, 정미7조약에서는 행정권을, 1910년에는 국권을 빼앗았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준비할 때 좁 한반도의 남북을 연결하는 경부선, 경의선 철도가 가설되었다. 철도가설은 식민지 수탈과 대륙침략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이 어려운 전통의 행정중심이나 상업도시는 가급적 피했다. 반면 대한제국의 국방전이나 역둔토가 많아서 토지와 식량수탈이 쉬웠던 지역에는 어김없이 철도역을 설치하였다. 철도가 평택에는 가설되었지만, 충청도 공주와 청주, 경기도 안성을 비껴간 것은 그런 이유였다.

하지만 철도가설 초기 조선인은 일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철도를 이용하여 장거리 여행할 사람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전통의 유통방식에 익숙한 상인들도 철도이용을 꺼렸다. 조선시대에 대로(大路)에서 비껴난 곳에 설치된 철도역도 의구심을 자아냈다. 조선인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일본인들은 토착주민들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철도역 주변에 정착하였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로가 가설되고, 물화가 철도를 중심으로 유통되면서 조선인 시장도 개장(開場)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관, 금융기관, 여관, 식당, 각종 사회단체도 철도역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도시 주변의 광활한 토지는 총독부가 몰수하여 헐값에 일본인이나 친일파들에게 불하되었다. 도시의 주요 이권도 친일파나 일본인들이 차지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평택역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동척농장이나 일본인 농장, 친일파 농장

에서 생산된 곡물과 과일, 안성천 하류와 아산만에서 잡아 올린 어물과 소금을 평택역에 집산한 뒤 철도로 인천항으로 날랐다. 평택역이 교통과 상업, 금융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면서 원평동 일대에는 근대도시가 발달하였다. 근대도시의 초기 지명은 진위군 병남면 평택리였다. 평택리는 1920년대 중반 인구가 급증하면서 평택면으로 성장하였고, 1938년에는 평택읍으로 승격되었다.

2. 백 년의 도시에는 백년의 자취가 남아야

근대도시 '평택시'의 나이는 106살(2011년 기준)이다. 옛 송탄시는 약 60년이 되었다. 백살이라는 나이는 한 번쯤 학술행사를 열어 도시형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역사책을 편찬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세우며, 남아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발굴, 조사하여 보존하려는 노력쯤은 해야 하는 나이이다. 하지만 평택지역에서는 '평택시 통합 10년'이나 '평택항 개항 20년'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정작 '도시형성 100년사'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없었다. 오늘은 평택시의 발원지 원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옛 도시의 흔적 중에서도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100년의 역사에 걸 맞는 문화유산을 찾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다.

10여 년 전 필자는 원평동 본정통 거리를 걷다가 한성기계세탁소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건물의 외형이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건축양식이었고 내부도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은 1922년에 건축된 건물이라고 하였다. 건물기둥을 어루만지다가 다음을 기약하며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일 년쯤 뒤 다시 찾은 본정통 거리에는 한성기계세탁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웃사람들 말로는 주인이 건물을 허물고 새 집을 지었다고 하였다. 2009년 평택역 민자역사가 준공되면서 건너편 원평동 방향에는 서부역광장이 조성되었다. 역광장이 조성되기 전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금융기관이었던 평택금융조합 터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조합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평택역 폭격으로 전소되었고, 단단하게 지은 금고만 살아남아 50년 넘게 버티고 있었다. 이것을 역광장을 넓히면서 아무런 조치 없이 없애버렸다. 요즘 흔히 실시하고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본정통은 일제강점기 근대도시 평택의 중심 거리였다. 가장 변화했던 거리 입구에는 한성공동창고(상업은행 전신) 건물과 일본인 잡화점, 여관, 식당 그리고 조선인 삼점과 시장이 번창하였다. 거리의 옛 건물들은 대부분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사라졌지만 아직도 거리 중간쯤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평화병원과 공주여관은 본정통 거리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이다. 더구나 두 건물은 한국전쟁 때 평택군청과 경찰서의 임시공관으로 사용

했다고 하니 더욱 유서가 깊다. 삼성아파트 앞과 군문주공아파트 남쪽에는 수해에 취약했던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제방도 있다. 중앙초등학교의 전신이며 평택지역 청년운동의 효시였던 진청학원 터, 야학운동과 각종 사회운동의 중심이었던 평택장로교회(현 교회와 관련 없음) 터, 옛 군청과 경찰서 터, 세무서 터 등도 평택시 발전과정의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이다.

도시의 문화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인식수준'과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고장의 문화인식은 대단히 편협하고 척박하다. 정치가들마다 '문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목적에서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도 많지 않다. 도시가 100년 앞을 내다보려면 100년 전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2011)



[일제강점기 평택역전 본정통(2006)]

서탄면 사리 이동협동조합 유적

1. 농민들의 경제자립을 위해 시작된 협동조합운동

농촌마을에는 예부터 두레, 품앗이, 계, 향약과 같은 상호협동, 상호부조의 전통이 있었다. 협동조합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관념이 종래의 상호부조 전통과 결합되면서 조직되었다. 일제강점기 조합설립운동은 관(官)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회운동단체에서 설립하는 경우도 많았다.

관에서 설립한 협동조합으로는 1907년에 설립한 금융조합과 산업조합 그리고 하부조직이었던 식산계와 농회가 있었다. 하지만 관에서 설립한 금융조합과 같은 협동조합은 사회운동단체와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운영하였던 민간협동조합과 목적에서 근본적으로 달랐다.

문헌상으로 최초의 민간협동조합은 1920년에 설립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었다. 그 뒤 1921년에 조선노동공제회 부속으로 소비조합이 조직되었고, 1926년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협동조합운동사를 조직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민중계몽과 단체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YMCA가 만든 농촌협동조합도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단체는 협동조합운동사와 천도교의 조선농민사였다. 협동조합운동사가 만든 협동조합은 1932년 경 80개 조합에 조합원 2만 여명을 확보하였으며, 조선농민사는 15만 명의 조합원을 두었다. 종교 및 사회운동단체들이 민간협동조합을 설립을 추진한 것은 자본가의 경제적 수탈에서 민중을 보호하고, 일제강점기 민중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민중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였다. 천도교계의 조선농민사가 농민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목표로 내세우고, 농민들의 생활물자구매 및 생산물 판매 알선을 도모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일제강점기 협동조합운동은 1930년대 초 일제의 탄압으로 대부분 활동을 중단되었다. 일제는 협동조합을 탄압하면서 관(官) 주도의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여 지방협동조합을 부락진흥회에 흡수하였다.

2. 해방 후 이동(里洞)협동조합설립으로 결실

해방 후 협동조합 설립은 농지개혁과 함께 사회운동단체와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침략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고 피폐해진 민중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되었다. 여론이 확대되자 제헌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하지만 조합의 설립목적과 형태, 운영에 있어서는 정치세력 및 사회운동단체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아서 난항이 거듭되었다.

표류하던 협동조합설립운동은 한국전쟁 전후 진보적 정치인들이 탄압받고 반공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농업은행 및 구 농협 설립과 농촌마을을 중심의 이동(里洞)협동조합 설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동협동조합은 설립 후 주민들의 출자로 대출업무를 비롯하여 소득증대사업,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였다. 1958년 전국적으로 설립된 이동협동조합은 21,042개였다. 하지만 대부분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였고 영세하여 제대로 운영되는 조합이 많지 않았다. 그러자 제3공화국시절 통폐합을 추진하여 1972년에는 1,567개만 남게 되었으며, 이듬해 이것을 토대로 지역과, 읍·면 단위의 단위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사리(寺里)'는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농촌마을이다. 전체 100호 120세대가 넘게 살고 있다. 마을의 주요 성씨는 안동 김씨와 칠원 윤씨다. 안동 김씨는 아직까지도 40호가 넘게 거주하고 있으며, 칠원 윤씨도 15호쯤 살고 있다. 사리 마을은 예로부터 반촌(班村)으로 대접받았고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며 구한말 이후로는 근대교육에 힘써 관직진출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사리마을에서 가장 이름 난 인물은 윤기선이다. 윤기선은 구한말에 시종 버



[서탄면 사리 4운동 주역들(2013)]

슬을 지내다 일제강점 후 낙향하여 서탄면장을 지냈다. 서탄면장으로 재직할 때에 3.1만세운동이 발생하자 수 백 명의 면민(面民)들을 동원하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안동 김씨, 칠원 윤씨 가문의 전통과 마을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은 해방 후 사리마을에서 각종 공동체운동이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4H운동,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이동협동조합운동이 그것이다. 4H운동은 1954년 윤준학(작고)씨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주민 김항목(78), 공상렬(77), 김경용(78), 김찬희(78)씨는 4H운동에 동참했다. 이들에 따르면 수원의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온 윤준학씨가 마을 청년들을 모아 놓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사리4H 대원들은 초가로 회관을 건립하고 양재학원을 설립하였다. 또 여성들은 양묘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주변의 관심과 칭찬을 많이 받았다.

3. 사리 이동협동조합

4H운동은 사리이동협동조합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연결되었다. 사리이동협동조합은 1958년에 설립되었다. 이동조합 설립이 빨랐던 것은 관(官)보다는 주민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김형인(작고)씨에 따르면 사리이동조합은 1958년 수원 농업진흥청에서 농업요원교육을 실시한 것이 계기였다고 한다. 당시 농업요원교육에는 윤준학(작고)씨와 윤영흥(작고)씨가 참가하였는데, 교육을 수료하고 돌아와서는 마을공동회의를 소집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조합설립을 추진하였다.

초대 조합장은 김재국이었다. 상무는 윤준학이었고 감사2명에 이사 5명으로 조직되었다. 조합원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논 1천 500평에 1주씩 출자하도록 하였다. 초기에는 주민들 가운데 70%만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운영이 잘되자 이듬해에는 나머지 30%도 가입하여 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협동조합에서 추진한 첫 사업은 정미소운영이었다. 정미소는 주민들 출자금으로 김재국씨 방앗간을 임대하고 기관수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정미소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도정료(1가마에 3되)를 받았다. 첫 해 운영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익금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는 김재국씨 땅을 매입하여 방앗간을 건립하였다. 방앗간 뒷집에서 쌀겨가 날려 고통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하자 뒤쪽 땅 30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구판장을 운영하였다. 이익에 대한 분배도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하였다. 이익금에 대한 증자도 실시하였으며, 마을 숙원사업이었던 사리고 건설에도 쌀 1백가마를 내놓을 수 있었다. 춘궁기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저리의 장리쌀을 대출하였다. 당시에는 맛 장리쌀(쌀 한가마를 빌린 뒤 이듬 해 가을에 두 가마를 갚는 방식)도 있었던 시대에 쌀

1가마에 2말의 이자만 받았다. 요즘으로 치면 은행이자도 안 되는 대출을 한 셈이다. 덕분에 고리채 정리와 농가자립이 다른 마을에 비해 빨리 이뤄질 수 있었다. 1972년에는 마을 공동창고를 건립하였다. 지금도 남아 있는 공동창고는 한 때 농협 쌀 수매창고로 이용되어 임대료 수입에 도움이 되었다.

모범적인 운영 덕분에 사리이동조합은 1970년대 초 이동조합 통합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당시 정부시책이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고 물었더니, 이동조합의 재산이 워낙 많은데다 이익배당금도 많아서 조합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사리이동협동조합의 단위농협 가입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심지어 서탄단위농협에서는 조합장은 물론이려니와 직원을 상주시키면서까지 가입을 종용하였다. 결국 견디다 못해 내놓은 타협안이 통합은 하지 않되 주민들이 단위농협조합원으로도 가입하는 것이었다. 신규 가입하는 조합비는 조합에서 주식 1주 당 1천 원씩을 대납하였다.

4H운동과 이동협동조합의 경험은 새마을운동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게 하였다. 진위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곧고 넓은 도로를 만든 것, 넓게 뚫린 마을 안길을 조성한 것, 콘크리트로 사리교를 건설한 것, 오산천 제방축조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것은 주민들의 남다른 단결력과 희생정신, 공동체운동에서 다져진 경험 때문이었다.(2011)



사리이동조합에서 운영했던 정미소(2007)

세교동 은실마을 당제

1. 세교동 은실마을

세교동은 구 평택시가지에서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였다. 본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안잔다리, 별잔다리, 은실, 봉학골, 문화촌, 신촌과 같은 자연마을이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아파트 택지개발사업으로 안잔다리와 문화촌이 수용되면서 현재는 안잔다리, 은실, 신촌, 봉학골만 남았다. 이 가운데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마을은 안잔다리와 은실뿐이다.

은실마을은 잔다리(세교리)와 함께 세교동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다.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1911년에 편찬된 조선지리지자료에 세교리, 통북리와 함께 은실리가 나온다. 은실리는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때 세교리와 통합되어 진위군 병남면 세교리가 되었다.

은실에는 큰은실과 작은은실, 은곡(음곡), 서바탕이, 신촌과 같은 자연마을이 있다. 이 가운데 큰은실과 작은은실, 은곡만이 본래의 마을이고 서바탕이와 신촌은 해방~6.25전쟁을 겪으면서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큰은실은 은실마을의 중심이다. 작은은실은 중앙초등학교 뒤로 본래 산 아래에 위치하여 '산아래'라고 불렀다. 은곡은 서쪽 골짜기(박가네 갈국수 뒤)에 위치하였다. 옛 기록에는 음곡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은실은 해방 전에는 20, 30호, 한국전쟁 뒤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50호 내외가 거주하였다. 성씨는 금녕 김씨가 20호로 대성(大姓)이었고, 수원 최씨가 너댓집쯤이었다. 1940, 50년대 은실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논이 전체 경작지의 80%가 넘어서 전형적인 논농사지대였다고 할 수 있었다. 주민구성도 대부분 농민이었고, 한국전쟁 뒤에야 전쟁피난민, 충청도지역의 빈농들이 몰려들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모여 살게 되었다. 1990년대 전 후에는 마을 안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마을의 정체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주민들이 입주하였다. 이로서 현재와 같이 3대 이상 거주한 토박이들과 한국전쟁 이후 정착한 주민들, 공동주택 입주로 정착한 주민들 등 세 부류의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2. 은실마을 당제는 입향조를 마을신으로 섬겨

은실마을 뒤 당산(堂山)에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마을제당이 있다. 제당(祭堂)은 벽

돌건물에 기와지붕을 하고 있고, 양철로 문을 만들었다. 내부에는 제단이 있으며, 제단 위에는 '서낭지위'라고 쓴 신위(神位)가 모셔져 있다. 제당은 2012년 은실마을 주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민 이영기(76세, 전 평택시의회 의장)씨의 주도로 신축되었다.

은실당제는 음력 2월 3일에 지낸다. 통상 한반도 중부지방의 산신제는 음력 7월 또는 10월에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론 정월에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음력 2월에 지내는 것은 다른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영기씨는 당제를 음력 2월 3일에 지내게 된 것은 마을의 토호(土豪)였던 금녕 김씨의 입향조 은곡공 김정대(金鼎大)와 그의 아들 소은공 김재원의 효행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기씨가 모친과 마을 어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정대와 김재원은 높은 인품과 뛰어난 효행으로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나라에서도 두 부자(夫子)의 효행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예조에서 효자(孝子) 정려(旌閭)를 내렸고, 19세기 중반에는 당대 대학자이며 성균관 재주였던 임헌회가 찬(撰)한 신도비도 건립하였다. 주민들도 두 부자의 효행에 감동하여 뒷산에 마을제당을 짓고 김재원의 생일인 음력 2월 3일에 제를 올리게 되었다.'

주민 이영기씨가 구전으로 들은 김정대가 효자(孝子)였다는 사실은 1899년에 편찬된 '금녕 김씨 충의공파 세보' 서두(序頭)에 면암 최익현이 쓴 '은곡공(銀谷公)사적'과 '소은공(素隱公)사적' 그리고 세보(世譜)에 기록된 김정대, 김재원 관련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세보에는 김정대가 죽은 뒤 진위현 성남면 세교리 선영 아래에 묻혔고, 효행(孝行)이 탁이(卓異)하여 철종 기사년(기미년의 오기로 보임, 1859) 조봉대부 동몽교관에 증직(贈職)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부인 부여 정씨는 경오년(1870년) 4월 15일



[세교동 은실마을 당산과 제당(2010)]

효부로 정려(旌閭)되었으며, 성균관 재주 임헌희(任憲暉)가 찬(撰)한 신도비도 있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김정대, 김재원 부자의 효행을 기려 제당을 마련하고 마을제를 올렸다는 구전(口傳)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3. 마을은 사라져도 당제는 보존할 것

그러면 은곡마을 당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당제의 시작 근거도 세보(世譜)에서 찾을 수 있다. 세보(世譜)에는 세교동 은곡마을 뒤 당산에 금녕 김씨의 묘역이 조성된 것은 금녕 김씨 16세손(충의공파 8대손)인 문백 김홍규(1661~1722) 때 부터라고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금녕 김씨가 은곡마을에 입향했다고는 볼 수 없다. 전후관제를 따져 볼 때 입향조는 20세손인 김정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김정대의 아호가 '은곡(銀谷)'이었기 때문이다. 울곡(栗谷), 퇴계(退溪), 잠곡(蠶谷), 송강(松江)처럼 조선시대 선비들은 통상 거주지의 지명(地名)이나 근처의 산(山)과 강(江)의 이름을 빌려 아호를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은곡(銀谷)'이라는 아호는 그의 거주지가 세교동 은곡(銀谷)마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보(世譜)에 김정대는 충의공 백촌 김문기의 12세손으로, 영조 갑자년(1744)에 출생하여 순조 임오년(1822)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었다. 그렇다면 금녕 김씨 충의공파가 은곡마을에 입향한 것은 18세기 중, 후반, 즉 250여 년 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제당을 건립은 김정대 사후인 19세기 초였을까? 세보를 살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제당(祭堂)의 제의 날짜가 음력 2월 3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음력 2월 3일은 소은공 김재원(금녕 김씨 21세손)의 생일이다. 본래 은곡공 김정대에게는 재길(在吉)이라는 큰아들과 늦게 얻은 둘째아들 재원(在元)이 있었다. 재길은 정조 무술년(1778)에 태어나서 이른 나이인 정조 신해년(1791)에 사망하여 은곡 뒷산 기슭에 묻혔다. 반면 둘째 재원(在元)은 정조 을묘년(乙卯年, 1795)에 태어나서 철종 경술년(1850)에 사망하였고, 세교리 뒤 당산(堂山) 서쪽기슭에 묻혔다. 생전(生前)에 재원은 부친의 뒤를 이어 효행으로 크게 이름을 날렸고 나라로부터 효자정려(孝子旌閭)를 받았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큰아들 김재길과 둘째 김재원이 묻힌 은실마을 뒷산의 지명이 재길(1791)과 재원(1850)의 사망 시기 사이에 '뒷산'에서 '당산(堂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당산(堂山)이라는 지명은 마을제당이나 서낭과 같이 무속신앙과 관련 된 경우에만 나타난다. 그렇다면 위의 사실은 지금부터 160여 년경 은실마을에서는 김정대, 김재원 부자의 효행을 기려 마을제당이 조성되었고, 그 뒤로 두 사람을 마을신으로 신격화하여 지금껏 제를 올리며 정성을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실당제는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거행하였다. 제일(祭日)이 가까워오면 주민들은 생기복덕을 따져서 흠 없고 정결한 사람으로 제관(祭官)을 선출하였고, 집집마다 제비(祭費)를 거출하여 제물(祭物)을 마련하였다. 제관이 선출되면 집 앞에 황토를 놓고 금줄을 쳤으며, 각종 금기를 지키도록 하였다. 제물(祭物)은 소머리, 삼색식과, 시루떡, 조라술을 바쳤다. 제일(祭日) 저녁에는 제관과 유사 몇 명만 당산에 올랐다. 제의순서는 헌작하고, 축문 읽고, 절을 한 뒤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대동소지를 올렸다. 소지가 끝나면 제물을 음복하고, 제당에는 북어와 함께 한지에 제물을 조금씩 담아서 매달아 놓은 뒤 제관의 집으로 내려왔다. 남은 제물은 다음 날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집집마다 빠짐없이 나눠주었다. 제물은 액막이 음식이라고 하여 이것을 먹어야 일년 동안의 모든 재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행했던 당제는 현대로 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집집마다 거출했던 제비(祭費)는 마을 공동담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충당하다가, 공동담이 매각된 요즘에는 노인회에서 마을공동기금으로 지내고 있다. 제물도 1960년대부터 소머리에서 잡티가 없는 검은 돼지로 바뀌었다. 은실마을은 현재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마을제당에 대한 토착 주민들의 신심(信心)은 여전해서, 마을이 개발되더라도 당산을 공원화하고 당제만큼은 정성껏 지내기로 결의하였다.(2012)



세교동 은실마을 제당(2010)

여슬마을 문장자 고개 전설

1. 복(福)을 받으려면 나눔을 실천하라

마음을 곱게 써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서 마음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무' 다시 말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미한다.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에 대한 구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불가(佛家)에서는 모든 생명은 인연의 끈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여기는 모든 생명과의 만남도 '인연' 때문이라고 말한다. 불가(佛家)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도,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금정산 터널사업이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기실 인연으로 맺어진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연대의식의 표현이다. 옛사람들은 봉제사(奉祭祀)와 함께 접빈객(接賓客)을 당연한 책무로 여겼다. 본래 접빈객의 책무는 유가(儒家)의 명령이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민족의 기본정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옛 이야기에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는 스토리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꺼리다. 고전소설 흥부전에도 놀부의 욕심 때문에 빈농으로 전락한 흥부가 제비에게까지 선행을 베풀어 복을 받았다는 스토리가 큰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놀부를 꿈꾸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흥부에 대한 동정은 한낱 사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상황을 알고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흥부는 부자와 권력자들에게 집과 전답을 빼앗긴 빈농의 전형이다. 반면 놀부는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편승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었던 부농층을 대표한다.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버릇 때문에 재물로 가치판단을 하다 보니 부농층에게는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에 대한 도덕성적 책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리대를 하거나 흉년을 이용하여 가난한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사회적 책무를 망각하고 나눔에 인색한 부자는 예나 지금이나 비난을 받는다. 민중들이 흥부전에 열광하고 놀부를 저주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궁극적으로 부(富)는 신(神)의 소유이고 사회전체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고장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였다가 나눔에 인색하여 망해버린 부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오성면 양교리의 '문장자 고개 전설'과 안중읍 금곡리의 '구루목 전설'이 그것이다. 인색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눔의 가치를 찾아보자.

2. 구제와 접빈객은 명문가의 당연한 의무

양교리는 오봉산 남쪽에 자리 잡은 여섯 개 자연마을이다. 이 지역은 물이 넉넉하고 농경이 발달하여서 예로부터 이름난 집안이나 권세가들이 많았다. 문장자고개는 양교5리 여술에서 6리 새터마을로 넘어가는 자그마한 고개다. 오랜 옛날 여술마을은 동쪽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큰 길이 자났고 인구도 많아서 가호(家戶) 만도 3백 호가 넘었다고 한다.

당시 마을에 문장자라는 큰 부자가 살았다. 문장자는 정승을 지냈고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큰 부자였지만 성품이 인색하고 너그럽지 못하여 손가락질을 받았다. 서울로 오가는 큰길이다 보니 여술마을에는 나그네와 걸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마을로 들어온 나그네는 십중팔구 부잣집의 문을 두드렸다. 부잣집의 곡식을 축내야 덜 미안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명문가의 당연한 의무였던 시절이었다.

사실 접빈객(接賓客)과 빈민구제는 교통이 불편했던 전통사회에서 가문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수집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접빈객이었다는 말이다. 경주 최부자집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도 구제와 접빈객을 통해서였다. 구레 운조루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뒤주를 따로 마련하여 환란을 당했을 때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필자의 어린 시절에도 마을에 들어오는 방물장수, 채장수, 소쿠리장수, 심지어 야매로 이빨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룻밤 유숙을 청하면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재워주고 먹여주어 보냈다. 그래야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고, 그것이 인정이었다. 돈만 많으면 명문가처럼 떠받들어지는 요즘 세태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 명 속에 묻혀 있는 문장자 묘비(2007)

접빈객을 잘해주었던 명문가의 사랑방에는 서울을 오가는 과객(科客)에서부터 이름난 명사들의 발걸이 끊이지 않았다. 포승읍 희곡리에 사는 화가 이계송선생의 사랑방도 한 때는 한양을 오가는 과객들의 안식처였다고 한다. 과객들은 하룻밤 응송히 대접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서 과거에 합격하면 돌아오는 길에 사례를 하였다. 그렇게 맺은 인연으로 유명한 학자들과 사제관계를 맺었고, 때론 혼맥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변방 오지로 유배를 당한 명사들을 거두었던 곳도 명문가 사랑방이었다. 명사들을 통해서 세상 소식을 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맺기 위해서였다.

3. 손님접대와 구제를 피하기 위해 혈(穴)을 끊었다?

문장자는 빈민구제와 접빈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돈도 안 되는 인심. 당장 이익이 없는 손님접대는 불필요한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밥값도 못하는 나그네들 때문에 재산이 축나고 공간이 텅 빈 것이 늘 아까웠다. 문 앞에 걸인들이 드나드는 것도 보기 싫은 풍경이었다. 그러다보니 오는 손님은 오만상을 쓰며 받아들였고, 걸인들이 구걸하면 소금을 뿌려 돌려보냈다. 사람이 가치를 모르면 행위에서 오는 긍지와 자부심도 얻을 수 없다. 자부심이 없는 행위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하다. 어느 날 노스님 한 분이 문장자 댁에 시주를 요청하였다.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문장자는 정성껏 시주를 한 뒤 불편한 속내를 털어 놓았다. 쓸 데 없는 손님들과 걸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자 스님은 양교6리 새터로 넘어가는 문장자고개의 혈(穴)을 자르고 마을 앞 내(川)를 방울미 앞쪽으로 돌리면 근심이 사라질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비법을 알았다고 생각한 문장자는 뿔 듯이 기뻐다. 당장 하인들과 소작농들을 동원하여 고개의 혈을 자르고 물길을 돌려버렸다. 노승의 말대로 혈을 자르자 정말 손님과 걸인들의 발걸음이 뜰 끊겼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였다. 인심을 잃어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그에게 세상인심이 등을 돌려버리자 출세길이 막혀버렸다. 물길이 막히면서 흉년도 거듭되었다. 집안도 점점 기울다가 망해버렸음은 물론이다.

문장자고개 전설은 전설로만 남아 있지 않다. 실제로 문장자고개 마루턱에는 문장자의 것이라고 전해지는 묘가다. 묘 앞에는 흙에 깊이 묻힌 묘표도 있고 좌우에는 문인석과 망주석도 있다. 대검당 정완영씨는 옛날에는 오봉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 전체가 문장자네 묘역이었다고 말했다. 문장자고개 아래에 거주하는 할머니는 자신의 시아버지께서 문장자네 묘역을 관리하였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살았다는 집은 문장자의 묘 앞에 있어 그와 같은 주장을 수긍하게 한다. 그렇다면 문장자고개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전설이었음을 말해준다. 사실이었던 이야기가 전설이 된 것

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문장자고개 서쪽 삼정승산은 세 명의 정승이 고덕면 여염리에 있는 이팔 아버지의 묘를 향해 절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이팔은 조선 인조 때 반란을 일으켰다가 경기도 광주 부근에서 패하였던 인물이다. 반란의 수장에게 절을 하는 정승이라면 반란군에 동조하는 세력이었다는 말이 된다. 실패한 반란의 결과는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걸었을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몰락한 정승 가운데 문장자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한다. 또 다른 상상은 이인좌의 난(무신 난, 1728)과 관련된 것이다. 이인좌의 난은 조선시대에 지배층이 일으킨 최대의 반란이다. 평택지역 사족들 가운데는 이인좌 세력에게 적극 가담하였다가 몰락한 집안이 많다. 난이 진압된 다음에 가담했던 세력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이인좌의 난이 아니라 이팔의 난 때 내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팔의 난을 핑계 대어 이인좌의 난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양교리에서 멀지 않은 길음리에도 문장자고개 전설과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구루목 전설이다. 구루목 전설도 스토리는 문장자고개와 흡사하다. 그곳에도 유물이나 유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오봉산 일대에 그와 같은 전설이 두 개씩이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다양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운이 진하다.(2010)



오성면 일교도리 여술마을 문장자고개

평택역사산책

방울미와 결명이의 영일 정씨

전통의 명가(名家) 도일동 진주 소씨

이용익 선정비

진위향교 앞 능성 구씨 송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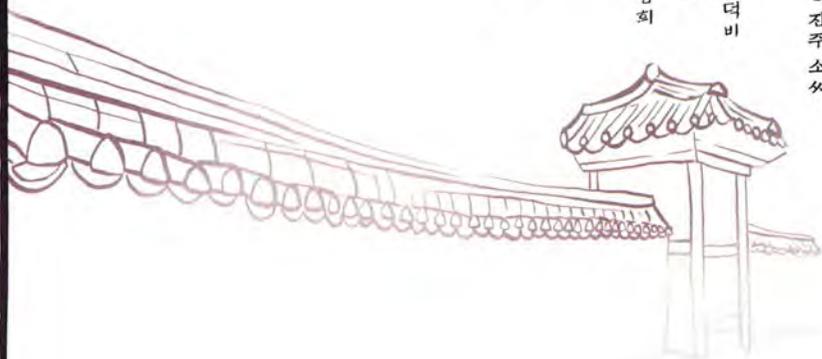
평택지역의 예인(藝人)들

국악현대화의 선각자 지역회

우리시대의 가객 정태준

그녀 황필순

삼팔따라지의 삼과 회한





인물산책

04

평택에서 는 인물이 날 수 있을까?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은 누구인가?
원균·지나치게 폄하(貶下)된 영웅
정처인의 모범 장곡 김육
최경·조선전기 인물화의 대가
죽음으로 불의에 항거한 우남양
평택지역 사람파의 뿌리 최수선
백성들이 먼저 추앙했던 충의공 한은
정해왜변(1587)의 영웅 이대원
덕원군 이서 조선시대 왕족의 삶
홍익한·조선 후기 충신의 모범답안
적파의 동침·이팔 이성부 유적
도미날 정승 이광좌의 묘
난세는 영웅을 원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 경주 이씨

평택에서는 인물(人物)이 날 수 있을까?

1. 팔불(八不)의 고장이라던 평택

평택에서는 인물이 나지 않는다는 말이 정설처럼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다. 자고로 인물이란 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나는 데 우리고장에는 큰 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가 20여 년 전 지역사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우리고장에는 인물도 없고 문화도 없다'라고 잘라 말하는 지인도 있었다.

지역사를 연구하면서 '평택에는 인물이 없다'라는 말은 오랫동안 화두로 남아 있었다. 사람을 키워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하는 필자는 훌륭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평택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한 적도 있다. 결혼하여 아이들이 태어나면 서울은 아니라도 수원이라도 유학이라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역사를 공부하면서 '큰 산은 큰 인물을 나게 한다'라는 등식이 갖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등식에는 농경사회의 특징과 봉건적 지배의식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봉건사회에서는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이 농경에 유리하였다.



[평택지역 인물성장의 경제기반이 된 평택평야(2007)]

농경에 유리하고 물을 얻기 쉬운 곳은 일찍부터 지배층의 삶터였다. 우리고장에서도 무봉산, 덕암산, 태봉산처럼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에 지배층의 동족마을이 형성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대이전에는 사회적신분과 농업경제력을 갖춘 가문이라야 자녀교육과 관직 진출이 가능하였다. 농경활동이 어려웠던 저습한 평야지대의 상민층이나 천민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교육을 받거나 관직진출을 하기가 어려웠다.

근대이전 평택지역은 저습한 평야지대였다. 더구나 바다가 가깝고 수로가 발달하여 저습지의 대부분은 간석지거나 황무지였다. 생산력이 낮은 저습지대는 수탈의 대상이었지 지배층의 거주지는 아니었다. 명망 있는 가문이 없다보니 역사에 이름을 남길만한 인물이 배출되기가 어려웠던 것은 당연하다. 큰 산의 정기가 아닌 사회경제적 조건이 인물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것이다.

2. 학문과 덕행으로 족적을 남긴 사람들

열악한 주거조건, 척박한 경제환경이었지만 우리고장에도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 많았다. '조선건국의 설계자'로 추앙받는 삼봉 정도전이 그렇고, 학문과 덕행으로 추앙을 받았던 조광조, 최수성, 우남양, 최자반,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 이승훈, 병자호란 때 삼학사로 추앙받았던 홍익한과 오달제, 독립운동가 안재홍이 그들이다. 조선시대 명문거족으로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경주이씨 가문도 빼놓을 수 없다.

어쩌면 독자들 가운데는 '이들 대부분은 평택출신이 아니다'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정도전은 경북 봉화가 고향이고, 조광조는 서울, 최수성은 강릉, 이승훈은 경기도 광주, 오달제는 용인에서 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택지역과 관련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거주지가 한 곳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고향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관직에 진출하면 서울에도 집을 두었고, 전장(田莊)에도 집이 있었으며 필요하면 별장도 따로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물에 대한 선양은 출신지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학문활동, 관직활동, 유배지, 묘나 사당, 후손들의 거주지처럼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정도전은 손자 정래가 진위면 은산리에 정착한 이래 대종가가 은산리를 중심으로 맥(脈)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곳에 사당과 가묘, 기념관까지 있어 마땅히 우리고장에서 선양해야할 인물로 평가된다. 조광조는 이충동 일대에 장토(庄土)와 집이 있었고 외가가 근처에 있어서 어린시절을 평택에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또 관직에 진출해서도 신장1동 남산기슭에 가까운 벗 최수성이 살고 있어 내왕도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남양과 최자반은 평택에서 나서 평생을 살며 학문과 덕행으로 칭송을 받았고, 당대의 신진사류 조광조, 최

수성, 김안국 등과 교류하였던 사림(士林)이었다. 이밖에도 평택현감을 지낸 이승훈, 병자호란의 삼학사 홍익한, 오달제, 해방 전후 독립운동가이며 정치가였던 안재홍도 우리고장을 빛낸 인물이다.

3.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경주 이씨

경주 이씨는 평택지역의 자량이 될 만한 가문이다. 이 가문은 백사 이항복의 증조부 이성무의 후손들로 명재상으로 이름 높은 백사 이항복, 영조 때 영의정과 좌의정을 지낸 이광좌, 이태좌, 순조 때 이조판서를 지낸 이계조, 고종 때 영의정과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원과 이유승, 일제강점기 서간도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이회영과 형제들, 임시정부 요인으로 해방 후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국회의원 이종길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배출한 명문거족이다. 하지만 경주 이씨는 권력과 재물로만 이름을 남긴 가문이 아니다. 이 가문의 위대함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데 있다. 조선왕조 오백년 사직이 무너지고 민중들은 일제의 지배와 수탈에 허덕일 때, 대부분의 지배층이 민족적 사명과 양심을 버리고 가문과 일신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굴종할 때, 경주 이씨는 모든 것을 바쳐 독립운동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청산리, 봉오동 대첩도 경주 이씨 가문에서 세운 신흥무관학교출신이 주축을 이뤘다는 사실은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평택의 태어난 인물들 가운데는 유난히 무인들이 많다. 조선시대에 무인이 많다는 것은 급이 낮은 양반가와 상민출신으로 출세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이 낮은 양반가가 많았던 것은 앞서 말했지만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기인한다. 문과에 급제하려면 20년, 30년 동안 일하지 않고 공부만 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재력이 없었던 집안에서는 문과보다 쉬운 무과를 통하여 출세를 도모했던 것이다.

한미한 가문출신이었지만 평택출신의 무인들 가운데는 국난극복에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인물이 많다. 공신(功臣)이나 충신(忠臣)정문을 받은 사람도 여럿이다. 세조 때의 최유립, 임진왜란 전후의 이대원과 원균, 원사립, 원연, 방덕룡, 정담수가 그들이다. 어떤 이는 수만 명의 병졸을 지휘하였던 장수였고, 누구는 미관말직에 불과하였지만 국난을 당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려던 그들의 삶은 후세에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4.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우리고장에는 문화와 예술로 족적을 남긴 인물도 많다. 조선후기 판소리 전기 8명창에 가운데 한 명인 모흥갑은 기왕 송홍록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적벽가로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명창이었다. 그의 소리는 현종임금에게까지 사랑을 받아서 나중에 동지중 추부사라는 벼슬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흥갑은 김제와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말년에 전주에서 사망했다는 점 때문에 우리고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증고제의 명창이었던 이동백이 은퇴 후 죽기 전까지 10년 동안 칠원동 새말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해금산조와 피리시나위의 명인 지영희는 포승읍 내기리에서 나서 만호리에서 자랐다. 특히 피리시나위 솜씨는 매우 출중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52호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지영희는 연주실력도 대단했지만 1966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설하여 지휘를 하였고 국립국악고등학교 실기부장을 지내며 후진양성에도 힘을 쏟았던 국악계의 거목이었다. 문화예술하면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을 빼 놓을 수 없다. 웃다리지역 전문예인들의 기예와 평택지방 두레풍물패의 기예가 조화를 이룬 평택농악은 이제는 평택을 벗어나 세계의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밖에도 영향력 있는 대중음악가 정태춘과 박상민, 시인 박후기, 설치예술가 최병수 등도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다.

평택지역은 과거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았지만 미래에 더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지역 인물양성의 기반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력의 향상이다. 평택지역은 1970년대를 거치며 농업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1990년대 이후 평택항과 각종 산업단지 건설되면서 지역경제가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여기에 평택지역이 갖고 있는 개방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점은 성장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아쉬운 것은 실물경제에 비하여 인문학적인 소양과 다양하면서도 수준 높은 문화가 부족한데 이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만이 해결책이다.(2009)

조선왕조를 설계한 정도전은 누구인가?

1. 고려 말의 혼란기에 혁명을 꿈꾸다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는 봉화 정씨 동족마을이다. 봉화정씨가 은산리에 자리 잡은 것은 조선 전기이다. 용인현감을 지낸 정래가 진위현 산대(山臺)마을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산대마을의 봉화정씨는 조선개국공신이며 '조선왕조의 설계자'라고 칭송받았던 삼봉 정도전의 후손들이다.

정도전은 고려 말 충청북도 단양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 정운경이 고려 후기 명문가였던 단양 우씨 집안의 서녀와 혼인을 하여 낳은 것이 정도전이었다. 그의 선대(先代)는 경상북도 봉화에서 향리를 지냈고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경이 관직에 진출하면서 중앙과 관련을 맺었다. 정도전은 아버지를 따라 개경으로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학문을 배웠다. 10대 후반에는 성균관에서 목은 이색에게 성리학을 배웠고, 정몽주, 이승인, 김구용, 박상충 등과 동문수학하였다. 20세에는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21세에 처음으로 관직에 나갔다. 앞길이 밝기만 했던 정도전의 삶은 24세에 부모상을 당하고 공민왕이 살해되면서 소용돌



[진위면 은산리 삼봉정도전 서당 문헌사(2007)]

이쳤다. 시골출신인데다 서출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주류사회로부터도 차별을 받았다. 33세에는 원(元)나라 사신접대를 거부하여 전라도 회진현 거평부곡으로 유배를 당했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7년 동안 복직되지 못하고 재야를 떠돌았다. 정신적 박탈감과 심한 고립감이 시달리던 재야생활에서 정도전은 희망 없는 고려왕조와 권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권문세족의 횡포 그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보았다. 고려 말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밖에는 길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도 이때였다.

우왕 9년 정도전은 역성혁명에 대한 갈망을 품고 함주(함흥)의 동북면도지휘사 이성계를 찾아갔다. 역성혁명의 이상을 품은 그로서는 이성계의 대중적 지지도와 꿈을 뒷받침할 군사력이 필요하였다. 나중에 정도전은 자신과 이성계의 관계를 하고조 유방과 장량의 관계에 비유하였다. 장량이 필요에 따라 유방을 선택한 것처럼 자신도 역성혁명을 위해 이성계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성계와의 만남으로 정도전은 혁명가로 변신하였다. 정치적으로도 복권되어 서장관의 신분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우왕 14년에는 이성계의 도움으로 대사성에 올랐다. 1388년 위화도 회군은 역성혁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영마저 제거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중심인물로 급부상한 정도전 등은 전제개혁(1391년)과 군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고 신진사대부가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전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개혁과 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혁의 입안자였고 역성혁명을 꿈꾸었던 조준과 정도전은 찬성하였지만, 고려왕조에 대한 충(忠)만이 개혁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이색, 정몽주, 이승인, 권근은 반대하였다. 개혁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공존의 틀은 깨어졌다. 반대파들은 우왕과 손을 잡고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를 제거하려고까지 하였다. 이 사건으로 정몽주를 비롯해서 반대파들이 이방원에게 숙청당하였다. 그리고 이성계는 공양왕의 선위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왕권을 넘겨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

2. 민본정치의 이상을 제시하다

정도전을 '조선왕조의 설계자'라고 부른다. 조선의 국가기틀이 정도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이 건국되자 정도전은 개국1등 공신 봉화백으로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겸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에 올라 정권과 병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이색을 비롯하여 반대파를 제거하였으며, '편민사목 17조'를 지어 왕에게 바쳤다. 태조 이성계도 나라일을 정도전에게 맡겨 운영하였다. 정도전은 태조의 신임을 받으며 조선의 문물과 제도, 국가정책을 마련하였고, 한양천도와 신도시 계획, 심지어 서울 4대문의 이름과

궁궐 전각들의 명칭까지도 그의 손을 거쳤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나라는 '민본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상적인 유교국가였다. 민본정치 이념은 부친의 3년 상을 치를 때 정몽주가 보내준 맹자(孟子)를 통해서 깨달았다. 맹자에서 정도전은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발견하였으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도전이 읽은 구절은 '군주는 국가에 의지하고 국가는 백성에게 의지하므로 백성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는 군주는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덕(德)으로 다스려야 하였다.

하지만 정도전은 세습적인 전제군주제 하에서 모든 왕들이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민심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재상정치'는 이와 같은 고민에서 제시된 정치적 대안이었다. 만백성 가운데 실력으로 선출된 재상이 합의를 통하여 정치를 주도하고,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을 다스린다면 이상적인 유교정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도전이 정치적 야심이 컸던 방원이나 방간을 제외하고 강비의 소생이었던 방석을 태자로 옹립했던 것도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정도전의 민본정치, 재상정치는 왕권정치를 지향하는 방원을 비롯한 구신(舊臣)세력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리고 제1차 왕자의 난(1398)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정도전의 정치적 이상은 막을 내렸다.

정도전은 죽임을 당한 뒤 모든 훈장이 박탈되었고 조선 말기까지 복권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고종2년(1865) 대원군에 의해 복권되었으며, 고종8년(1871)에는 문헌(文獻)이라는 시호와 유종공종(儒宗功宗)이라는 편액이 내려지고, 이듬해에는 사당이 건립되었다. 정도전의 후손들은 사후에 부침을 겪었지만 곧 등용되어 큰 아들 정진은 형조판서, 큰손자 정래는 용인현감, 증손 정문형은 우의정에 올랐다. 정도전은 후손들은 정래가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에 정착한 뒤 6백년을 세거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기동, 방촌, 평동, 새터 등 산대 8개 마을에 크고 작은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있다.(2010)

원균, 지나치게 폄하(貶下) 된 영웅

1. 무인집안 출신의 용장(勇將)

초등학교시절 존경하는 인물 1위는 이순신, 2위는 세종대왕, 3위는 박정희였고, 닭지 말아야 할 인물은 김일성 1위, 이완용 2위, 원균 3위였다. 그 중에서도 원균은 포악한 성품에 남의 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능력도 없어 전투에서는 쫓무니를 빼는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지질한 인간'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살펴본 바로 원균은 '공공의 적'이 되기에는 충분치 못한 사람이었다. 간웅이라기에는 너무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전형적 무장의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이번 역사산책에서 원균을 다루게 된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평택이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도 작용하였지만, 시대의 필요에 의해 한 인간의 삶이 무참하게 난도질당하고 폄하되는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반영되었다. 원균은 경상도병마절도사 원준량의 장남으로 평택시 도일동에서 태어났다. 원주 원씨 집안은 대대로 뛰어난 무인들을 배출하였다. 경상도병마절도사를 지낸 원준량을 비롯하여 원균의 동생이며 고성현감을 지낸 원전, 왜란에 참전한 전공으로 관직에 오른 아들 원사



도일동 원균장군 묘

웅, 서천군수로 왜적을 방어한 조카 원사림이 모두 무인들이었다. 또 원준량의 동생 원국량과 원균의 동생 원연은 사마시에 급제한 선비였으며, 왜란 때 원연은 진위현에서 의병을 일으켜 태봉산과 용인에서 크게 활약한 공으로 적성현감 양주진관병마절제도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원균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호탕하였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한 끼에 밥 한 말, 술 한 말, 꿩이나 닭 서너 마리를 너끈히 먹어치우는 대식가였다. 25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임진왜란 전에는 이일 등과 함께 함경도 일대에서 여진족을 토벌하여 명성을 얻었다. 조산만호(造山萬戶)로 있을 때에는 여진족을 토벌한 공로로 젊은 나이에 부령부사로 특진하였고, 이 일을 따라 시전부락을 격파할 때에도 적은 군사로 적진에 뛰어 들어 적장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여진족들은 원균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였다고 한다. 원균의 무인다운 풍모는 선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선조는 원균을 불러 말을 하사하고 치하했으며, 나중에 선조가 원균을 두둔하고 신임하였던 것도 평소에 가졌던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2. 임진왜란 두 달 전 경상우수사에 부임

원균이 경상우도수군절도사에 부임한 것은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두 달 전인 1592년 2월 경이다. 전쟁의 기운이 무르익자 남해안 방비를 위해 용장(勇將)으로 명성이 높았던 원균을 내려 보낸 것이다. 하지만 두 달이라는 시간은 부대를 재편하고 오합지졸에 불과하였던 조선수군의 기강을 바로 잡기에는 너무 짧았다.

1592년 4월 왜군은 7백 여 척의 전함과, 16만 명의 군대, 9천 여 명의 수군으로 침략한 뒤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였다. 왜군이 침입하자 훈련부족에 전투경험도 없었던 조선수군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쳐버렸다. 제1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경상좌수사 박홍이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쳐버리자 왜군은 경상우수영으로 밀려들었다. 왜군의 기세에 놀라기는 경상우수영의 군졸들도 마찬가지였다. 혹자는 당시 경상우수영에는 수군 1만여 명에 판옥선 70여 척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왜란이 발생한 뒤 일일이 급히 데리고 간 병사가 800~900명이고, 도순번사 신립이 탄금대전투에서 운용한 조선의 주력군이 기병과 보병을 합쳐 8천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원균은 병사들이 동요하고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동생 원전을 시켜 전라좌수영에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왜군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제도의 함선과 무기, 군량미를 불태우거나 바다에 수장시킨 뒤 나머지 함선과 병사들을 이끌고 전투 태세를 갖췄다.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이억기의 전라우수영 부대와 연합한 뒤에는 옥포,

당포, 한산도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실록에는 원균이 전투에 임했을 때에 선봉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어 적을 당파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원균은 1597년 조정의 명령을 어긴 죄로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된 뒤에는 통제사에 올랐다. 당시 조정의 여론은 전공으로나 전투능력으로 평가할 때 이순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원균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원균이 삼도수군통제사에 오르자 조정과 도원수 권율은 부산포의 왜군 본진을 공격하도록 독촉하였다. 이것은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한 이유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투는 장수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더구나 1597년 당시 일본 수군의 전투력은 왜란 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장되어 있었고, 이순신 휘하에 있었던 장수들마저 원균의 지휘를 받지 않으려 하였다. 육지가 왜군에게 점령된 상황에서 수군 단독작전은 불가하다고 수차례 진언한 원균의 건의는 도원수 권율에 의해 묵살되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전쟁에서 장수가 가져야할 엄정한 지휘권과 냉정한 판단력은 점점 희미해졌다. 심지어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삼도수군을 총괄하는 사령관이 총사령관격인 권율에게 불려가 곤장을 맞으면서부터는 올분에 이성까지 잃어버려 진영에 틀어 박혀 술만 마시며 휘하 장수들조차 만나주지 않았다. 칠전량 해전의 패배는 참혹한 것이었지만, 선조와 조정대신들의 평가대로 원균 개인의 지휘능력 부족이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된 것뿐이었다.

3. 원균이 비열하다면 이순신은?

원균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한다. 왜란 당시 원균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선조와 서인들이었다. 선조의 긍정적 평가는 처음에는 원균의 전공과 무인적 풍모에 대한 호감이 크게 작용하였고, 나중에는 이순신 처리문제를 비롯하여 자신의 실수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목적이 컸다.

윤근수와 윤두수, 김응서 등은 원균과의 인척관계라는 점과 남인을 견제하려는 당파적 목적, 거지 장계를 올린 뒤 나중에는 왕과 조정을 능멸한 이순신의 태도에 대한 반감으로 원균을 옹호하였다. 반면 비판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유성룡, 이원익으로 대표되는 남인 계열과 이순신 본인이었다. 이들은 과거 부령부사시절의 처리문제를 비롯하여 경상우수사 시절 이순신과의 갈등, 충청병사 시절의 치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였음은 물론, 이순신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갈등의 원인보다는 원균이 불같이 화를 내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춰 비판하였다. 더구나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남겨 스스로를 변호하였고, 유성룡은 징비록을, 이원익은 오리선생문집을 남겨 후대에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하였지만, 원균은 아무런 개인기록이 없어 자신을 변호할 뚜렷한 근거를 남겨두지 못하였다. 왜란 후에도 원균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흘렀다. 특히 태당 이식이 주도하였던 선조 수정실록과 효종 때 복벌운동 과정, 그리고 영조 때에도 이순신이 크게 부각되면서 부정적 평가는 대세를 이뤘다. 부정적 평가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애국계몽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제3공화국 시기에 출판된 소설류의 영향이다. 1907년 현공립의 '이충무공 실기' 이후 신채호의 '이순신전(1908)',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전(1932)', 이은상의 '성웅 이순신(1969)', 홍성유의 '달과 칼(1991)' 등은 대표할 만한 작품이다. 위의 작품에서 원균은 충효의 상징이며 완전한 인격체인 성웅 이순신을 모함하고 비열한 짓을 일삼는 군소 모리배로 전락되었다. 원균이 주장(主將)으로 참전하였던 경상우수영과 전라 좌, 우수영의 연합 작전은 모두 이순신이 주도한 전투였으며, 원균이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거의 한달 동안이나 머뭇거렸고, 부하 장수 정운이 칼을 빼들고 출전을 강요하자 마지못해 출전하였던 이순신의 과오는 슬그머니 감춰졌다.

그 뒤로 출판된 소설과 영화, 드라마에서도 원균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원균이 술과 여자를 좋아하여 치리(治理)에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성격이 호탕하고 용맹하여 전투에 앞장서는 용장이며, 청렴하고 부하들을 아껴서 신뢰를 얻었고, 상당산성을 수축할 때는 공사장에 토굴을 파고 기거하며 공사를 독려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은 위대한 이순신이라는 영웅을 위해 희생되었다.

필자는 원균이 이순신보다 낮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분명 이순신은 불세출의 영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영웅이 성웅일 수는 없고, 한 사람을 성웅화하기 위해 다른 한 명의 훌륭한 장수가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이순신은 이순신일 뿐이고, 원균은 원균일 뿐이기 때문이다.(2010)

정치가의 모범 잠곡 김육(金堉)

1. 부자감세와 부자증세의 철학적 차이

2012년은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다.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선출이 한참인 모양이다. 선거가 있게 되면 공약이 난무한다. 후보들은 되도록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자극적인 공약을 내놓기 마련이다. 여러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최근 국정연설에서 밝힌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눈길을 끈다. 버핏세. 다시 말해서 부자증세에 관한 내용 말이다. 버핏세는 투자회사를 운영하여 세계적인 거부가 된 워렌 버핏이 제시한 조세다. 버핏은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리기 때문에 금융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금융부자인 본인이 저소득층이나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오바마는 버핏의 주장을 구체화하여 '한 해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는 최소 30% 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들이 적은 세금의 혜택을 유지하기 바라느냐, 아니면 교육, 의료연구, 강한군대 양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기를 바라느냐'고 묻는다. 미국에서도 버핏세가 징수되려면 조금 더 많은 논의와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가들과 사회적 지도층이 부자증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을 보며 미국이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을 예감하게 된다.

반면 지구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몇 년 전 부자감세가 주장되었다. 월 소득 8,800만원 이상자가 소득의 35%를 내던 소득세와 법인세를 33%로 낮춰주는 내용이었다. 감세(減稅)의 명분은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다. 선진국에서는 오랫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세정책을 전개했다고 한다. 현대 문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철학과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국가의 경제발전과 장기적인 민생안정을 위해 제시된 법안인가에 대한 의심 말이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책을 펴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의 기본이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이다.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정치의 기본에 충실한 정치가는 많지 않았다. 기본에 충실

한 정책이 국민들 앞에 실현된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올바른 철학과 진정성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일 것이다.

잠곡 김육(金楬)은 조선 중기의 정치가다. 조선의 정치가들 가운데 김육은 학자보다는 경제가의 품모가 낫았다. 김육의 업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호서지방에 실시한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조선후기의 버핏세 같은 것이었다. 가난한 농민들의 공납(貢納)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세수(稅收)를 부자들에게 징수하자는 개혁정책말이다.

2. 대동법시행기념비 앞에서 출마 선서하면 어떨지

평택시 소사동 원소사마을 입구에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시행기념비가 있다. 이 비(碑)는 호서지방 대동법 실시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김육의 업적을 기려 충청도 백성들이 세운 것이다. 여러 공적비, 송덕비가 있지만, 백성들이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정치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비(碑)를 세운 예는 우리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조선후기 충청도는 집권당의 근거지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구·경북지방인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근거지는 동족마을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저택, 산산, 토지가 있는 곳이었다. 또 서원을 중심으로 끈끈한 학맥(學脈)이 형성되었으며, 혼인관계와 인적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가 살아있는 봉당정치의 근거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대동법의 실시과정에서도 충청도는 전국적 확대과정의 성패(成敗)가 달린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김육은 당파의 입장, 학문과 혼맥으로 형성된 개인적 이해관계를 물리치고 충청도지방에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민생안정(民生安定)과 부국강병(富國強兵)이 봉당(朋黨)과 개인의 이익보다 앞섬을 보여준 참 정치가의 면모였다. 호서에 실시된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애써 농사를 지어봤자 지배층과 관리들에게 수탈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던 농민들에게 국가의 조세감면은 하늘이 내린 선물과도 같았다. 김육이 죽자 백성들은 돈을 모금하여 상가에 부조하였다. 하지만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가에서 부조를 받지 않자 국가에 건의하였다. 백성을 도탄에서 건진 은인에게 길가에 공덕비라도 세워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취지였다. 소사동 대동법기념비는 그렇게 세워졌다.

2012년 선거를 앞두고 평택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아직은 후보경선 수준이지만 어느 해보다도 많은 정치망생들이 경선에 나서고 있다. 필자는 경선에 나선 정치인들이 김육을 롤 모델로 삼기를 기대한다. 최소한 출마 전 소사동 대동법시행기념비 앞에서 청렴과 봉사의 선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권력의 달콤함에 안주하기보다는 권력을 통해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참 정치인의 출현을 간절히 소망한다.(2012)

최경, 조선전기 인물화의 대가

1. 인물화에 뛰어났던 천재 화가

안산에서 지역사를 연구하는 후배가 전화를 하였다. 평택에 최경의 묘가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몇 년 전부터 연구했던 자료가 있어 답사하고 싶으면 평택으로 오라고 큰 소리를 쳤다. 최경은 독곡동과 송탄동의 수성 최씨 평택 입향조다. 또한 수성군 최유림의 아버지이며 사림파 학자 최자반에게는 증조부가 된다.

최경은 평택과 연고가 있는 사람 가운데 국사교과서에 언급된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최경의 고향은 경기도 안산이다. 실록에도 '안산의 염부(鹽夫)의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었다. 소금 굽는 상민의 아들이었던 최경은 어려서부터 그림에 비범한 재주를 보였다. 때때로 막대기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는데 솜씨가 놀라워 칭송이 자자했다. 세간의 입소문 덕분에 도화서에 들어간 최경은 피나는 수련을 달게 받아들였다. 실력이 쌓일수록 견문도 넓어져서 나중에는 신분의 벽을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싶은 야망도 품게 되었다.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인물화에 남다른 재주를 지녔던 것도 어쩌면 신분상승의 욕구와 관련 있을



[도암동 최경 묘(2008)]

것이다.

도화원에서 인물화에 뛰어난 화가쯤으로 치부되던 최경에게 우연히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건 천운이라고 할 만큼 우연한 기회였다.

최경이 그린 인물화 중에는 세조 때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즉위하지 못하고 사망한 의경세자의 영정이 있었다. 의경세자가 사망하자 영정은 장남 월산대군에게로 넘어가서 사저(私邸)에 보관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며 월산대군의 동생인 성종(成宗)이 월산대군의 사저에 들렀다가 영정을 보게 되었다. 두 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 인수대비 손에서 외롭게 자란 성종에게 처음 대하는 아버지의 영정은 놀라움과 감동이었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던 성종은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 뒤로 최경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주 소씨와의 혼맥으로 평택과 인연

최경은 1485년(성종 15) 철충 장군(折衝將軍) 사과(司果)라는 벼슬에 올랐다. 철충장군은 무관직이지만 당상관 벼슬이었다. 당상(堂上)은 고위관리의 기준으로 어전에서 임금과 무릎을 맞대고 정치를 논의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하찮은 상민출신에다가 도화원 출신의 회원에게 당상을 제수하는 것은 당시의 통념과 법도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 실록에도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도 오르지 못한 대단한 지위'라고 기록하여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였는지를 말해준다.

최경이 평택과 인연을 맺은 것은 생애 말년으로 짐작된다. 그는 큰아들 최유립을 진주 소씨 가문과 혼인시켰는데 그 인연으로 입향한 것으로 보인다. 후손들도 변창해서 큰아들 최유립은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1455년 좌익원종공신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이시애의 난에서 적장 김말손을 사로잡아 거듭 공신(功臣)이 되었다. 최유립의 음덕으로 손자 최윤신도 관직에 올랐으며, 증손자 최자반은 사마시에 합격한 뒤 독곡동 오좌울 입구에 모정을 짓고 사림의 저명한 학자 최수성, 조광조, 김안국 등과 교유하여 이름을 높였다. 최경이 죽자 나라에서는 순충보조공신으로 병조판서에 추증하였고, 수성군에 봉했으며 안양(安養)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과 함께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회원 출신의 화가이며 평택지역 수성 최씨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평택시민 대부분이 최경의 묘가 도일동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필자와 인연이 있는 선생님 한 분은 이와 같은 현실을 놀라워했다. 우리의 무지로 역사적 인물이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다.(2011)

죽음으로 불의에 항거한 우남양

1. 처사(處士)를 양산하는 시대

도두리는 우리시대의 가객 정태춘의 고향이다. 저명한 시인 박후기의 고향이기도 하고, 미군기지를 곁에 두고 있어 지난 몇 년 동안 미군기지 이전반대운동으로 크게 흥역을 치렀던 마을이다. 정태춘과 박후기의 노래와 시에는 '도두리별', '황새울들', '선말산', '아리랑고개' 처럼 고향의 지명과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그들에게 도두리는 노래와 시(詩)의 고향인 셈이다.

도두리라는 지명은 '돛대머리'에서 왔다. 근대 이전 광활한 도두리별이 간척되기 전만 해도 바다 쪽으로 돌출된 '돛대' 처럼 생겼던 마을이 도두리였다. 돛대머리처럼 생긴 도두리 입구에는 여인의 젓가슴처럼 봉긋 솟은 도장산이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다. 해발 10미터도 안 돼 보이는 봉우리에 '산(山)'이라는 지명을 붙여준 것이 우습지만, 도장산은 간척으로 갯벌이 돋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바닷가에 우뚝 솟은 풍광이 수려한 봉우리였다.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산봉우리를 옛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조선전기 도장산의 돈두암에는 도두정(戬頭亭)이라는 누적이 있었다. 도두정은 선비 안계기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한다. 18세기 중엽에 편찬된 팽성지에도 '도두정은 관문에서 서쪽 10리쯤에 있는데 조그만 산이 호수가에 서 있다. 높이는 수 백 척은 되겠고, 바위들이 깎은 듯이 서 있다'라고 기록하여 수려한 풍광의 면모를 밝히고 있다.

도장산 기슭에는 돈두암이 있다. 이제는 흙에 묻혀 동구 밖의 작은 바윗돌처럼 생겼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도장산 절벽 아래에 불쑥 솟은 신비롭고 영험한 바위였다. 돈두암이 세상의 이목을 끈 것은 조선 중기였다. 평택현 북면에 거주했던 처사 우남양이 돈두암 바위에 머리를 박고 자결한 것이다.

그러면 우남양이 누구인가? 그의 집안은 고려 후기 크게 이름을 떨쳤던 단양 우씨 가문이었다. 단양 우씨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고위관직을 지냈는데, 우남양의 조부도 예조판서를 지냈고 부친도 관직에 올랐다. 16세기, 우남양이 살았던 시대는 훈구파가 득세하던 시기였다. 세조의 반정과 중종반정에 참여하고 여러 차례의 정치적 사건을 통해 공신(功

臣)이 된 훈구파는 높은 지위를 독점하고 농장을 확대하면서 특권계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부조리한 세상은 우남양으로 하여금 출세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도 당시의 사림파들처럼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을 공부하며 스스로 아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힘썼다.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제사음식을 만들 물까지도 철저히 관리하였고, 부부끼리도 예로서 대하였으며 부인 외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물욕(物慾)도 스스로 멀리하였다. 그의 집은 본래 부유하여 외저노비만도 200명에 달했고 도처에 전답이 있었지만, 노비가 도망가도 잡지 않았고 일가친척들이 전답을 빼앗아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덕분에 말년에는 생활이 궁핍하였다고 한다. 변변찮은 반찬에 거친 밥을 먹었으며 때로는 끼니를 거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궁핍과 가난에도 항상 의연하였으며 한 순간도 선비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의 선비다운 품모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났다. 우남양은 남의 말만 듣고 비방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행실을 알게 된 뒤에는 과감히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아무리 고관대작이라고 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따져 만났다. 우남양이 평생의 지기로 사귀어 사람은 화담 서경덕과 원정 최수성 그리고 모제 김안국이었다. 교우관계는 그 사람의 됬됨이를 알게 하는 잣대와도 같다. 화담 서경덕은 세상이 다 아는 사림의 학자였고, 8세에 강릉에서 진위현으로 이거하여 신장동 남산터에 살았던 최수성은 스스로 벼슬길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시(詩), 서(書), 화(畫)뿐 아니라 학문에도 뛰어나 세상의 명사들이 앞 다투어 사귀려했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랬던 서경덕과 최수성 그리고 모제 김안국만을 벗으로 여기며 교류했다는 사실은, 우남양 스스로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케 한다.

2. 죽음으로 불의에 저항하라

우남양은 본래 서울사람이다. 포저 조익이 쓴 '우처사전(禹處士傳)'에도 '집은 본래 경성(京城)'이라고 말하고 있다. 평택은 그의 외가(外家)였다. 부인의 성씨는 '김(金)씨'였다. 조선 중기 만해도 어려서 외가에서 자라는 일이 흔했고 딸들도 재산상속을 받았으므로, 우남양이 벼슬을 멀리하면서 외가의 상속 재산이 있었던 평택으로 낙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집은 평택현 북면에 있었다. 포저 조익은 '토성 북쪽으로 몇 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토성은 안정리의 '농성(農城)'을 말하므로 북쪽 몇 리면 팽성을 내리, 동창리, 원정리거나 서북쪽으로 따져서 함정리, (구)대추리쯤이었을 것이다. 산림에 박혀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였지만 세상은 그를 주목

하였다. 교분이 있던 몇몇 선비들은 등용하여 크게 쓸 재목이라고 천거하였다. 우남양이 사헌부 감찰에 천거된 것은 조광조의 개혁이 추진되던 시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남양은 출세요청을 거절하였다. 남명 조식의 경우처럼 불의가 판치는 부조리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뜻 있는 선비 몇 명으로는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거나 어쩌면 벼슬살이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비록 출사는 거부했지만 우남양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담은 것은 아니었다. 처사(處士)란 본래 그런 존재였다. 우남양도 조광조가 추진하는 개혁을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을 것이다. 현량과를 실시하여 정치권을 참신하게 물갈이하고, 한 일도 별로 없으면서 공신에 녹훈되어 각종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의 직첩을 회수하자는 주장, 도학정치의 실현, 사림에 의한 향촌자치 실현은 우남양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였다. 조광조의 개혁은 중종반정으로 일정한 정치개혁이 필요하였던 중종의 신임을 받아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였던 향촌의 사림들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중종은 사림과의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켜줄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훈구파 일부의 도움으로 권좌에 오른 중종에게 정치적 파트너는 어디까지나 훈구파였기 때문이다.

훈구파의 공격과 중종의 변심은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세력의 몰락을 의미했다. 기묘사화(己卯士禍)가 그것이다. 기묘사화는 조광조, 김정 등 개혁의 중심세력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사림(士林)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향촌에 묻혀 처사(處士)로 살아가던 선비, 학문에 정진하며 출사를 준비하던 선비들도 절망에 빠졌다. 70세가 넘는 우남양의 절망도 상상을 초월하였을 것이다. 절망에 빠진 노구의 우남양은 팽성읍 도두리 입구의 둔두암 바위 위에서 몸을 날려 자결하였다.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항거요,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어간 조광조에 대한 의리였다.

우남양이 죽은 뒤 후손들은 무관으로 출세하고 제자들도 흩어져 학문과 행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평택지역의 선비들 사이에서만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예산 사람으로 효종 때 좌의정을 지냈으며 예학에 밝았던 성리학자 포저 조익에 의해 '우처사 전'이 찬술되었다. 또 그의 건의로 팽성을 함정리에는 운곡사도 건립되었다. 운곡사는 병자호란 때 삼학사의 한 사람이었던 홍익한을 추향하면서 운정사라고 하였다가, 홍익한을 제사하기 위해 포의사가 건립되면서 다시 처음처럼 우남양만 모셨고, 18세기 말 평택현감 이승훈의 성묘불배사건에 저항하였던 삼정사를 추향하면서 향현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향현사는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 포의사와 함께 철폐되었다.(2011)

평택지역 사림파의 뿌리 최수성

1. 사림파는 무엇을 꿈꾸었을까?

인간은 탈속적(脫俗的)인 삶을 꿈꾼다. 근래 농촌이나 깊은 산중에 전원주택을 짓고 은거하는 도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실 도시에서의 자본주의적 삶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피곤함의 연속이다. 필자도 오랫동안 자연과 인간과 교육이 어우러진 공동체학교를 꿈꿔왔다. 학교가 안 된다면 인문학 서당이라도 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교육에서 얻지 못한 가르침의 희열을 내 공간에서는 얻으리라 여겼다.

역사는 진보적인 삶이 발전시킨다. 진보적 삶은 고통과 자기희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진보보다는 안전한 보수를 택한다. 진보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파도림을 당하기 일쑤다. 때로 제 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들의 의기(義氣)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재야의 진보적 지식인들을 처사(處士)라고 하였다. 처사들은 불의한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지만, 세상에 대한 지식인의 책무를 잊지 않았다. 때를 기다리며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조선 중기 자타공인 산림척사로 인정받은 인물 가운데 화담 서경덕과 남명 조식이 있다.

16세기 중반의 진보는 사림(士林)세력이 이끌었다. 이들은 훈구파들이 주도하는 정치에 비판적이었다. 세조와 중종의 정변에 참여한 대가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행태로는 더 이상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림파는 성리학의 원칙에 충실한 학자들이었다. 도덕성을 상실하고 권력형 부정부리가 판을 치던 16세기 중반의 상황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려는 원칙주의자들 앞에 보수와 진보는 큰 의미가 없었다. 사림파를 정치권력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성종이지만, 중종반정으로 권좌에 오른 중종도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사림파의 새 정치가 필요했다. 조광조와 김정 같은 사림파의 발탁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조광조의 개혁은 지나치게 원칙적이라는 세간의 우려도 있었지만 기존 정치에 환멸을 느꼈던 사림파 학자들에게는 신선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사림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추진되었던 조광조의 개혁은 무참히 압살 당했다. 정치적 필

요성에 따라 사림파를 기용했지만, 정작 사림파가 요구하는 개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중종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였다.

2. 강직한 의리와 섬세한 감성이 조화를 이뤘

원정 최수성은 조광조의 가까운 벗이었다. 그는 본관이 강릉이다.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8세(1495) 때 진위현 탄현면 남산골로 이거하였다. 조선전기의 양반들은 처가나 외가의 재산상속 등의 이유로 처가나 외가 근처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수성도 그렇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그는 일찍이 기호사림의 터를 닦은 김평필의 문하에서 조광조, 김정, 김식 등과 학문을 익혔다. 최수성과 3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조광조도 집안의 전장과 외가가 있었다고 하는 평택시 이충동 반지산 아래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고 하니 어쩌면 어려서부터 교류하며 함께 공부했을 수도 있다.

최수성은 젊은 시절부터 학식과 덕망, 강직한 의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시(詩), 서(書) 화(畵)에도 능해서 장래를 촉망받았던 인물이었다. 8살에 평택으로 이주하였다고는 하지만 젊은시절 대부분 평택보다는 한양과 강릉에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수성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는 무척 많다. 예컨대 강릉부사 한급이 자신의 딸을 최수성과 혼인시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한양에 올라왔다는 소문이 돌면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이 집 앞에 장사진을 쳤다는 기록이 이를 반증한다.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스타 보다는 훨씬 촉망받았던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수성은 출세에 연연하지 않았다. 훈구파의 부도덕한 정치도 호방하고 의리를 중시하며 불의한 현실에 비판적이었던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최수성은 전국을 주유하며 뛰어난 학문과 폭넓은 인맥을 과시했다. 개혁의 중심세력이었던 조광조나 김정, 평택의 명유(名儒)였던 우남양, 최자반과 각별하게 교류하였다. 신장동 남산골에 최수성이 지은 원정(猿亭)은 이들의 회합장소였다. 어쩌면 조광조의 개혁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논의되었을지도 모른다.

최수성이 향촌에만 묻혀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앞서 조광조, 김정과의 교류도 그랬지만, 산림처사답게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예컨대 당대의 실력자 남곤과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숙부 최세절에 대한 비판은 그가 당대의 부패한 정치권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알게 한다. 아래의 시(詩)는 최수성이 숙부 최세절에게 보낸 것이다.

해 저문 침강 위에 날은 차고
물결이 절로 이네
외로운 저 배 일찌감치 대어라
범이 오면 풍량이 높아지리

위의 시(詩)는 훈구파의 시대는 가고 의로운 사림(士林)들의 새 시대가 올 것이므로 차라리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여생이나 마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조카의 편지를 받고 최세절은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신사무욕 때 최수성이 죽은 것도 이때의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는 소문이다.

3. 훈구세력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죽음을 맞게 해

당대의 권세가였던 남곤이 당나라 때의 시인이며 화가였던 왕유의 망천도(望川圖)를 얻고 크게 기뻐하며 김정에게 화제(畫題)를 요청하였다. 왕유는 만년(晩年)에 남진지방의 망천(望川)이라는 곳에 초막을 짓고 벗이었던 배적(裒迪)과 배를 띄워 노닐며 시를 짓고 풍류를 즐겼는데, 이 같은 삶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망천도였다. 때는 기묘사화로 심정, 남곤 등에 의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士林)들이 큰 화를 당한 직후였다. 김정의 집에 놀러간 최수성은 망천도를 보고는 자신이 화제(畫題)를 붙이겠다고 나섰다. 그가 붙인 화제는 다음과 같다.

가을 해는 서산에 지고	(秋日下西岑)
어스름은 먼 나무에 피어오르네	(暝烟生遠樹)
끊어진 다리에 두건 쓴 두 사람	(斷橋兩幅巾)
누가 망천의 주인일까	(誰是望川主)

위의 시(詩)는 망천도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듯이 보이지만, 당시 남곤의 정치적 행보와 최수성의 분노를 감안해서 읽으면 대단히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 구절인 '누가 망천의 주인일까'는 남곤에게는 결코 망천의 주인같은 삶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다. 정말 최수성다운 세련되고 멋진 한 방이었지만 이 일로 남곤과도 척을 지게 되었다.

기묘사화(1519년)는 최수성의 나이 33세에 발생했다. 대부분의 사림들이 그랬지만 기묘사화는 세상으로 향한 최수성의 마음을 담아지게 만들었다. 더구나 평생의 벗이었던 조광조와 김정이 사약을 받아 죽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 슬픔이었다.

기묘사화 뒤 최수성은 명산을 유람하며 술과 시(詩)와 거문고를 벗하며 살았다. 때로 뜻 맞는 벗을 만나면 그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과거 매월당 김시습처럼 세상을 떠돌았지만 사림파를 몰아낸 훈구세력들은 최수성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였다. 어쩌면 최수성을 중심으로 사림파가 다시 결집하여 훈구파를 몰아낼 수도 있으리라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

기묘사화 2년 뒤 발생한 신사무욕(1521년)은 사림파의 잔존세력까지 뿌리 뽑으려는 훈구파의 모함에서 시작되었다. 최수성은 주모자로 몰린 안처겸과 사건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잡혀 들어갔다. 안처겸과 최수성이 잡혀 들어가자 훈구세력은 사건을 확대시켰다. 결국 최수성은 과거 최세절, 남곤과의 갈등과 훈구파의 압수에 걸려 역모죄를 뒤집어쓰고 참형을 당했다.

4. 살아서는 역적이었지만 죽어서는 충신(忠臣)

최수성은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생물학적인 수명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이 보여주듯 사람의 삶은 살아서보다 죽어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최수성이 살아서보다 죽어서 충신으로 추앙과 존경을 받았다고 기록되었다. 반대로 그를 죽인 남곤이나 심정, 최세절은 가혹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였다. 이것이 역사다. 아니 역사의 심판이다.

중종 33년(1538) 신진사람들은 최수성의 신원(伸寃)을 건의했다. 사후 17년이 지난 시기다. 뒤이어 중종 40년(1540)에는 종1품인 좌찬성에 증직되었다. 1545년에는 정1품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율곡 이이의 건의에 따라 신장동 남산골의 묘역이 성역화되었다. 묘역이 성역화 될 때 무덤 주위 10리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부역을 면제하고 묘를 관리하도록 조치받았다. 고향 강릉 향현사에는 중조부 최치운 등 12현과 함께 배향되었으며 강릉의 화동서원에는 정몽주와 함께 배향되었다. 그의 의로운 삶이 죽어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묘역 성역화의 조치로 묘역관리를 담당하게 된 마을은 송탄 K-55미군기지 정문 앞쪽에 있었던 제역동이다. 주민들은 제역동을 제골 또는 지골이라고도 부른다. 묘역은 신장1동 남산터 마을 뒷산에 있었다. 하지만 묘역은 1970년대 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강릉으로 이장하였고, 제역동도 기지촌의 발달로 흔적이 사라졌다. 조광조, 김정 그리고 평택지역의 선비 최자반, 우남양과 만나 교류하였던 원정마저도 세월이 흘러 위치를 찾을 수 없다. 조선 중기의 명유(名儒)였고 평택지역 사상사를 이야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이지만 우리고장에 추억할만한 유적이거나 유물이 없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2008)

백성들이 먼저 추앙했던 충의공 한운

1. 시대가 암울할수록 과거를 바라본다

학교에서 반장선출은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반장은 학생들이 선출하지만 어떤 인물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학급과 담임의 한 해 생활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반장은 학급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가교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나 다양한 갈등을 담임과 상의하여 처리하는 일도 반장의 역할이다. 좋은 반장은 역할수행을 통하여 인정을 받고 권위를 존중받는다. 급우들에게 인정을 받는 반장은 담임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하다. 필자는 20년이 넘는 교직생활 동안 그런 반장을 몇 명 만나보지 못했다. 그만큼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다.

요즘 들어 지방자치가 실종되었다는 말이 많다. 6월 2일에 있을 지방자치선거 후보공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다. 모름지기 자치란 '자율'이 기본인데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 후보공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의정활동이나 도덕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후보들은 탈락하고 당(黨)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공천되는 경우가 발생하였



[서탄면 금암리의 충의공 한운 정래(2008)]

다. 당(黨)의 은혜를 입어 후보가 되고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으로 당선된 인사들이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보다 정당의 시녀가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가 암울하고 세상살이가 팍팍해지면 무속신앙이 대목을 맞는다. 독실한 종교인들은 내세신앙에 집착하거나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답답한 사람들에게 무속인의 한마디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경안정제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전문 카운슬러들이 기를 펴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무속인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세상이 막막할 때 역사가들은 어디에 기댈까? 역사가들은 과거로 시선을 돌린다. 과거 속에는 현재의 자화상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도자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희망도 과거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 오늘 역사산책의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무신(武臣) 한은이다.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인물이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았던 훌륭한 인물이다. 한은을 통해서 희망을 찾고 답답한 가슴 위로받자.

2. 금암리 새말이라는 동네

서탄면 금암3리는 새말이다. 새말은 청주 한씨의 동족마을이다. 드넓은 해정들을 앞에 두고 야트막한 구릉 남사면에 웅기종기 자리 잡은 마을은 아름답고 포실하다. 새말 청주한씨는 조선 초기에 활약했던 양절공 한확(1403~1456)의 후손이다. 한확은 왕실의 외척으로 누나와 누이동생이 명나라 성조 영락제와 선종의 비(妃)로 책봉되면서 영화를 누렸던 인물이다. 중국과 사대관계에 있었던 조선시대에 왕실의 외척에다가 황제의 나라 명(明) 황실의 외척이라는 위치는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상징한다. 하지만 한확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세도를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국익을 위해 명나라와의 외교에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정치적 운도 좋아서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적극 참여하여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세조의 즉위를 왕위찬탈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를 설득하여 찬탈이 아니라 양위라는 대답을 얻어낸 공으로 좌의공신 1등에도 올랐다. 관직도 순탄하여 경기도, 함길도 관찰사,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거쳐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이조판서를 지내면서는 넓은 도량과 온간(溫簡)한 성품으로 공정하게 인사를 처리하여 존경과 신망을 받았다. 후손들도 음보(蔭補)로 관직에 나아가 올곧게 살았고, 중종반정에서 정국공신 1등으로 책록되어 영의정에 오른 박원종과 혼인관계를 맺을 만큼 가문이 융성하였다. 청주 한씨가 새말에 터를 잡은 것은 약 400년 전쯤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명문거족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낙향하여 명문가로 자리 잡으려면 학문과 관직으로 일가를 이루거나, 충효열(忠孝烈)로 이름을 날린 스타가 있어야 한다. 새말 청주 한씨가 자랑하는 스타는 충의공(忠毅公) 한은(1517~1555)이다.

3.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제하였고

한온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증종반정의 공신이었던 서평군 한숙창이었고 외조부는 박원종이었다. 명문가의 자제답게 16세에는 세종이 공신의 자손들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충의위에 들어갔다. 실록에는 한온이 충의위에 재직하던 중 왕이 설진(設陣)을 사열하고 격구(擊毬)를 실시할 때 2등을 하여 어린말을 상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540년(중종 35) 약관 20세에 무과에 급제한 뒤로는 가문의 후광을 발판삼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다. 1554년(명종9)에는 가덕도 첨사를 거쳐 총3품 장흥부사에 제수되었다.

전남 장흥은 남해안을 지키는 군사적 요지이면서도 토지가 척박하고 자연재해가 많아서 통치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온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부임 첫해에 기근이 들자 관곡을 풀어 백성을 진휼하여 왕에게 표리(表裏) 한 벌을 상으로 받았으며, 이듬해 기근에서도 진휼에 헌신하여 벼슬을 높임 받았다. 명종실록 10년(1555)에는 전라도 암행어사 윤주가 서계(書啓)한 단자가 수록되었는데, '장흥부사 한온은 마음을 다해 백성들을 돌보아 구제하였고'라고 보고하고 있다.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목민관은 조선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리 흔치 않다. 우리는 단 한 줄이나마 '평택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였고'라고 기록되는 단체장이나 도의원, 시의원을 기대한다. 한온은 그런 사람이었다. 소사동 대동법 시행기념비의 주인공 영의정 김육처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진정으로 백성의 아픔을 공흔히 여길 줄 아는 목민관이었다.

4. 백성들이 사당(祠堂)을 건립하고 받들어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이 발생하였다. 삼포왜란 이후 세전선(交易船)의 제한조치에 불만을 품은 왜군이 왜선 70여 척을 이끌고 강진, 장흥, 진도 일대를 침입한 것이다. 왜군들은 가덕도를 거쳐 달랑진으로 쳐들어왔다.

왜군이 침입하자 백성을 구해야 할 여러 고을의 수령과 장수들은 겁을 내고 숨거나 도망가기에 바빴다. 하지만 한온은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원적의 부름을 받자마자 달랑진으로 달려갔다. 달랑진에서 조선군은 거릿으로 도망가는 척하는 왜군의 전술에 말려 성(城)을 함락시켰지만, 도망갔던 왜구가 재차 반격하여 성을 포위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한온을 비롯한 조선군은 3일 동안 사력을 다하여 항전하였다. 하지만 군사는 적고, 원군마저 오지 않는 데다, 식량마저 떨어지는 바람에 중과부적으로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실록에는 전란이 끝난 뒤 다른 장수들의 시체는 찾았지만 한온은 찾지 못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한온이 다른 장수들보다 격렬히 저항하여 왜군이 시체를 잔혹하게 도륙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변이 끝난 뒤 명종 10년(1555)에 논공행상이 있었다. 한온에게는 영의정 심연원의 건의로 상이 내려졌고, 조선군의 수장으로 전투에 패한 원적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적을 두려워하여 구원하지 않은 전라우수사 김빈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군율로 다스려졌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증직과 상이 내려졌으며, 고종 12년(1875)에는 충의(忠毅)라는 시호와 함께 금암리 새말에 충신정문이 세워졌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국가에서 선양하기 전부터 장흥백성들이 먼저 충렬사(忠烈祠)를 건립하고 제를 올렸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에서 선양하는 인물을 지배층이 발의하여 제향하는 경우는 있지만, 백성들이 전사한 고을 수령을 그리워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배향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것이 백성들이 평가한 한온이라는 인물의 진면목이었다.

지금도 서탄면사무소 앞을 지나 화성으로 나가는 큰길가에 평택시 향토유적 제3호 한온장군충신정문이 서 있다. 살문 안으로 들여다본 정문에는 '철장석선 일심순국(鐵腸石膽一心殉國)'라는 여덟 글자가 걸려있다. '창자는 쇠불이와 같고 쓸개는 돌과 같아라. 그 마음 나라에 바쳤도다'라는 내용이다.(2010)



[서탄면 금암리 한온장군 충신정문(2008)]

정해왜변(1587)의 영웅 이대원

1. 훌륭한 인물의 조건

향토지 편찬에서 인물을 선정할 때마다 '훌륭한 인물의 기준이 뭐냐'를 놓고 논쟁을 한다. 혹자는 영의정(領議政)을 지냈으니 넣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공신(功臣)에 올랐으므로 훌륭하다고 말한다. 필자는 논쟁이 있을 때마다 호오도손의 '큰 바위 얼굴'이 생각한다. 큰 바위 얼굴은 '인생의 모델'에 관한 글로도 읽히지만 한편으로는 '훌륭한 사람은 누군인가'를 말하기도 한다.

포승읍 내기리, 희곡리, 방림리 일대는 서평택 제일의 가문으로 인정받는 함평 이씨의 영역이다. 이대원은 함평 이씨 가문의 최고 스타다. 희곡리 맷골에는 묘와 사당, 충신정려, 확충사, 신도비와 같은 유적과 유물이 있고, 남해안에는 여러 개의 사당이 건립되어 추앙 받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대원은 높은 벼슬에 올랐던 인물이 아니다. 그는 무관으로 수군만호에 불과했고, 공격도 크고 작은 두 차례의 왜구침입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더구나 함평 이씨 가문에는 이대원보다 관직이 높고 잘 나갔던 인물도 많다. 그런데도 이대원이 숭앙(崇仰)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역사산책의 화두다.

2. 서평택 제일의 가문 함평이씨

이대원은 함평 이씨 진사공파의 후손이다. 함평 이씨의 시조는 고려 광종 때의 인물이며 개성부윤을 지낸 이언(李彦)이다. 이언은 광종의 개혁에 동조하여 신무위대장군(神武衛大將軍)으로 함풍군(咸豐君)에 봉해졌고, 고손(高孫)인 이광봉이 좌명공신으로 벽상삼중대광보국 승록대부 함풍부원군에 오르면서 함평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다. 조선 건국 후에는 이언의 11세손인 이종생이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토평한 공으로 적개공신 2등에 오르면서 이름을 빛냈으며, 그의 후손들 중에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가문의 격(格)이 높아졌다.

포승지역 함평 이씨의 입향조는 이증길이다. 이증길은 이언의 7세손이며 영동정을 지낸 이인계를 조부로, 개성부윤 이운을 부친으로 태어났다. 중앙의 요직에 올랐던 인연으로

이온과 그의 아들 이증길, 이증보는 조선건국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해를 받던 이증길은 경기도의 오지이며 포내미부곡이 설치되었던 포승읍 내기리 은골(내기리 산10번지)로 숨어들었고, 동생 이증보는 전라도 함평으로 도망하였다.

포승읍 내기리에서 어렵게 살던 이증길은 1402년 태종(太宗)의 대사면령이 내려지면서 형편이 나아졌다. 이증길은 조선왕조의 대사면령을 받아들이고 개국원종공신(開國顯從功臣)으로 추서되어 사제감정(司宰監正)의 벼슬을 얻었다. 또한 이증길의 아들 이여규(如珪), 이어장(如璋)이 음직(陰職)으로 양산군수와 청풍군수로 나가면서 사족가문의 위세가 회복되었다.

이증길의 후손들은 여규와 여장 대에서 대교공파와 진사공파로 나뉜다. 이여규에게서는 양근이, 이어장에게서는 성근이 태어났는데, 이양근은 세종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집현전 한림대교를 지냈고, 이성근은 진사시에 합격하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크게 성장한 것은 대교공파다. 대교공파는 이양근 이후에도 관직에 진출하였고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인물도 있었다. 근대 이후에는 교육에 힘을 써서 이름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다. 초대 헌덕면장을 지낸 이장현, 제1공화국에서 면장을 지낸 이민옥, 포승면장을 지낸 이민홍, 이홍서, 이민행, 국회의원을 지낸 이자현, 이계안, 이계경, 초대 정보통신부 차관 이계철이 그들이다. 진사공파에서는 이대원과 이석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성근의 10세손 이석은 무과에 급제하여 부산첨사, 충청병사를 지냈다. 하지만 근대로 오면서는 후손들이 쇠락하여 자손도 적고 출세한 사람도 많지 않다.

3.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형상

이대원은 함평 이씨 진사공파 7세손이다. 1566년(명종 21, 병인년) 포승읍 내기리 정문동에서 아버지 총장위(忠壯衛) 부순부위 이춘방과 어머니 정선 전씨 사이에서 장남(長男)으로 태어났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대원은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매우 크고 머리모양이 네모졌으며 눈은 부엉이 눈처럼 매서웠다고 한다. 아이의 모습이 너무도 괴이하자 부모는 기형아를 낳은 줄 알고 크게 놀라고 걱정을 하였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기골이 장대하고 병 치레가 없는데다 효성까지 지극하여 칭송과 기대를 받았다.

이대원이 무과에 응시한 것은 1583년(선조 16) 그의 나이 18세 때였다. 재미년 별시(別試)였는데 여기에서 병과(丙科) 6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과거 급제 뒤 처음에는 종4품의 낮은 관직을 제수 받았다가, 1586년에 선전관(宣傳官)에 승진하여 종4품 녹도만호의 관직을 제수 받았다. 이대원이 녹도만호로 있을 때는 일본에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영웅들이 등장하여 전국을 통일하였고, 해양으

로는 왜구(倭寇)의 출몰이 잦았던 시기였다. 부임 이듬해(1587년, 丁亥) 2월 10일 경 왜구들이 두, 세 척의 배를 타고 흥양(興陽)으로 침입하였다. 흥양은 지금의 전라남도 고흥으로 전라좌수영의 관할구역이며, 녹도 만호의 관할지역이기도 하였다. 있다. 왜구의 침입 소식을 접한 이대원은 사태가 급박함을 깨닫고 상부에 전령을 보내는 것도 미룬 채 즉시 출병하였다. 조선 전기 만호가 거느릴 수 있는 군사는 대략 600~700명 정도였고 크고 작은 함선 10척 내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왜선 두 세척에 1, 2백 명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대원은 출병하여 왜선을 격퇴하고 왜구들의 수급을 들고 개선하였다. 비록 작은 전투였지만 당시 남해를 지키는 장수들이 왜선만 나타나면 벌벌 떨거나 도망가기 급급한 마당에서의 승전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컸다.

4. 전공(戰功)을 가로채려는 상관에게 미움받아 전사

이대원이 승전하여 전라좌수사에게 수급을 바치자 좌수사 심암은 이대원의 전공(戰功)이 탐이 났다. 심암은 이대원을 가까이 불러 귀속 말로 소곤거리며 공(公)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강직한 성품의 이대원은 상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부정한 요구가 부하장수에게 거듭 거절당하자 심암은 심하게 부끄러워하며 앙심을 품었다.

1주일 뒤(1587, 丁亥) 2월 17일에 왜선 18척이 손죽도 근해에 침범하였다. 손죽도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45리며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섬이다. 손죽도에 침입한 왜구도 대마도를 근거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해안을 노략질하던 세력이었다. 왜구들이 재침하자 앙심을 품었던 심암은 이대원을 죽일 심산으로 피로한 병사 1백 여 명을 주어 출전을 명령하였다. 심암의 명령에 이대원은 '해가 이미 저물었고 병력이 또 적으니, 병력을 규합하고 예기(銳氣)를 모아 날이 밝기를 기다려 싸우겠습니다'라고 건의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원은 지원군을 요청하고는 손죽도 해상으로 출전하여 박면(朴勉) 등 휘하 장수들과 함께 3일 동안 힘껏 싸웠다. 사력을 다한 전투로 많은 수의 적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지만 구원군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애초부터 중과부적이었다. 고군분투하던 이대원은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었다. 왜구들은 항복하라고 위협을 가했지만 이대원은 호통을 치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왜구들은 이대원을 돛대에 묶어놓고 사정없이 때리고 고문하여 끝내 죽여 버렸다. 전사(戰死)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죽음이었다.

5.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죽어

이대원은 죽음에 임박하여 절명시(絶命詩)를 남겼다. 신도비의 기록대로라면 절명시는 장

굳이 입고 있던 옷에 쓴 혈시(血詩)였다. 다음은 절명시의 내용이다.

해 저무는데 적선 왜구들이 바다를 건너오니	日暮敵船渡海來
병사는 외롭고 힘은 다하여 이 내 삶이 서글프다	兵孤勢乏此生哀
임금님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 모두 감지 못하니	君親恩義俱無報
한 맺힌 저 구름도 흩어질 줄 모르네	恨人愁雲結不開

—이계승 전 함평 이씨 평택대중중 회장 번역

노산 이은상이 1980년에 쓴 '고흥 쌍충사 사적(事蹟)'에는, 절명시는 전투에 참전하였던 집안의 하인에 의해 고향집에 전해졌다고 한다. 또 혈시(血詩)가 쓰여 진 속적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장군의 애마(愛馬)와 함께 고향집에 왔는데 차마 가족들에게 장군의 전사(戰死) 소식을 전할 수 없어 유품(遺品)만 애마에게 물려 들여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유품을 받아든 가족들은 장군이 전사했음을 알고 선영에 장례를 지낸 뒤 전사한 음력 2월 20일에 제를 올렸다.

이대원이 손죽도 해전에서 전사한 뒤 전라좌수사 심암은 두려워 떨었다. 더구나 감춰졌던 심암(沈巖)의 죄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심암은 1587년 3월 의금부에 하옥되었고 왕명에 의해 당고개에서 처형된 뒤 조리돌려 성문밖에 효수(梟首)되었다.

이대원이 전사하자 남해안 백성들은 큰 슬픔에 젖어 자신들의 슬픔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어허, 슬픈지고
 녹도만호 이대원은 다만 나라를 위해 충신이 되었도다,
 배가 바다로 들어갈 때 왜적들은 달려들고
 수사(水使)는 물러가니
 백만 명 진중(陣中)에서 빈주먹만 휘둘렀도다."

—이은상, 「고흥 쌍충사 사적」에서 발췌

노래는 삼시간에 남해안 일대에 퍼졌고, 전라도의 선비들은 글로써 충신(忠臣)을 위로하고 슬픔을 표현하였다. 송강 정철의 아들 화곡 정기명(1558~1589)은 '녹도가(鹿島歌)'를 지었으며, 우의정 정언신의 아들 정협(1561~1611)은 「손죽도 조사」를 지어 바쳤다.

5. 살아서보다 죽어서 아름다운 사람

이대원은 살아서보다 죽어서 아름다운 사람이다. 살아 있을 때에는 주목받지 못했고 당하관(堂下官)에 불과했던 일개 무장(武將)이었지만, 외적의 침입에 맞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었다.

이대원은 홍양해전의 전공이 조정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전라좌수사에 특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특진 교지가 도착하기 전 손죽도에서 전사하면서 실제로 진급은 이뤄지지 않

았다고 전한다. 더구나 이대원의 삶과 공적을 증명할 만한 사료들이 전란 중에 불타버렸는데, 현종 때 충청수사를 지낸 증손자 이석(李錫)이 조정에 상소를 올려 증조부의 업적을 다시 살피서 충신정문(忠臣旌門)과 증직(贈職)의 교지를 다시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다. 조정은 이석의 요청을 받아들여 1668년(현종 9) 병조참판으로 추증하는 교지(教旨)를 내리고 충신정문을 고향 정문동에 세우도록 하였다. 또 1699년에는 이석의 셋째 아들 이항발의 주도로 신도비가 건립되었다. 신도비는 소론의 영수 남구만이 썼고, 승정원 우부승지 김진규가 전액하였으며, 경기도관찰사 조상우가 글씨를 썼다.

나라에서는 가족에 대한 예우(禮遇)도 잊지 않았다. 충신의 가족이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1587년(선조 20) 왕은 승정원에 명을 내려 이대원의 노모에게는 매년 쌀 20석과 매달 술과 고기를 내리도록 하였고, 유일한 자손인 유복자는 18세가 되도록 기다렸다가 관직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고향 내기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사당도 건립되었다. 가장 이른 것은 1597년(선조 30) 전라감사 윤두수가 녹도만호 수군(水軍)들의 간청을 받아 전남 고흥에 건립한 것이다. 그 뒤 이대원 사당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 전투에서 전사한 정운장군을 추배하면서 1683년 '쌍충사'로 사액을 받았다. 여주시 돌산대교 앞에는 영당(影堂)이 건립되었다. 이곳에는 본래 최영장군만 모셨지만,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순신을 주벽으로 이대원, 정운 등 3인을 추배하였다. 또 고향 포승읍 내기리에는 확충사가 건립되었고, 장군이 전사한 손죽도에는 충렬사가 건립되었다. 충렬사는 주민들의 발의로 건립되어 마을제당으로 섬겨졌고 근래에는 백성들이 수습하였다는 묘까지 복원되었다.(2011)



| 이대원왕군 신도비(2010)

덕원군 이서(李曙), 조선시대 왕족의 삶

1. 당현리는 고려시대 종덕장

고덕면 당현리, 두릉리일대는 고려시대 종덕장이 있었던 지역이다. 장원은 농장(農場)이나 전장 또는 별업(別業)과 같은 것으로 왕실이나 귀족, 사원들이 사적(私的)으로 지배했던 대토지를 말한다.

고덕면의 종덕장은 왕실이나 궁실 소유의 토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왕실소유라고 해도 직접 경영보다는 조세를 징수하는 수준의 토지였으므로 지배형태는 느슨한 편이었다. 왕실은 종덕장에서 거둔 세곡을 보관하기 위하여 종덕창(宗德倉)이라는 조창(租倉)을 세웠다. 종덕창의 존재는 고려 무신정권기에 있었던 진위민란에도 등장한다. 고려사에는 민란의 주동자였던 이장대와 이당필, 김예가 진위에서 봉기한 뒤 종덕창의 세곡(稅穀)을 군량미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곳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기록대로라면 종덕창은 종덕장의 세곡(稅穀)을 보관하는 창고였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면 종덕창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조창의 세곡은 수로(水路)를 이용하여 운반하였으므로 당현리와 가까운 동청포 부근이었을 것이다. 동청포는 근대이전까지 고덕면에서 청북면으로 건너가는 가장 중요한 나루였으며, 아산만의 바닷물이 유입되어 큰 배가 드나드는 포구였다. 하지만 근대 전후 토사가 쌓이고 간척사업이 진행되면서 옛 포구는 흔적이 사라지고 없다. 다만 동청2리와 두릉2리 사이에 벳터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필자의 추측으로는 이곳이 옛 동청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덕장은 고려 말 사전(私田)이 개혁되고 조선 태종 때 행정구역이 정비되면서 폐지되었다. 행정구역으로도 양성현 종덕면에 편제되었다가 1895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수원군 종덕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는 진위군(평택시) 고덕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고덕면에서 고려시대 종덕장의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고두면의 '고'와, 종덕면의 '덕'을 합하여 만든 '고덕'이라는 지명과, 두릉2리 계루지마을의 '종덕초등학교' 그리고 조선 전기의 유력한 왕족이었던 덕원군 이서의 묘와 '종덕계'라는 재실만이 옛 고을의 흔적을 느끼게 한다.

고덕면 당현리 청룡말에는 덕원군 이서(李曙)의 묘(墓)가 있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로 2008년 경 경기도 파주로 이장(移葬)하였다) 덕원군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왕족이며 전주 이씨 덕원군파의 파조(派祖)다. 묘(墓)는 해발 50, 60미터쯤 되는 지석산과 수영산을 비롯하여 일곱 개의 봉우리가 주산과 안산 좌청룡 우백호 형세를 하고 있는 지형의 가운데쯤에 있다. 묘역(墓域) 앞에는 포실하게 보이는 앞 고실골이 펼쳐졌다. 묘의 위치가 서남향인 것만 빼고는 문외한의 눈에도 명당(明堂)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왕족의 묘(墓)는 종친부(宗親府)에서 관할하였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쓰지 않았다. 최소한 경기도여야 하고 왕실의 위엄을 드러내야 하였다. 그렇다면 한 때 왕실권력의 핵심인물이었던 덕원군의 묘는 경기도의 변방 고덕면 당현리에 있게 되었을까? 이 같은 의문점이 오늘 답사의 출발점이다.

2. 덕원군은 누구인가?

당현리에 덕원군 이서(李曙)의 묘가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덕원군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살펴봐야 한다. 덕원군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먼저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찾았더니 내용이 무척 소략하고 생몰 연대조차 나와 있지 않았다. 당현리 청룡말에 살고 있는 후손 이우학(82)씨도 선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족보를 살피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우리나라 족보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크게 쓸모 있지 못하여 그만두었다. 그래도 믿을 것은 조선왕조실록밖에 없다. 실록에서 덕원군 이서를 찾았는데 A4용지로 무려 20장이 넘는 자료가 쏟아져 나온다. 역사기록에 20장 분량의 자료가 남아있다는 것은 덕원군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비중을 가늠케 한다.

덕원군은 세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세조는 왕비 윤씨에게서 의경세자와 예종을 낳았고, 귀인 박씨(나중에 근빈에 봉함)에게서 덕원군과 창원군을 얻었다. 그러므로 덕원군은 적자가 아닌 서자(庶子)인 셈이다. 실록에서도 그의 생몰 연대는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세조 8년 8월 덕원군의 집을 구입할 때 예조의 관리 노사신이 60여 간(間)이나 되는 큰 집을 구한 것을 비판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대략 세조 2년(1456년) 전후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은 이서(李曙)가 덕원군에 봉해진 시기가 세조 4년이며, 본래 궁인(宮人) 출신이었던 귀인 박씨가 세조의 후궁이 된 뒤에 덕원군을 낳았기 때문이다.

덕원군은 어려서 의경세자와 동독한 관계였다. 세자의 생일에 초대된 것은 물론이고 매사냥을 할 때도 동행하였다. 그러나 의경세자는 일찍 죽었고 동생이었던 예종이 즉위하면서 관계가 지속되지 못했다. 예종재위시기 덕원군은 남이장군의 옥사(獄事)에 왕실의 종친 대표로 적극 관여하여 수충보사정난익대공신 2등에 올랐다. 조선이 왕족이나 외척의 정치

개입을 견제하였지만 공신(功臣)으로 책봉되면 본인뿐 아니라 조상과 후손들까지 부귀와 영화가 주어졌다. 예종 1년 5월 덕원군은 공신(功臣)에 대한 포상으로 영정이 그려져 각(閣)에 보관되었고, 반인(伴人) 8명, 노비 10명, 구사(丘士) 5명, 전지(田地) 1백결, 은 25냥, 표리(表裏) 1투, 내구마 1필과, 역적으로 몰린 민서의 첩 중비와 문치빈의 첩 늘가의 딸 문용비를 하사받았다.

국가의 공신이면서 종친의 대표로 덕원군의 입지(立志)는 날로 높아졌다. 예종이 죽고 성종이 즉위한 뒤에도 덕원군의 입지는 줄어들지 않았다. 성종 1년에 이조판서 권맹희가 '다른 왕족들이 덕원군과 같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라고 평한 것은 왕실 내에서 덕원군의 입지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높이 나는 새는 추락도 깊다. 성종 3년 덕원군은 방호련, 김효동을 비롯하여 3천여 명의 양인들과 회암사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조선 초기만 해도 개인적 신앙만은 묵인되었던 불교는 성종 때로 들어오면서 점점 터부시되는 분위기였다. 더구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덕원군이 지지세력 3천명을 이끌고 왕실의 월왕인 회암사에 가서 불공을 드리자 반대 세력들이 적극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비판여론이 급등하면서 성종은 할 수 없이 방호동 등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 하지만 회암사 불공의 중심인물인 덕원군과 창원군을 제외시켜 삼사의 비판을 받았고, 나중에 방호련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인 것이 또 문제가 되었지만 성종의 적극적인 비호로 무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덕원군의 정치적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어쩌면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다. 이후 사망할 때까지 그의 기록은 실록에서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실록에 기록될만한 정치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덕원군은 말년에 무엇을 하였을까? 의문의 해답은 고덕면 당현리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과 말년에 사용한 '종덕암'이라는 아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덕원군은 왜 고덕면 당현리로 낙향하였을까? 통상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낙향은 본가나 전장, 일가붙이가 있는 곳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왕족이었던 덕원군이 당현리에 본가나 일가가 있었을 리 없다. 그렇다면 정답은 공신에 책봉되면서 하사받은 '전지 100결'의 소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록에는 덕원군의 낙향에 관한 이야기나 사망시기가 실려 있지 않다. 보통 조정의 고위 관료가 죽으면 실록에 줄기라는 것이 실리는데 덕원군에게는 그런 것도 없다. 단지 성종 5년 10월 덕원군의 아내에게 부의(轉儀)로 쌀과 콩 40석과 종이 1백 권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때쯤 죽었거나 어머니가 이 때 사망하고 본인은 나중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인생 말년의 미스터리다.

3.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조선시대에 왕족 뿐 아니라 명문 사대부 집안의 묘(墓)자리는 사회, 경제적 기반과 관련 있었다. 이충동에 조광조, 오달재의 유허가 있는 것도 집안의 장토(庄土)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며, 도일동의 원주 원씨 묘역에 이성부 장군의 묘가 있는 것도 원씨 가문이 그의 외가였기 때문이다. 송북동 소골 수성최씨 묘역의 가장 윗자리에 소씨 부인의 묘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묘(墓)는 위치 뿐 아니라 문헌 사람의 사회, 경제적 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앞서 필자는 덕원군의 묘가 당현리에 있게 된 것은 예종 때 공신전으로 받은 '토지 100결'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당현리, 두릉리 일대는 고려시대 종덕장이 있었고 그 토지가 조선시대 왕실토지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와 같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더구나 공신전은 역적으로부터 몰수한 토지나 왕실의 토지를 하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왕족이었던 덕원군에게 왕실의 토지였던 종덕장(宗德莊)을 하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전혀 무리가 없다. 전제하였던 것처럼 덕원군의 아호도 당현리의 옛 지명인 종덕암(宗德庵)이다.

하지만 후손들은 필자의 추측을 수긍하지 않았다. 당현리 청룡말의 이우학(2002년, 82세), 이우신씨는 조선전기 당현리에는 전주 이씨들의 동족마을이 없었다는 이유로 필자의 논리를 반박하였다. 동족들이 살지 않았으므로 낙향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우리나라 동족마을의 역사가 3백년을 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고덕면 당현리의 덕원군 이씨 묘(2003)]

덕원군의 묘는 조선 후기 어느 시기에 실전(失傳)된다. 실전의 원인은 어쩌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란으로 후손들은 흩어지고 행방이 묘연하였던 묘지는 조선 후기 후손들에 의해서 다시 찾아진다. 그런데 묘역을 다시 찾는 과정에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당시 후손들이 평택시 청룡동에 거주하였는데 당현리로 매사냥을 왔다가 묘표를 발견하고는 주변 땅을 사들여 묘역을 다시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설화는 어지간한 가문이라면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묘와 사당, 족보라는 것이 일부 가문을 제외하고는 조선 후기 예학(禮學)과 봉당정치의 산물이고 보면 이 같은 현상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다보니 실전된 조상의 묘를 다시 조성하고 족보의 열개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르게 되었고 부족한 부분을 설화가 메워 줄 수밖에 없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여담 하나를 덧붙인다. 덕원군의 묘 앞에는 부인들의 묘가 세 기나 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첫째 부인인 선산 김씨의 묘다. 선산 김씨의 아버지는 저명한 사림과 학자였던 점필제 김종직이다. 김종직은 세조5년(1459)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으므로 덕원군과 동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이다. 새로운 세력 김종직과 세조의 아들 덕원군의 혼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왕실의 혼사라는 것이 왕권강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덕원군의 묘는 최근 경기도 파주로 이장하였다. 당현리 일대가 K-55 미군기지확장지역인데다 고덕국제신도시 예정지역과도 인접하였기 때문이다. 묘도 이장하고 후손들도 흩어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2010)



[고덕면 당현리 덕원군 이서의 사당 종약재(2004)]

홍익한, 조선 후기 충신의 모범답안

1. 인물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평택시는 올해 평택의 정체성(正體性) 확립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평택시교육청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 해 동안 '정체성'이란 단어가 꺾전에 맴돌 것 같다. 정체성은 국어 사전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한문사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평택의 정체성 확립이란 '우리고장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공동체가 속한 시간과 공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고장의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물과 시공(時空)을 넘어 함께 공유하고 호흡한다는 것은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한다. 나도 선조들처럼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솟아난다. 하지만 인물로 정체성을 세우는 일은 많은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 오랫동안 사료(史料)를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 특정인물이 과대 포장되거나 지나치게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주의사항이다.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수궁할 수 있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만의 장점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다.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문화를 통해서도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오늘 역사산책은 우리고장의 인물 가운데 역사적 중요성에 비하여 덜 부각된 홍익한을 찾아가려고 한다.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시대를 비추보자.

2. 젊은 시절엔 때를 못 만나 좌절 겪어

얼마 전 홍익한의 후손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후손은 우리고장에서 정도진과 원균은 널리 선양되면서도 자신의 조상은 소외되는 것에 불만을 터뜨렸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대와 맞지 않으면 덜 부각되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어도 못내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고장의 인물들 중에는 홍익한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다. 시대를 앞서갔던 선각자들도 때를 만나지 못해 선양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홍익한은

1586년 팽성읍 함정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훈구세력 중에서도 명문가에 속했다. 고조부 홍숙은 중종 때의 공신(功臣)으로 도승지와 좌찬성을 지냈으며, 조부와 생부도 공신의 후손으로 관직에 올랐다. 홍익한의 선대들은 유력한 훈구파였음에도 일찍부터 사림파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신희, 장유, 이식과 함께 조선 중기 4대 문장가로 칭송받던 월사 이정귀에게 수학(修學)할 수 있었던 것도 선대의 인연 때문이었다. 홍익한은 30세의 늦은 나이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다. 성균관 생원으로 6년을 공부하여 광해군 13년(1621)에는 알성시에도 급제하였다. 사마시에서는 장원을 하였고 알성시에서도 합격하였으니 뛰어난 수재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때는 홍익한이 뜻을 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집권세력은 북인들이었고, 그가 속한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정책과 인목대비 문제로 집권세력과 대립하고 있었다. 홍익한이 알성시에 급제하고도 취소당했던 것도 시대상황과 관련 있을 것이다.

3. 인조반정으로 출세한 뒤 요직 두루 거쳐

1623년 서인(西人) 일부세력이 인조반정을 일으켰다. 인조반정은 정권욕에 불타고 있던 서인(西人)이 멸절된 왕을 갈아치운 명분 없는 쿠데타였다. 쿠데타는 집권세력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민심의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북인정권에서 파방을 당했던 홍익한에게 반정은 출세의 기회였다. 인조 즉위년 이괄의 난으로 공주로 피난한 인조는 충청도 선비들을 대상으로 과거(科擧)를 실시하였다. 민심안정용으로 치러진 공주행제정시문과에서 홍익한은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홍익한의 관직생활은 순탄하였다. 청요직(淸要職)



홍익한 묘역 포의리(2009)

이었던 삼사에 기용되어 요직을 두루 섭렵하였고, 정승을 지낸 스승 이정귀도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다. 홍익한이 관직에 진출한 무렵 국외정세는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

서인들이 사대의 의리로 맺어진 혈맹국가라고 떠받들던 명나라는 국운이 기울대로 기울었으며, 여진족이 세운 청(淸)은 중국본토를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집권서인세력은 잃어버린 10년 운운했던 현 정권처럼 광해군과 복인 정치를 의리도 없고 명분도 상실한 잃어버린 15년이라고 주장하며 반청(反淸)의 기치만 높였다. 홍익한도 친명반청(親明反淸)은 포기할 수 없는 대의(大義)로 인식되었다. 그는 조선이 명나라와의 의리를 버리고 오랑캐인 청을 받드는 것은 금수(禽獸)만도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조15년(1636) 청나라 사신의 목을 베고 항명대의를 세우라는 홍익한의 상소는 파란을 일으켰다. 청나라는 군사를 국경부근으로 이동시키며 압박하였고, 최명길과 김류 등은 사직보존을 위해 홍익한을 청나라로 압송하자고 주장하였다. 명분을 앞세운 척화파와 현실론을 주장하는 주화파 사이의 논쟁은 피난지 남한산성까지 이어졌다. 항전 초기에는 원칙론을 주장하는 척화파가 분위기를 이끌었다.

척화(斥和)는 광해군의 실리외교노선을 부인하고 집권한 서인 주류의 입장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항전이 40일을 넘어가고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세자와 대군들이 포로로 잡히자 사태가 급변하였다. 인조는 청의 굴욕적인 항복요구를 받아들였다. 홍익한은 윤집, 오달재와 함께 여러 척화파를 대신하여 청나라에 압송되었다. 압송된 처지였지만 홍익한은 친명(親明)의 대의(大義)를 굽히지 않았다. 삼학사 가운데서 홍익한이 가장 먼저 참살을 당했던 것은 끝까지 강경했던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4. 반청 주장하다 청나라로 압송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홍익한의 집은 강화도에 있었다. 남한산성과 함께 또 다른 항전지였던 강화도가 함락되자 홍익한의 가족들도 화를 면치 못하였다. 둘째 부인 허씨를 보호하려다 아들 홍수원은 칼에 맞아 죽었고, 허씨 부인은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이것을 본 홍수원의 처도 혀를 깨물어 죽어버렸다. 다행히 평택 본가에는 어머니와 자녀들이 남아 있어서 처형소식을 듣고 의복으로 허장(虛葬)을 하였고, 노론의 명수였던 송시열은 묘비를 찬(撰)하여 뜻을 기렸다. 성리학적 논리에 충실하였고 서인 주류였던 척화파를 대표하여 죽었지만 조정은 청나라의 눈치만 볼 뿐 존숭(尊崇)을 꺼렸다.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는 삼학사의 손을 잡고 가족과 후손들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던 인조마저도 자신의 안위만 살필 뿐이었다. 인조가 취한 유일한 조치가 평택현(평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던 노모에게 월름(월급)을 지급한 것이었다. 북벌을 준비하며 승명반청의 기치를 높였던 효종도 마

찬가지였다. 심지어 남인 영수 허적은 '나라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도 생각하지 않고 분위기에 휩쓸려 과격한 주장만 하였다'고 폄하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살아남은 아들과 후손들이 일찍 죽고 가세마저 기울면서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효종 때 증직(贈職)이 이뤄졌다. 현종 때에는 후손들에게 벼슬과 경제적 지원이 내려졌으며, 숙종 때에 야 충정이라는 시호가 하사되고 부인과 아들, 며느리에게 효열정문이 내려졌다. 홍익한을 비롯한 삼학사(三學士)가 크게 존송되게 된 것은 송시열의 공이 컸다. 송시열은 홍익한의 묘비를 찬(撰)하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삼학사전을 지어 홍익한을 충절의 상징으로 격상시켰다. 숙종13년에는 승명반청의 대의를 지키고 군신의 의리를 드러낸 인물이라는 상소를 올리면서 함정리에 포의사가 건립되었고 손자 홍우석에게는 증직의 은사가 내려졌다. 이 같은 송시열의 평가 덕에 영조 이후 200년 동안 홍익한은 충절의 상징처럼 떠받들어졌다. 조선후기 200년 넘는 세월동안 충렬의 상징으로 존송되었던 홍익한은 현대사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존마저 불분명한 임팔급의 묘까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홍익한의 사당 포의사를 복원하자는 후손들조차 없다. 그것은 충(忠)이라는 봉건적 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와 상충된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고, 척화(斥和)의 입장이 지나치게 사대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2010)



홍익한 비각에서 내려다 본 평성을 본정1리(2009)

적과의 동침, 이괄 · 이성부 유적

1. 이괄의 삶은 꼬였다?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인생이 꼬일 때가 있다. 어떻게 해보려 해도 어찌할 수 없어 땅을 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인간이 택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죽기 살기로 덤비거나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기.

조선 중기 이괄(1587~1624)이라는 인물이 있다. 실록에는 반역자로 기록되었지만 역사의 흐름이 순탄했다면 명장(名將)의 반열에 올랐을 사람이다. 이괄은 1587년(선조 20)에 태어났다. 매우 이른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였고, 호방한 기상과 출중한 무예로 여진족 토벌에 크게 기여하여 형조좌랑, 제주 목사에 기용되었다. 불과 26세에는 백사 이항복에 의해 북병사(관서병마절도사)의 적임자로 천거될 만큼 두각을 나타냈다.

인조반정이 발생하자 이괄은 도성공략의 선봉장으로 발탁되어 이성무 등과 함께 혁혁한 공을 세웠다. 문신관료 중심의 반정세력들에게는 이괄처럼 지략과 무예를 갖춘 젊은 장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하지만 쿠데타가 성공하고 난세(亂世)가 치세(治世)로 바뀌자 문신들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그들에게 이괄은 '사냥이 끝난 사냥개'에 불과하였다. 이괄은 논공행상에서 반정의 핵심이었던 김류와의 갈등이 빌미가 되어 1등이 아닌 2등 공신에 올랐다. 관직도 오늘날 서울시장이랄 수 있는 한성부 판윤에 올랐지만 공적에 비하면 홀대를 받은 것이었다.

2. 어제의 동지를 적으로 만났을 때

세상 일이 그렇다. 힘 있는 자의 의롭지 못한 겁박은 당하는 사람보다 가해자가 훨씬 불안한 법이다. 절대 권력에 있는 자들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유도 권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뒤가 구려서인 경우가 많다.

마땅히 1등공신이 되어야 할 인물을 2등으로 밀어낸 공신세력은 불안했다. 쿠데타로 권력의 단맛을 본 그들에게 재 쿠데타의 불안감은 늘 가슴 한 구석을 압박하고 있었다. 공신들은 이괄을 가능한 도성에서 멀리 몰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직책이 북병사였

다. 북병사라면 육일승전하는 후금(後金)을 견제하면서 후환도 멀리할 수 있는 비책이었다.

이괄은 북쪽 변방을 지키는 부원수에 임명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총사령관 격인 도원수의 다음 가는 직책이니만큼 출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조정의 두통거리를 멀리 떼어놓은 반정공신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정에 부대를 관장하는 부원수의 위치는 마음만 먹으면 수 만 대군을 움직일 수 있는 요직이었기 때문이다. 반정공신들은 삼사를 동원하여 이괄을 탄핵하는 한편, 아들 이전과 휘하 장수들이 모반한다며 고변하였다. 논란을 벌이던 조정에서 이전과 심복장수 한명만을 압송하기 위해 금부도사를 파견하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이괄은 군대를 일으켜 한양으로 진격하였다. 이괄 군대의 진격은 거칠 것이 없었다.

평안도가 수중에 들어가자 인조와 서인정권은 서둘러 피난길에 올랐다. 위급한 상황에서 서인정권을 구할 구원투수로 이성부가 나섰다. 이성부는 왕실의 후예로 무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쳤고, 인조반정 때에는 이괄과 함께 선봉에 섰던 반정공신이었다. 반정공신이 일으킨 반란을 반정공신이 진압하기 위해 나선 싸움에서 이성부는 패하여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이괄은 한양을 점령한 뒤 인조를 추격하다가 경기도 광주에서 관군에게 패하였고, 이천에서 부하장수 기익헌 등에게 죽임을 당했다.

평택지역에는 '이괄의 난'에서 맞섰던 두 인물의 유적이 남아있다. 역원이 설치되었던 칠원동에는 이괄의 절터, 고덕면 여염리의 이괄 아버지의 묘, 송탄 갈평우물, 오성면의 삼정승산이 그것이다. 또 고덕면 방축리 서천사는 이괄의 난 때 불타고 하며, 여염리 임주마을의 용우물도 이괄과 관련 있다.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가담했던 진위 사족들도 사실이 각색되어 이괄의 난에 참여한 것으로 전승되고 있다.

마탄전투에서 이괄과 맞섰던 이성부는 승자의 편에 섰던 프리미엄으로 반란이 진압된 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총장이라는 시호와 총절정문까지 하사받았다. 또 외가였던 평택 시 도일동에는 묘가 조성되었으며, 후대에 총절의 상징으로 이름을 빛냈다. 한 때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길을 걸었던 동지였지만 역사의 격랑에서 한 사람은 반역자로 다른 한 사람은 승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두 인물이 평택이라는 공간에서 마주하고 있다. 역사에는 때때로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작용한다.(2011)

도끼날 정승 이광좌의 묘

1. 독립운동의 상징 경주 이씨 가문

경주 이씨는 조선후기 최고의 명문가문이다. 고려 말 대학자 이제현과 선조 때의 명신(名臣) 백사 이항복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178명, 상신(정승) 8명, 대제학 3명, 공신(功臣) 10여 명을 배출하였다. 하지만 돈이 많은 것과 잘사는 것이 다르듯, 높은 벼슬아치를 많이 배출했다고 해서 명문가문이 될 수는 없다. 경주 이씨가 명문가로 존경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위기 속에서 힘을 다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만주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민족문제연구소, 우당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KBS 역사스페셜에서도 2부작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다룬다. MBC는 진즉에 우당 이회영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6부작을 방영하였다. 지난주에는 민족해방을 위해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였던 민족의 성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신흥무관학교 설립100주년 특별자료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면 국가보훈처와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기관과 단체들이 신흥무관학교에 관심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신흥무관학교가 국권강탈이후 민족독립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세운 독립군양성소였기 때문이다. 무관학교 설립에 참여한 인물만도 이석영, 이회영, 이시영을 비롯하여 이상룡, 양기탁, 이동녕, 김동삼, 전덕기, 지청천 등 내노라 하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독립의 그날을 위해 자신들의 안위와 전 재산을 민족의 성전에 바쳤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테러조직 의열단을 창설한 약산 김원봉과 그의 동지들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었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장지락)도 신흥무관학교 학생이었다. 1920년 봉오동, 청산리 독립전쟁을 이끈 인물들도, 1920, 30년대 만주무장투쟁을 이끈 인물들도,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을 주도한 인물들도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다.

독립투쟁에 큰 족적을 남긴 신흥무관학교의 중심에 이석영, 이회영, 이시영 등 경주이씨 가문 6형제가 있다. 백사 이항복의 후예들인 이들은 국권이 강탈되자 조상들의 빛나는 삶을 계승하고 민족의 위기 앞에 조선 최고의 가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지금 돈으로 6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을 처분하고, 6형제를 비롯하여 50여 명의 가족

모두가 만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양반가에서 흔히 하듯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최소한의 가족을 남겨두지도 않았다.

2. 이광좌는 이항복의 현손

이항복의 증조부는 안동판관을 지낸 이성무다. 이성무는 네 아들을 두었는데, 이항복은 셋째 이예신의 손자다. 이항복은 권율의 딸과 혼인하여 이성남, 이정남 등 아들 넷을 두었고, 이성남에게서 이시현, 이시현에게서 이세구 그리고 이세구에게서 이광좌가 태어났다. 이항복의 둘째 아들 이정남은 이세장과 이세필을 두었는데 이세필이 진위면 아곡마을로 낙향하면서 무봉산 일대에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암행어사라도 유명한 박문수의 외조부이기도 한 이세필은 이태좌, 이정좌, 이형좌를 낳았다. 이 가운데 이태좌는 6촌 이광좌와 함께 영조 초기 좌의정에 올라 소론정권을 이끌었다. 이태좌의 큰아들은 영의정을 지낸 이종성이다. 이종성의 현손 이유승은 고종 때 판서와 우찬성을 지냈고, 이회영을 비롯한 그의 아들 6형제가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둘째 이정좌는 높은 벼슬을 지내지 않았지만 증손과 현손이 판서를 지냈고, 현손 이계조에게서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이 태어났다. 이유원은 이재에 밝아 억만금의 재산을 축적하였지만 자손이 없어 이유승의 둘째 이석영을 양자로 들였고, 이석영이 동생 이회영과 함께 독립투쟁에 헌신하면서 모든 재산이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기지건설에 투입되었다.



[진위면 동천리 경주 이씨 묘(2006)]

진위면 동천1리 무봉산 자락에는 영의정 이광좌의 묘가 있다. 이광좌가 활동했던 숙종, 경종, 영조 때는 봉당 간의 대립이 첨예하던 시기였다. 이광좌는 소론의 영수로 경종 때 소론 정권, 영조 초 소론정권을 이끌었다. 조선의 선비들이 가장 영예롭게 여기는 홍문관 대제학을 3번이나 지냈으며, 영의정에도 3번이나 올랐으므로 학문으로도 인정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영조 초 정권의 수장으로 있을 때 노론의 추대로 왕위에 오른 영조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소론 강경파가 남인 일부세력과 함께 무신 난(이인좌의 난)을 일으켰다. 정권의 수장으로 이광좌는 전 영의정 최규서, 병조판서 오명항과 함께 반란을 진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였다. 어쩌면 소론(小論)의 나머지 세력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 엄정한 칼날을 들이댔는지도 모른다. 덕분에 소론계 집안에서는 그를 '도끼날 정승'이라고 부른다. 듣기로는 후손들도 절손되어 선조의 삶을 재조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진위면 동천1리 뒷산에 이광좌의 묘가 있다. 동천리 동칫골 입구에는 경주 이씨 재실과 커다란 묘역이 있는데도 그의 묘가 이연손의 묘와 함께 마을 뒤편에 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묘역 관리도 비교적 허술한 편이다.

이광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악역을 맡은 이광좌 덕에 소론과 경주이씨 집안이 명맥을 유지했고, 남겨진 후손들 덕분에 일제강점기 만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던 이회영 형제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대우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2011)



[동천리 이광좌 묘역(2009)]

난세(亂世)는 영웅을 원한다

1. 다난(多難)했던 역사, 영웅을 꿈꾸다

평택은 고난의 땅이었다. 근대이전만 해도 너른 평택평야, 사통팔달의 도로망은 축복이 아니었다. 내륙 깊숙이 밀려들었던 바닷물과 아산만, 남양만도 혜택보다는 고난과 아픔을 가져다주었다.

백여 년 전만해도 평택평야는 대부분이 황무지였다. 내륙 깊숙한 곳까지 갯벌도 형성되었다. 황무지뿐인 바닷가에 정착한 사람들은 고향에서조차 발붙일 곳 없는 유민들이었다. 이들은 사투를 벌이며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지게로 흙을 나르고 가래와 삽으로 독을 쌓았다. 하지만 피땀 흘려 개간한 땅들은 국가와 궁실(宮室), 왕족과 지배층에게 수탈당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동양척식회사나 일본인, 친일파들의 땅에서 소작을 지었다.

난세(亂世)가 되면 편리한 도로망은 전쟁터로 변했다. 고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과 안성천 유역에서 경쟁을 벌였고, 고려 후기에는 삼남대로를 따라 남하하던 몽고군이 팽성읍과 아산시에서 분탕질을 하였다. 고려 말 아산만과 남양만으로 침입한 왜구는 서평택 일대에 큰 재앙을 가져다주었다. 왜구의 전투력은 중앙에서 내려온 정규군마저도 꺾을 수 없도록 강력하였다. 팽성읍과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일대는 초토화되었고 민중들은 고향을 등지고 내륙으로 피난을 떠났다.

임진왜란과 청일전쟁은 해양과 편리한 교통이 가져온 재앙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부산으로 침입한 왜군의 주요 북침로는 영남대로와 삼남대로였다. 삼남대로가 지나갔던 평택지역은 왜군의 살육과 약탈, 강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어쩌면 소사벌대첩을 승리로 이끈 명나라 군사들도 약탈과 강간을 자행하였을 것이다. 평택지역 민중들의 고통은 청일전쟁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군기가 문란했던 청나라 북양군의 약탈은 삼천만이 다 아는 사실이고, 보급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일본군의 약탈도 심심치 않은 현상이었다. 양측이 쏘아대는 포탄과 총탄도 집안으로 논밭으로 날아들었다.

이처럼 평택의 민중들은 평화시기에는 국가와 지배층에게 수탈당하고 난세에는 외적들에게 강탈당했다. 국가도, 관리들도, 지배층도, 왜구나 오랑캐도 모두 도적이기는 매 한가

지였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길긴 목숨 차마 끊지도 못하고 하늘을 향해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다가 때때로 한숨에 섞어 '변혁'을 이야기하였다. '하늘과 땅을 딱 붙여놓고 박박 갈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변혁의 외침이었다. 자신들의 한(恨)을 풀어주고 소원을 들어줄 영웅을 꿈꾸기도 하였다. 영웅은 호령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못된 관리도 혼내주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미륵 같은 존재여야 하였다. 하늘을 나는 무예와 지략을 갖추고 집체만한 바위도 집어던질 수 있는 용력도 필요했다. 우리고장에는 영웅들에 대한 전설이 많다. 그만큼 선조들의 삶이 다난(多難)했다는 뜻이다.

2. 서평택지역에는 임경업장군 설화가 많아

임경업은 인조 때의 장군이다. 그는 조선 최고의 무인이었고 청나라가 가장 두려워한 장군이였다. 심지어 병자호란 때에는 임경업을 두려워하여 백마산성을 피해 한양을 공격할 정도였다. 임경업이 존재했으면서도 조선은 굴욕적인 항복을 당했다. 삼전도의 굴욕은 문화국가임을 자부하던 조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 곳곳에서는 반청(反淸)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북벌도 추진되었다. 임경업은 북벌에 가장 적극적인 장수였다. 청(淸)의 요청으로 출병했을 때도 싸우는 척 하며 명나라와 내통하였으며, 나중에 내통한 사실이 드러나자 명(淸)나라로 망명하여 청(淸)과 싸웠다. 하지만 명(淸)나라가 항복하고 국내의 후원자들도 역모에 물리자 임경업은 조선에 송환되어 처형되었다.

임경업은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민중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래서 북벌의 실패와 죽음은 '절망'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중들은 절망에만 빠져있지 않았다. 임경업을 난세의 영웅으로, 구복과 평안을 주관하고 질병을 치유하는 무속신으로 다시 살려낸 것은 민중들의 의지였다. 서평택지역에는 아기장수 설화, 임경업장군 설화가 많이 전해온다. 그 가운데 용성리 비파산성과 자미산성 설화는 다른 지역의 축성설화와 닮아있으면서도 많은 뉘앙스를 전해준다.

용성리 설창마루 뒤에는 비파산이 있다. 비파산 정상부근에는 임경업 장군 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는 커다란 발자국과 움푹 패인 자국이 찍혀있다. 사람들은 발자국이 임경업 장군이 무성산에서 뛰어내릴 때 찍힌 것이라고 말하며 패인 자국은 오줌을 썼던 흔적이라고 말한다.

또 자미산성 축성(築城)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임경업 장군에게는 내기를 무척 좋아하는 누이동생이 있었다. 하루는 누이동생이 자신은 성(城)을 쌓고 오빠는 쇠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는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죽이자는 제안을 하였다. 제안을 받아들인 임경업 장군은 쇠나막신을 신고 한양으로 떠났고 누이동생은 성(城)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누이동생이 성(城)을 다 쌓도록 임경업 장군은 나타날 줄을 몰랐다. 이것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애가 났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맛있는 음

식을 해가지고 딸에게 먹이며 오빠가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 천천히 해도 괜찮을 거라고 방해하였다. 그런데도 아들이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머리를 따주겠다고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결국 어머니의 방해를 받은 누이동생은 임경업이 한양을 다녀오도록 성(城)을 쌓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다.

3. 영웅바위는 바다로 침입하는 왜적을 막아

오성면 양교리 서쪽에도 장수바위가 있다. 높이가 3m, 둘레 5m쯤 되는 장수바위에는 큰 사람이 앉았던 자국이 패어 있다. 이 자국도 임경업 장군이 앉았던 흔적이라고 전해온다. 토전리 고좌마을의 장수바위도 비슷하다. 고좌마을로 가는 길에는 높이 2.7m, 높이 1.5m쯤 되는 검은 바위가 있는데, 임경업 장군이 옮겨다 놓은 것이라고 전한다. 양교리 오봉산 정상에도 장수바위가 있다. 오봉산의 장수는 어찌나 날래고 힘이 장사였는지 산꼭대기에서 펼쩍 뛰면 2km도 더 떨어져 있는 백봉산까지 뛰었다고 한다.

임경업 장군은 아니지만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는 전설로는 장안동 증봉의 역마바위 전설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도 증봉 정상 못미처에는 직경 약 1m쯤 되는 바위가 있는데, 이곳에는 난세를 구하기 위해 무술을 연마하던 장군이 말을 타고 부락산에서 뛰어내리면서 움푹 패었던 자국이 남아 있다. 이밖에도 신비하게 태어나 난세를 구할 영웅이 된다는 아기장수 스토리는 고덕면 울포리에도, 지산동 숯고개부근에도, 팽성읍 천덕산 줄기에도 전해온다. 영웅바위 전설은 왜구의 침입에 시달렸던 서평택지역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을 보여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 지리지, 읍지에는 영웅바위의 높이가 1백 척이 넘었으며 본래는 영웅암, 새신영공 등으로 불렸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1척은 30.3cm므로 높이가 약 30m라고 할 수 있는데, 넓은 바다 위에 기이하게 우뚝 솟은 모양이 무척 경이로웠던 모양이다. 영웅바위는 임진왜란 때 신통력을 발휘하였다. 파죽지세로 북상하던 왜군이 아산만으로 침입하자 영웅바위는 갑옷을 입은 장수로 변하였고 주변의 바위들은 군졸이 되었다. 관군이 없는 것으로 알았던 왜군은 위풍당당한 영웅바위를 만나자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영웅암 대신 '영웅바위'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당상관만이 칠 수 있는 옥관자를 내렸다고 한다.

영웅바위가 몰아냈다는 왜군은 사실 고려 말의 왜구였을 것이다. 고려 말에는 팽성읍의 하양창과, 종덕창, 남창의 세곡을 노리고 아산만으로 침입하는 왜구가 무척 많아서 민중들의 고통이 컸기 때문이다. 조선 태조 때 만호리에 수군첨사를 설치하고 나중에는 수군만호를 배치하였던 것도 왜구방비가 목적이었다. 수 백 년 동안 민중들의 가슴에 위안과 희망이 되었던 영웅전설은 현재 대부분 사라져가고 있다. 유물과 유적이 사라지는 속도만큼 전설도 잊히고 있다. 돈과 컴퓨터가 영웅인 시대에 전설은 허황된 꿈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2010)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상징 경주이씨

1. 올해는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2011년 7월 필자는 중국 남만주지역(동북지역)을 답사하였다. 남만주는 1910년대 만주 독립운동기지건설의 중심이었다. 을사조약(1905) 뒤 실력양성과 민중계몽을 통한 국권회복에만 역점을 두었던 신민회 회원들은, 1910년 국권이 강탈당하자 비밀회의를 통하여 실력양성과 무력투쟁을 함께 할 독립운동기지건설에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8도로 흩어져 독립군자금을 모금하고 만주지역에 조선총독부에 대응할 도독부를 건설하며, 둔전을 일구고 무관학교를 세워 독립투쟁의 전사를 양성하기로 하였다. 만주지역 독립운동기지건설은 남만주와 북간도, 연해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남만주 독립운동기지건설은 우당 이회영 형제들과, 석주 이상룡, 이동녕, 김동삼, 김대략, 전덕기 등이 주도하였다. 수많은 애국지사들 가운데 이회영 형제들은 6형제 모두가 가산을 정리한 뒤 50명도 더 되는 가족들과 함께 만주로 떠나서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경주이씨 가문의 이거(移居)를 주도했던 인물은 넷째 이회영이었다. 사전에 일제의 눈을 피해 만주 일대를 돌아보고 귀국한 이회영은 형제들과 가족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회영은 말하기를 '우리형제는 당당한 명문 호족으로 차라리 대의(大義)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왜적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구차한 생명을 도모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전 가족이 만주로 이주하여 일제와 싸웁시다. 이것이 대한민족의 신분이요, 왜적과 싸우던 백사 이항복의 후손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하오'라며 형제들을 설득하였다. 이회영의 설득에 첫째 이건영, 둘째 이석영, 셋째 이철영, 다섯째 이시영, 여섯째 이호영 등 형제 모두가 동의하였다. 이들은 긴급히 가산을 정리하여 지금 돈으로 600억 원에 달하는 독립군자금을 마련한 뒤 은밀히 압록강을 건넜다.

이회영 형제가 정착한 곳은 서간도 황도촌과 삼원포 추가가 일대였다. 세 갈래 물줄기가 합류하였던 삼원포에서 이회영 형제는 교민자치조직인 경화사를 조직하고, 1911년에는 옥수수 창고를 빌려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신흥강습소는 이듬해 합니하로 옮겨 신흥무관학교로 개교하였으며, 3.1운동 뒤에는 급증하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고산자 대두

자에도 학교를 설립하여, 한 개의 본교와 두 개의 분교를 둔 명실상부한 독립군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났다.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한 인물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다. 독립투쟁의 역사에서 그들의 역할 또한 눈이 부서 감히 바라볼 수 없다.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핵심인물들, 1930년대 만주무장투쟁의 주역들과 임시정부 산하 한국광복군의 중심인물들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많았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과 그의 동지들,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 장지락(김산)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전사들이다.

2. 무봉산 일대의 토지도 군자금으로 쓰여

평택시 진위면일대에는 경주 이씨 상서공파의 유적이 많다. 경주 이씨는 비록 조선후기 소론(小論) 계통이었지만 170여 명에 이르는 상신을 배출하여 삼한갑족에서 첫 손가락에 꼽혔다. 명문가의 기반은 선조 때의 명신(名臣) 백사 이항복 때 구축되었다. 이항복은 안동 판관을 지낸 이성무(진위면 마산리 숲안말에 묘가 있음)의 네 아들 가운데 셋째 예신의 손자다. 일찍이 권율의 딸과 혼인하여 성남, 정남 등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성남에게서 공주목사를 지낸 시현이, 이시현에게서 홍주 목사 세구가, 이세구에게서 영조 때 소론을 이끌었던 영의정 광좌가 태어났다.

이항복의 둘째아들 정남은 이조판서를 지냈다. 이정남은 세장, 세필 등 두 아들을 두었는데,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의 외조부이기도 하였던 이세필이 진위면 봉남리 아곡마을로 낙향하면서 무봉산 일대에 세력을 갖게 되었다. 이세필에게는 태좌, 정좌, 형좌 등 세 아들이 있었다. 이태좌는 영의정 이광좌와 함께 영조 때 좌의정으로 소론정권을 이끌었던



[경주 이씨의 터전 가운데 하나인 진위면 가곡1리(2008)]

인물이다. 이태좌의 큰아들은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문충공 이종성이었다. 그리고 이종성의 현손이 고종 때 우찬성을 지낸 이유승이고, 이유승에게서 석영, 회영, 시영 등 6형제가 태어났다.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은 이세필의 둘째아들 정좌의 후손이다. 이정좌의 아들은 종주이고, 손자는 경관이며, 증손은 이조판서를 지낸 석규, 현손은 이조판서 계조이다. 이유원은 이계조의 아들이다. 이유원은 정승에 있으면서도 이재에 밝아 청나라와의 사무역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손이 없어 이유승의 둘째 석영을 양자로 들였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재산이 이회영 형제들에게 넘어오게 되었다.

필자가 경주 이씨 집안의 계보를 장황하게 나열한 것은 가문의 내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다. 그보다는 평택과 경주 이씨 집안의 관련성을 밝히고, 민족의 위기 앞에 그들이 어떤 삶과 태도를 보였는지 말하려는 것이다. 이석영에게로 넘어 온 억만금의 재산 중 일부는 진위면 가곡리 무봉산 자락에 분포하였다. 그리고 무봉산 자락의 재산은 국권강탈 직후 모두 팔려 만주독립운동기지건설에 투입되었다.

3.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

7년 전 농림부 차관을 지낸 이창우씨의 전화를 받았다. 이창우씨는 필자가 연재하고 있던 글에 관심을 보이면서 진위면 일대 경주 이씨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하였다. 그 때 들었던 이야기가 경주 이씨 집안이 소유하였던 진위면 가곡리 일대의 토지가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투입되었다는 것과, 당시 경주 이씨 가문의 마음이었던 제주 고씨가 처분한 재산을 사들였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문헌을 찾아보고 탐문을 하였지만 더 이상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취재도 하고, 궁금했던 신흥무관학교와 경주이씨의 관계도 알아볼 겸 해서 진위면 가곡1리 신가곡 노인회장 고수웅(70세)씨를 만났다. 고수웅씨에 따르면 제주 고씨는 고조부 때 신가곡으로 입향하였다고 한다. 입향 당시에는 매우 가난했지만 고조부의 성실한 노력으로 가세가 꾀고, 증조부 때 몰락한 경주 이씨 가문의 재산을 넘겨받으면서 가곡리 일대의 대지주로 성장하였다고 말했다.

증조부는 확대된 경제기반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사회적 인망을 얻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북면장(진위면장)까지 지냈다. 또 자녀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 훌륭하게 성장시켜 가문의 사회적 기반을 다졌다. 고수웅씨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제주 고씨가 경제기반을 확충한 시기와 경주 이씨의 몰락시기가 거의 일치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회영 형제들의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떠난 시기와 고수웅씨의 증조부가 대지주로 성장한 시기가 일치한다

는 말이다. 하지만 제주 고씨 가문에서는 이씨 가문이 독립군자금에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오히려 이들은 경주 이씨가 뜻하지 않은 일로 몰락하였으며 황급히 재산을 처분하고 마을을 떠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다음 날에는 마산2리 숲안말에 사는 경주 이씨 후손 이종혁씨를 만났다. 이종혁씨는 평택 일대 경주 이씨는 대부분 서울로 이거했다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경주이씨 진사공파 대종 중 총무에게 확인하라고 말해주었다. 전화로 인터뷰한 중중 총무는 본래 신가곡 일대에도 경주이씨가 거주하였지만 일제강점 직후 토지가 팔리면서 대부분 만주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렇다면 가곡리 무봉산 자락의 재산을 처분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가곡리 신가곡 일대가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필자는 본래 신가곡 일대의 소유자가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유원은 이계조의 아들이고 이정좌의 후손이다. 경주 이씨 묘역 중에서도 진위면 동천리에는 가문의 재실과 묘역 그리고 영의정 이광좌의 묘가 있고, 마산리 숲안말에는 이성무와 진사공파의 묘역이 있지만, 가곡리에는 이정좌, 이계조의 묘만 있다. 이것은 가곡리 일대가 이정좌, 이계조, 이유원의 오랜 유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들의 유산은 이유승의 둘째 아들로 이유원에게 입양되었던 이석영에게 상속되었을 것이다. 이석영은 만주로 떠날 때 도지(賂地) 1만석 규모의 토지를 매각하여 군자금으로 제공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가 재산을 처분하여 군자금에 보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

경주 이씨는 조선 최고의 가문이었다. 시류에 따라 살았으면 일제강점기에도 귀족가문으로 대접받았을 것이고 해방 후에도 엄청난 기득권을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민족적 위기 앞에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였고, 모든 것을 바쳐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집안이다. 이 같은 결단으로 감옥에서 고문당하다 죽고, 굶어 죽었고, 후손들은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그들로 인해 해방을 맞았고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고 잘 살고 있다. 그들의 나눔과 희생에 감사하고, 빛나는 삶을 기억하자. 그들의 삶의 한 자락이 평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자랑과 긍지로 여기자. (2011)

방울미와 검댕이의 영일 정씨

1. 검댕이와 방울미는 영일 정씨 동족마을

양교리, 죽리는 오성면에서도 풍수가 좋기로 유명하다. 북쪽으로는 오봉산과 삼정승산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계곡 사이로는 기름진 문전옥답이 펼쳐져 있으며, 들판 사이로는 실개천이 흐른다. 산과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들은 유서가 깊다. 예사롭지 않은 지명과 전설들은 마을의 역사를 더욱 빛나게 한다.

오봉산 아래에는 양다리, 고림, 검댕이, 여술, 새터, 방울미, 큰맷골, 작은맷골 같은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있지만, 검댕이와 방울미는 역사와 전통에서 첫손가락에 꼽힌다. 검댕이는 일제강점기 초반만 하더라도 숙성면의 면소재지였다. 그래서 '큰말'이라고 부르던 것을,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검댕', 다시 말해서 관청이 있는 중심마을이라는 뜻으로 '대검댕'이라고 하였다. 방울미는 풍수지리적 지명이다. 본래 방울미는 삼정승산 남서쪽에 자리 잡았는데, 지형이 매가 방울을 달고 사냥감을 쫓아가는 형국에서 방울부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방울미'라고 하였다.

검댕이는 예나 지금이나 30호 남짓이다. 해방 직후만 해도 30호 가운데 20호 이상이 영일 정씨였다. 다른 성씨들도 대부분 정씨집안과 혼인관계나 인척관계를 통하여 입향하였다. 일제강점 초기에는 정낭청이라는 천석꾼도 마을에 살았다. 이농과 젊은 인구의 도시이주로 많이 줄어든 지금도 정씨 집안이 12호나 된다.

2. 마을은 둘이지만 뿌리는 하나

검댕이와 방울미 경로당에서 영일 정씨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온이 뚝 떨어진 지난 연말에 방문했던 양교리 경로당에서도 전체 6명 중 3명이 영일 정씨였다. 그것은 연초에 방문한 방울미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필자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할머니들 너댓분이 영일정씨 집안사람이라고 말했다.

두 마을 영일 정씨의 뿌리는 증직(贈職)으로 호조판서에 오른 정명선(鄭明善, 시조로부터 18세)이다. 정명선(鄭明善)의 아들은 조선 인조 때 인물 정탁(鄭卓)이다. 정탁은 무과(武

料)에 급제하여 당시 정3품 통훈대부에 올랐다. 병자호란(1636년)이 발발하자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하였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를 막기에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어서 결국 교전 중에 목이 잘린 채 전사(戰死)하였다. 가문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탁이 전사하자 평소 타고 다니던 애마(愛馬)가 머리를 입에 물고 본가까지 달려왔다고 한다. 본가에서는 장군의 목으로 장례를 지내고 발치에는 애마(愛馬)의 무덤을 만들어주었다. 또 나라에서는 충절을 높이 사 사후 통정대부 병조참의로 증직(贈職)하였다.

정탁은 광한, 치한, 찬한, 사한 등 아들 넷을 두었다. 그 가운데 셋째인 정찬한이 무과에 급제하여 가선대부 덕원부사를 지냈다. 가문에서는 수원부사를 지냈다고도 말했지만 족보나 묘표(墓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넷째인 정사한도 무과에 급제하여 어모장군(禦侮將軍) 훈련원 부정(副正)을 지냈고, 사후(死後) 증직으로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左承旨) 제수(除授)되었다. 정찬한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고향인 용인시 모현면을 떠나 평택시 오성면 죽1리 방울미로 낙향하여, 방울미 영일 정씨의 입향조가 되었다.

정찬한은 자손을 낳지 못했다. 조선시대 예법으로 볼 때 손(孫)이 없으면 형제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양자를 들인다. 정찬한은 동생 정사한의 둘째아들인 관하를 양자로 들였다. 하지만 관하가 일찍 죽자 다시 정사한의 셋째 아들인 징하를 양자로 들였다. 방울미로 이주한 정정하는 전주 유씨, 남평 문씨, 곡부 공씨 등 세 명의 부인에게서 도환, 도철, 도혁, 도천을 낳았다. 네 아들은 장성하여 각기 자손을 낳아 방울미 영일 정씨를 번성케 하였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거한 사람이 많고, 지금 방울미에는 정도천의 후손들이 가장 많이 남았다.

3. 겸댁이의 영일 정씨는 병사공(兵使公)의 후손들

겸댁이는 충청병사를 지낸 정도원의 후손이다. 정도원은 훈련원 부정을 지낸 정사한의 장남(長男) 정재하의 아들이다. 방울미를 개척한 덕원공 정찬한을 승계한 정관하, 정정하도 본래는 정사한의 아들이므로 두 마을의 뿌리는 같은 셈이다.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병사공 정도원은 키가 9척이나 되고 인물이 흰칠하였다고 한다.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제주목사를 지냈고, 나중에는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 충청도병마절도사에 올랐다. 충청병사에 재임하던 중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잠시 물러났다가 춘천부사에 기용되었다. 춘천부사 재임시절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자 춘천부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방어에 나서 공(公)을 세웠다. 이와 같은 공로를 바탕으로 부친을 모시고 춘천에 정착하여 묘(墓)가 춘천에 있게 되었다.

정도원은 순흥 안씨와의 사이에 인빈을 낳았고, 진주 강씨에게서 인서, 인화를 낳았다. 정



[죽1리 방울미마을 풍경(2012)]

인빈은 용인에 정착하였지만 후손들 중에서 일부가 곁댕이로 이거하였고, 정인서의 후손들은 대부분 곁댕이에 정착하였다. 지난 번 양교리 경로당에서 만난 정원교(70세)씨는 병사공파의 종손이었다. 정확하게는 병사공의 세 아들 가운데 정인빈의 종손인데, 50여 년 전 용인에서 곁댕이로 이거하였다. 방울미와 곁댕이 사이의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정지화(79세)씨는 정인서의 후손이었다. 양교리 오봉산 자락에 있는 묘역에도 정인서를 비롯하여 그 후손들이 안장되어 있다.

정지화(79세)씨는 옛날에는 '서평택 제1은 곁댕이, 제2는 행궁이, 제3은 황산리'라고 하였다는 말로 영일 정씨의 위세를 표현하였다. 서평택지역에서는 인정받았던 현화1리 행궁이 마을의 평창 이씨, 황산리의 동래 정씨보다 영일 정씨 가문이 더 높임을 받았다는 말이다. 물론 서평택지역에서 이와 같은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자긍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4. 가문의 전통은 자긍심(自矜心)으로 남아

곁댕이에는 '정낭청'이라 불렀던 인물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양교리 일대의 땅은 서울의 일본인 신탁회사와 정낭청의 땅이 많았다. 낭청(郎廳)이란 조선후기 비변사나 선혜청, 5군 영에 두었던 6품 이하의 벼슬이었다. 그런데 곁댕이 일대에서는 정낭청이 내시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심지어 정지화(79세)씨는 조선후기 정감록이 크게 유행하면서 정(鄭)씨 성을 가진 사람들의 출세길이 막히자 정낭청의 부친이 고환을 제거하고 내시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내시로 들어간 정낭청은 똑똑한 두뇌로 능력을 인정받아 나중

에는 높은 지위와 재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다. 정낭청 집안이 해방 전후 몰락한데다, 후손들도 떠나고 없기 때문이다.

정낭청의 마름은 숙성리 서의관이었다. 조선시대에 '의관'이란 벼슬은 의원을 말하기도 하고 1895년 이후에는 중추원의 의원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는데, 서의관은 중추원 의원은 아니었고 의업(醫業)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업을 했지만 서의관은 힘이 장사였다. 정낭청이 서의관을 마름으로 채용한 것도 창내리 앞 안성천을 쌀 두 가마니 지고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였다고 한다. 서의관은 마름을 보면서 타작감독이나 소작로도 본인이 징수하였다. 그러다보니 소작인들은 소작권을 떼일까봐 늘 전전공공하였다. 술대접은 기본이고 일부 소작인들은 명절에도 구경하기 힘든 소갈비나 소고기를 바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정낭청과 서의관의 위세도 일제 말 정낭청 집안이 몰락하면서 무너져 내렸다. 몰락한 정낭청의 땅은 박판서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일제 말 일본신탁회사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해방 후 박판서의 아들 박홍서의 며느리가 되찾았는데 농지개혁으로 소작농들에게 분배되었다.

방울미에 큰 세를 형성한 정도천의 종통은 정선용(始祖 후 28세손)을 거쳐 정연동씨로 이어지고 있다. 정도천의 후손 중에는 정인량이 있다. 그의 아들은 흥용(始祖 후 28세손)이다. 정흥용의 손자는 주화로 서울에 거주하며, 사촌 정완용의 손자 충화는 마을에 거주한다. 족보를 짚어가며 직접 가문의 역사를 가르쳐주신 정희화(82세)씨의 부친은 정준용이다. 정준용은 태화, 인화, 희화 세 아들을 두었다. 정태화는 아들 다섯을 두었다. 다섯 아들은 장성하여 공무원, 의사, 회사원, 농민으로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정인화의 아들 연호와 연복도 공무원 등으로 사회에 기여했으며, 정희화의 아들 연철과 연직은 금융인교와 교사로 일하고 있다. 겸댁이의 영일 정씨들은 금융계통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병사공파의 후손 정덕화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은행 본점 부장을 지냈고, 정연홍, 정정화 등도 금융인이다. 이밖에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로, 다양한 사회단체의 중심인물로 봉사하는 후손들이 많다. 이 같은 활발한 활동의 기저(基底)에는 가문에 대한 자긍심이 자리 잡고 있음은 물론이다.(2011)

전통의 명가 도일동 진주 소(蘇)씨

1.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인생을 살다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지나온 시간 속에는 남이 알새라 깊숙이 묻어둔 사연들이 있게 마련이다. 필자도 종종 지난시절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해지는 걸 느낀다. 사실 부끄러운 과거는 개인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문의 명예가 개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봉건사회에서는 흠사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 전전공공하는 집안이 많았다. 한국전쟁 뒤 좌익색출이라는 미명하에 적용된 연좌제도 엄청난 두려움이었다. 요즘에도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 사대부가문에서도 여성들에게 명예살인에 버금가는 폭력을 강요하였다.

얼마 전 송탄 모곡동을 답사하였다. 모곡동은 전주 이씨 수도군파의 5백 년 세거지다. 전주 이씨 수도군파는 조선의 2대 왕 정종의 후손이고 누대에 관료를 배출한 집안이다. 산과 골짜기를 누비며 답사하던 중에 함께 답사했던 지인은 송탄공단 건설로 파묘(破墓)된 묘자리 앞에서 잃어버린 조상이야기를 꺼냈다. 가문에서는 병조판서까지 지낸 것으로 전해지는 묘(墓) 주인이 어떻게 죽었으며 사후에 후손들이 황급히 고향을 떠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조상의 이름은 영조 4년(1728) 무신 난(이인좌의 난) 때 진위사족을 발각 뒤집은 이배라는 인물이었다.

충효(忠孝)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조선시대에 반정(反政)에 실패한 인물을 조상으로 두었다는 것은 분명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을 것이다. '역적의 자손'이라는 낙인도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면 가는 길도 달라지듯 집권층에 반대를 했거나 반역을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다. 역사는 반역의 피를 먹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번 역사산책은 평택의 유력가문, 그 가운데 최고의 가문이었던 진주 소씨의 이야기다. 비밀의 흔적을 따라 역사를 산책해 보자.

2. 평택 최고의 사족(士族) 진주 소(蘇)씨

송북동 우곡마을 뒤편에는 진주 소씨 묘역이 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풀에 묻혀 있던 묘역은 몇 년 전 새 단장을 해서 한층 맑아졌다. 도일동에서 은산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도 진주 소씨 묘역이 있다. 이곳에는 진주 소씨 1대조부터 26대 소을경까지 실전되었던 조상들의 제단(祭壇)과 납골묘 그리고 여러 기의 묘가 있다. 우곡마을 수성군 최유림의 묘 바로 위에는 부인 진산 소씨의 묘가 있다. 이충동 석정마을에도 납강공 소수천과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소속이 안장된 진주 소씨 묘역이 있다. 평택과 인접한 원곡과 양성, 용인시 이동면에는 진주 소씨 동족마을과 묘역이 있다. 그밖에 송북동에는 소골이라는 지명이 있고, 도일동에는 '석씨 천년, 소씨 천년, 원씨 천년의 마을'이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소골의 풀무골 전설도 진주 소(蘇)씨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처럼 평택지역에는 진주 소씨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그리고 그 유적들은 하나 같이 범상치 않다.

사족집단의 성장이 미흡한 평택지역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흔적을 남긴 가문은 일찍이 없었다. 무봉산 일대를 주름잡았던 경주 이씨도 이보다는 못했다. 더구나 묘역의 주인공들이 학문과 무예로 이름을 날렸고 관직도 찬성, 판서, 세자의 사부, 사간원 대사간, 성균관 사성, 홍문관 대제학, 목사, 부사, 병마절도사, 그리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당시의 의병장이었다는 사실 앞에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진주 소씨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리고 경남 진주를 근거로 했던 소씨 가문이 어떻게 평택지역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진주 소씨의 시조는 드라마 선덕여왕에 등장하였던 상대등 알천이다. 알천은 진주를 식읍으로 받고 이름을 경(慶)으로 바꾸면서 진주를 본거지로 하였다. 고려 초에는 11세손 소격달이 대장군에 오른 뒤 구세구장군(九世九將軍), 다시 말해서 아홉 대에 걸쳐 대장군을 배출하면서 이름을 떨쳤다. 또 고려 문종과 현종 때에 이부상서에 올랐던 소계령은 딸이 현종 비(妃)로 간택되면서 진산부원군(晋山府院君)에 봉해졌다. 소계령의 두 아들 소광보와 소경보는 최고위직인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나머지 형제들과 후손들도 귀한 자리에 올랐다.

진주 소씨를 진산 소씨로 부르는 것도 '왕실과 혼인을 맺은 귀한 집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중앙에 권력기반을 가졌던 명문가가 척박한 평택에 근거를 두게 된 것은 고려 후기다. 상장군을 지낸 소함이 몽고군에 맞서 진위현 일원에서 싸우다 전사하자, 고려 고종이 소함이 싸웠던 덕암산 일대를 식읍(食邑)으로 하사하였다. 식읍은 평택에 있었지만 소씨들은 계속 진주와 하동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으로 진주와 하동이 위협을 받자 소을경이 본가를 이끌고 진위현 여좌동(도일동 상리)으로 이거하였다.

전국구급의 유력 명문가가 평택지역에 근거를 두면서 지역유력가문 뿐 아니라 출세를 원하는 가문들이 혼인을 맺으려고 하였다. 고려 말의 대학자 정몽주나 조선 후기의 대학자 송시열이 진주 소씨와 인척관계였다는 사실은 당시의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3. 유력가문들도 앞 다투어 혼인

진주 소씨와 혼인관계를 맺었던 집안으로는 독곡동과 송탄동의 수성 최씨, 도일동의 원주 원씨, 칠괴동의 청주 한씨 등이 있다. 수성 최씨의 입향조는 조선 전기 화원(畫員) 출신의 최경이다. 미천한 신분으로 화원이 되었고 인물화를 잘 그려서 당상관 절충장군에 올랐던 신화적인 인물이다. 역세게 운이 좋아서 관등(官等)은 당상관에 올랐지만 출신성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미천한 출신성분을 극복하는 방법은 유력가문과 혼인을 하거나 자손을 출세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 최경이 손잡은 유력가문이 진주 소씨다. 나중에는 혼맥을 배경삼아 아예 진위현(평택)으로 이거하였다. 처가는 유력가문이었지만 평택에서의 삶은 녹록하지는 않았다. 처음 정착한 곳도 덕암산 자락 후미진 골짜기 도일동 능골이었다. 능골에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최경의 묘 자리가 자라의 형국인데 논 가운데 있는 바위가 자라밭이 되어 가문이 살아남아 번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입향 초기의 어려움은 큰아들 최유림이 계유정난과 이시애의 난에 연거푸 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오르면서 해소되었다. 최유림의 아들 최윤신도 음직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수성 최씨가 오좌동에 기반을 잡은 것은 최윤신의 아들 최차반 때였다. 수성 최씨가 오좌동에 기반을 잡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은 최유림의 부인 진주 소씨로 판단된다. 진주 소씨 참판공파의 근거지 우곡(소골)의 진주 소씨 묘역 옆에 수성군 최유림의 묘가 있고, 최유림의 묘 뒷자리에 안양공 최경이 아닌 진산 소씨의 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증거다.

원주 원씨의 입향조 원몽도 진주 소씨와의 혼인관계를 배경삼아 입향하였다. 초기 입향지는 진주 소씨의 중심 터전 도일동 셋골이었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셋골은 덕암산 골짜기에서도 대 여섯 집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다. 16세기의 학자 유희춘의 미암일기에서 볼 수 있듯 당시만 해도 처가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원몽도 처음에는 처가살이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다가 원준량이 부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고 원국량도 사마시에 합격했으며, 선무1등공신이 내려진 원균을 비롯하여 원연, 원전, 원사용, 원사립에게 충신, 효자정문이 하사되면서 가문의 기반이 튼튼해졌다. 원몽 이후에도 원연, 원전 등 여러 인물이 진주 소씨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어쩌면 도일동에서 찾을 수 없는 원만주의 조상들도 소씨와 혼인관계였을 것이다.

4. 무신 난(이인좌의 난)으로 멸문(滅門)

평택지역 사족들의 젓줄이 되고 대동맥 구실을 하였던 진주 소씨는 무신 난(1728, 이인좌의 난)으로 멸문을 당하였다. 무신 난은 영조와 노론에 대한 불만으로 남인 일부와 소론 강경파(준론)가 이인좌를 중심으로 일으킨 난이다. 평택과 안성지역의 사족들 가운데는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연루된 집안이 많았다. 진주 소씨에서도 소성을 비롯한 3형제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진주 소씨가 가담하면서 혼인관계로 입향하였던 가문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난이 실패한 뒤 조정은 진주 소씨 가문에 주목하였다. 영조도 무신 난(이인좌의 난)에 가담한 핵심가문으로 진주 소씨를 언급하고 있다. 결과 난에 적극 가담했던 참판공파 외에도 진주 소씨 가문 전체가 큰 화를 입게 되었다.

몰락한 진주 소씨의 빈자리는 혼인관계로 입향한 수성 최씨, 광산 김씨, 원주 원씨, 청주 한씨 등이 차지하였다. 가문이 소유한 전장들도 반란을 진압한 완소(소론 온건파)들과 노론들이 나눠 가졌을 것이므로 경제권의 대대적인 재편도 이뤄졌을 것이다. 도일동과 부락산 일대의 새 주인이 된 성씨들은 그 뒤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가문을 키워나가 오늘날에는 평택지역 대표 성씨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금지'는 감사함에서 나온다. 조한알 장일순 선생은 작은 좁쌀 한 알에도 우주가 들어있다고 말했다. 밥 한 톨, 옷 한 벌에도 다른 사람의 땀과 열정이 들어있음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금지가 생긴다는 말이다. 무신 난(이인좌의 난)은 봉당 사이의 갈등과 왕위계승문제로 지배층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난에서 진압한 측에 가담했다고 옳은 것은 아니며, 반대로 난을 일으킨 쪽에 가담했다고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다. 그렇다면 진주 소씨는 조상들의 행위에 부끄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찌면 그것은 당시 소씨 가문이 처한 시대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2010)

이용익(1854~1907) 선정비

1. 서북출신으로 고종황제의 최측근이 되다

개항기의 역사에서 이용익(1854~1907)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왕실의 최측근으로 고종황제의 사금고를 관리하였고, 화폐유통, 근대기술도입, 근대교육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가 끼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이용익은 함경북도 명천출신이다. 명천은 산수가 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조선시대 고관대작들의 정치적 유배지였다. 우리 밥상에 즐겨 올랐던 명태라는 물고기도 명천지방의 태서방이라는 사람이 신기한 물고기를 잡아 관찰사에게 바쳤더니 이름을 이는 자가 없어 '명천의 태서방이 잡은 물고기'라고 해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고장이다. 서북지방 출신인데다 신분적으로도 평민이었고, 소년시절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한 것이 학업의 전부였으며, 젊어서는 보부상으로 행상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광에 투자하였다가 거부가 되었다는 인물이다. 양반으로 태어나서 학업에 정진해도 관직진출이 어려웠을 만큼 차별을 당했던 함경도 출신의 평민이 왕실의 최측근이 되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이용익이 처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것은 1880년대 초반이다. 어려움에 처한 진시황에게 투자하여 나중에는 국가를 쥐락펴락하는 자리까지 올랐던 여불위처럼, 이용익도 거액의 재산을 열강의 침략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선왕실에 기부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용익이 거액을 기부하고 나라로부터 받은 관직은 종9품 말직인 감역(監役)이었다. 감역(監役)은 각종 토목, 건축공사를 감독, 감리하는 낮은 직책이었지만 서민출신이 벼슬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용익의 운명은 임오군란(1882)이 바뀌었다. 개화정책에 반발한 구식군인들이 반란으로 민씨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용익은 과감히 정권의 실세 민영익과 손을 잡았다. 남보다 빠른 걸음으로 명성황후 민씨가 숨어 있던 충주를 오가며 연락을 취해주었으며, 4,500명에 달하는 청군의 출병 약속을 얻어내 군란을 진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의 빠른 걸음은 '비각(飛脚)'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유명했다. 얼마나 빨랐던지 걸어갈 때 발은 안 보이고 도포자락만 보였다고 한다. 이용익의 빠른 발을 고종황제에게 천거한 인물은 다름 아닌 정권의 실세 민영익이었다. 민영익은 고종에게 전라도에서 한양까지 단

하루 만에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추천하였다. 호기심이 발동한 고종은 이용익을 불러 빠른 걸음의 비결을 물었다. 민영익은 대답하기를 '도포자락이 종아리에 닿지 않도록 걸으면 된다'고 아뢰었다. 반신반의한 고종은 이번에는 전라감사에게 '부채 1천 개를 만들어 진상하라'는 봉서를 쓰고는 이용익에게 직접 전달하고 반드시 날짜와 시간을 적은 답장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전주로 떠난 이용익은 다음 날 답서를 받아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답서를 쓴 시간이 당일 오전 8시였고 도착시간은 밤 8시였다고 한다. 500km가 넘는 거리를 평균 17km 속도로 걸은 것이다. 어찌든 빠른 걸음과 뛰어난 상재(商材) 덕분에 이용익은 정권의 실세와도 연결되었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자리까지 올랐다.

2. 왕실의 각종 사업을 쥐락펴락 해

임오군란 뒤 민씨 정권이 복권하자 이용익은 정권의 실세가 되었다. 고종의 신임을 얻어 종3품 단천부사를 지냈으며, 양성현감과 종2품 남병사를 지낸 것도 이 때다. 이용익이 지방관으로 임명되었던 곳은 대부분 포구가 발달한 지역이었고 광산개발 등 왕실의 재산관리와 관련 있는 곳이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조선 왕실이 이용익의 상재(商材)를 활용하여 왕실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97년 광무개혁을 단행하면서 고종은 이용익을 내장원경에 발탁하였다. 내장원경은 왕실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다. 이용익은 또한 재능을 발휘하여 궁내부 소속의 삼포(蓼圃)와 광산을 엄중하게 관리하여 왕실의 수입을 크게 늘려주었다. 나중에는 국가의 재정을 관장하는 탁지부대신과 전환국장까지 겸직하였다. 광무개혁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모범양잠소설치, 도예공업전습소설치, 사기제조소설치, 근대식석판인쇄기계도입도 그의 손을 거쳤다. 인쇄소인 보성사와 보성관,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세운 것도 이용익이었다. 하지만 왕실과 밀착된 태도는 독립협회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독립협회의 간부 남궁억은 이용익에 대하여 말하기를, 금점(金店)을 하여 전국의 돈을 흘렸으며, 삼포(蓼圃)하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샀고, 백동전 20만원을 남발한 뒤 4만원을 횡령했으며, 남병사를 지낼 때는 두 차례의 민란이 발생했을 만큼 폭정을 하였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독립협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고종은 이용익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여론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용익을 다시 복권시킨 것을 보면 말이다.

1904년 군부대신에 임명되었을 때는 취임 한 달 만에 일본에 납치되었다. 일본이 이용익을 납치한 것은 그의 친러적 성향 때문이었다. 러일전쟁 직전 대한제국이 국외중립을 선언한 것, 을사늑약에 앞장섰던 일진회를 타도하지는 주장을 펴던 것도 일본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당시 이용익은 일본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얼마 안 있어 부산항으로

입국하였다. 일본에 납치되어 있는 동안 이용익은 일본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다. 앞서 말했듯 귀국 후 자비를 들여 보성사와 보성관을 설립하고, 보성소학교, 보성중학교,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것은 새로운 깨달음의 표현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고종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중국을 거쳐 프랑스로 가다가 산둥성에서 일본관헌에게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풀려난 뒤에는 프랑스와 러시아를 오가며 패망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지만, 러시아의 페테즈부르크에서 친일 파들이 보낸 자객의 습격을 받아 큰 부상을 입었다. 말년에 연해주로 돌아온 이용익은 다양한 구국운동에 가담했지만 부상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3. 양성현감에 부임한 것은 왕실 재산관리 목적

이용익은 조선 말 왕실의 재정전문가였다. 고종황제의 사금고역할도 하였고, 최측근으로 국난의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광무개혁 전후에는 정부의 근대화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한 인물이었으며, 보성전문과 보성사를 설립하여 근대문화발전과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그가 평택지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양성현감을 지냈던 1884~5년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용익은 단천부사를 지낸 뒤였다. 청3품 단천부사에서 정6품의 양성현감으로 전직(轉職)은 얼핏 좌천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지역은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고 금광이 발달하여 왕실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구나 양성현 가운데서도 청북면의 옹포는 조선 후기 조세운송과 포구상업으로 번창했던 나루였다. 19세기 말에 작성된 '수원부선세혁과정책'에도 옹포에서는 청어, 조기, 갈치, 고등어, 북어, 민어 등 생선과, 미역, 대합, 김 등 해산물과, 쌀, 소금, 소가죽, 백목, 생대합 등이 거래되었고, 수많은 객주와 여각이 즐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시대 어선이나 상선, 상인들이나 객주에게는 어세, 상세, 선세를 징수하였다. 19세기 말 조세징수의 권한은 순조의 생모 수빈(綏嬪) 박씨(朴氏)의 사당이었던 경우궁(景祐宮)에게 있었다. 더구나 옹포와 가까운 포승읍 원정리와 도곡리, 흥원리 일대에는 국영목장이었던 괴태곶 목장과 흥원곶 목장까지 있어 이제(理財)에 밝고 충직했던 이용익이 반드시 필요했던 자리였다.

청북면 현곡리 청북면사무소 앞마당에는 '현감 이용익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 선정비는 본래 구 농협부근 큰길가에 있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한 두 차례 옮겨졌고, 1990년대 후반 39번 도로가 확장되고 2004년 1월 청북면사무소가 신축되면서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면사무소 앞마당으로 옮겼다. 개항기 다채로운 역사를 직접 경험한 이용익의 선정비 앞에서 100년 전의 역사와 이야기를 나눈다.(2011)

진위향교 앞 '능성 구씨 송덕비'

1. 나눔은 세상을 구하는 도구

최근 안철수 교수의 1,500억 기부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지도자급 인물이 천문학적 금액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분명 놀랍고 칭찬할만한 일이다. 우리역사에서도 통 큰 기부로 족적을 남긴 가문이 많다. 잘 알려진 경주 최부자집이나 구례 운조루 유씨 집안은 익히 잘 알려진 사례다. 미국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기부는 뉴스의 화제였다. 워렌 버핏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부인데도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로 귀감이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를 위해 부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자고 제안하여 놀라움을 주었다. 가수 김장훈, 평택출신의 가수 박상민의 기부, 방송인 김제동의 재능기부도 놀라움을 준다. 일제강점기 신홍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온 가족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경주 이씨 6형제들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들의 삶과 600억이 넘는 거액을 기꺼이 내놨다.

부자들의 통 큰 기부가 칭찬을 받는 것은 가진 자들의 나눔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도 '부자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다. 돌아가신 법정스님은 '소유는 고통이다'라고 하였다. 소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무소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1931년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으로 가던 도중 소지품을 검사하는 마르세유의 세관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난한 탁발승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물레와 작은 밥그릇, 염소젖 한 통,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한 장, 그리고 대단하지 않은 세상의 평판뿐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간디가 가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소유물과 정신까지 모두 민족해방을 위해 나누고 헌신했던 그의 삶을 존경하고 따르려 한다.

평택의 역사에도 소유를 나눠 세상에 희망을 주었던 부자들이 많았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 등화와 같았던 구한국 시기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해민회사를 세우고 진흥의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에 앞장섰던 이범철 형제, 대흥년에 사재를 털어 마을진입로 공사를 실시하고 노역에 동원된 빈농들에게 곡식을 지불하여 구제하였던 장안동의 이용손은 기억되는 인물이다.

2. 가진 자의 책무에 충실하였던 능성 구씨

능성 구씨는 영의정 심순택의 부인이다. 심순택(1824~1906)은 본관이 청송으로 조선후기 노론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선대에도 정승, 판서를 지냈고 본인도 판서를 거쳐 정승을 지냈다. 개항기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갑오개혁, 아관파천, 독립협회운동등 주요 사건마다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김옥균, 박영효와 같은 인물은 아니었지만, 요직을 맡은 고관으로 정부주도의 개혁정책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인물이었다.

청송 심씨가 진위현 봉남리로 낙향한 것은 1890년경으로 짐작된다. 본래 심순택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요절하였고 손자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 비통함과 실의에 젖었던 며느리는 동천리 만기사에 어린 영혼의 위패를 모신 뒤 절과 가까운 봉남리에 집을 지어 옮겨 살았다. 심순택도 관직에서 물러난 뒤 가솔들을 이끌고 이거하면서 봉남리가 새로운 근거지가 되었다.

조선시대 명문가의 안주인은 중앙관직에 나가 있는 남편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하였다. 구씨 부인도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러니와 충청도, 경기도에 흩어졌던 장도와 노비들을 관찰하며 집안을 이끌었다. 한식 때가 되면 소작농과 마름의 가족들을 동원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동네 사람들을 먹였으며,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빈민구제에 힘썼다. 경술년 국권이 강탈당한 뒤에는 근대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저택 아래에 구씨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구씨학원은 1920년대 금릉학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능성 구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운영이 잘 되다가 해방 후 진위중·고등학교로 계승되었다.

진위향교 앞 선정비각 안에는 능성 구씨의 송덕비가 모셔져 있다. 비각 안의 수많은 송덕비가운데 민간인으로는 능성 구씨의 것이 유일하다. 국권강탈이라는 절망과 고난의 시대에 빈민구제와 근대교육을 통하여 민족에게 희망을 주려 하였던 노부인의 참뜻을 여기에서 발견한다.(2011)

평택지역의 예인(藝人)들

1. 평택은 예술의 불모지가 아니다

동양에서 예술은 미적(美的)인 기술을 뜻하는 예(藝)와, 어려운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는 방도를 뜻하는 술(術)이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예술을 테크네(techne)라고 하여 기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영어에서 예술을 뜻하는 아트(art)는 라틴어 아르스(ars)에서 왔는데 이것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능력'을 말하였다. 기술과 예술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다. 이때부터 예술은 '미적(美的)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기술'을 의미하게 되었고, 분야도 문학, 음악, 그림, 건축을 비롯하여 무용, 연극, 사진, 영화 등으로 범위가 넓혀졌다.

조선시대에 음악(音樂)은 제사와 의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였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였던 음악은 아악이라는 궁중음악이었다. 국가에서는 아악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장악원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음악(音樂)을 관리하였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는 '동이'라는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악공(樂工)들도 장악원 소속이었다. 민중들의 삶에서도 음악은 중요한 요소였다. 마을제나 굿을 할 때도, 노동의 수고로움을 덜고 축제를 벌일 때도,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낼 때도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와 춤을 추었다.

판소리는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의 산물이다. 우리가 소설로 알고 있는 춘향전도 처음에는 판소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판소리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유진한(1711~1791)의 '만화집'에 수록된 춘향가 200구다. 유진한 보다 뒤에 살았던 송만재(1769~1847)는 '관우희'라는 시에서 판소리 12바탕을 소개하였고, 18세기 전후에는 소리를 업(業)으로 삼는 전문 소리꾼이 등장하였다. 19세기에는 전기 8명창, 후기 8명창이 등장하여 판소리의 꽃을 피웠고,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는 근대 5명창이라고 부르는 소리꾼들이 일세를 풍미하였다.

옛사람들은 평택지역이 팔불(八不)의 고장이라고 하였다. 산도 없고 인물도 나지 않는 불모의 땅이라는 뜻이다. 필자는 우리고장에 없는 여덟 가지를 모두 알지 못하지만, 산도 적

고, 경작지도 적고, 난사람도 적었다면 문화와 예술도 별 볼일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예술이 없을 수는 없다. 물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양반문화가 시원찮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라는 것이 지배층의 문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역사산책은 평택지역 예인(藝人)들의 자취를 더듬어 가는 여정이다.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서 아니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서보자.

2. 모흥갑의 소리는 10리 밖에서도 들려

필자는 얼마 전 19세기 것으로 알려진 '평양감사 환영연도'라는 그림을 볼 기회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정노식이 쓴 '조선창극사'에 실린 것인데, 버드나무가 둘러선 공터에 갓을 쓴 양반 수 십 명이 빙 둘러있고 북을 치는 고수와 소리꾼이 소리를 하고 있는 그림이었다.

책에는 그림 속의 소리꾼이 경기도 진위 출신으로 판소리 전기 8명창 가운데 한 사람인 모흥갑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모흥갑은 전기 8명창 가운데서도 가왕(歌王)으로 일컬어졌던 송홍록과 비견될 만한 유일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 고동상성이라고 할 만큼 목청이 우렁차고 뛰어나서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에서는 당대에 적수가 없었다고 한다. 모흥갑의 존재를 만천하에 알린 사건은 조선 헌종 때 평양 연광정에서 올린 판소리 한마당이였다. 평양감사의 초청을 받아 무대에 오른 모흥갑은 예의 고동상성으로 춘향가를 불렀는데 소리가 10리 밖까지 들렸을 정도로 장쾌하여 좌중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모흥갑은 태어난 곳은 진위고을이었지만 젊어서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였고 말년에는 전주 귀동에 은거하였다. 헌종 때에는 임금 앞에서 소리를 하여 동지중추부사의 관직을 하사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모동지라고 높여 불렀다. 모흥갑에 관한 일화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귀동에 은거하던 시절 주덕기와 저문 다가정 사건은 지금도 인구에 회자된다. 내용을 들여다본즉 이렇다.

하루는 전주장에서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다가정이라는 정자에 수 천 명이 모여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더니 송홍록과 모흥갑의 고수(鼓手)를 하다가 8명창의 반열에 오른 주덕기가 청중 앞에서 소리를 하고 있었다. 군중들은 주덕기의 소리에 취해 송홍록이나 모흥갑보다 나은 명창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자 칭찬에 도취된 주덕기가 분위기에 들떠 '모흥갑은 많이 부족하고 송홍록도 부족함이 있다'고 교만방자하게 말했다. 이에 결기가 돌은 모흥갑이 단에 올라 엄히 꾸짖으며 춘향가 중 이별가 한 대목을 장쾌하게 뽑은 뒤 한 번 따라해 보라고 하였다. 그러자 놀란 주덕기가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한 뒤 다시는 모흥갑 앞에서는 소리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흥갑은 80세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주덕기와 겨루었던 다가정 터만 남아 있을 뿐 유품과 옛집, 목소리는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을 준다.

3. 국창 이동백과 국악계의 거목 지영희도 평택과 인연

19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대금시나위의 명인이었던 김부억쇠가 있다. 청북면 사람인데 경기도당국의 마지막 선 학습꾼이었던 이용우의 스승이다. 이용우는 김부억쇠에게 풍류한 바탕과 삼현, 시나위를 배웠다. 대금의 명인으로는 김부억쇠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방용현(1868~미상)도 있다. 방용현은 경기도당국 대금시나위의 명인이며 이충동 동령마을 시나위의 창시자다. 고향에서는 무업(巫業)으로 생계를 잇다가 일제강점기 서울로 이거하여 조선음률협회 등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였다. 제자로는 대금연주자 김광식과 송파산대놀이 예능보유자 이충선이 있고, 지영희도 배웠다고 한다. 방돌근(1941~2001)은 방용현의 손자다. 경기도당국 마지막 대금시나위 연주자로 화성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남양제의 대가였다.

호적과 꼭두각시놀음의 명인이었던 송창선(1911~1984)은 서정동 태생이다. 어려서는 마을 두레패에서 농악을 익혔고, 30세에 방태진에게 호적을 배워 이름을 떨쳤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 꼭두각시 예능보유자로 남사당에서는 호적을 붙였다. 하지만 송창선의 행적은 더 이상 알려진 것이 없으며, 해방직후 남운용이 '원육덕 패'를 재결성할 때 참여하였다는 이야기만 전한다.

근대5명창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동백(1866~1950)은 은퇴 후 사망하기까지 10년 동안 평택시 칠원2동에서 살았다. 말년 은거지로 평택을 선택한 것은 늦게 얻은 부인이 양성면 반제리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죽은 뒤에는 이산매산 기슭에 묘도 있었고 10여 년 전까지는 옛집도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유골을 화장한데다 옛집도 팔린 뒤 유류창고로 변해버려서 추억할만한 것들이 남아 있지 않다.

평택농악의 명인 최은창과 이돌전, 김용래도 자랑스러운 예인들이다. 이들은 최은창을 제외하고는 평택출생이 아니지만 우리고장의 자랑거리인 평택농악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려야 할 인물들이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48호 평택민요 예능보유자들인 이민조, 이종구, 박용철은 특별한 존재다. 이들은 평택지역의 농요, 어로요와 장례요(상부소리)의 예능보유자들이다. 들이 넓고, 바다를 가까이 둔 우리고장에서 노동요는 반드시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인데도 그동안 발굴과 보존에 소홀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근대전후의 예인들 중에는 무속인이나 기생출신들이 많았다. 그것은 음(音)과 악(樂)의 연주자들이 사당패, 걸립패, 무속인, 기생들이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포승읍 만호리 지(池)씨 일문도 무업(巫業)으로 큰 계보를 형성하였던 집안이다. 지용득과 부인 김기덕이 무속인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고, 지용득의 동생 지갑득도 일세를 풍미하였다. 지(池)씨 가문의 음악은 지용득의 아들 지영희 때 중앙으로 진출하면서 큰 업적을 남겼다. 일찍이 해금산조와 피리 시나위의 명인으로 악기연주, 소리, 춤 등 모든 분야에 두루 능했던 지영희는 연주자로서뿐 아니라 교육자, 지휘자, 국악의 현대화를 이룩한 인물로 국악사에 길이 빛날 족적을 남겼다.

이처럼 평택지역에서는 근대전후 20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예인(藝人)들이 활동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예인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가치를 알고 계승하지 못한다면 과거 역사의 한 단면으로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바라기는 이들의 행적과 유품이 수집되어 사료관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2010)



[평택농악을 만든 최은창(박성복 사진)]



[평택민요와 농악의 명인 이인조(박성복 사진)]



[경기사나위 동령제의 명인 방동근(박성복 사진)]

국악 현대화의 선각자 지영희 유적

1. 현대 국악계의 거목 지영희

2011년 11월 평택호관광단지에서 개관한 예술공간 '한국 소리티'에서는 '지영희 예술제'가 개최되었다. 올 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예술제는 처음 중앙대학교 국악예술대학을 중심으로 개최되다가, 이제는 평택시와 지영희선생 기념사업회가 힘을 모아 개최하고 있는 국악 축제다. 11월 16일에는 평택문화원과 지영희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제2회 지영희 학술제'가 열린다. 이번 학술제에는 중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기조발표를 하고, 노동은, 박승률, 김은영, 홍태한 등 학계의 내노라하는 학자들이 발제를 맡았다. 예술공간 '한국 소리티'의 주공연장의 이름도 '지영희 홀'이다. 가을이 물러가는 11월 평택지역의 예술계는 온통 지영희 홀릭에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지영희는 누군가? 시민들에게는 아직 낯 설게 느껴지지만, 실상 지영희는 우리나라 현대 국악계의 거목이다. 다재다능한 재주로 해금과 피리 연주자로도 일가를 이뤘지만, 교육자로, 작곡가로, 지휘자로, 춤으로 일세를 풍미했다. 일찍이 현대 국악계의 앞날을 내다보고 민속음악을 채록하여 오선보에 옮겼으며, 악기를 개량하고 후학들을 훈련시켜 국악오케스트라를 만든 것은 그의 선구자적 면모를 엿보게 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였고 중앙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범훈, 사물놀이를 창안한 김덕수, 최종실,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학장을 지낸 최태현, 피리의 명인 최경만,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영재, 박정실, 김광복, 박덕근, 김무경, 홍옥미 등 현대 국악계의 거목들을 길러낸 것도 지영희의 위대한 업적이다.

2. 무속인 집안에서 출생

지영희는 1908년 평택시 내기리에서 지용득과 김기덕 사이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만호리 원터에서 자랐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업(巫業)으로 생계를 이었다. 할머니 전석준도 무당이었고, 어머니 김기덕, 작은어머니와 여동생 지옥희도 세습무였다. 세습무들은 집집마다 축원을 해주고 추수 때에 곡식으로 보상받아 생활하였다. 이들은 직업적으

로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어 농사일을 하거나 다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웠다.

지영희의 본명은 지천만이었지만 고향에서는 지한식으로 불렸고 영희는 아호였다. 그의 집안은 지영희가 11살이 되던 해 만호리 원터로 이사하였다. 만호리는 충청도 내포지방 사람들과 곡물을 실은 상선과 어선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어서 물화가 넉넉했다. 큰돈이 돌고 도는 포구는 무업(巫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생활조건이었다.

지영희는 어려서부터 집안 어른들인 지용구, 지갑성에게 춤, 노래, 악기, 고사소리 등 다양한 장르를 습득하였다. 만호리로 이주한 뒤로는 이석은에게 승무와 검무, 굿거리, 22살 때는 조항련에게 호적을 배웠고, 정태신에게 양금, 지용구에게 해금, 양경원에게 피리를 배웠다. 또 김계선에게는 풍류대금을, 방용현에게 민간풍류대금, 최군선에게 농악, 오덕환에게 무용장고 12채, 박춘재에게 경기서도민요를 배웠다. 지영희의 폭넓은 학습은 이후 민속과 무속을 아우르는 수준 높고 다양한 음악적 경지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

3. 국악을 오선보에 그려

1937년 지영희는 서울로 올라와 한성준의 조선음악연구소에 들어갔다. 일제 말에는 한성준, 최승희 무용단과 함께 국내외 공연을 하며 음악적 안목을 넓혔고, 연주뿐 아니라 춤에도 일가견을 갖게 되었다. 당대 가야금 산조에서 최고의 연주자였던 부인 성금연과의 만남도 지영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예능보유자였던 성금연은 부인이면서 평생 동안 음악적 동지였다.

지영희는 모든 국악분야에 뛰어난 연주자였지만 필생의 악기는 해금과 피리라고 할 수 있다. 태평소나 장구에도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지영희류 해금연주는 무속음악에 뿌리



[지영희가 태어난 포송을 내거리 앞대(2010)]

를 두고 있다. 해금산조에서 장단 사이로 드나드는 가락의 놀음새와 잉어질의 코믹한 연주법은 지영희류 해금연주의 특징이다. 가락구성도 다양하고 섬세하여 무용가들이 매우 좋아하였다. 단순한 선율도 지영희가 연주하면 다양한 가락으로 변주되었다. 또 지영희는 반주악기로만 머물렀던 해금, 피리, 태평소와 같은 악기를 독주악기로 발전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독주를 위해서 지영희류의 해금산조, 피리산조, 시나위를 창안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즉흥성이 강조되는 경기시나위는 지영희를 통해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받는다.

지영희의 생애는 해방 전까지가 연주자의 삶이었다면, 해방 후에는 국악재건과 국악교육, 그리고 국악현대화작업에 생애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 후 국악계의 가장 큰 과제는 무너진 국악재건이었다. 지영희가 한국국악원 설립에 앞장서고, 국악저변확대를 위해 레코드취입과 영화음악에 열심을 내었던 것은 국악재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4. 선구적인 업적을 발굴하고 선양해야

지영희는 해방 이후 국악 현대화의 중심에 있었다. 국악현대화를 위해 민속음악, 무속음악의 채보, 작곡, 교육, 관현악연주를 하였다. 채보한 음악을 편곡하고 창작곡을 작곡하기 위해 김희조, 김동진에게 작곡과 편곡 교육까지 받았다. 지영희는 국악이 살아남을 길은 국악기로도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다양한 서양음악도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국악관현악단이었다. 국악예술학교 교장 박헌봉도 관현악단 조직을 권하였다. 1962년 지영희는 '악성추모제'에 국악예술학교 50여 명의 학생들로 관현악단을 조직하여 초연(初演)하였다. 관현악단이 처음으로 연주한 '청하지곡'은 지영희의 창



[평택소에 준공된 한국 소리터 지영희홀(2012)]

작 관현악곡이었다. 관현악에서 국악기가 낼 수 없는 베이스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국악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후, 비파, 대혜금 같은 다양한 악기들을 개량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1963년에는 국악예술학교 부설 학생국악관현악단을 조직하였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 1965년에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조직되었다. 지영희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대 악장에 취임하였다. 이듬해부터는 상임지휘자로 활동하였다. 한 때 영화음악에도 참여하였다. 주로 신상옥 감독의 사극영화 ‘벙어리 삼룡’, ‘월하의 공동묘지’, ‘장희빈’의 영화음악이었다.

사라져가는 민속음악, 무속음악을 직접 채보하고 구음으로만 전해졌던 국악을 오선지에 그린 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악기 개량뿐 아니라 현대국악을 작곡하여 연주한 것도 그가 최초였다. 지영희가 만약 채보작업과 국악을 오선지에 옮겨 현대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국악의 전승과 교육, 연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1960년에 개교한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는 국악재건과 발전을 위한 국악인들의 오랜 고민의 산물이었다. 지영희는 박현봉, 박귀희, 김소희 등 당대 내노라하는 명인들과 국악예술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악예술학교에서는 예술부장으로 활약했다. 월급도 없이 가난한 학생들을 불러 모아 국악을 가르치는 일은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따랐다. 국악예술학교에서 지영희는 제자들이 중·고등학교에서만 국악을 배울 것이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원도 졸업하여 교수도 되고 전문연주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길러낸 제자들은 오늘날 국악계의 기둥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72년 지영희는 김소희, 성금연, 김윤덕과 함께 미국의 카네기홀에서 공연하였다. 1973년에는 경기시나위로 중요무형문화제 제53호로 지정되었다. 이 때 까지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듬 해 국악계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부인 성금연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을 떠났다. 이민을 가서도 하와이대학의 초청연주회를 갖고 후진양성을 멈추지 않았지만,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1980년에 숨을 거두었다. 향년 73세였다.

포승읍 만호리 원터마을에는 지영희 선생의 옛 집터가 있다. 집터는 논과 황무지로 변하였지만 희곡리, 만호리 일대의 주민들은 아직도 그곳에 살았던 지영희선생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기억과 단편적인 선양만으로는 평택이 낳은 인물로서 현대 국악발전에 선구적 업적을 남긴 선생의 업적과 삶을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생거지에 표석이라도 세우고, 흩어진 유물이라도 수집하고 정리하여 사료관을 세우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한다. (2011)

우리시대의 가객(歌客) 정태춘

1. 그를 낳은 건 절반이 도두리

지난 주 수요일, 필자는 노량진 원불교 서울회관 대강당에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는 '깨어나라 역사여!' 라는 펼침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친일독재의 역사청산과 역사왜곡 저지를 위한 시민역사관건립 콘서트'라고 써있었다. 사회자로 배우 권해효씨가 올라왔고, 무대 위에는 꽃다지, 안치환 같은 가수와 평화의나무합창단 등이 올라와 노래를 불렀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이니만큼 역사학자 이이화, 민족문제 연구소장 임현영, 시인 고은과 같은 명사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도 보냈다.

우리나라 현대사는 역사가 추구해야 할 옳고 그름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역사적 가치관을 파괴한 주범은 분단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친일잔재청산 실패와 독재정치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숨 막히는 독재정치 시절에는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죄인이 되어 벌을 받았다. 심지어 1970년대 민청학력사건 때는 몇몇 젊은이가 사형언도를 받자마자 처형되는 비극도 있었다.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 대학생들은 새로운 사회를 꿈꿨다. 독재를 타도한 뒤 건설해야 할 국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사회적으로 억눌려 살았던 노동자와 농민들이 제 목소리를 갖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권리를 관철시킨 것도 이 때였다.

유신독재 말기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로 '춧불', '시인의 마을'을 부르며 등장한 가수가 있었다. 노래하는 스타일은 밥 딜런을 닮았지만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적인 가수였다. 그의 노래는 대부분 20대 초반 고향집 골방과 들판에서 얻어진 관념적 언어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정태춘은 텔레비전에서 나와 정치집회와 노동자, 농민집회에 나타났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의 현장에서 사회와 호흡하는 새로운 가수를 맞이했다.

2. 변혁의 현장에는 항상 그가 있어

철레의 전설적인 민중가수 빅토르 하라가 있다. 기타 하나만을 들고 변혁의 현장 곳곳을 누비며 노래로 시대를 비판하고, 시대를 바꾸고, 민중들의 아픔을 어루만졌던 가수다. 정

태춘이 그러했다. 텔레비전 화면 밖으로 나온 그의 사상과 행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었다. 고향마을 도두리, 대추리가 미군기지로 수용될 때에는 내노라하는 문화 예술인들을 결집하여 주민들과 함께 고향마을과 들판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정태춘(1954~)은 도두1리가 고향이다. 도두1리는 예로부터 정씨와 박씨들이 많이 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정씨와 박씨들이 힘을 모아 도두리강습소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였다. 도두리강습소는 한국전쟁 때 폭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다가 본정리 꽃동산으로 옮겨 계성초등학교가 되었다. 정태춘은 계성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평택중, 평택고를 다닐 때는 바이올린을 배웠다. 그의 꿈도 음악대학으로 진학하여 음악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방황의 시간을 거치며 대중음악인으로 거듭났다.

방황의 시간에 정태춘은 '시인의 마음', '사랑하고 싶소'를 작곡하였다. 입대하여 인천부근에서 근무하면서는 '서해에서'와 같은 곡을 작곡하였다. 1979년 11월 가요계에 데뷔한 뒤에는 '춧불', '북한강에서', '봉숭아'와 같은 곡으로 대중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돌연 방향을 바꿔 사회운동, 노동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1991년에는 공연윤리위원회 사전심의폐지운동을 전개하며 '아 대한민국', '92년 장마, 종로에서'와 같은 비합법음반을 냈다. 199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가요사전심의 위원' 결정을 얻어낸 것은 오로지 그의 노력이었다.

정태춘의 음악의 고향은 평택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향마을 도두리와 도두리벌, 황새울벌, 도장산과 돈두암, 선말고개, 아리랑고개가 음악의 거처다. 아버지의 죽음을 노래로 만든 '예고 도술천아', 미군기지확장 반대투쟁에서 즐겨 불렀던 '들 가운데 서서' 등에는 고향마을과 들판이 등장한다. '노독일처'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시집에도 고향마을과 그곳에서의 경험은 시(詩)의 중심 되는 주제다.

3. 정태춘은 평택의 문화유산이다

그러면 정태춘의 노래를 한 번 들어보자. 1981년에 작곡한 '애기2'라는 노래에는 어린시절의 삶과 젊은 날의 방황 그리고 가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

저 들판에 뛰놀던 어린 시절
생각도 없이 나는 지렸네
봄, 여름, 갈, 겨울 꿈도 없이 크며
어린 마음뿐으로 나는 보았네
도두리 몸 들판 사나운 흠바람
문둥이 숨어있는 학교길 보리밭

둔모장 취히는 옥수수 막걸리
밤 깊은 노성리 성황당 둘 무덤
달 밝은 추석날 일큰한 농악대
곳은 밤 동구 밖 도깨비 씨름터
배고픈 겨울 밤 뒷동네 굶거리
추위에 갈라진 어머니 손전등...(중략)

춘향전에 평택의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삼남대로를 '춘향이 길'로 고쳐 불렀던 민중들은 정태춘의 노래에 나오는 '도두리별', '둔포장', '노성리 성황당'이라는 지명이 반가웠을 것이다. 정태춘의 고향노래는 이것뿐이 아니다. 1984년에 작곡한 '고향집 가세', 아버지의 죽음을 노래로 승화시킨 '애고, 도솔천야'와 '사망부가', 또 다른 고향노래 '장서방네 노을' 그리고 앞서 말했던 '들 가운데서'도 고향을 배경으로 작곡되었다. 그러면 '애고, 도솔천야'의 한 대목을 들어보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선말 고개 넘어 간다
자갈길에 비틀대며 간다

도두리 별 뿌리치고
만대 찾아 나는 간다
정든 고향 다시 또 보라..(중략)

선말산의 소나무들
나팔소리에 깨기 전에
아리랑 고개만 넘어가지(중략)

정태춘, 애고, 도솔천야

노래에서 등장하는 '선말고개'는 도두리에서 말랭이를 거처 함정1리 선말산을 넘어가는 고개다. 도두리별은 도두리와 대추리 마을 앞으로 펼쳐진 널따란 들판이며, 아리랑고개는 선말산에서 본정2리로 넘어가는 낮고 긴 고개다. 그의 아버지는 도두리 고향집에서 돌아가셔서 선말고개와 아리랑고개를 넘어 신대2리 돌산(망해산)에 묻혔다.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 때 '들사람들'을 조직하여 함께 활동하였던 시인 서수찬은 정태춘과 부인이며 가수인 박은옥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신들은 강물입니다
조용하지만
끓임없이 흐르는 강물입니다
저 지평선 끝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서있는 들꽃조차도
당신들의 노래가
가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먼 타향 땅에서
(떠나가는 배)를 부를 때에도
제일 먼저 귀를 여는 것은
저 대추리 도두리 들풀이며 곡식이며 농기구며
어머니 아버지들의 굳은
살들입니다(중략)

서수찬, 대추리 도두리 만안보2

정태춘은 평택의 문화유산이다. 유력한 독립운동가 안재홍, 이회영만큼 정태춘의 삶도 위대하다. 필자는 정태춘의 고향마을 입구 도장산에 '노래비'를 건립하고 싶다. 남의 손에 넘어간 뒤 폐허로 변해가는 고향집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시와 노래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음악학교도 건립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세월이 흐르면 정태춘의 삶의 가치가 더욱 드러날 것이고, 우리는 그가 평택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기에.(2011)

그녀, 황필순

1. 첫째마당

도두리벌 너머로 태양이 식어가는 저녁

그녀는 물끄러미 너른 들판을 바라보고 있다

철조망으로 둘러친 들판은 잡풀이 무성하다

올 봄.

경찰의 저지를 뚫고 직파를 감행했을 때만 해도

그녀가 기다렸던 가을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추수를 하는 아들의 뒤를 따라

트랙터 뒤에 쌓이는 벧가마를 가슴 벽차게 바라보는 꿈이 있었다

도회지로 나가 사는 큰 아들네를 위해 길가에 누런 벼를 말리는 수고도 각오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다

3년 넘게 저 들판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세월이 야속하다

고향 땅 지키며 살겠다는 소박한 꿈이

아들을 철창 안에 가둘 줄은 꿈에도 몰랐다

칠십 넘은 노인네의 소망조차 짓밟아버리는 이놈의 나라가 밍다

그래서 돌아서면 욱지거리가 나온다

‘지랄할 놈덜!’

남편은 몸져누웠다

밤새 몸을 뒤척이며 끙끙 앓는다

흰한 인물에 강건하기만 했던 그이가 도두리벌과 함께 죽어가고 있다

자식새끼들 굶기지 않을 욕심에

손이 부르도록 개간했던 흑무개들과 함께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갯벌에 작대기를 꽂아 놓고 주인행세를 하던 놈들과 주먹이 뭉개지도록 싸웠던 들판



[황필순씨(2006)]

그 들판에 긴 구덩이가 파지고 철조망이 드리워질 때부터 남편은 죽어갔는지도 모른다
 내 고향 내 땅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는 아들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질 때부터
 혼백은 벌써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수 백 년 동안 살갑게 부비며 지냈던 이웃들이 떠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땅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우신 땅
 날선 도끼로 찍어도 쉬 넘어갈 것 같지 않던 고향의 산하가 몽개질 때부터 남편은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다

세상이 원망스럽다
 남편을 잡아먹는 세상
 생살 같은 아들을 가뒤퍼린 원수 같은 세상
 그래서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막아내고 싶다

2. 들째마당

나이 열여덟에 시집을 왔다
 그의 친정은 충남 성환
 지금에야 자동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지만
 걸어서 다녔던 옛날에는 한나절 넘게 걸렸던 먼 길이었다

그래서 울었다
동구 밖 길모퉁이에서 어머니 손을 놓으며 하염없이 울었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고향마을
단오에 그네 뛰었던 동구밖 느티나무
피붙이 같은 고향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

낮선 시댁에서
의지할 건 남편밖에 없었다
남편은 흰원장부에 마음씨도 고왔다
진한 눈썹
사슴 같이 맑은 눈
인자한 웃음
끼니 굶을 일 없을 만큼 요족한 시댁의 형편
천주님처럼 인자했던 시어른들까지
남편의 곁에 눕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신혼시절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날벼락이 떨어졌다
좌우익의 갈등도 잠잠해진 한국전쟁 막바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친다'
아, 그것은 진정 날벼락이었다
포실하기가 평택고을 으뜸이었던 삼태기 마을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었다
미군기지 때문이란단
미군 때문에 고향도, 논밭도, 행복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생전 보지 못했던 중장비를 끌고 와서 나가라고 올리대는 미군들
처음에 담장을 부수고
외딴 변소를 허물더니
나중에는 헛간 쪽 벽을 허물어버렸다

도두리벌 너머로 강풍이 불어대는 10월 말
 살라 살라,
 담장 너머에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이 오갈 때마다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을 붙잡고 몸서리쳤다
 무서리 내리던 가을아침에는 그녀의 집도 헐렸다
 사람 좋은 방서방네 집도 헐렸고 온후한 이씨 어른댁도 무너져 내렸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곤지나루에 새 등지를 마련하였다.
 배가 들어왔던 옛 나루터,
 대추리에 비하면 황무지에 가까웠지만
 고향에서 유배된 유민들을 맞이해준 곳은 곤지나루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벼 베기에 지친 몸으로 집을 지었다
 남편이 주춧돌을 들어 옮기면 그녀는 기둥을 뽑아 머리에 이고
 휘이휘이 찬바람 부는 고갯마루를 넘고 또 넘었다.
 하지만
 모든 걸 옮겼어도 마음만은 어찌할 수 없었다
 정붙이기에는 너무 짧은
 2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정 떼고 떠나는 일은 심장이 갈히는 아픔이었다
 룯의 아내처럼
 자꾸만 뒤돌아보는 그녀를
 남편은 투명스레 구박하였다
 하지만 사해바다의 소금기둥이 되더라도
 동네 어귀의 돌장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날을

3. 셋째마당

쫓겨나는 대추리 주민들에게
 정부가 내민 보상은 목재 두 짐과 보리쌀 1가마,
 어디 가서 움막이라도 짓고 살아보라는 처사에

빨갱이를 몰아내준 고마운 미군에게 마을을 내주었으니
 우리에게 더없는 영광이라는 구장의 말에다 팔자소관이라는 시어머니의 한숨에
 가슴에선 열불이 났지만
 전쟁 통에 저항은 죽음이었다
 미군에게 덤비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짓이겨진 이빨 사이에 핏물이 배었어도
 앙다물고 참아야만 했다
 그렇게 오십 오년을 살았다
 봄이면 봄이사는
 가을이면 안기원들과 흑무개들
 소금기 버글버글했던 황새울벌
 고운 손 쇠갈퀴가 되도록 일을 했다
 내 땅, 내 자식들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며
 한평생을 살아냈다

그런데 또 다시 떠나라고 한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려 한다
 그것은 다시 질리면 환장할 것 같은 가슴팍에
 날선 비수를 박는 일
 그래서 환장(換腸)했다
 환장해서 덤비는 어미 대신에 아들은 마이크를 들고 앉았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과 함께 촛불을 켜다
 감옥에 끌려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촛불을 켜고 또 켜다

우라질
 썩을 놈의 세상(2007)

※ 황필순 : 대추리 전 이장 김지태씨의 어머니

삼팔따라지의 삶과 회한

1. 나 삼팔따라지요!

정씨(73)는 삼팔따라지다. 고향은 황해도 벽성군 운산면 관동리 여우내다. 그의 가족은 여우내에서 요족하게 살았다. 하지만 분단과 전쟁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가족들은 1.4후퇴 때 황해도 웅진으로 피난하였다. 아버지는 웅진까지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자 만삭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남겨둔 채 정씨만 데리고 월남하였다.

월남 피난민의 생활은 생존과의 사투였다. 나중에는 미군부대를 따라 전선을 옮겨 다니며 부역을 하였다. 부대를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중 아버지와도 헤어졌다. 16세 어린나이에 홀홀단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다가 평택까지 내려왔다. 평택으로 내려와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연명하였다. 서너 해 머슴을 살면서 남의 호적을 빌려도 민중도 발급받았다. 남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면서 황해도 사람 구화가 태호로 바뀌었다.

1951년 송탄면 신장리 일대에 K-55미군기지가 주둔하였다. 기지가 주둔하기 전 신장리는 남산과 숲고개를 중심으로 구장터, 나무내, 제역동, 남산터 같은 자그마한 마을이 흩어져 있었다. 이듬 해 기지공사가 골격을 갖춰가면서 부대 정문과 후문 주변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기지촌은 미군을 상대로 술을 파는 술집과 양색시집, 판잣집이 대부분이었다.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인구도 급증하였다.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지식인도 있었지만 피난민이나 빈농들이 많았다. 이들은 제역동(지골)이나 사거리 부근에 거주하며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나무판자와 박스로 벽과 지붕을 얹고 루핑을 칠하여 판잣집(하교방)을 지었다. 인구가 많다보니 판잣집 작은 방을 미군기지에 다니는 사람들, 양색시, 상가에서 일하는 점원들에게 세를 주기도 하였다. 쥐구멍 같은 작은 집에 다양한 군상들이 모여 살면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

2. 하우스보이, 사진사 그리고 양색시

머슴 생활은 희망이 없었다. 삼팔따라지라고 홀대도 받았고, 세경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큰 돈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54년 겨울, 나무를 팔기위해 서정리장에 갔다가 신장동

에 미군기지가 주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들은 미군기지 주변에는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였다. 눈이 번쩍 뜨였다. 수소문하여 미군기지에 다니는 이웃마을 사람에게 취직을 부탁하였다. 그래서 취직한 곳이 미군 공병대대 식당의 접시담이었다. 당시 미군부대에 드나들려면 노무처에서 일자리를 구한 뒤 부대 내 경비과에서 패스를 발급받아야 했다. 패스가 있는 사람들은 퇴근시간을 이용하여 미제물건을 빼돌렸다. 빼돌린 물건은 기지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장사꾼들은 미군과 경찰의 눈을 피해 일반인에게 팔았다. 이것이 일하고 받는 급료보다 수입이 많았다.

미군부대생활은 9개월 만에 끝났다. 버터깡통을 쓰레기부대에 담아 빼돌리다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부대에서 나와 사진관 조수로 들어갔다. 제역동에 있었던 사진관도 박스를 퍼서 지은 하꼬방이었다. 하꼬방 주위에는 전쟁피난민, 양색시, 고아들과 술집, 상가들의 뒤섞여 있었다. 도로포장도 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이 되었고, 밤이 되면 왓지컬 떠드는 소리, 악다구니 쓰는 소리, 싸우는 소리, 도둑을 쫓아가는 경비원의 총소리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종종 화재도 발생하였다. 나무와 종이로 지은 판잣집은 화재가 나면 건잡을 수 없었다. 식수와 화장실도 부족하였고, 사람들이 기거할 방도 부족하였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고 부족하였지만 기지촌에는 달리가 넘쳐났다.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들은 줄지 않았다.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에서처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지촌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엘도라도였다.

3. 뗏목으로 조성된 황해도촌

1960, 70년대 기지촌이 번창하면서 신장리의 규모는 확대되었다. 행정구역도 1리와 2리로 나뉘었고, 기존의 사거리와 황해도촌(신흥마을, 현 서정동 관할) 외에도 밀월동, 송월동, 북창동(서정동 관할) 같은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다. 정문 앞에는 미군클럽과 상가가 형성되었으며 그 아래로는 중앙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형성되었다. 예전부터 있었던 신장 1동의 구장터, 나무내, 남산터는 여전히 농촌마을이었지만 초기 기지촌이 밀집되었던 제역동은 환락가로 변했다. 사거리에도 한국인 노무자들과 미군을 상대로 술집과 양색시집, 옷가게, 잡화점이 자리 잡았다. 옷가게와 잡화점에는 국산보다도 미제물건이 더 많았다. 황해도촌에는 황해도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다. 이들은 1.4후퇴 때 전북 군산지역에 집단 수용되었다가 송탄에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다시 이주한 사람들이었다.

북창동은 기지촌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다. 북창동이라는 지명도 미군기지에서 쓰레기수거나 세탁일 같은 허드렛일을 맡았던 용역회사가 북창공사라고 해서 유래되었다. 북창공사에 다녔던 사람들은 보수도 적고 가난했다. 필자가 평택지역으로



[서정동 황해도촌(신창) 골목(2008)]

내려왔던 1989년만 해도 흡사 서울의 달동네를 연상시키는 풍경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황해도촌 노인회장 김광상(2008, 78)씨도 황해도 피난민이다. 그는 1.4후퇴 때 황해도 앞 초도라는 섬으로 피난을 갔다가 고향을 탈환하겠다는 일념으로 백령도 의용대에 입대하였다. 나중에 의용대원들 중 일부가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그도 귀신 잡는 해병이 되어 전쟁터를 누볐다. 그렇게 6년을 복무하고도 다행히 목숨을 건져 송탄으로 들어왔다. 황해도촌에는 백령도에서 헤어진 가족들이 군산피난민수용소로 갔다가 다시 옮겨와 살고 있었다. 1950년대 후반 황해도촌 사람들은 야산에 땅굴을 파고 나뭇가지로 지붕을 올린 뒤 흙을 덮은 뗏목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점차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종이박스로 지붕과 벽을 만들었고 지붕에 루핑을 칠한 판잣집을 만들었다.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미군기지에 노무자로 취직하였다. 하지만 남자들의 수입만으로는 생계가 힘들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부업전선에 나섰다. 여자들은 하우스보이들이 가져온 미군들 빨래를 해주는 것으로 부업을 하였다.

김광상씨는 1960년이 되어서야 일자리를 얻었다. 처음에는 미군들 심부름을 하는 하우스보이를 하다가 나중에 노무직으로 옮겨갔고 말년에야 보급창고에서 일하는 행운을 누렸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벽돌과 슬레이트로 지은 집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성과다. 1990년대에는 콘크리트 슬라브집을 지었다. 그렇게 새로 집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신없이 달렸더니 허망하게도 한평생이 훌쩍 지나버렸다. 격동의 세월이 짧은 인생 더욱 짧게 만들어버렸다.

4. 호황의 뒤 끝에 선 불확실한 미래

신장동 기지촌의 최고 호황기는 1960, 70년대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사정이 좋지 못했고 그만큼 미군들이 흘린 달러의 위력이 강했던 시기였다. 장길수의 영화 '은마는 오지 않는다'에서처럼 미군기지 주변에는 달러를 향해 부나비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신장동 기지촌이 먹고 놀고 쇼핑하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면서 오키나와와 필리핀에 주둔하였던 미군들까지도 전세기를 타고 몰려들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해외주둔 미군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편이 있었다. 전세계 항공기는 K-55기지에서 이착륙을 하였기 때문에 주말이면 신장동 일대에는 기지 내의 미군들과 해외 미군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기지촌 상권의 활황기에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황해도와 평안도 피난민들이었다. 이들은 부대 정문과 후문일대의 상권을 장악하고 부를 축적하였다. 더 이상 물려설 곳 없는 절박한 상황도 그들의 성공요인이었다. 미군기지에서 쫓겨나와 사진관을 열었던 정씨도 기지촌의 호황기에 부와 명예를 얻었다. 사진관은 나중에 복욕탕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1970, 80년대를 거치면서 관광호텔이 되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10년 만에 헤어졌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행운도 누렸다.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황해도도민회장, 의용소방대장을 지냈으며 1990년대에는 경기도의원에도 당선되었다.

근래 기지촌 상황은 예전만 못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달러와 미제물건의 위력이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감축되고 김대중 정부 때 무료항공편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9.11테러로 미군들이 외출제한을 받은 것도 타격이 컸다. 10여 년 전부터는 정문 앞에 쇼핑몰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해 노력하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계획을 타고 재개발 바람까지 불고 있다.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신장동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두고 볼 일이다.(2009)

■ 참고문헌

-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위현, 평택현, 양성현 수원부, 직산현편
 「대동지지」
 「호구총수」
 「연려실기술」
 「진위현읍지」, 1848, 1891, 1899
 「평택군읍지」, 1899
 「평성지」
 「양성군지」, 1899
 「조선왕조실록」
 「문과방목」, 「무과방목」, 「사마방목」
 「전라좌수사이공신도비명(全羅左水使李公祚道碑銘)」, 남구만, 1699
 「조선지리지」, 경기편, 1912
 「신구대조 조선전도부군면리도명칭일람」, 1917
 기호총학회 월보, 「기호학교 임원 및 교사명부」, 기호총학회 편, 1908
 경기도, 「경기도세일반」, 종로도서관, 1930
 경기도, 「진위군 군세일반」, 종로도서관, 1930
 김성호, 「농지개혁시 피분배지구 및 일제하 대지구 명부」, 농지개혁시편찬자료, 1985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매일신문〉
 「조선총독부관보」
- 최정필, 「평택 지체동 청동기시대 취락지유적에 관한 소고」, 한중고고학연구 6권 한국선시고고학회, 1999
 이정숙, 「이산민 연안 포구취락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과 석사논문, 2000
 허영란, 「일제시기 시장정책과 재래시장상업의 변화」, 「한국사론」, 31, 1994
 「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역사문제연구」 제2호, 1997
 유승렬, 「한말·일제강점기의 시장정책과 시장변동」, 「한국사연구」, 1995
 조승연, 「일제하 식민지형 소도시의 형성과 도시공간의 변화」, 「민속학연구」 7호, 국립민속박물관, 2000
 조남석, 「경기도 평택군 평성읍의 땅이름 연구」, 건국대학교교육대학원, 1987
 동북아역사재단·경기문화재단, 「경기도 근현대 전쟁관련 기억·기념과 동북아평화학술회의 자료집」, 2010
 이석길, 「평택군 평성읍의 기지촌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85
 황유창, 「안성천 하구의 중적지 형성연구」, 지리학논총 제6호, 서울대 지리학과, 1979
 손동인, 「평택군 현덕면의 전래동화- 특히 그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인천교대 논문집 16, 1982
 홍태한, 「평택지역의 무속연구」, 국제어문 17, 1996
 「평택군지」(1984), 「송탄시사」(1993), 「평택시사」(2001)
 「진위면지」(1999), 「고덕면지」(2007), 「평성읍지」(2010), 「안중읍지」(2011)
 「평택민속지」 상(2009), 하(2010)
 「진위향교지」(2007), 「평택향교지」(1985)
 송탄시향토사연구소, 「송탄시의 민속과 설화」, 1993
 평택시·경기도박물관, 「평택관방유적 1, 2」, 1999
 경기도박물관, 「평택의 역사와 문화유적」, 평택시, 1999
 최춘일, 「경기만의 갯벌」, 경기문화재단, 2001
 김해규, 「평택의 마을과 지명이야기 1, 2, 3」, 평택문화원, 2008
 김해규, 「평택의 역사 인물 문화」, 경기문화재단, 2007
 김해규, 「충렬공 이대원」, 평택문화원, 201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6
 이명규, 「서울, 경기지역 지명 및 방언」, 한국문화사, 2000
 경기문화재단, 「일제하 경기도지역 민족문화운동」, 기전문화예술총서 9, 2001

지 은 이 김해규
펴 낸 이 평택시민신문 대표 김기수
펴 낸 곳 평택시민신문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913-14
전 화 031-657-0550
팩 시 밀 리 031-657-0551
기획·인쇄 (주)이다
주 간 심재호
편집/디자인 김은영 / 홍소현

2013 평택일보사

값 15,000원

ISBN 978-89-957557-4-7

저작권자 김해규(2013)



평택 역사산책

책을 펴내며 몇몇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먼저 평택시민신문, 평택자치신문, 경인일보, 굿모닝병원 등 필자의 출고를 실어주고 널리 알려준 매체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책을 출판하면서 경기문화재단의 강진갑선생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빛을 줬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필자의 원고는 아직까지 컴퓨터 안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 이은아, 그리고 은채와 진현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가족은 필자의 든든한 활동기반이며 살아 있는 이유다. 연구자의 올바른 자세와 지역사 연구의 방향을 계단계 하셨던 고(故) 정승모선생님과, 평택시민신문에 함께 연재하였던 장연환, 김철경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선명한 바른 연구자세로 더 나은 성과들을 만들어 독자들과 함께 나눌 것을 약속드린다.

2013 김해규

